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296-01

2022. 12.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 방안 마련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 방안 마련」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상 호 (연구 위원)

연구참여자: 이 계 임 (선임 연구 위원)

이 용 선 (명예선임연구위원)

김 창 호 (전문 연구 원)

김 정 환 (연구 원)

이 욱 직 (연구 원)

이 희 성 (연구 원)

- 본 연구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식품산업진흥 추진계획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및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분야별 주제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기초통계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를 통해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국 식품산업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음. 또한, 타 기본계획 검토, 정책 담당자들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식품제조업체 조사 등을 통해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였음.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식품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함.

□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 식품제조업, 외식업, 유통업을 포함한 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 239.8조 원에서 2015년 463.6조 원, 2020년 569.9조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부문별로는 식품 유통업이 12.0%로 가장 높아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연평균 6.5% 수준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함.
 -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788,334개 사에서 2020년 970,732개 사로 연평균 2.1% 증가함. 동 기간 협의의 식품산업(음식료품 제조업+외식업) 사업체 수의 비중은 81.3%에서 81.6%로 소폭 증가하였음.
 -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2,272,027명에서 2015년 2,765,448명, 2020년 3,079,034명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하고 있음.
 - 식품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학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자 수와 졸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

- 국내 농식품 수출 및 수출액은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함.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2021년 85.5억 달러임.
 - 수출 품목은 확대 추세지만, 가공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최근 7년간 수출 상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이며, 떠오르는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순위가 내려감.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Fris에 따르면, 연도별 R&D 투자금액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대비 투자 금액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80.9% 수준임.
 - 연구기관별로 R&D 과제의 건수를 비교하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로 공공 R&D를 수행하고 있음.

- 민간 R&D는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식품기업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공개 자료의 부족으로 통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2020년 기준 식품기업 중 독자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36.3%로 전체 기업의 독자수행 R&D 활동 비중인 39.3%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추진된 푸드테크 관련 R&D는 총 108 건으로, 가정간편식 관련 연구 27건, 기능성식품 관련 연구 44건, 고령친화식품 관련 연구 14건 식품포장 관련 14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 9건임.
 -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등 R&D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차, 2차,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지향점으로 삼아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

등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됨.
- 2022년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은 10개소로, 청년식품창업센터 및 기능성원료은행이 준공 예정으로 향후 12개 기업지원시설이 구축될 예정임.

- 식품산업 관련 빅데이터는 유통, 소비트렌드, 기업 재무/비용, 수출입, 웹스크레이핑 자료 등이 있음.
 - 유통 분야에서는 유통 가격 데이터, 소매 가격 데이터, 스캐너 데이터(POS, CPS), 신용카드 데이터 등이 있음.
 - 소비트렌드와 관련하여서는 검색어 순위 및 클릭 수 트렌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데이터, SNS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재무 관련 자료는 KED, NICE 등에서 수집하고, 수출입 자료는 US COMTRADE 및 무역협회에서 수집·제공하며, HIS Markit 등 민간 기업은 수출입 관련 통찰을 제공하나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음.

- 식품산업 관련 통계로는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국민계정, 전국사업체조사,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소비행태조사 등 약 30여 개의 통계가 매월 또는 매년 공표되고 있음.

- 식품산업의 당면 문제점은 성장의 정체, 인력확보의 어려움, 농업과의 연계 부족, R&D 및 정보기반 조성 미흡, 농식품 수출 시장의 한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낮은 가동률, 식품 기업의 ESG 대응 부족 등이 있음.
 - 전통식품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한류의 확산 속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 역량이 높은 산업이므로 검역 대응, 홍보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전통주산업은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R&D 투자가 필요함.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규모의 양극화, 가격 안정화, 수출 확대, 제조단계자동화율 제고 등의 선결과제가 있음.

- 국내 한식 진흥을 위해서는 젊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식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한식 진흥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함.
- 간편식품산업과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유망식품의 한 분야로 R&D, 신성장산업화와 관련된 투자가 3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추진되었고,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 식품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수 시장의 포화도를 고려하여 간편식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특수용도식품은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을 비롯한 특수용도 식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이르는 산업화 지원이 필요함.
- 대체식품의 경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기술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 현재까지 수립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공통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으로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식품 R&D·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 안전 등이 있음.
- 제1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안전 세부과제가 포함되고, 한식 세계화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출산업이 강조된 특징이 있음.
-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력교육, 정보 강화 등의 세부과제가 추가되었으며,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과 농공상 융합형기업 육성 등이 강조됨. 또한 기능성 식품과 연관산업 활성화가 명시되고, 식품 안전 중심에서 식생활교육과 인증제도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정책 분야로 확대됨.

-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과 4차산업 대응 등 선제적 육성이 강조되고, 균형성장을 키워드로하는 중소/영세기업 성장 지원 정책이 새롭게 포함됨.
- 농식품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농식품부는 2015년 8천 4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식품산업에 투입하였으나, 2019년 6천 9백억 원 규모까지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2020년부터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투자의 본격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및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됨.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는 식품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며, 외식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식진흥법 등이 개별 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립되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산업 정책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식품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미국은 「농무부 2022-2026 전략계획」을, 유럽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을 통해 미래지향적 식품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산업의 영역으로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4차 식품산업 진흥정책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산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 대응, ESG 요구에 대한 대응, 건강한 식품생산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발판으로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및 교역 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효과에 의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은 전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즉,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쌀 이외의 작물의 자급률이 낮아 당장의 자급률 상승을 꾀하기는 힘들 실정이며, 결국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 확대. 위기대비 비축량 및 유보금의 적절한 확보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내수 식품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일본은 수요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고(高)부가가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함. 또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식품산업의 해외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지를 구축하고, 품목별 당면과제에 따라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우리나라 또한 최근 들어 급변하는 시장 변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K-food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방향성과 정책 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 더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평가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목표로 하였던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차츰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 특히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에 계획하였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식품산업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업의 종사자 수가 12.4% 감소하였음.
 - 식품제조업의 경우 이미 목표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목표 대비 10% 이상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2020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가 2021년 4분기의 70.34보다 2022년 2분기 85.56으로 15.22%p 증가하였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외식업 종사자 수 23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식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국산 농산물의 양은 2020년 약 592만 톤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690만 톤의 85.8% 수준임. 가격경쟁력으로 수입 원료 사용이 높은 편이지만, 국산 원료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36%를 추가하여도 약 634만 톤으로 목표 대비 91.7%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유망분야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활력대책」(2019.12)을 수립하여 5대 유망 식품 분야에 대해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 측면이 높게 평가되나,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

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논의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인프라 강화 관련 예산이 계획 후기에 집중 투입되어 성과를 효율적으로 거두지 못함.

-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은 3차 진흥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정책과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소비촉진 지원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및 성장 지원 규모는 미흡한 수준임.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전통식품 육성, 한식 진흥을 통해 국내산 원료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1차 진흥계획부터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생산자 조직화와 가공용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한 계약재배는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계약 유지와 물량 조달 한계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단, 중소식품기업이 국산 원료를 구입 시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도입과 외식업체 대상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는 소비자의 농식품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식품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와 식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목표가 일관되지 않음. 소비자의 소통·협력 기반 조성,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의 두 분야에서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목표 달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 세계 식품산업 전망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시 식료품 시장이 약 4.2조 달러(전년 대비 4.25% 성장), 음료시장이 약 2.7조 달러(전년 대비 8.92% 감소)를 접하여 전체 규모가 약 7.7조 달러 수

준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59%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식품 시장(2020~24년)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하여 2024년에 약 9.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식료품 시장 규모는 5조 달러에 근접하며, 음료시장은 약 3.3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ESG 공시와 활동을 강조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의 ESG 요구가 심화될 전망이다.
- 미국은 기후 위기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건강식품과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관련된 품목이 유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품이자 식품 폐기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과 업사이클(up-cycle) 식품이 유행하는 등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식품시장이 재편되고 있음.
- 유럽은 코로나19 이후 맞춤형 영양, 맞춤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편의성과 기술 중심의 대체 단백질 등의 식품생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속가능성과 폐기물 감소 노력은 유럽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맛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2022년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큰 이슈로 지목되었고, 재생 농업, 대체 단백질 및 친환경적인 라벨링과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요 식품산업 이슈로 떠오름.
-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레스토랑의 맛을 낼 수 있고 외식 대비 저렴한 고품질 가정간편식과 건강 및 식이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기능성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음. 또한, 무알콜 맥주를 중심으로 등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일본의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11억 4,000만 달러 규모로, 2023년 13억 4,000만 달러로 1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로 간편식품 및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하였고, 외식에 대한 제약에 따라 고급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을 위주로 성장하고 있음. 동시에 인스턴트 면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 밀키트 배달 시장은 2020년 166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2027년 499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스턴트 면 제품 매출액은 ('21) 145.5억 달러에서 ('25) 166.6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 소비 트렌드는 자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중국 내 방역 관련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식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강 관심도 증대 등으로 발효음료 등 기능성 음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맛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서 음식 성분을 고려하는 소비로 변화가 관찰됨. 이에 따라 저당 및 저탄수화물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커피 및 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aT, 아세안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국내 식품산업 전망

- 식품시장 총 수요의 관점에서 김상효 외 (2020)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식품 총수요가 감소하는 식품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1인 가구 비중도 2020년 30.3%에서 2025년 3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중립적인 식품 절벽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0년 100% 대비 2060년 국민들의 칼로리 총 섭취량은 약 81.5%, 2065년에는 76.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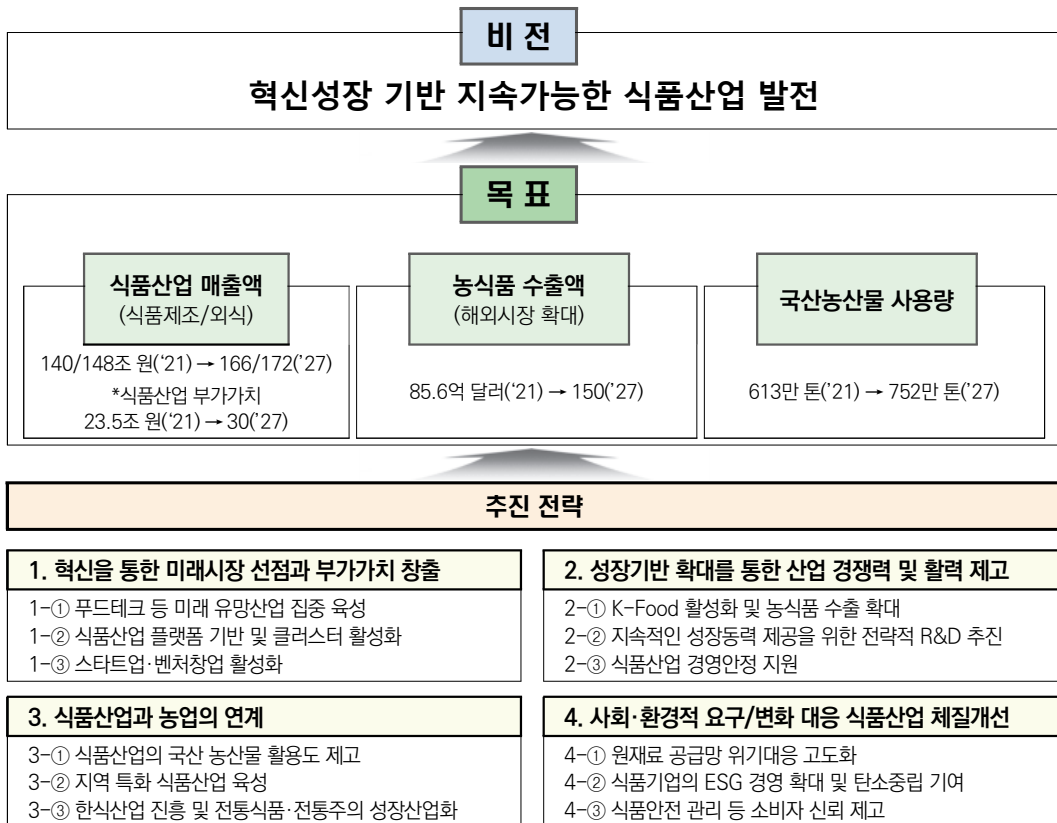
- 노동력 수급의 측면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합계 출산률의 저하, 총 인구 증가 폭의 감소, 사회의 고령화가 전망됨.
- 식품 분야 수출기업은 K-Food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수 위주의 영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자사업 등 자본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식품 분야에 도입되는 ESG 경영은 투자를 통한 자본 확보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 푸드테크는 식품제조, 외식, 유통, 소비, 관련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산업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푸드테크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25년 3,6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도 약 9.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식물기반 대체식품 산업의 경우 추정 기관에 따라 9.0~18.6%의 연평균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배양육 시장은 2026년까지 7.2%, 2032년까지 15.7%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국가 차원에서는 대체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량 부족 문제 해결과 식량안보 강화, 식물기반 대체육 및 배양육 등 대체식품의 공급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 가축사육 두수 감소 및 음식물쓰레기의 과학적 처리 등을 통해 저탄소 및 탄소 중립 국가 발전전략에 기여, 푸드테크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 견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맞춤형 정보 기반 경영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경영자 및 식품산업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반 마련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 한류 문화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수출액, 수출품목, 수출 대상국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식품소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가정간편식, 기능성식품 소비 확대 등 나를 위한, 나에게 맞춘 소비를 추구하는 ‘미코노미 트렌드’가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과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 제4차 진흥계획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3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제2장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 1. 국내 식품산업 현황 47
- 2. 식품산업 주요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 109
- 3. 식품산업의 당면 문제점 155

제3장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 1. 국내 식품산업 정책 동향 165
- 2. 국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 177
- 3.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의 시사점 194

제4장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평가

- 1.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달성 평가 197
- 2. 세부 사업별 평가 206

제5장 식품산업 전망과 4차 진흥정책 전략도출

-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식품산업 전망 241
- 2.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응 전략 도출(SWOT 분석) 273

제6장 제4차 진흥계획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1.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기본 방향 287
2.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안)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299

부록

1. 전문가조사 설문지 365
2. 식품산업 업종별 사업체의 지난 5년간 식품산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정책 수요 .. 374

참고문헌 383

제1장 서론

〈표 1-1〉 개정 식품산업진흥법(2022.01.01. 시행) 제4조 기본계획 관련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5

〈표 1-2〉 선행연구 키워드 정리 7

제2장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표 2-1〉 식품산업 매출액 48

〈표 2-2〉 식품산업 영업이익 추이 55

〈표 2-3〉 식품산업 기업체 규모별 수익성 지표 추이 56

〈표 2-4〉 식품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57

〈표 2-5〉 식품산업 사업체 수 60

〈표 2-6〉 식품산업 사업체 수 연평균 성장률(2008~2020) 62

〈표 2-7〉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2016~2019) 63

〈표 2-8〉 식품산업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64

〈표 2-9〉 연도별 식품산업 분야별 인허가, 폐업, 순증가 업체 수 및 연평균증감률 65

〈표 2-10〉 식품산업 종사자 수 추이 66

〈표 2-11〉 식품산업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감률(2008~2020) 67

〈표 2-12〉 식품산업 영업비용 구성 요소별 추이 및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71

〈표 2-13〉 식품산업 국산 원료 사용량 추이 72

〈표 2-14〉 식품제조업 원물 사용량(30위) 및 해당 품목의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
(2016~2018) 74

〈표 2-15〉 식품제조업 원물 사용량(30위) 및 해당 품목의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
(2019~2020) 75

〈표 2-16〉 연도별 농림수산물 수출 상위 20개 품목 77

〈표 2-17〉 연도별 수출 상위 5개 국가 78

〈표 2-18〉 북미지역의 농식품 수입현황, 한국의 북미 농림축산식품 수출현황 (2015~2019)	79
〈표 2-19〉 유럽의 농식품 수입현황, 한국의 북미 농림축산식품 수출현황(2015~2019) ..	80
〈표 2-20〉 신북방국가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품목	81
〈표 2-21〉 기업 규모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여부	82
〈표 2-22〉 기업규모별 기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82
〈표 2-23〉 시작연도별 분야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 및 기간	89
〈표 2-24〉 시작연도별 분야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금액	89
〈표 2-25〉 대체육 국내 정부 R&D 투자 규모	90
〈표 2-26〉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수행주체별 R&D 연구 수행 비중	90
〈표 2-27〉 식물성대체식품 연구단계별 R&D 연구 수행 비중	91
〈표 2-28〉 투자유치 현황(2015-2021)	93
〈표 2-29〉 기업규모별 유치현황(2020년 11월 기준)	94
〈표 2-30〉 산업단지 분양 현황(2020년 11월 기준)	94
〈표 2-31〉 산업시설권역별 분양률 현황(2020.11.30. 기준)	95
〈표 2-32〉 가동기업 현황	95
〈표 2-33〉 2020년 가동기업 업종 분포(2020.11.30. 기준)	96
〈표 2-34〉 고용 현황	97
〈표 2-35〉 기업 매출 현황	98
〈표 2-36〉 수출기업 수 및 수출액 현황	98
〈표 2-37〉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추이	99
〈표 2-38〉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현황	99
〈표 2-39〉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 수익	100
〈표 2-40〉 식품산업 관련 빅데이터 현황	103
〈표 2-41〉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	104
〈표 2-42〉 ESG의 요소(예시)	107

〈표 2-43〉 EU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내용	108
〈표 2-44〉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54 규제 전망	108
〈표 2-45〉 식품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변화 추이	110
〈표 2-46〉 품목군별 판매 변동 추이	112
〈표 2-47〉 품목별 국산 원료 사용량 및 비중	115
〈표 2-48〉 품목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추이	117
〈표 2-49〉 소스산업 현황	119
〈표 2-50〉 장류산업 현황	120
〈표 2-51〉 품목별 장류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	121
〈표 2-52〉 전통주 출하액 추이	123
〈표 2-53〉 전통주 수출 현황	127
〈표 2-54〉 김치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추이	129
〈표 2-55〉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129
〈표 2-56〉 국내 김치산업 구조, 2015~2020년	132
〈표 2-57〉 국산 상품김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133
〈표 2-58〉 김치 수출입 실적	134
〈표 2-59〉 판매실적별 김치제조업체 비중 분포	134
〈표 2-60〉 김치판매 상위업체 집중도	135
〈표 2-61〉 한식업체 구성 비중(2021년)	136
〈표 2-62〉 연도별 전체 외식업체 중 한식업체 비중 추이	136
〈표 2-63〉 일반음식점 매출액 분포	137
〈표 2-64〉 일반음식점 사업주 연령 분포(전체)	137
〈표 2-65〉 일반음식점 사업주 종사기간(전체)	137
〈표 2-66〉 일반음식점 서비스 유형 분포(전체)	138
〈표 2-67〉 일반음식점 배달앱 이용 현황	139
〈표 2-68〉 일반음식점 고객 연령대 분포(전체)	139

〈표 2-69〉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한식당 만족도 평가	141
〈표 2-70〉 2020-2021 한식 이미지, 취식여부 및 조리여부와 메뉴	142
〈표 2-71〉 2021년 한식 선호 메뉴 및 비선호 메뉴 추이	143
〈표 2-72〉 국내 즉석식품 품목별 수출 동향	146
〈표 2-73〉 특수용도식품 시장 현황	149
〈표 2-7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150
〈표 2-75〉 세계 대체식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2017~2025)	151
〈표 2-76〉 국내 식물성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2017~2025)	152
〈표 2-77〉 국내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업체	152
〈표 2-78〉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153
〈표 2-79〉 대륙별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분포(202-2025)	153
〈표 2-80〉 세계 배양육식품 시장규모(2019~2032)	154
〈표 2-81〉 외국의 배양육 주요회사 및 투자 유치 현황	154
〈표 2-82〉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 활동의 위험 및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요인	159

제3장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표 3-1〉 제1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7대 핵심 정책과제	166
〈표 3-2〉 제2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주요 정책과제	168
〈표 3-3〉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주요 정책과제	169
〈표 3-4〉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흐름	171
〈표 3-5〉 2022년 식품산업 관련 농식품부 실제 예산 및 기금 내역	173
〈표 3-6〉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률	174
〈표 3-7〉 주요국 정책 동향 요약	177
〈표 3-8〉 2023년 일본 농림수산성 예산	178

제4장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평가

〈표 4-1〉 국산 농산물 사용 추이	200
〈표 4-2〉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2017-2022)	205
〈표 4-3〉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관련 정책 현황	206
〈표 4-4〉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관련 예산 추이	207
〈표 4-5〉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관련 정책 현황	208
〈표 4-6〉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관련 예산 추이	210
〈표 4-7〉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관련 정책 현황	210
〈표 4-8〉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관련 예산 추이	211
〈표 4-9〉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212
〈표 4-10〉 식품포장 관련 R&D 현황	212
〈표 4-11〉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관련 정책 현황	213
〈표 4-12〉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관련 예산 추이	214
〈표 4-13〉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관련 정책 현황	215
〈표 4-14〉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관련 예산 추이	215
〈표 4-15〉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관련 정책 현황	216
〈표 4-16〉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관련 예산 추이	217
〈표 4-17〉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218
〈표 4-18〉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 예산 추이	219
〈표 4-19〉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관련 정책 현황	219
〈표 4-20〉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관련 예산 추이	220
〈표 4-21〉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현황	221
〈표 4-22〉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 추이	222
〈표 4-23〉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관련 정책 현황	223
〈표 4-24〉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관련 정책 현황	223
〈표 4-25〉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관련 예산 추이	224

〈표 4-26〉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225
〈표 4-27〉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관련 예산 현황	226
〈표 4-28〉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227
〈표 4-29〉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관련 예산 추이	228
〈표 4-30〉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관련 정책 현황	230
〈표 4-31〉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관련 예산 추이	231
〈표 4-32〉 한식, 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관련 정책 현황	233
〈표 4-33〉 한식, 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관련 예산 추이	234
〈표 4-34〉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관련 정책 현황	235
〈표 4-35〉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관련 예산 추이	236
〈표 4-36〉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관련 정책 현황	237
〈표 4-37〉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관련 예산 추이	238
〈표 4-38〉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관련 정책 현황	239
〈표 4-39〉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관련 예산 추이	240

제5장 식품산업 전망과 4차 진흥정책 전략도출

〈표 5-1〉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시장구분별)	248
〈표 5-2〉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대륙별)	248
〈표 5-3〉 세계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249
〈표 5-4〉 거래 형태별 글로벌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250
〈표 5-5〉 국가별 환경 및 ESG 관련 기업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황	251
〈표 5-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71
〈표 5-7〉 식품산업 관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대체가공식품 제조 활동)	272
〈표 5-8〉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SWOT 분석	281

제6장 제4차 진흥계획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표 6-1〉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292
〈표 6-2〉 제3차 및 제4차(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주요 과제 비교	298
〈표 6-3〉 우리나라 푸드 스타트업(협업)의 유형	313
〈표 6-4〉 모태펀드 분야별 개선방안	314
〈표 6-5〉 22년 식품 분야 관련 주요 개정 사항(요약)	325
〈표 6-6〉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343
〈표 6-7〉 세계보건기구의 전면영양표시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356

제2장

<그림 2-1> 협의의 식품산업 GDP 및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명목) 49

<그림 2-2> 국내 식품산업 GDP 및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 50

<그림 2-3> 연도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추이(2015=100) 51

<그림 2-4> 연도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재고지수 추이(2015=100) 52

<그림 2-5> 연도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재고율 추이(2015=100) 53

<그림 2-6> 연도별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2015.1-2022.3) 54

<그림 2-7> 식료품제조업 기업규모별 성장성지표 추이(2010-2021) 58

<그림 2-8> 음료제조업 매출액증가율 추이(2010-2021) 59

<그림 2-9>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68

<그림 2-10> 식품산업 직종별 인력 부족율 69

<그림 2-11> 대한민국 대학과정 총 학과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69

<그림 2-12>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70

<그림 2-13> 농림·수산 관련 학과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70

<그림 2-14>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72

<그림 2-15> 농림수산식품 부류별 수출금액 추이 76

<그림 2-16>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 품목 전세계 검색 기록 및 주요 검색 국가 83

<그림 2-17>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 품목 전세계 검색 기록 및 주요 검색 국가 84

<그림 2-18>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추이 85

<그림 2-19> 농림축산식품분야 공공 R&D 과제 건수 85

<그림 2-20>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별 공공 R&D 과제 건수 86

<그림 2-21>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별 공공 R&D 과제 건수 86

<그림 2-22> 업종별 R&D 활동 87

<그림 2-23> 미래유망식품 관련 R&D 건수(2018~2022) 88

<그림 2-24> 푸드테크 주요국 경쟁력 비교 92

<그림 2-2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101

〈그림 2-26〉 식품시스템 및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	106
〈그림 2-27〉 주요 장류별 생산액	121
〈그림 2-28〉 전통주의 주종별 출하액 추이	124
〈그림 2-29〉 전통주 제조면허 수 및 출하액 추이	125
〈그림 2-30〉 전통주 업체 종사자 수	125
〈그림 2-31〉 전통주 업체 매출액	126
〈그림 2-32〉 전통주 업체 영업비용 세부 구성비	126
〈그림 2-33〉 김치 수출입 동향	130
〈그림 2-34〉 식료품 제조업 및 김치류 제조업 매출액 추이	131
〈그림 2-35〉 해외 한식 인지도, 호감도, 만족도(2017~2021)	140
〈그림 2-36〉 해외 한식 취식의향, 한식당 방문경험, 이용한 한식당 만족도	141
〈그림 2-37〉 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	144
〈그림 2-38〉 국내 즉석식품 생산액	144
〈그림 2-39〉 국내 즉석식품 생산능력	145
〈그림 2-40〉 냉동 간편식 클릭량 추이	147
〈그림 2-41〉 즉석식품류의 향후 구입빈도 증가 혹은 유지 응답 비율	148
〈그림 2-42〉 세계 개인 맞춤형 영양식품시장 규모 현황과 전망	149
〈그림 2-43〉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161

제3장

〈그림 3-1〉 식품산업 관련 실제 예산 및 기금운용 추이(2015~2022년)	172
〈그림 3-2〉 USDA 2023년 분야별 예산 지출액 비중	185
〈그림 3-3〉 USDA 예산 요청 추이(2021-2023)	185

제4장

〈그림 4-1〉 식품산업 매출액 추이	198
----------------------------	-----

〈그림 4-2〉 식품산업 종사자 수 추이	199
〈그림 4-3〉 9개국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209

제5장

〈그림 5-1〉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요소의 구조도	243
〈그림 5-2〉 세계 경제성장률(2022년 기준)	244
〈그림 5-3〉 주요국 환율 추이(2020.1-2022.3)	245
〈그림 5-4〉 경상수지, 상품수지, 상품수출 추이(2020.1-2022.3)	246
〈그림 5-5〉 월별 국제유가 추이(2015.1-2022.8)	247
〈그림 5-6〉 측정방식에 따른 상이한 평가결과	251
〈그림 5-7〉 유럽의 2021-2022 식품산업 트렌드	253
〈그림 5-8〉 일본 무알코올 맥주 매출액 추이	254
〈그림 5-9〉 중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55
〈그림 5-10〉 아세안 시장 커피 및 차 시장 규모 추정	256
〈그림 5-11〉 대한민국 경제성장률(2010-2021)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2022-2023) ..	257
〈그림 5-12〉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내총생산(2010-2021)	257
〈그림 5-13〉 대한민국 월별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2015.1-2022.3)	258
〈그림 5-14〉 모태펀드 예산 추이	258
〈그림 5-15〉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 추계	259
〈그림 5-16〉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중 추이	259
〈그림 5-17〉 연도별 가구 내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 추이(실질)	260
〈그림 5-18〉 식품 및 외식 실질 지출액 분기별 추이	261
〈그림 5-19〉 전년 대비 식품소비 지출액 변화 이유	262
〈그림 5-20〉 온라인 식품 판매액과 소매판매액 대비 비중 추이	263
〈그림 5-21〉 기능성식품 취식 여부 및 조달 방식	263
〈그림 5-22〉 우리나라 전체 칼로리 섭취량 전망(인구절벽 및 식품절벽)	264

제6장

〈그림 6-1〉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안)의 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89
〈그림 6-2〉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안)의 키워드의 적절성과 순위	289
〈그림 6-3〉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0
〈그림 6-4〉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치의 높낮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0
〈그림 6-5〉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2
〈그림 6-6〉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3
〈그림 6-7〉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1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4
〈그림 6-8〉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2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4
〈그림 6-9〉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3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5
〈그림 6-10〉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4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5
〈그림 6-11〉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296
〈그림 6-12〉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과제	304
〈그림 6-13〉 중소벤처24 - 내게 맞는 정책자금	308
〈그림 6-14〉 수출기업 맞춤형 통합솔루션 개념도	308
〈그림 6-15〉 범부처 협의체(안)	324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식품업계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이 5년간 식품업계의 성장을 견인할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3~’27)」 수립이 필요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거한 법정 의무계획으로서 새로이 수립될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앞서 기술한 국내외 식품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식품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상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의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1개의 세부과제 및 세부과

제에 따른 연구 및 정책들에 대한 정책적 성과와 개선 방안, 새로운 4차 계획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함.

- 구체적으로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식량주권 확보, 신식품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혁신성장, 고령친화식품, 간호식품 개발을 비롯한 취약계층과의 포용성장, 환경과의 동반성장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현안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 나아가 식품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전후방산업과 동반성장하는 식품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함.
 - 인구구조 변화와 식품 절벽,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방향성 제시 필요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 역량 제고
 - 수출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노력 요구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탄소중립 등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식품 정책 및 전략 제시 필요성 대두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 필요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식품산업진흥 추진계획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및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분야별 주제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식품산업진흥법(2022.01.01. 시행)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명시된 사항

-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및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기능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 국제/사회/인구/경제적 여건 변화(환율, 곡물, 원유, 이자율, 경제성장률 등)
- 국내 경영환경 변화와 이슈(물가, 노동력, 투자환경 등)
-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와 전망
- 식품산업 현황 분석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운영성과 점검 및 평가
 - 제1차, 제2차, 제3차 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동사항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체계 평가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성과 평가(기여와 한계, 원인 분석)

- 주요국의 식품산업 정책 동향
 - 미국, 일본, 유럽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방향과 추진체계
 - 기본 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추진체계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 세부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투융자 소요 예산 추정 등 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포함)
 - 전통식품산업 진흥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관련(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포함 신식품산업 활성화)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진흥(식품의 품질향상 및 표시/인증제도 관련)
 - 식품산업 관련 R&D 및 혁신 관련
 -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식품산업 관련 통계·빅데이터·정보화 관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목적, 운영 및 개선사항 관련
 - 식품산업의 ESG 관련

〈표 1-1〉 개정 식품산업진흥법(2022.01.01. 시행) 제4조 기본계획 관련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기본계획 포함사항	본 연구의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세부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투융자 소요 예산 추정 등 포함)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포함)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
3의 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산업 진흥
3의 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관련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포함 신식품산업 활성화)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관련 -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포함 신식품산업 활성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진흥 - 식품의 품질향상 및 표시/인증제도 관련 개선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R&D 및 혁신 관련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통계·빅데이터·정보화 관련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포함)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진흥 (식품의 품질향상 및 표시/인증제도 관련)
8의 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목적, 운영 및 개선사항 관련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식품산업의 ESG 관련

자료: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연구범위

- 광의의 식품산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2022.07.05. 시행)」 제3조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인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함. 협의의 식품산업은 광의의 식품산업에서 유통업을 제외한 식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과 외식업을 의미함.
- 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식품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외식, 김치, 전통주, 한식이 별도의 진흥법에 의거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진흥법(2022.12.11. 시행)」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주요 사업 범위를 설정함. 즉,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외식, 김치, 전통주, 한식 산업의 주요 정책을 포함함.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는 식품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며, 외식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식진흥법 등이 개별 산업의 진흥을 위해 운영

○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 및 통계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1월(1분기)부터 2022년 3월(1분기)로 한정함.

○ 본 연구 결과 수립될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 연도의 식품산업 전망을 시간적 범위로 함.

2.3. 연구방법

○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 기초통계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문헌 연구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전망 도출을 위한 다양한 경제학적 기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향후 전망 관련)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운영성과 점검 및 평가

- 타 기본계획 평가방법 검토 및 참고
- 농식품부 추진 실적 관련 자료 협조 및 정책 담당자 인터뷰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 실적 검토 및 평가 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조사(추진체계 및 운영성과 평가 관련)
- 식품제조업체 조사 및 분석(인지도, 만족도 등 성과 평가 관련)

- 주요국의 식품산업 정책 동향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 연구
 - 해당 국가 전문가 활용 원고위탁(필요한 경우)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방향과 추진체계 구축
 -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잠정안 제시
 -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식품제조업체 조사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식품제조업체 조사를 통해 과제 추진방안 구체화
 - ※ 농식품부에서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대상 연간/분기 통계에서 함께 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협조 필요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국내외 식품정책 관련 선행 연구

〈표 1-2〉 선행연구 키워드 정리

분야	저자	주요 키워드
1. 식품산업 진흥 기본 방향	최지현 외(2009)	산업구조, 농업연계, 영세 사업장, 국내 농산물
	최지현 외(2010)	가공산업, 생산비, 재배 단지, 계약재배
	최지현 외(2011)	계약재배, R&D, 한식 세계화, 육가공 제품
	최지현 외(2012)	외식, 국산 식재료, 직거래, 공동구매, 산지유통조직, 전처리
	최지현 외(2013)	산업연관, 연구개발, 해외 판촉, 지역전략식품산업, 전통식품산업
	황의식 외(2014)	영세 산업구조, 연계 강화, 수출 확대
	이용선 외(2016)	식품산업 육성, 국산 농산물, 유통구조, 로컬푸드, 친환경 축산체계
	김종안 외(2017)	푸드시스템, 먹거리 실태, 식품 정책, 푸드플랜, 거버넌스
	김홍상 외(2017)	농발계획, 안전망, 지속가능성, 먹거리, 복지농촌, 참여, 협력

분야	저자	주요 키워드
	최지현 외(2017)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혁신역량, 신성장, 부가가치
	농어촌연구원(201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추진실태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
	김상호 외(2020)	식품 정책, 식품제조업,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문한필 외(2020)	수산식품산업, 혁신역량, 융복합, 소비기반 확대, 상생협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방안 관련	김관수 외(2012)	연계 강화, 국내산 원료, 가격등락, 김치업체
	박재홍·최지현(2015)	부가가치 제고, 국내산 원료, 계약재배, 원산지 표시
	김병률(2016)	식품가공산업, 품종개발, 원산지 비율, 연계 강화
	이계임 외(2018)	농업연계, 농식품 바우처, 공공지원,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
	강민정 외(2019)	식품소비, 농가수취율, 산업연관표, 식품산업구조
	김상호 외(2019a)	신선편이 식품, 계약재배, 소비트렌드, 후방산업
	김상호 외(2019b)	농식품 바우처, 추진체계, 농업연계, 공공지원
	김종안 외(2020a)	식품산업, 원료조달, 국산 농산물, 생산여건, 소비트렌드
	김상호 외(2021a)	농업연계, 농식품 지원제도, 공공지원, 취약계층
	김상호 외(2021b)	공공지원, 농업연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3. 식품 수급·유통·수출 관련	채중훈(2010)	경쟁력확보, 파급효과, 장기 수출지원, 수출보험제도
	박기환 외(2013)	수출진흥, 다변화, 수출전용단지, 가공식품, 시장 세분화
	김경필 외(2017)	농식품 수출시장, 진출 여건, 구입 의향, 베트남 시장, UAE 시장
	조성주 외(2018)	농식품 수출, 수출기업, 수출 결정요인, 수출 지속성
	송영관 외(2019)	대외경제, 식품제조업, 푸드테크, 대체식품, 조제식료품, 할당관세
	황윤재 외(2019)	식재료 유통, 급식 실태, 식품지원제도, 유통체계
	글로벌융합경영(주) (2019)*	“지역특화농식품 중화권시장 수출 핵심요인 분석 및 경쟁력조사”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2020)*	“한국 농식품 신북방지역 진출방안 조사용역”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2021)*	“농식품 수입대체 유망 전략품목 활용을 위한 심층조사 및 분석”
	홍연아 외(2022 발간예정)	농식품 폐기, 농식품 유통, 음식물 쓰레기, 예방책
4. 식품산업 기술 개발·미래 산업 및 전망 관련	홍석인 외(2009)	녹색성장, 고부가가치, 전통발효식품, 식품안정성
	박은우 외(2012)	식품산업 R&D, 지원체계 개선, 조사체계, 성과지표, 정보유통시스템
	이명기·김홍상(2015)	농산업경영체, 식품 R&D, 농식품 모태펀드, 민간투자, 창업
	김상호 외(2017)	고령친화식품, 시장 인프라, 수요 창출, 기업 생태계, 복지제도
	박준기 외(2017)	농식품모태펀드, 부가가치,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사)할랄협회(2017)*	“할랄 농식품산업 육성정책 방안 연구”
	김성훈 외(2018)	푸드테크, 푸드 스타트업, 맞춤형 정책, 자생적 발전, 농식품 정책
	김지연 외(2018)	건강기능식품, 신고·표시제, 신선 농산물
	안병일(2018)	건강기능식품, 규제, 분류체계, 관련 업체 조사
	양윤경 외(2018)	고령 친화형 식품, 인증제, 개호식품, 표준, R&D 투자
	이기원·김서영(2018)	미래기술, 먹거리 산업, 소비자 기준,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2018)*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포함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방안 연구용역”
	김지연 외(2019)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소분, 영양서비스, 건강
	박미성 외(2019)	푸드테크, 3D 프린팅, 원천 기술, 금융인프라, R&D 투자
	(유)이지엔티앤씨(2019)*	“식품분야 10대 유망기술 도출 연구”
	최중화 외(2020)	포스트 코로나, 미래 예측, 미래 워크숍 분석, 먹거리 분야, 대체식품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2020)*	“농식품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용역”	
박미성 외(2021)	미래유망기술, 대체식품, 고령친화식품, 식품공정·가공기술, 사회·경제적 효과	

분야	저자	주요 키워드
5.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관련	정세영 외(2021)	메디컬푸드, 관리체계, 의료용식품, 제도 분석, 의료용식품법률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대체단백질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연구”
	홍연아 외(2021)	신성장산업, 반려동물, 규제혁신
	김상호 외(2022)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화 소비자 측면, 생산자 측면, 활성화 전략
	노용식(2015)	고용, 일자리, 공간적 군집, 입지, 보조금, 식품산업클러스터
6.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관련	2017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2017)	식품 전공, 생산직, 기능직, 고용안정, 연구개발, 전문대학
	서홍식 외(2017)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 종사자 수, 부가가치, 분류체계
	국승용 외(2011)	천안시, 도농균형, 향토식품자원, 로컬푸드, 과실주, 호두
	박민규(2012)	대구지역, 재정지원, 마케팅 홍보, 인력양성, 힐링푸드
	양승룡 외(2018)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소비자 인식, 가공식품시장, 인증제
	김종안 외(2019)	푸드플랜, 로컬푸드, 먹거리, 지속가능, 거버넌스, 직거래
7. 식품안전·정보화 및 통계·분류 체계 관련	정은미 외(2021)	로컬푸드, 푸드플랜, 먹거리시민양성, 지역먹거리, 직매장
	황윤재 외(2021a)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랜, 도농복합형, 농촌형, 파급효과
	김상호 외(2018)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 의무표시, 농식품 인증표시
	류상모·김진우(2018)	농림식품 관련산업, 부가가치, 지표화, 신성장산업, 분류기준
	김한호 외(2019)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 농산물, 축산물, 법적 개선, 조직 개선
	안동환 외(2019)	농림식품 분류체계, 통계기반 구축, 부가가치, 산업연관분석
	이주형 외(2019)	식품안전관리, 산업진흥, 살충제 달걀, 식품안전 규제, 품질관리
	권세혁(2020)	농식품 산업통계, 산업특수분류, 분류체계, 산업연관
	박미성 외(2020)	식품산업 변화, 식품통계, 통계 재정비, 이용자 중심, 통계분류체계, 민간거버넌스체계
	이주형 외(2020)	식품이력추적제, 블록체인, 원료단계, 수출단계, 산업체 지원
8.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련	김성준 외(2021)	데이터 3법, 농식품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농업인 정보
	이항구 외(2008)*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 품질관리, R&D, 산학연 협력
	김경필 외(201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농산물 원료, 상생 연계방안
	한국생산성본부(2019)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운영체계 효율화, 자립화, 성과관리
	최병욱 외(2021)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성과, 토지이용, 입주 활성화
9.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DEFRA(2006)	Food Industry, Well-Being, Carbon Emission, Innovation
	Food Drink Europe(2012)	Sustainable sourcing, Resource Efficiency, Packaging
	임정빈 외(2012)	상생발전 전략, 식품제조업, 유통업체,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Baldwin(2015)	Sustainability, Environment, Welfare, Energy, Food Waste
	FAO(2017)	Food System, Eco-Friendly, Fossil Fuel, Partnership
	Unnevehr(2017)	Food and Beverage Industry, Economic Footprint, Contribution
	이명기 외(2017)	OECD 정책분석틀, 혁신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이용선 외(2018)	중소 식품기업, 안정성장, 과잉경쟁, 기업 간 협력
	김상호 외(2020)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안정성장, 공정 기회, 공평 분배
	정학균 외(2020)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업
	김종안 외(2020b)	기후변화 대응, 순환체계, 저탄소, RE100
황윤재 외(2021b)	지속가능성,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정상 회의	

주: (*)표시된 연구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보고서에 해당함.

자료: 저자 작성

3.1.1. 식품산업 진흥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 최지현 외(2009~2013)는 식품산업 및 전후방 연계산업의 당면 과제 도출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식품산업 연구와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5년에 걸친 식품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함.

- 1년 차 연구인 최지현 외(2009)는 제조업, 유통, 외식 등 식품산업 업종과 제조업 부문별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 등을 수행함. 최지현 외(2009)는 식품제조업과 식품유통업, 외식업으로 식품산업을 분류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민경제에서 식품산업은 부가가치 기준 약 5%, 고용인원 기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식품제조업 중 55% 가량이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영세한 특징이 있고, 일반제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기업일수록 수입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국내산 떡류, 두부, 된장, 고추장, 쇠고기 등은 품질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소비 확대에 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2년 차 연구인 최지현 외(2010)는 콩, 쌀, 과일, 인삼·약초 가공산업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함. 해당 산업들은 공통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산업 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부가가치율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 따라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평가하였으며 해당 산업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산 원료의 안정적인 사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산 원료의 생산비 절감, 재배의 단지·조직화, 계약재배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국산 원료 가공에 적합한 가공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영양학적 우수성과 건강기능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원료와 가공품에 대한 과학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함.
 - 표시제도를 개선하거나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함.

○ 3년 차 연구인 최지현 외(2011)는 국산 농산물 수급 실태를 고려하여 육가공과 유가공을 비롯하여, 김치 및 천일염 가공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 당면 과제 도출, 발전전략 제시를 수행함. 해당 산업의 당면 과제로 ① 제품차별화 등 생산전략 부족, ②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부족, ③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및 인프라 부족, ④ 관련 법·제도 부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 재배 활성화, 전략적 제휴, 계열화 등 품목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연계 강화가 필요함.
- 고품질 안전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R&D 분야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김치를 한식 세계화와 연계시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필요함.
- 육가공 제품 관리를 일원화하고, 연관관리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함.

○ 4년 차 연구인 최지현 외(2012)는 외식산업의 구조와 경영실태, 농업 연계 등과 관련한 당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함. 분석 결과, 한식점에서 쌀과 채소 등의 국산 이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국산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외식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대량거래가 가능한 지역의 조합공동사업 법인 또는 유통회사와의 직거래 활성화, ② 소상공인 도매물류 센터 건립을 통해 영세한 음식점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창구 마련, ③ 품목별 산지 유통조직을 연계·육성, ④ 산지에서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⑤ 전처리시설 활용 및신기술 도입, ⑥ 우수 식재료 전문 협력벤더 육성 등을 제안함.

○ 5년 차 연구인 최지현 외(2013)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이용률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 및 컨설팅 사업, 해외판촉 사업, 지역별 전략식품 육성 사업,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아울러, 추진방안으로는 ① 적절한 예산 확보, ② 정책형성 단계 평가 강화, ③ 사업 중간관리를 위한 환류 시스템 마련, ④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함.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를 10억 원 수준까지 높여 산업화 및 실용화 성과 제고가 필요함.
- 컨설팅 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 컨설팅 및 교육수요를 구분함으로써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외판촉 사업의 경우,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비수혜 업체보다 20%가량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규모 확대가 필요함.
- 지역별 전략식품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관리·감독, 보조금 집행 등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및 사업성을 고려한 매뉴얼식 접근이 필요함.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불용률, 고금리,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견됨. 따라서, 금리 하향조정, 영세업체 저율혜택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명확한 지원 규모와 대상 설정이 필요함.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의 경우, 사업당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세부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사업당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함.

○ 황의식 외(2014)는 식품산업부문 및 식품산업 육성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식품산업 분야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분석결과, 식품산업부문의 당면 과제로 ① 영세한 산업구조의 개선, ②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 간 연계 강화, ③ 가공식품의 수출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

- 단기 용자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여, 식품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각종 투자지원 등으로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함.
- 식품기업의 자금 차입을 위한 신용 보완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위해 정책자금을 통한 매입의무 부여보다는 사전 평가에 매입실적을 반영하는 식으로 평가기능 강화가 필요함.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함.
- 식품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지방비 부담 확대가 필요함.

-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창업활성화가 필요함.

○ 이용선 외(2016)는 국내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분야별·지역별 발전전략을 제시함. 이용선 외(2016)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식품산업의 장기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식품산업 육성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②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③ 유통구조 개선, ④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및 해외협력 강화, ⑤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 ⑥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⑦ 국민영양 및 식생활 교육 확대
- 한편, 식품산업 육성 및 국내산 농산물 수요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식품·외식산업 인프라 구축, ② 식품 R&D 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전통식품 및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④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지원, ⑤ 한식 진흥정책 강화를 제시함.

○ 김종안 외(2017)는 주요 식품관련 정책 분석 및 해외 푸드플랜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과 위상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 푸드플랜 과제 발굴 및 효과적 추진체계 수립, 법적 근거 마련 등도 함께 수행함.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과제는 먹거리 보장 영역과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크게 2가지로 나뉘지며,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됨.

- (먹거리 보장: 국가적 차원의 식량안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먹거리 보장 확대) 주요 농식품의 식량안보 제고, 공공급식 확대와 식생활·영양개선
-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순환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 환경보전형 농식품 생산 확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푸드플랜 관련 R&D 강화

○ 김홍상 외(2017)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계획인 「2018~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여건 변화 분석, 기존 정책 검토 및 평가 등을 실시함.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농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문별 중점전략 과제와 정책 수단 등을 도출함. 김홍상 외(2017)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과제 중 식품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하위에 있는 ①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②건강한 식생활 지원, ③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에 해당하며, 해당 과제에는 국가·지역 단위 푸드 플랜 수립, 학교 과일간식 지원 제도 도입, 공공급식 품질 제고, 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됨.

○ 최지현 외(2017)는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를 기반으로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에서는 식품산업 구조 변화, 식품산업 여건 전망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성과 정책성과를 평가함. 이를 기반으로 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3)의 비전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로 삼고,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량 확대, 식품분야 고용 확대 3가지의 목표와 함께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함.

- 아울러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②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의 5대 정책과제와 정책과제별 세부 목표도 제시함.

○ 김상효 외(2020)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안정성장’, ‘공정 기회’, ‘공평 분배’, ‘미래 지향’, ‘환경/순환 중시’의 관점에서 핵심 토픽별로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함. 특히, 1차년도 연구인 김상효 외(2020)는 식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식품제조업 일자리 문제,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 제고,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5대 핵심 토픽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함.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5개 분야에서 총 64개의 대응과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여, 식품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과제: 중소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식품 제조업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17개 과제
-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과제: 일자리 정책·제도 보완,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 운영, 비대칭 해소, 인력양성을 위한 8개 과제
-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 활성화, 지방 정부 주도의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 엄격한 품질관리 및 국산 장려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16개 과제
-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개척 방안: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식품 R&D 추진을 위한 12개 과제
-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소비자의 건강, 사회·환경의 건강, 기업의 건강을 위한 11개 과제

○ 문한필 외(2020)는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기 위해 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벤치마킹 하되, 수산식품산업의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또한,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이해당사자와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발병 이후 변화된 식품 소비패턴과 수산식품산업의 도전과제 모색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함. 문한필 외(2020)는 최종적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5대 발전전략, 16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는데, 그중에서 5대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생산) 수산식품산업의 구조개선과 혁신역량 강화
- (식품·상품)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 (품질·소비)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소비기반 조성
- (수출) 글로벌 경쟁력 기반 해외시장 개척
- (상생) 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3.1.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방안 관련 연구

- 김관수 외(2012)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분석을 통해 높은 가격,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의 어려움, 특정 기간의 원료 구입 자금 부족 등이 연계가 어려운 원인이라고 지적함. 특히 가격이 등락할 때 농가의 계약 파기 행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함. 김관수 외(2012)는 연계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 조건, 농협과 식품기업 간 원료조달 시스템 구축 방향성, 김치업체의 배추 조달 모델 등 국내산 원재료 조달을 위한 모델 등을 제시함.

- 박재홍·최지현(2015)은 농업의 성장이 침체되고 소비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농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 특히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벗어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박재홍·최지현(2015)은 생산자의 분산, 규모의 비경제성, 각종 정보·기술·금융에 대한 낮은 접근성, 일관성이 떨어지는 물량이나 품질, 이력 추적 및 위험 관리 부족, 이와 관련된 비용 극복 등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주장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안정적인 국내산 원료 공급 기반 구축, 계약재배의 활성화, 연계성 강화 체계 구축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 원산지 표시 개선, 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병률(2016)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품시스템상에서 최상위인 농업이 중위인 식품가공산업 등과 연계성이 강해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병률(2016)은 식품시스템의 흐름에 따라 유통개선과 공급체계 구축,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확대,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강조함.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완전 기계화가 가능한 가공용 농산물 품종개발, 이에 따른 재배·생산시스템 도입, 가공원료의 원산지별 투입 비율 표기 확립 등을 제안함.

- 이계임 외(2018)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검토하고, 적절한 제도 운영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분석은 연구 내용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먼저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 검토에는 문헌 검토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이 진행됨.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설계에는 통계자료 분석,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사업현황조사·분석, 전문가 조사 및 원고 위탁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적용됨.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5개년 통합자료를 분석하여 빈곤율 개선 효과와 의료비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함. 이계임 외(2018)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이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실태 및 영양상태를 충분히 파악·고려하여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주는 농식품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식품 현물을 지원할 경우 농식품 소비량을 증대시켜 국민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강민정 외(2019)는 마케팅빌(다수 품목 혹은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식품소비금액 중, 농가수취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방식) 방식의 농가수취율을 산업연관모형으로 분석, 소비자의 식품 소비가 실제로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였음.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가수취율을 분석한 결과, 2000년 44.82%였던 농가수취율은 2014년 33.02%까지 감소하였음. 강민정 외(2019)는 1990년 72%에서 2010년 54%로 감소한 가공식품업계의 국내산 원재료의 이용률 감소 추세가 농가수취율 하락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품산업의 구조변화와 농가수취율 관련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김상효 외(2019a)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과제를 도출

하기 위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수요처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함. 김상호 외(2019a)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소비자 식생활 개선, 농업과 연계,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특히, 농업이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에 원물을 공급하는 후방 산업이며, 식품산업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이면서 생산된 신선편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인 점을 강조함. 아울러 이를 위한 대응과제로 4가지 방향성(① 상생과 포용의 산업 안정화, ② 소비기반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③ 위생·안전관리 강화, ④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강화)과 이에 기반한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김상호 외(2019b)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세부 추진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아울러 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김상호 외(2019b)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 바우처 형태로의 도입 필요, ② 국내 농업과 연계성 강화, ③ 수혜자 특성 및 소비환경에 맞춤형 제공, ④ 식생활교육과 연계, ⑤ 푸드플랜의 틀 안에서 농식품 생산/유통과 연계를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의 5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특히,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은 ①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② 푸드플랜과 연계, ③ 농어촌상생협력 기금과 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기존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을 모색함.

○ 김종안 외(2020a)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식품기업의 고품질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함. 김종안 외(2020a)는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조달 실태 조사, 국산 원료 농산물의 생산 여건 분석 등을 통해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지원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함.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T/F를 통해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와 관련한 품종개발, 정보교류, TRQ 제도, 계약재배 등의 주요 안건도 논의됨. 최종적으로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① 개별 중심의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가공용 농산물 종합지원시스템 체제로 전환, ② 식량국 및 유통국

의 정책사업 연계 강화, ③ 기 육성된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조직 적극 활용, ④ 생산-유통-가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연계성 강화 등의 기본방향과 관련 제언이 도출됨.

○ 김상효 외(2021a)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농식품 지원제도를 분석·검토하고,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식생활 및 영양 지원의 관점에서 농식품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분석은 선행연구 검토, 통계분석, 설문조사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외 농식품 지원제도의 운영현황을 정리·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특히,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및 건강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에도 있음을 강조하며, 중장기 농식품 수급 계획 및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김상효 외(2021a)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부처간 연계 필요, 현물지원 중심으로 사업 확대, 식생활과 연계된 전달체계 확립, 대상자 선택권 보장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기반한 현물지원 확대 및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확대 추진 방안,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상효 외(2021b)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현물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2020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본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애로사항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에서는 POS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약계층의 농식품바우처 사용행태 분석,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식품 소비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도출, 본사업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금액 및 소요예산 규모 산출, 본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도출 등을 수행함. 김상효 외(2021b)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농식품 소비 증대 효과, 의외비 절감 효과, 산업파급 효과, 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으로 취약계층의 부족한 식품/영양소와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급 선호 품목,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 자급률이 높고 국내 생

산 여력이 있으며 소비 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그런 점에서 신선 채소 및 과일 소비 지원은 이를 장려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되며, 국내 농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취약계층에서 비중이 높은 일부 고령자들의 경우 저작 기능이 저하되어 과일 섭취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채소를 자가 재배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선택권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함.

3.1.3. 식품 수급·유통·수출 관련 연구

- 채종훈(2010)은 선진국들이 식품산업을 경쟁력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수단을 마련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함. 특히 미국, 프랑스 등은 전체 수출액 중 식품산업 비중이 1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정책이 식품의 양적인 증가와 위생 관련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미래 유망산업 및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함. 식품산업의 경우 29개 산업 부문 중에서 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고용 효과, 산업 견인효과 등 모든 부문에서 파급력이 큼. 따라서, 채종훈(2010)은 장기 수출지원 전략 수립, 수출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타 산업과의 연계, 적극적인 홍보, 식품 가공기술력 확보,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박기환 외(2013)는 농식품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함. 농식품 산업 관련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수출품목 집중 육성,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이 필요함. 따라서 박기환 외(2013)는 수출전용단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 연계성 강화 방안,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방안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수출전용단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전용단지의 지정품목을 우선 수입보협제도 대상품목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 가격안정보협제도의 재도입 방안, 유류비를 비롯한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우선배당, 계약재배 체결 시 농가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인프라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대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하여 표적 시장을 설정, 검역제도를 고려한 가공식품 중심 진출, 주요 권역별 수출기지 건립,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김경필 외(2017)는 농식품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특성 및 구입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공급단계와 연계하여 수출 개선사항 및 증대 전략을 제시함. 이를 위해 베트남과 UAE 두 시장의 농식품 수출시장 공급여건 및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국산 농식품 소비특성을 분석하여 수출시장 수요에 부응한 공급 전략을 제시함. 아울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본 추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수출시장 여건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현지 생산 및 공급여건을 고려한 수출전략 품목 선정, 수출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비용절감 방안, 지역별 소비 특성을 수출지역 확대 방안
- (소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판촉 전략 추진) 소비 트렌드 및 키워드를 반영한 농식품 상품화 방안, 수출시장 특성과 소비자유형별 소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판촉 전략 수립
- (수출시장 진출 단계별 추진전략)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정보 수집 및 인지도·선호도 제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거래 인프라 구축 및 수출 조직화

○ 조성주 외(2018)는 수출 주체인 농식품 기업들 대상 수출 결정 요인과,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함. 수출성과별 전략요인, 농식품 기업 유형별 유효한 수출 전략의 특징,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함. 특히, 농식품 수출기업의 유형별 유효 수출전략 도출을 위해 기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도출함.

- 첫째,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경우 상품의 기능성 강조, 현지어 표기 준수, 현지 유통 제휴, 수출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액과 수출집중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현지 마케팅 지원,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둘째,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은 틈새시장과 같은 잠재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주력 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수출물량, 위험 관리 등을 통한 수출 안정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성과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임. 따라서,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은 틈새시장보다 대규모 소비시장 지향, 시장다변화 추구, R&D 투자 전략 등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함. 따라서, B2 유형에서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 넷째,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케팅 집중 및 수출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관련 전략들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함. 따라서, 무역협상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노력 등이 필요함.

○ 송영관 외(2019)는 그동안 수출 증진과 국내산업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던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제조업과 농업, 혁신의 관점에서 식품제조업 분야를 중점으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시함. 특히, 제4장에서는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을 수출경쟁력,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 할당관세 중심의 대외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함. 분석결과, 국내시장은 선진국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대체식품과 소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함.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식품가공업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국내 식품가공산업의 혁신적 성장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해외시장의 경우, 수출경쟁력 기여도가 높은 세부 품목(라면, 빵 등 곡물·곡분의 주제품, 커피, 인삼, 김 등 기타의 조제식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공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황윤재 외(2019)는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급식과 식품지원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행됨. 해당 연구는 공공영역 급식과 식품지원제도에서의 식재료 공급·이용에 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식재료와 관련한 급식과 식품지원제도의 개선 과제와 방향을 검토하였음. 황윤재 외(2019)는 분석결과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 공급체계 구축 방안,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 지원방안을 각각 제시하였음. 먼저, 공공급식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① 공공급식 정책적 개념·범위가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② 정책 추진 근거 도입 ③ 이해관계자 간 연계 및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다음으로, 공공급식 개선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공공급식에서 우수 식재료 이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공급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② 공공급식식재료관리운영시스템 구축 ③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끝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 이용 식재료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지원, ② 기관별·시설별 수요를 고려한 대응 역량 제고 ③ 자발적 수행 촉진 수단 마련, ④ 이해관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홍연아 외(2022 발간 예정)는 농식품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 실태와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함. 해당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농식품 폐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국내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의 한계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농식품 폐기 발생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민간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음. 또한, 분석결과 농식품 폐기는 소비 가능한 농식품이 수확 이후 단계에서 부주의 혹은 의도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그동안 농식품 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만 집중되어 있었음. 이를 통해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3.1.4. 식품산업 기술 개발·미래 산업 및 전망 관련 연구

- 홍석인 외(2009)는 식품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이를 위해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기술 분야로 ① 용·복합식품 기술, ②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개발, ③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④ 식품안전성 확보를 제시함.

- 박은우 외(2012)는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산업과 관련된 공공 R&D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각 기관 간 중복된 R&D 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기관 간 R&D 역할 분담 방안을 찾고자 하였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기술 수준과 이행 로드맵을 관련 기술의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효과적인 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박은우 외(2012)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산업 R&D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을 포함한 식품R&D기술수준에 대한 선진국 대비 격차 분석과 향후 세부 기술별 정책추진을 위한 로드맵 점검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한 세부기술별 전문가 pool 구축과 이를 통한 정기적인 조사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둘째, 현재 식품산업 세부 기술별 R&D 성과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식품산업 R&D는 기초연구부터 응용, 개발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과제의 성격에 맞는 세부적인 R&D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셋째, 식품산업 R&D의 종합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정보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R&D 사업 성과를 사업화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도 정보유통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와 R&D 수행주체(산·학·연) 및 R&D의 수혜대상인 민간기업이나 농업경영인 모두가 이해당사자이고 상호간 Networking이 R&D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이명기·김홍상(2015)은 한국 농산업의 R&D 관련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당 분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산업기업과 농업경영체의 혁신 주체 인식,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

신플랫폼 조성, 그리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등 8가지 농업혁신시스템의 방향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함. 아울러 식품 R&D 투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으로써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 창업 촉진, 민간 R&D 전문 대형조직 육성 등을 제시함. 더욱 구체적으로는 ① 중소 농식품기업 R&D 강화를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 및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 창업 촉진, ② 민간 R&D 전문 대형조직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과 생산자조직 R&D 지원, ③ 농림식품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인, ④ 농업부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확대 추진, ⑤ 농업인, 대학·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아카데미과정과 농업 및 농공상 융합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등이 제시됨.

○ 김상효 외(2017)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삶의 질과 건강 개선, 사회적 질병비용 절감,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는 고령화 추세 및 실태를 살펴보고, 식품관련 연구소, 노인시설 영양사,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령친화식품 발전의 저해요인을 비롯한 향후 시장 수요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함. 또한, 코호트분석, 처치효과모형 분석, 지불의향분석, SWOT 분석 등의 각종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통해 고령친화식품시장 관련 여건을 분석함. 최종적으로 김상효 외(2017)는 고령친화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시장 인프라 구축, 캠페인·교육·상담을 통한 수요 창출, 기업 생태계 조성, 복지제도와 연계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함.

○ 박준기 외(2017)는 농식품산업에 민간자본 투자형태로 운용되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긍정적 측면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농식품모태펀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박준기 외(2017)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농식품모태펀드의 본연의 투자기능 확충,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상 신규 투자 방법을 고안 및 추진, 투자기반 조성 역할 강화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함. 특히,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농식품산업 정보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 기술 및 성장 관련 과제를 다수 제안함.

○ 김성훈 외(2018)는 푸드테크 및 푸드 스타트업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산업과 국내 농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연구를 위해 먼저 푸드테크 및 푸드 스타트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 전망 및 경제적 가능성을 제시함. 또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최종적으로는 푸드테크 및 푸드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 시스템 마련, 자생적 발전을 활성화하는 생태환경 구축, 주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함.

○ 김지연 외(2018)는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며 일관성 있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정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함. 기능성식품산업의 종합적 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이기도 한 해당 연구는 주요국의 기능성식품 신고·표시제도 운영현황,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도 가이드라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의 실증’ 제도의 운영방향과 ‘기능성식품신고제’의 관계, 기능성 신고·표시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 기능성식품의 범주에 특수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조제유류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이 과도한 제품은 제외하도록 제안함.
- 기능성표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의한 고시로 제안하며, 제출 서류, 서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제안함.
- 국내 기능성식품이 가공식품만이 아닌 신선 농산물에 적용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농산물 자원 확보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관련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속적인 지원 체계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가칭)기능성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별첨의 문서에서 제안하며, 적정 시행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중 식품과

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을 제안함.

- 안병일(2018)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현장 조사(설문조사, 심층 면담)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등 규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안병일(2018)은 법령 및 규제 검토, 설문조사, 업체 면담 조사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규제 완화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규정 순으로 총 39건의 건의서를 작성함. 이때, 건의서는 정책 개선과제 3건, 규제 명시화 4건, 절차 간소화 10건, 비용 절감 11건, 불리한 기준 합리화 11건 등으로 집계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방적·신축적 태도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건강기능식품 정의 및 범위 재정립,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분류체계 개편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았음.
- 양윤경 외(2018)는 고령친화형 식품의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고령친화 식품의 법적 마련이 미비한 국내 상황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기반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일반 사항과 고령친화식품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문항에는 고령자 식품 생산·판매 현황 및 유형, 고령자 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 고령자 식품에 대한 인식, 법적인 지위의 필요성, 회사의 판매에 유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방법, 고령자 식품의 인정 기준, 일본의 개호식품에 관한 5가지 단계의 기준규격의 타당성 그리고 고령자 식품의 활성화 추진 시 우선순위 항목 등 총 10문항을 포함함. 양윤경 외(2018)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 도입, 인증 관련 협의체 구축, 인증 기준(표준) 마련, R&D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기원·김서영(2018)은 각 국가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학기술예측조사, 글로벌 컨설팅기업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STEEP 분류방법, 월스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고령화, 기술융복합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고갈, 네트워크 사회 총 5개의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도출하였음. 또한, 도출한 메가트렌드를 다시 한번 미래 농식품 기술 예측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의 트렌드만을 정리하여 지속가능성, 사회윤리, 수요공급 긴밀성, 투명성, 소비자기호다양성, 인공지능 플랫폼 총 6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의 트렌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식품 트렌드의 조합을 통해 스마트 가드닝, 증개플랫폼, 대체소재, 맞춤형 가공·서비스 총 4개의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을 도출함. 한편, 이기원·김서영(2018)은 최근 먹거리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가 늦고 국내 푸드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대부분 음식/식재료 배달서비스, 맛집 추천 서비스 등 외식서비스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 각 분야별 역할을 제시하였음. 특히,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와 동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필요함.
- 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쌓아 산업계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여 종자 등 자원, 유통, 외식 등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간중심의 식생활에 대한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주로 활용되는 실정임.
- 미래 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부업 공간(조리도구, 조리습관, 위생관리 등), 식행동(식품선택, 섭취습관 등), 인지/태도(심리, 미각, 식문화 변화 등) 등 인간 중심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학, 식품학 등과 공학, 기술 분야 융합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때,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것과 연구 주제를 산업현장에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함. 이를 위해 농민, 식품생산자, 외식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공학-농학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함.

○ 김지연 외(2019)는 해외 선진사례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방안 마련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수요 조사 및 분석, 제외국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또는 식이보충제 산업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됨. 김지연 외(2019)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과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규정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연구 기반 확보, 전문판매업자 제도 도입, 스마트컨슈머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도입, 건강기능식품 중 소분 관련 영업 신설 등을 주장함.

○ 박미성 외(2019)는 푸드테크 적용 관련 대응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푸드테크의 의의, 국내외 푸드테크 적용 동향, 국내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특히, 해당 연구는 식품제조·가공 분야에 한정하여, 국내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있으면서도 공공성과 농업연계 가능성도 높은 대체 소재나 대체 식품, 그리고 3D 식품 프린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함. 연구에는 국내외 문헌 및 통계 자료, 웹 검색을 비롯하여 심층면접조사, 실험경매 등 다양한 분석기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 푸드테크 산업에서 기술과 자금, 인력 부족 등 기업역량 부족, 관련 법제도 미비, 관련 시장정보 및 소비자 인식 부족, 기존 업계와의 갈등, 산업생태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박미성 외(2019)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혁신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비롯한 선제적 규제 정비 및 갈등요소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푸드테크 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원천 기술·소재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 확대 및 기업 R&D 활동 지원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 조성
- 창업 및 벤처 초기단계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작·생산 설비와 보육(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규제 정비와 세제 혜택
- 대국민 홍보와 정보 제공, 갈등요소 해소

○ 최종화 외(2020)는 농식품 분야의 팬데믹 관련 이슈에서 나타난 다양한 트렌드의 강도, 주기, 영향도 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Shaping Tomorrow(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활동을 위해 개발된 미래 문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미래(포스트 코로나)에 발생 가능한 5개의 핵심 테마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또한, 아래 핵심 테마를 기반으로 미래 워크숍 분석¹⁾을 진행하여 최종 14개의 미래사건을 도출하고, 이를 먹거리 신뢰성, 소비자 참여, 개인화, 지속가능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슈를 구분한 뒤, 이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 (테마 1)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Fake food)의 보편화
- (테마 2)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시대(Unmanned automation)의 도래
- (테마 3)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Self-sufficient food culture)의 부활
- (테마 4)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Good consumption)의 확대
- (테마 5) 불안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사회(Transparent society)의 도래

○ 박미성 외(2021)는 식품 분야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미래 유망기술 관련 산업 현황 및 정보수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문헌조사, 사례조사, 글로벌 식품기업의 R&D 투자현황, 국내 식품관련 정책 및 R&D 계획 등을 검토하고, 산학관연 기술수요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체식품, 고령친화식품 및 메디푸드, 포스트바이오틱스 新 식품 3개 분야와 식품 가공·공정기술, 식품 포장기술(친환경, 지능형)인 新 가공·공정 2개분야를 시식품 분야 미래 유망기술로 도출함.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도출함.

1) 미래 워크숍은 다양한 미래예측(Foresight) 방법론 가운데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이나 대안에 대해 창의적 생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1980년대에 로버트 옹크(R. Jungk) 등에 의해 개발된 이후 다양하게 확장되어왔다(최종화 외, 2020).

- 대체식품: 자원절약 및 환경부하 저감 효과, 공급비용
-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질병비 감소 효과
- 포스트바이오틱스: 시장창출효과 및 경제파급효과(생산유발, 소득창출, 고용창출)
- 식품 공정·가공 기술: 식품기업 공정개선 효과
- 식품 포장 기술: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 효과, (지능형) 식품 폐기물 처리 감소 및 시장 확대 효과

○ 정세영 외(2021)는 메디컬푸드(의료용 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해당 연구를 수행함. 연구는 크게 선진국의 메디컬푸드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분석, 우리나라의 의료용 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메디컬푸드 관리체계 도입 방안 연구 및 제정법률(안) 마련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정세영 외(2021)는 환자용 식품 전반과 관련된 시장현황, 관리제도 연혁,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용 식품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동일한 목적의 경장영양액이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관리 이원화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일반 식품과 동일한 법에 의해 관리되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갖추지 못하여 관련 산업 발전 저해
- 관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경우 경관급식입원환자에게만 식대보험이 적용되며 외래환자에게는 보험 적용 불가
- 품목제조보고만으로 품목을 관리하고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출시 및 유통
-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특성 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나 일반 식품과 동일한 품질관리 적용

○ 홍연아 외(2021)는 식품산업 대표 신성장 분야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제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선진사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농식품 신산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연구 결과, 고령친화식품과 간편식(HMR)의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맞춤형 건강식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또한,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배양육은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제품 출시 및 시장형성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그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연관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홍연아 외(2021)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일반 신성장 분야: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강, 영양’ 표시 인정, 식품규제 자유특구 지정,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벤처기업 요건에 식품투자조합을 포함하고 규제 자유특구 내 유치, 대체육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 정비, 표기 개선, 통계자료 정비, 배양육 네거티브 규제도입,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식품공전상 품질기준 등 재검토
- 반려동물 관련 분야: (가칭)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리법 제정 필요,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별도 통계 구축, 국내산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품질 인증체계 구축,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반려동물 관련 피분양자 준수 규정 마련 및 교육 강화, 동물 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CCTV 설치 의무화에 상응하는 인권 보호 강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조직·인력 확충

○ 김상효 외(2022)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는 고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할 때,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식품소비와 영양섭취 분석, 생산자 측면에서는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더불어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및 산업 분류체계를 분석함. 연구방법으로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SWOT 분석, 고령친화식품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수립된 전략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정된 만족도 - 중요도 분석(IPA)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함.

- 일반 수요에 대한 활성화 전략으로는 ‘필요성 강조 전략’, ‘우수성 강조 전략’, ‘친밀성 강화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공공수요에 대한 활성화 전략은 ‘노인복지제도와 연계’, ‘농식품 바우처 연계’가 제시됨.

- 공급 활성화 전략으로는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판로확대, 기술 및 자본 지원, 경영 안정화, 협력체계 구축 전략 등이 제시됨.
- 고령친화식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으로는 ‘고령친화식품산업 관련 정의 명확화 및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 지정 업무(기술 및 표준화 연구)’ 전략이 제시됨.

3.1.5.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관련 연구

- 노용식(2015)은 공간적 군집 분석을 진행하고, 부가가치 증가와 고용성장 간 지역별 편차를 비롯한 식품산업의 지역별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식품제조업은 원료 입지적 특성을 보였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수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또한, 저분위 지역과 고분위 지역에 위치한 업체 간 이질성을 확인함. 이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을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7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2017)는 국내 대·중소기업체 364개를 조사하여 고용 현황 및 향후 업계 일자리 전망, 채용, 교육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함. 식품과 관련된 전공 졸업자는 대부분이 연구개발 또는 생산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인 근로자의 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기존통계와 신규통계 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생산직과 기능직 종사자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홍석 외(2017)는 우리나라 농림식품산업과 이들의 관련산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국내외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방법을 활용해 우리나라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를 추정하였음. 먼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농림식품 관련산업의 분류체계 및 추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산업분류표 및 상품분류표를 통해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범

위를 설정함.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를 추정함. 분석결과, 2014년 기준 농림업 생산부문 자체의 부가가치 비중과 종사자수 비중은 각각 2.10%, 5.83%에 불과하지만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부가가치 비중은 9.61~14.89%, 종사자수 비중은 20.23~26.31%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확인함. 서홍석 외(2017)는 이러한 관련산업의 성장 추세에 관심을 기울여 신산업 개척 등의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농림업 생산부문과 식품산업이 관련산업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1.6.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관련 연구

-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지방정부 단위 연구는 박민규(2012), 국승용 외(2011) 등이 수행한 바 있으며, 해당 연구는 각각 대구지역과 천안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함.
 - 박민규(2012)는 대구지역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단기 전략으로 재정적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를 주장하였고, 중장기 전략으로 식품산업의 산학연관협의체 구성, 외식업과 문화 분야의 접목, 유관기관의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국립힐링푸드 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안함.
 - 국승용 외(2011)는 천안지역 교통, 도시 농촌 간 균형, 향토식품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천안 북부권역의 과실주공동숙성사업 및 향토식품산업 육성, 동남부 권역의 순대 클러스터 구축 및 소규모 식품산업의 활성화, 남부권역의 호두 관련 1, 2, 3차 산업 연계 발전 등을 제시함.
- 양승룡 외(2018)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3가지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기준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각 대안이 친환경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업계 실익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분석결과 소비자와 업계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 기준별 순위를 고려할 때 모든 적합도 평가 기준에서 1순위를 차지한 제1안 (기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과 동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

됨. 아울러 양승룡 외(2018)는 성공적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지불의사(WTP) 실현을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홍보 중요
- 애국심 마케팅 또는 국산화율 활용 마케팅 중요
- 일부 업체의 인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을 위한 제도 홍보 필요
- 안정적인 무농약 원료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급관리체계 구축 중요
- 유연한 가격 전략 실행을 위해 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비 인상폭 감소 노력 필요
- 인증제 도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련 통계 구축 필요

○ 김종안 외(2019)는 시범사업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푸드플랜 추진모델을 개발하고,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 및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국민 인식도 조사,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점검 및 분석,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개발,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순으로 진행됨. 김종안 외(2019)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지역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전략 및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함.

○ 정은미 외(2021)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을 높여 로컬푸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며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푸드플랜 정책에 필요한 추진전략과 추진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연구는 전문가 간담회와 사례 발표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제1차 로컬푸드법 기본계획 검토, 제2차 로컬푸드법 기본계획(안)의 추진 방향, 사례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분석을 통해 그동안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 푸드플랜 정책 추진 방향성과 대표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추진방향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도시지역의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먹거리시민양성(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지원 등
- 추진방향 2. 중소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1시군 1센터에 공공형 조직(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중소농의 농가조직화나 상품화, 판로개척 지원 등
- 추진방향 3.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도시-농촌 지자체간 협약 체결로 도시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

○ 황윤재 외(2021)는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과 함께 로컬푸드의 공급 및 이용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특히 최근의 지역 푸드플랜 정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확대를 추진하는 지역의 성과를 검토·분석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지역 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함. 황윤재 외(2021)는 향후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별 여건과 지역민을 고려한 정책 마련, 연계·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로컬푸드 정책의 지속성 확보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생산자와 소비자의 애로사항 해결 필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 확산 전략 도입
-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공급식 활성화
- 로컬푸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확대
- 로컬푸드 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지속 점검·평가

3.1.7. 식품안전·정보화 및 통계·분류체계 관련 연구

○ 김상효 외(2018)는 ‘소비자에 의한’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농식품 표시·인증제도 전반을 다루었으며, 분석을 위해 소비자 설문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등 다방면의 연구를 실시함. 특히, 행동경제학 분야를 접목하여 현장실험, 온라인 선택실험 등 다양한 실험연구도 함께 수행함. 이를 통해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본방향: 1) 소비자 친화적 표시정보 체계 구축, 2)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 3) 표시정보 신뢰도 제고, 4) 건강한 식품선택 장려
- 세부 추진방안: 1) 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2) 소비자 수요 대응 표시정보 확충, 3) 농식품 인증표시의 소비자 지향적 정비, 4) 소비자 식별용이 표시방법 활용, 5)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 6) 효과적인 표시정보 교육 및 홍보, 7) 농식품 표시정보의 신뢰도 제고

○ 류상모·김진우(2018)는 농림식품의 전후방 연관 산업(농림축산관련 투입재산업, 가공 및 유통산업, 서비스 및 지식산업 등)에 대한 지표를 공표하여 농림식품산업의 위상과 규모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에서는 농림식품산업의 변화 추이 검토, 농림식품산업의 범위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 부가가치의 국가승인통계 또는 정책 지표화 및 추계 방법을 제안함.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등 각종 분류기준 검토, 타부처 특수분류 제·개정 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의 분류기준 정비 및 특수분류 제정 추진 로드맵을 수립함.

○ 김한호 외(2019)는 농식품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평상시에는 사고 예방력 제고,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응 효과성 제고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안전관리 효율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분석은 문헌조사, 국내외 현지조사, 관계자(실무자, 전문가) 면담 조사,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문가 원고,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됨. 김한호 외(2019)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농식품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농식품 안전관리 조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 안동환 외(2019)는 농식품 분야 특수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해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의 정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재분류하였음. 해당 연구는 농산업, 축산업, 산림산업 등 3개 산업을 대분류로 나누고 하위 단계를 가치사슬 단계별로 재구분하였는데, 이때 식품산업은 농산업에 포함된 농식품 가공업 및 농식품유통업 등으로 분류됨. 한편, 해당 연구는 농식품산업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산업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2, 3차 산업까지 고려한 전체 연관산업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2015년 기준 농림식품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GDP)를 20.3조 원으로 추정함.

- 이주형 외(2019)는 식품안전 규제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어렵게 한다는 모순적 패러다임이 아닌 식품산업과 안전관리의 조화·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이를 위해 산업진흥을 위한 품질관리 정책과 국민의 건강권·안전권의 보장을 위한 안전규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위임위탁 규정을 통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주형 외(2019)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안전규제의 일원화와 식품산업 전문화를 국내 식품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함.
 - (안전규제 일원화) 안전규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 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의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
 - (산업진흥 전문화) 산업 진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효과적인 산업진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세혁(2020)은 농식품 산업 및 관련 신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농식품 통계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식품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동시에, 농식품 산업 특수분류체계 승인을 위한 마스터표본 구축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농식품 산업 통계조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하였음. 연구 결과 농식품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8개 대분류, 25개 중분류, 69개 소분류, 160개 세분류, 202개 세세분류로 분류하였으며, 특수분류체계 기준 농식품 산업의 총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를 각각 105.6조 원, 404.6만 명으로 추정함. 아울러, 농식품

산업의 세부 분야별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중간재 역할 큰 분야: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 타 산업 영향이 큰 분야: 농산업 투입재 산업,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분야: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965명/10억 원),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625명/10억 원)

○ 박미성 외(2020)는 식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식품 관련 통계의 전반적인 현황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이를 위해 먼저 식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식품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용자 유형별 식품통계 문제점 및 수요분석을 통해 신규 통계를 제시하였음. 또한, 식품 통계분류체계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고, 신규 통계 수집 방안을 모색함. 박미성 외(2020)는 연구 결과 도출된 13가지 문제점을 통계 생산 및 활용 분야, 분류체계 분야, 신규 통계 분야, 통계 관리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방향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이용자 입장의 기존 생산 통계 활용도 제고: 기존 통계를 재정비하는 전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통계기반 구축: 통계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전략, 민관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통계 확충 전략이 필요함.

○ 이주형 외(2020)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모델을 도출하고 기술 도입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먼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원료단계 이력추적에 대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료단계 확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또한, 전 세계로 수출이 활발한 수출제품인 건강기능식품 홍삼을 대상으로 수출단계 확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위변조 방지가 강화된 데이터의 활용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와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이주형 외(2020)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첫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적용방안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둘째, IoT 기술 등을 블록체인 기술에 접목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및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셋째, 원료단계까지 이력추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 김성준 외(2021)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 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실증 연구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김성준 외(2021)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외부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통한 방안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구분하여 제안함. 또한, MyAgriData의 구축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으로 농업인 전용카드 발급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법령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1.8.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연구

○ 김경필 외(2013)는 지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함. 해당 연구에서는 농업과 식품클러스터의 효율적 상생 연계를 위해 첫째, 식품기업에 국내 농산물 원료의 적시·적량 공급 방안, 둘째, 고부가가치 원료농산물의 전략적 발굴·산업화 방안,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단위클러스터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함.

○ 한국생산성본부(2019)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공공기관화 및 자립화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발전방안 및 수익사업 창출 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는 대내외의 여건분석 및 벤치마킹,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발전전략 및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구체적·단계적 실행로드맵 제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경영전략 혁신방안 제시, 지원센터 자립화 방향성 및 수익모델 도출, 로드맵 제시, 내외부 성과평가제도 진단·분석,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포괄함. 특히, 해당 연구는 기존 추진 방향(추진 전략)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세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4대 전략목표(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별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
- (식품혁신 생태계 활성화) 식품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식품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함.
- (수출·판로 전진기지 도약)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수출 및 판로 전진기지로 도약시킴.
- (지속 가능 경영시스템 구축) 선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성과 창출 및 성과를 확산시킴.

○ 최병욱 외(2021)는 대내외 여건 변화 반영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먼저, 그간의 추진성과와 경쟁력, 그리고 문제점을 진단함. 다음으로 국내 산업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 관련 산업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능 다각화를 위한 R&D기능, 스타트업 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활성화 방안 지원 등을 제시함. 최종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를 각각 ‘미래 식품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 견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식품산업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산학연 교류협력 촉진, 국내의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 지역클러스터 연계

- 2) 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 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식품기업 경영 지원, 식품벤처·청년창업 지원
- 3) 미래 식품산업 선도: 미래유망 식품분야 발굴, 글로벌 수준 인증서비스 제공, 미래유망 산업 진입방안 마련

3.1.9.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

- DEFRA(2006)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된 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소개함. 저자는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수준의 고용과 사회적 포용을 독려하는 정의사회의 실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실현하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통해 성취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세부 전략에는 더 나은 상품 및 서비스, 효율적인 생산과정,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부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물 사용량 축소,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등 친환경적인 활동,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정책적 지원, 제품혁신 추구 등이 포함됨.
- Food Drink Europe(2012)은 유럽 식품제조업 및 음료산업이 식품의 안전성과 질, 영양적인 면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것과 향후 비전을 제시함. 식품제조업 및 음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안전하면서 질 좋은 원재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직결되며, 환경을 고려한 식품제조 및 음료 생산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설명함.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원료조달, 효율적인 자원사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영역별 세부 전략을 제안함.
- 임정빈 외(2012)는 식품산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윈-윈 전략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전략 및 모델을 수립함. 분석 과정에서는 식품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상생협력 현황을 조사함. 이를 바탕으로 식품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단계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아울러, 상생협력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협력 지원사업 추진, 식품 중소기업 협의체 창설, 클러스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장함. 또한, 식품제조업체에서부터 유통, 소비자, 중앙정부까지 연결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도 제안함.

- Baldwin(2015)은 식품산업을 기후 변화, 자원고갈, 오염 및 유해물질, 지역경제 발전, 기아와 영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사슬에 따라 조망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산업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함. 10가지 과제에는 △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식품 공급, △ 환경을 고려한 생산, △ 식품 가공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자원사용, △ 공급사슬 내 안전하고 양질의 노동환경 제공, △ 식품 손실 및 폐기량 감축,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소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됨.
- FAO(2017)는 식품의 안정성과 영양, 농촌 기아, 식품 시스템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과 연관된 주요 트렌드 및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 노력을 촉구함. 저자는 식품산업과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원 집약적인 농업시스템, 수자원 및 토양 자원고갈,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생산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적이고 친환경적인 농법 활용,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진보와 활용, 범국제적인 협력 등 식품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Unnevehr(2017)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식품가치사슬 내에서 음식료품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수요 대응 방안, 성장 및 혁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음식료품 산업은 미국 제조업 고용의 13%를 담당하며, 타 제조업 분야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임금을 제공함. 음식료품 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중 40% 이상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생산·개발함. 또한, 식품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농가(생산자) 및 단계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 이명기 외(2017)는 OECD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부문의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동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특히, OECD 정책분석틀을 적용하여 한국 농식품 정책 여건에서 필요한 혁신을 위한 투자, 구조 조정, 바람직한 자원 이용 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한국 농업의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분야를 크게 농식품시스템에서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및 제도 환경,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역량 강화와 서비스, 농업정책, 농업혁신시스템으로 나누고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함. 이명기 외(2017)는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농업(경제적 지속가능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환경적 지속가능성)’ 영역 모두 고르게 망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을 확인함.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영역별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혁신방향의 명확한 설정, 농업혁신생태계 구축, 지역별 농업혁신특구 조성 등을 제시함.

- 이용선 외(2018)는 중소 식품기업의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요인을 분석함. 분석 결과,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단순 납품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 식품기업은 기존의 설비를 보수하거나 확장하는 설비투자 위주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 이들의 실질 생산이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임. 소규모 식품기업들은 주로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하며, 중·대기업과의 공동마케팅, 기술개발 형태의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선 외(2018)는 중소 식품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시장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과잉경쟁의 해소, 식품기업 간 협력 확대, 미래에 대응 역량 제고 지원, 다양한 정책 활동과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김상효 외(2020)는 식품산업 중 식품제조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5개 핵심 주제(중소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식품제조업 일자리 문제,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 제고,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김상호 외(2020)는 본 연구를 통해 대·중소식품제조업체 상생협력 촉진,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식품 R&D 추진, 소비자·사회·환경·기업의 건강 개선 등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이 포용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정학균 외(2020)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16~2020)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생산 실태 분석, 생산자·소비자 인식조사 분석, 해외 선진국의 유기농업 관련 정책 조사 분석 등을 기초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21~2025) 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해당 연구를 수행함. 정학균 외(2020)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의 비전으로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으로 설정하고,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분야별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본방향: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과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 정책목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2019년 기준 5.2%에서 2025년까지 10%로 달성
- 분야별 추진 방향: 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젊은 인력 유입 촉진,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확대 등) ②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친환경농식품 소비 문화 조성,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친환경 외식·가공산업 활성화 등)

○ 김종안 외(2020b)는 「제1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동안 수행할 「제2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연구는 기후변화 전망과 농식품 부문의 영향, 제1차 기본계획의 이행평가, 신기후 체제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검토, 제2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의 순서로 진행됨. 김종안 외(2020b)가 제시한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의 기본방향과 전략은 다음과 같음.

- 기본 방향: ①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동시 강화, ②정책 범위를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농촌사회 영역으로 확장, ③ 농식품 부문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 4대 추진 전략: ①저탄소 농식품산업으로 전환, ②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③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유통·소비 기반 구축, ④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확대

○ 황윤재 외(2021b)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내 대응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수행함. UN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가 푸드시스템을 점검하고,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논의, 국내 논의, 독립 논의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황윤재 외(2021b)는 UN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국내 논의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5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내 푸드시스템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먹거리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고 보았음.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협력을 촉구하는 UN의 기조를 받아들여, 연령별, 성별, 분야별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도 확보했다고 평가함. 앞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던 업계 담당자, 지역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한다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식품산업 현황

1.1. 국내 식품시장 규모와 성장

1.1.1. 식품산업 매출액 및 GDP

○ 식품제조업, 외식업, 유통업을 포함한 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 239.8조 원에서 2015년 463.6조 원, 2020년 569.9조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부문별로는 식품 유통업이 12.0%로 가장 높아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연평균 6.5% 수준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함. 식품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4%로 광의의 식품산업 범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같은 기간 일반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2.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²⁾

- 음식료품 제조업 매출액은 ('10) 74.4조 원 → ('15) 108.6 → ('20) 125.9로 성장

- 외식업 매출액은 ('10) 67.6조 원 → ('15) 108.0 → ('20) 139.9로 성장

- 식품유통업 매출액은 ('10) 97.9조 원 → ('15) 231.8조 원 → ('20) 304.1로 성장

²⁾ 일반제조업 매출액은 2010 1,464조 원에서 2020년 1,816조 원으로 연평균 2.2%로 성장

○ 전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이후 22~23% 대에 정체되어 있음.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유형으로 2020년 매출액 비중이 24.5%로 감소함. 반면에 2015년 이후 식품유통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019년을 제외하면 50%를 초과함.

-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외식업이 식품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010년 59.2%에서 2020년 46.6%로 감소

- 식품유통업의 매출액 비중은 동 기간 40.8% → 53.4%로 증가

〈표 2-1〉 식품산업 매출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연평균 성장률		
								2010 ~ 2015	2015 ~ 2020	2010 ~ 2020
광의의 식품산업 (A+B+C)	239,796 (100.0)	463,594 (100.0)	471,912 (100.0)	498,464 (100.0)	521,333 (100.0)	535,526 (100.0)	569,873 (100.0)	14.1	4.2	9.0
협의의 식품산업 (A+B)	141,897 (59.2)	209,900 (45.3)	227,414 (48.2)	242,410 (48.6)	260,315 (49.9)	270,854 (50.6)	265,775 (46.6)	8.1	4.8	6.5
음식료품 제조업 (A)	74,352 (31.0)	101,887 (22.0)	108,561 (23.0)	114,111 (22.9)	122,132 (23.4)	126,462 (23.6)	125,886 (22.1)	6.5	4.3	5.4
- 식품제조업	66,304 (27.7)	90,626 (19.5)	97,053 (20.6)	102,233 (20.5)	109,687 (21.0)	114,054 (21.3)	113,455 (19.9)	6.4	4.6	5.5
- 음료제조업	8,048 (3.4)	11,260 (2.4)	11,508 (2.4)	11,878 (2.4)	12,444 (2.4)	12,408 (2.3)	12,431 (2.2)	6.9	2.0	4.4
음식점업 (B)	67,566 (28.2)	108,013 (23.3)	118,853 (25.2)	128,300 (25.7)	138,183 (26.5)	144,392 (27.0)	139,890 (24.5)	9.8	5.3	7.5
식품 유통업 (C)	97,899 (40.8)	231,797 (50.0)	244,498 (51.8)	256,054 (51.4)	261,018 (50.1)	264,673 (49.4)	304,098 (53.4)	18.8	5.6	12.0
- 음식료품 도매업	85,387 (35.6)	135,542 (29.2)	143,466 (30.4)	150,705 (30.2)	151,474 (29.1)	153,250 (28.6)	182,683 (32.1)	9.7	6.2	7.9
- 식품 소매업	12,512 (5.2)	96,255 (20.8)	101,032 (21.4)	105,349 (21.1)	109,544 (21.0)	111,423 (20.8)	121,415 (21.3)	50.4	4.8	25.5

주1: 통계청 연도별 경제총조사(2010, 2015, 2020),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계통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주2: 음식료품 도매업, 식품 소매업 매출액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담배를 제외한 값임.

주3: 음식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식점업을 포함함.

주4: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자료는 등록기반 자료와 조사기반 자료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등록기반 자료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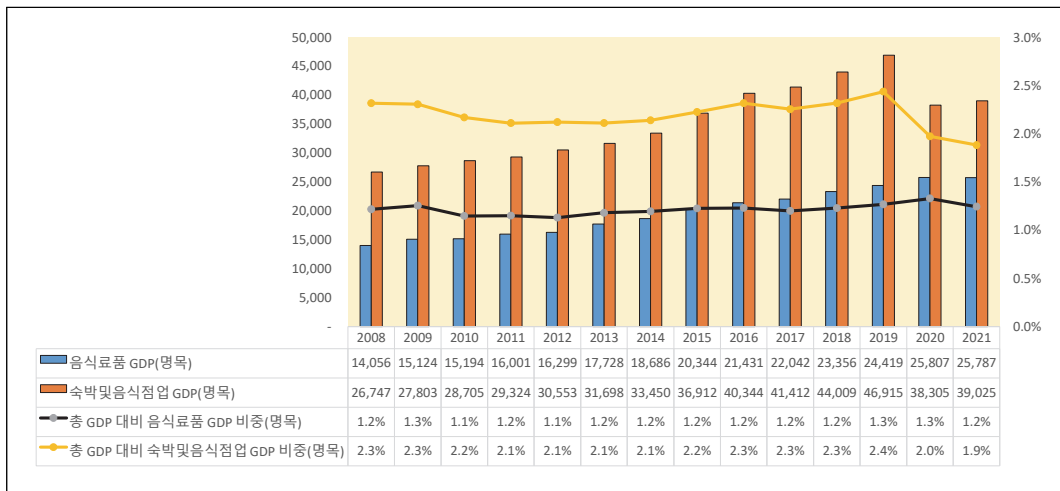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2015),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협의의 식품산업 GDP는 ('16) 190.7조 원에서 ('20)198.0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식품제조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명목 GDP 비중은 1.2%~1.3%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명목 GDP 비중은 2021년 1.9%로 감소함.

- 음식료품 명목 GDP ('08) 14,056십억 원→ ('12) 16,299 → ('17) 22,042 → ('21) 25,787로 증가 추세
- 숙박 및 음식점업 GDP는 동 기간 ('08) 26,747십억 원→ ('12) 30,553 → ('17) 41,412 → ('21) 39,025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소

〈그림 2-1〉 협의의 식품산업 GDP 및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명목)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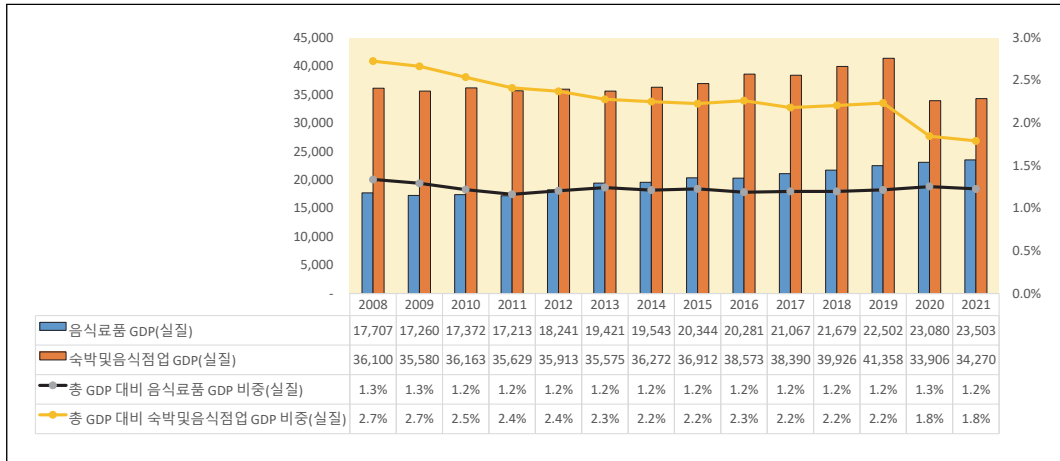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

○ 총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실질 GDP 비중은 식품제조업이 1.2%대에서 정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1년 1.8%로 2008년 2.7% 대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 음식료품 실질 GDP는 ('08) 17,707십억 원→ ('12) 18,241 → ('17) 21,067 → ('21) 23,503으로 증가 추세
- 숙박 및 음식점업 GDP는 ('08) 36,100십억 원→ ('12) 35,913 → ('17) 38,390 → ('21) 34,270으로 명목 GDP와 유사한 경향

〈그림 2-2〉 국내 식품산업 GDP 및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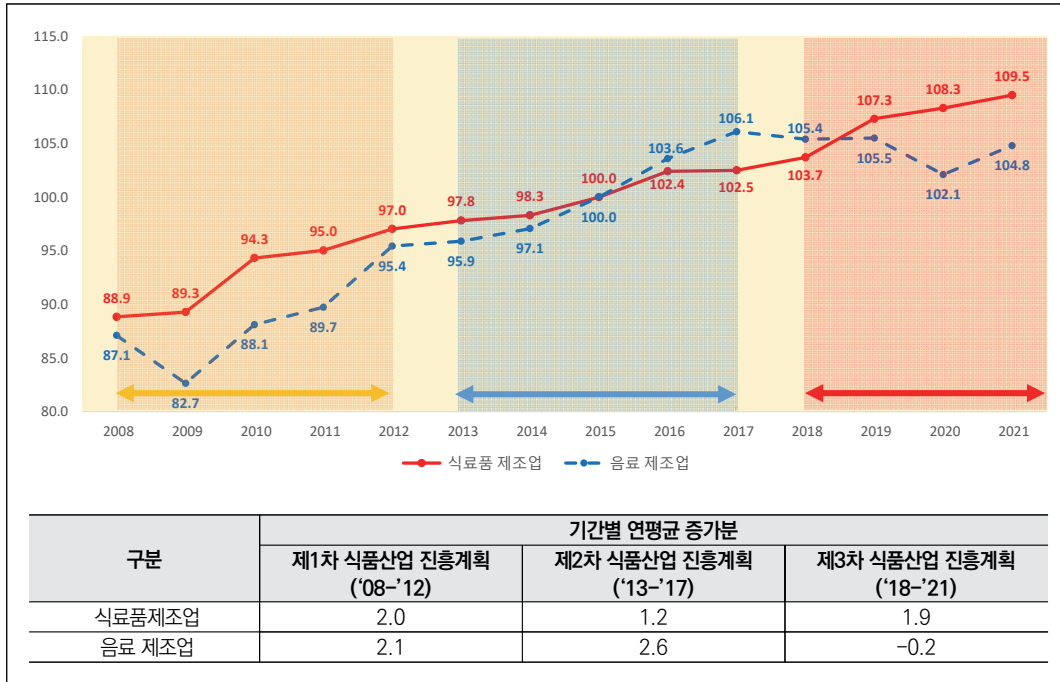
1.1.2. 식품제조업 출하 및 물가

○ 1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시작 연도인 2008년부터 차수별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종료 기간을 기준으로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출하지수 추이를 분석함.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임. 반면에 음료제조업의 출하지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106.1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기간별 성장세 측면에서 2차 진흥계획 추진 기간을 제외하면 식품제조업 출하지수의 우위가 발견됨.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08) 88.9 → ('12) 97.0 → ('17) 102.5 → ('21) 109.5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08) 87.1 → ('12) 95.4 → ('17) 106.1 → ('21) 104.8

○ 1차 진흥계획 기간 식료품제조업 연평균 출하지수 증가분은 2.0 p 으로 음료제조업 증가분(2.1 p)과 유사함. 제2차 진흥계획 추진 기간에는 음료제조업의 연평균 출하지수 증가분(2.6 p)이 식료품제조업(1.2 p) 보다 큼. 제3차 진흥계획 추진 기간에는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지수가 연평균 1.9 p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음료제조업 출하지수는 연평균 0.2 p 감소함.

〈그림 2-3〉 연도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추이(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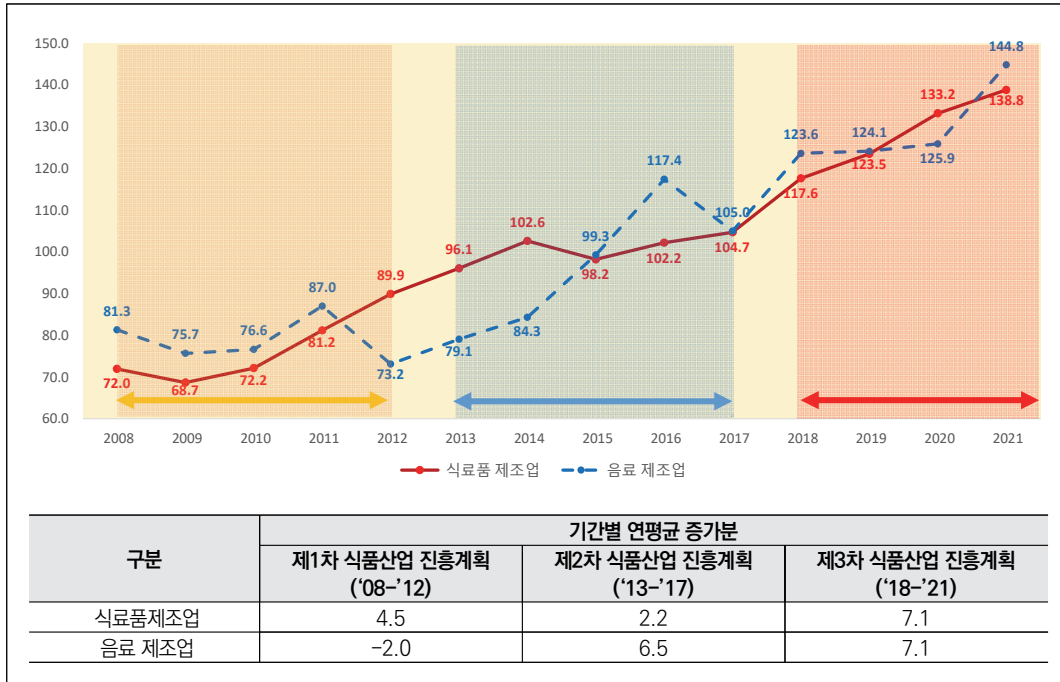
주1) 각 화살표는 차수별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기간을 의미함.

주2) 지수의 연평균 증가분은 (비교년도 지수-기준년도 지수)/(비교년도-기준년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광업제조업동향조사(각 연도).

○ 음식료품 제조업의 재고지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지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5 p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3.0 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완화됨. 3차 진흥계획 추진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7.1 p 증가함. 음료제조업의 재고지수는 동 기간 각각 -2.0 p, 6.4 p, 7.1 p 증가함. 재고지수의 증가는 식품제조업체의 리스크 증가로 해석할 수 있고, 물가 급등과 더불어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2-4〉 연도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재고지수 추이(2015=100)



주1) 각 화살표는 차수별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기간을 의미함.

주2) 지수의 연평균 증가분은 (비교년도 지수-기준년도 지수)/(비교년도-기준년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출하지수와 재고지수는 해당 업종의 추이를 설명할 수 있으나, 지수화된 자료의 특성상 식품산업 내 출하와 재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연도별 출하액 및 재고액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제조업 재고율을 도출하여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식료품제조업의 연말 완제품 재고율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인 2018년 이후 3.1~3.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음료 제조업의 연말 완제품 재고율은 2010년 4.0%로 정점을 달성한 이후, 3% 내외의 식료품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다 2021년 3.9%로 급등하였음.

- 식료품제조업 연말완제품재고율: ('08) 3.0 → ('12) 3.1 → ('17) 2.9 → ('2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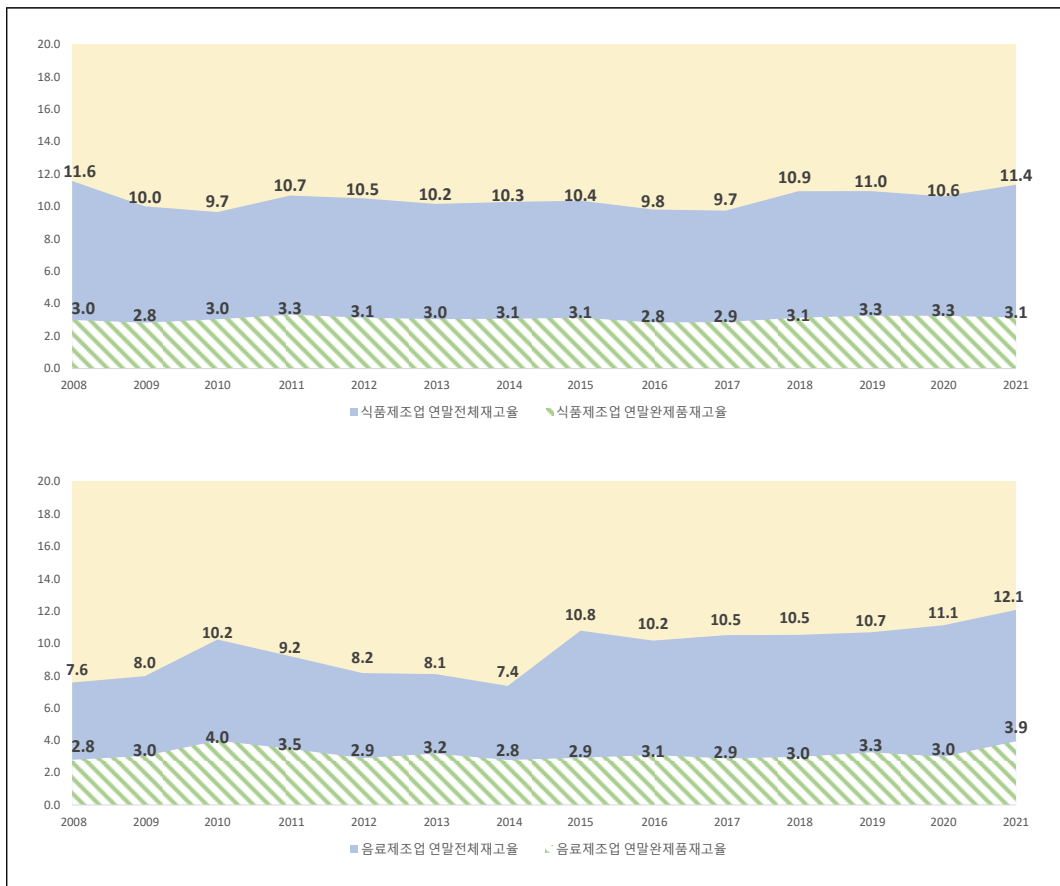
- 음료제조업 연말완제품재고율: ('08) 2.8 → ('12) 2.9 → ('17) 2.9 → ('21) 3.9

○ 원재료 등 기타 품목을 포함한 산업의 전체 재고율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3차 진흥계획 추진 이전 연도인 2017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3차 진흥계획 시작 연도인 2018년 10.9%에서 2021년 11.4%까지 전체재고율이 증가하였으며, 음료제조업의 경우 2015년에 급등한 전체재고율이 2017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12.1%를 기록하여 식품제조업 대비 높은 연말전체재고율을 보임.

- 식료품제조업 연말전체재고율: ('08) 11.6 → ('12) 10.5 → ('17) 9.7 → ('21) 11.4

- 음료제조업 연말전체재고율: ('08) 7.6 → ('12) 8.2 → ('17) 10.5 → ('21) 12.1

〈그림 2-5〉 연도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재고율 추이(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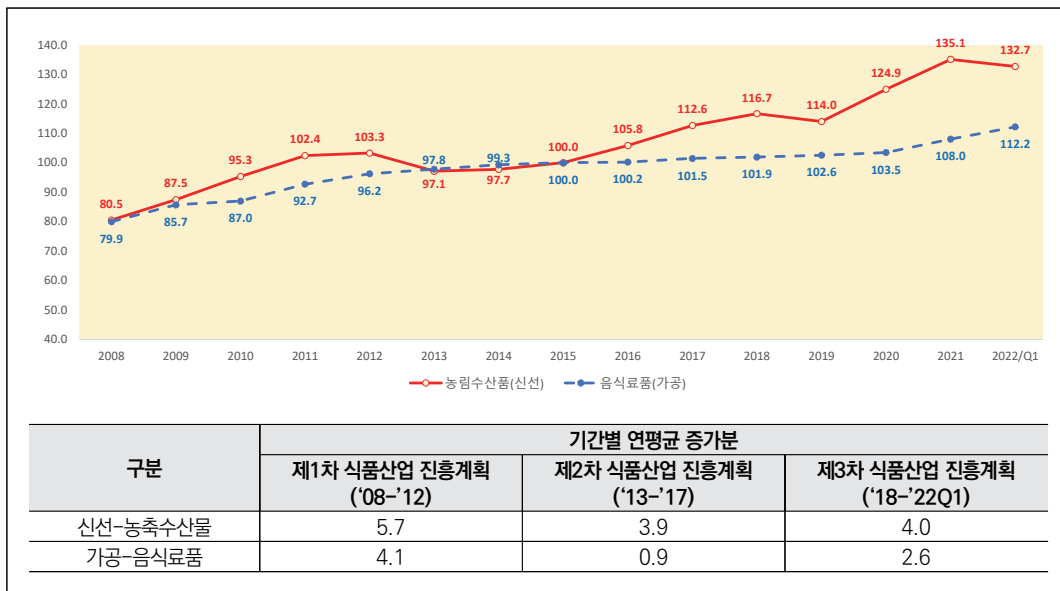
주: 재고율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연도별 (재고액/출하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전체재고율은 완제품 및 원재료 등 기타 항목을 포함한 재고율임.

자료: 통계청, 연도별 세부산업별 광업제조업동향조사(10인 이상, 각 연도), 연도별 경제총조사(10인 이상, 2010, 2015)

○ 식품산업에서 직면하는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13~2015년을 제외하면 신선식품(농·축·수산물) 물가가 가공식품(식료품·음료) 물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신선식품 생산자물가지수의 연도별 증가폭이 큰 것과 대조적으로 가공식품생산자물가지수는 안정세를 보여 2015년 이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생산자물가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임. 신선식품 물가 급등이 지속된다면 신선식품 원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경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신선식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제1차, 제2차,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연평균 5.7 p, 9.9 p, 4.0 p 증가
-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지수는 동 기간 연평균 4.1 p, 0.9 p, 2.6 p 증가

〈그림 2-6〉 연도별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2015.1-2022.3)



주: 지수의 연평균 증가분은 (비교년도 지수-기준연도 지수)/(비교년도-기준연도)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월별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

1.1.3. 식품산업 경영실적실적

○ 2010년 33.9조 원이었던 광의의 식품산업 영업이익은 2015년 34.2조 원, 2020년 33.6조 원으로 정체 중임. 협의의 식품산업(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외식업)이 전체

식품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8.4%에서 2020년 62.0%로 감소함.

- 식품유통업의 비중은 2020년 38.0%로 2015년 20.4% 대비 증가
- 연평균 증감률 측면에서 협의의 식품산업 영업이익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2.4% 역성장함.

〈표 2-2〉 식품산업 영업이익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분	영업이익			연평균 증감률		
	2010	2015	2020	10-'15	'15-'20	10-'20
광의의 식품산업 (A+B+C)	33,943 (100.0)	34,169 (100.0)	33,554 (100.0)	0.1	-0.4	-0.1
협의의 식품산업 (A+B)	26,608 (78.4)	27,185 (79.6)	20,808 (62.0)	0.4	-5.2	-2.4
음식료품 제조업 (A)	11,066 (32.6)	12,626 (37.0)	12,828 (38.2)	2.7	0.3	1.5
- 식료품제조업	9,568 (28.2)	9,568 (28.0)	9,710 (28.9)	0.0	0.3	0.1
- 음료제조업	1,498 (4.4)	3,058 (8.9)	3,119 (9.3)	15.3	0.4	7.6
음식점업 (B)	15,541 (45.8)	14,558 (42.6)	7,980 (23.8)	-1.3	-11.3	-6.4
식품 유통업 (C)	7,336 (21.6)	6,984 (20.4)	12,746 (38.0)	-1.0	12.8	5.7
- 음식료품 도매업	4,838 (14.3)	4,816 (14.1)	9,900 (29.5)	-0.1	15.5	7.4
- 식품 소매업	2,497 (7.4)	2,168 (6.3)	2,846 (8.5)	-2.8	5.6	1.3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2015, 2020)

○ 2021년 식료품 제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각각 3.8%, 3.3%, 음료 제조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매출액은 10.7%,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4.9%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연도 변화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음료제조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음료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함.

- 식료품제조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 5.9 → ('15) 5.3 → ('20) 4.3 → ('21) 3.8
- 식료품제조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 3.6 → ('15) 3.4 → ('20) 3.6 → ('21) 3.3
- 음료제조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 9.6 → ('15) 12.3 → ('20) 10.8 → ('21) 10.7
- 음료제조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 9.1 → ('15) 6.1 → ('20) 4.9 → ('21) 4.8

〈표 2-3〉 식품산업 기업체 규모별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업종				
			전산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매출액 영업 이익률	2010	대기업	6.6	7.7	5.9	9.6	
		중소기업	3.5	4.7	3.6	9.1	
	2015	대기업	5.5	5.6	5.3	12.3	
		중소기업	3.6	4.4	3.4	6.1	
	2019	대기업	4.8	4.7	4.2	10.3	
		중소기업	3.4	3.8	3.6	4.6	
	2020	대기업	4.8	4.8	4.3	10.8	
		중소기업	3.5	4.2	3.6	4.9	
	2021	대기업	7.0	8.1	3.8	10.7	
		중소기업	3.5	3.9	3.3	4.8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2010	대기업	6.8	8.6	9.4	5.4
			중소기업	2.3	3.5	2.8	8.1
2015		대기업	5.3	5.5	4.5	12.0	
		중소기업	3.1	3.8	3.2	4.2	
2019		대기업	4.2	4.8	3.5	7.9	
		중소기업	3.1	3.2	3.1	4.9	
2020		대기업	4.2	5.0	4.4	8.1	
		중소기업	3.5	3.8	3.6	4.9	
2021		대기업	8.0	9.3	3.5	9.7	
		중소기업	4.4	4.3	3.3	5.8	
이자 보상비율		2010	대기업	438.5	805.1	731.3	348.7
			중소기업	178.1	274.1	235.0	325.9
	2015	대기업	433.1	704.0	786.6	1,047.9	
		중소기업	259.5	326.5	315.8	256.4	
	2019	대기업	415.0	687.4	533.8	852.6	
		중소기업	235.6	294.2	348.3	262.0	
	2020	대기업	411.2	710.4	650.0	982.2	
		중소기업	243.0	353.6	396.6	255.8	
	2021	대기업	714.5	1,504.9	630.7	1,236.7	
		중소기업	259.7	358.1	399.8	302.8	

주: 연평균 % p 변화는 (비교년도 이익률-기준연도 이익률)/(비교년도-기준연도)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익성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각 연도).

○ 음식료품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식료품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대비 2020년 5.8% p 감소하였고, 음료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0.2%에서 2020년 25.1%로 6.5% p 증가함. 2010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과실, 채소 가공업으로 해당 기간 영업이익률 약 9.8% p 감소함. 음료 제조업의 경우, 알코올음료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며 꾸준히 높은 특징을 보임.

-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는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음.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10년에는 24.0%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16.8%로 2위를 기록함.

〈표 2-4〉 식품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2020 변화율(%p)
식료품 제조업	14.4	10.6	8.6	-5.8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8	3.1	2.1	-7.7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5	8.0	6.9	-5.6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7	8.9	3.9	-9.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4.4	11.9	7.6	-6.8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업	24.0	15.1	16.8	-7.2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9.9	9.1	5.2	-4.7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22.5	20.6	24.3	1.8
설탕 제조업	8.3	8.1	15.3	7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8	18.8	12.5	0.7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6.0	15.5	13.5	-2.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7.2	-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2	6.9	3.5	-6.7
음료 제조업	18.6	27.2	25.1	6.5
알코올음료 제조업	19.3	30.2	31.8	12.5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17.9	24.3	19.8	1.9

주: 본 수치는 경제총조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산정한 값에 해당함.
 자료: 이계임 외(2023, 발간예정); 경제총조사(2010,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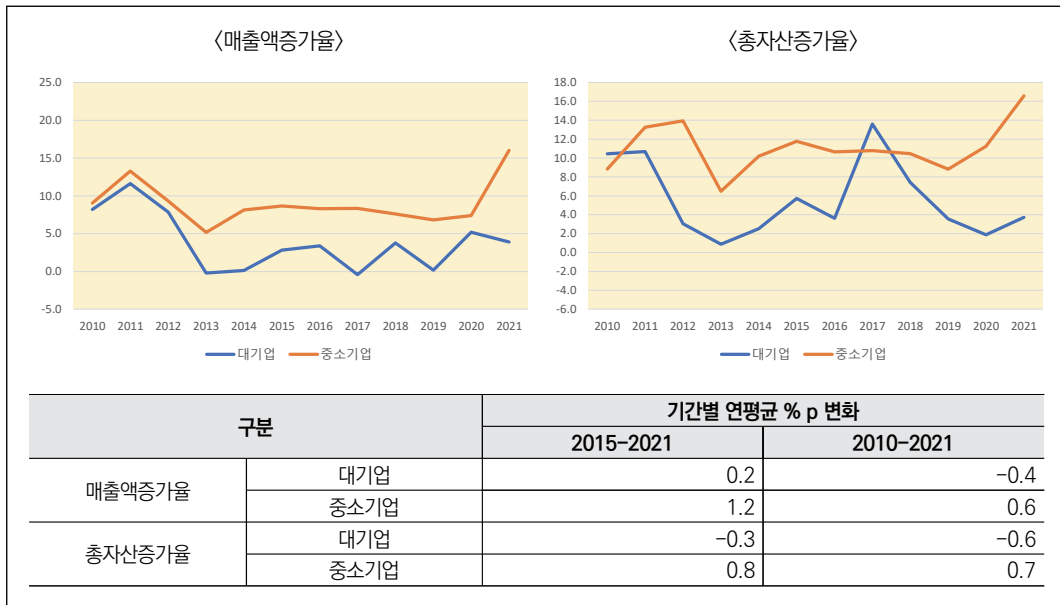
○ 중소식료품제조업체의 성장성 지표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매출액증가율 측면에서 대기업은 2010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연평균 0.4% 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0년 9.0%에서 연평균 0.6% p 증가하여 2021년 16.0%를 달성함.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0.5%에서 2021년 3.7%로 연평균 0.6% p 감소함. 반면에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동 기간 0.7% p 증가하여 2010년 8.8%에서 2021년 16.6%로 나타남. 단,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총자산, 유형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 등 성장성 지표 전반에서 이미 충분히 성장하였고, 중소기업은 성장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장성 지표의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음.

-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 ('10) 8.2% → ('15) 2.8% → ('20) 5.2% → ('21) 3.9%
-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 ('10) 9.0% → ('15) 8.7% → ('20) 7.4% → ('21) 16.0%
-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 ('10) 10.5% → ('15) 5.7% → ('20) 1.9% → ('21) 3.7%
- 중소기업 총자산증가율: ('10) 8.8% → ('15) 11.8% → ('20) 11.3% → ('21) 16.6%

〈그림 2-7〉 식료품제조업 기업규모별 성장성지표 추이(2010-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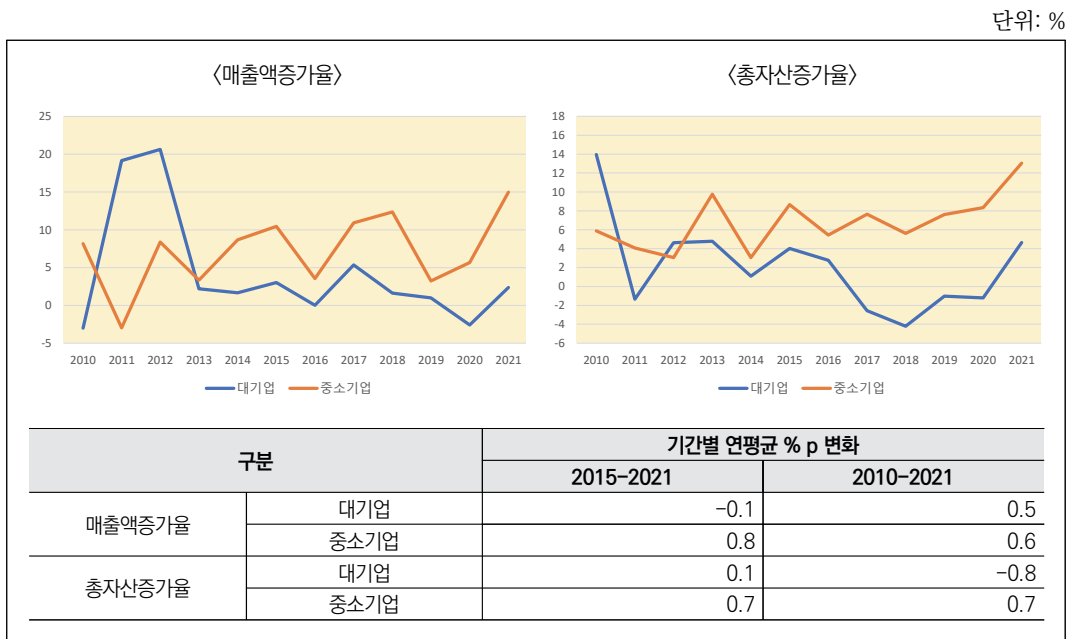
주: 연평균 % p 변화는 (비교년도 이익률-기준년도 이익률)/(비교년도-기준년도)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성장성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각 연도)

○ 음료제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 증가율 지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기업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변화분은 0.5%p인 반면 중소기업은 0.6%p로, 2021년 수치를 비교하면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4%,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은 15.0%임.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4.0%에서 2021년 4.6%로 연평균 0.8%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5.9%에서 2021년 13.1%로 연평균 0.7%p 증가함.

-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 ('10) -3.0% → ('15) 3.0% → ('20) -2.6% → ('21) 2.4%
-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 ('10) 8.2% → ('15) 10.5% → ('20) 5.7% → ('21) 15.0%
-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 ('10) 14.0% → ('15) 4.0% → ('20) -1.2% → ('21) 4.6%
- 중소기업 총자산증가율: ('10) 5.9% → ('15) 8.7% → ('20) 8.3% → ('21) 13.1%

〈그림 2-8〉 음료제조업 매출액증가율 추이(2010-202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성장성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각 연도)

1.2.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1.2.1. 식품산업 사업체 수

○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788,334개 사에서 2020년 970,732개 사로 연평균 2.1% 증가함. 동 기간 협의의 식품산업(음식료품 제조업+외식업) 사업체 수의 비중은 81.3%에서 81.6%로 소폭 증가하였음. 그러나 음식료품 제조업이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9%에서 2020년 6.6%로 감소하고 음식점업 사업체 수가 74.4%에서 74.9%로 증가하여 제조업체 수의 감소가 발견됨.

-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체 수 추이: ('10) 54,269개 사(6.9%) → ('15) 57,954(6.5%) → ('20) 64,365(6.6%)
- 음식점업 사업체 수 추이: ('10) 586,297개 사(74.4%) → ('15) 657,086(73.5%) → ('20) 727,377(74.9%)
- 식품유통업 사업체 수 추이: ('10) 147,768개 사(18.7%) → ('15) 178,506(20.0%) → ('20) 178,990(18.4%)

〈표 2-5〉 식품산업 사업체 수

단위: 개 사,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연평균 성장률		
								2010 ~ 2015	2015 ~ 2020	2010 ~ 2020
광의의 식품산업 (A+B+C)	788,334 (100.0)	893,546 (100.0)	912,074 (100.0)	910,207 (100.0)	928,971 (100.0)	949,240 (100.0)	970,732 (100.0)	2.5	1.7	2.1
협의의 식품산업 (A+B)	640,566 (81.3)	715,040 (80.0)	733,844 (80.5)	735,145 (80.8)	753,371 (81.1)	771,343 (81.3)	791,742 (81.6)	2.2	2.1	2.1
음식료품 제조업 (A)	54,269 (6.9)	57,954 (6.5)	58,645 (6.4)	60,089 (6.6)	61,620 (6.6)	62,329 (6.6)	64,365 (6.6)	1.3	2.1	1.7
- 식료품제조업	53,099 (6.7)	56,490 (6.3)	57,212 (6.3)	58,653 (6.4)	60,071 (6.5)	60,715 (6.4)	62,768 (6.5)	1.2	2.1	1.7
- 음료제조업	1,170 (0.1)	1,464 (0.2)	1,433 (0.2)	1,436 (0.2)	1,549 (0.2)	1,614 (0.2)	1,597 (0.2)	4.6	1.8	3.2
음식점업 (B)	586,297 (74.4)	657,086 (73.5)	675,199 (74.0)	675,056 (74.2)	691,751 (74.5)	709,014 (74.7)	727,377 (74.9)	2.3	2.1	2.2
식품 유통업 (C)	147,768 (18.7)	178,506 (20.0)	178,230 (19.5)	175,062 (19.2)	175,600 (18.9)	177,897 (18.7)	178,990 (18.4)	3.9	0.1	1.9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연평균 성장률		
								2010 ~ 2015	2015 ~ 2020	2010 ~ 2020
- 음식료품 도매업	51,325 (6.5)	75,289 (8.4)	74,918 (8.2)	73,966 (8.1)	73,578 (7.9)	73,924 (7.8)	74,459 (7.7)	8.0	-0.2	3.8
- 식품 소매업	96,443 (12.2)	103,217 (11.6)	103,312 (11.3)	101,096 (11.1)	102,022 (11.0)	103,973 (11.0)	104,531 (10.8)	1.4	0.3	0.8

주1: 음식료품 도매업, 식품 소매업 매출액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담배를 제외한 값임.

주2: 음식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식점업을 포함함.

주3: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자료는 등록기반 자료와 조사기반 자료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등록기반 자료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경제총조사(2010, 2015),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매계통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기간에 해당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체 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식품산업 내 사업체 수는 연평균 1.9% 규모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연평균 1.3% 증가하는 데 그침. 동 기간 식품 유통업체 수는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체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외식업은 연평균 1.9% 수준의 성장률을 보임.

- 1차 진흥계획 기간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연평균 2.0% 성장하였으나, 식품제조업은 -0.3% 역성장하였고 음료제조업(1.7%), 외식업(2.0%), 식품유통업(2.7%)을 중심으로 성장
- 2차 진흥계획 기간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연평균 1.5% 성장하였고, 식품제조업(2.2%), 음료제조업(2.5%)의 성장률이 개선되고 외식업(1.5%), 식품유통업(1.5%) 성장세는 둔화
- 3차 진흥계획 기간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연평균 2.2% 성장하였고, 식품제조업의 사업체수 성장세는 2.2%로 유지되었으나 음료제조업 사업체 수 성장률이 1.5%로 둔화, 외식업체 수 증가세는 2.5%로 개선, 식품유통업의 연평균성장률은 1.0%로 둔화

〈표 2-6〉 식품산업 사업체 수 연평균 성장률(2008~2020)

단위: 개 사, %

구분	광의의 식품산업 (A+B+C)	협의의 식품산업 (A+B)	음식료품 제조업(A)			외식업(B)	식품 유통업(C)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식품 도매업		식품소매업		
전체기간 (2008~2020)	1.9	1.9	1.3	1.3	2.6	1.9	1.8	3.5	0.8
1차 (2008~2012)	2.0	1.8	-0.2	-0.3	1.7	2.0	2.7	4.4	1.8
2차 (2013~2017)	1.5	1.6	2.2	2.2	2.5	1.5	1.5	4.1	-0.2
3차 (2018~2020)	2.2	2.5	2.2	2.2	1.5	2.5	1.0	0.6	1.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 식품유통업을 제외한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식품산업체의 수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609개 사에서 2019년 723개 사로 연평균 5.9% 증가함.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300억 원 이상 사업체 수는 연평균 4.5% 증가
- 연매출액 300억 원 이상 음료제조업체 수는 2016년 62개 사에서 2019년 74개 사로 연평균 6.1% 증가
- 연매출액 300억 원 이상 외식업체 수는 2016년 24개 사에서 2019년 53개 사로 30.2% 증가

〈표 2-7〉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2016-2019)

단위: 개 사

구분	매출액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감률 (‘16~’20)
협업의 식품산업 (식품료제조업+ 외식업)	0.5억 원 미만	279,936	271,900	265,477	284,476	0.54%
	0.5~1억 원 미만	158,580	159,688	160,259	150,182	-1.80%
	1~5억 원 미만	241,309	260,365	280,583	286,666	5.91%
	5~10억 원 미만	33,236	37,069	39,487	42,111	8.21%
	10~50억 원 미만	17,562	19,041	20,733	21,866	7.58%
	50~100억 원 미만	1,804	1,920	2,064	2,201	6.85%
	100~200억 원 미만	915	920	1,008	1,132	7.35%
	200~300억 원 미만	276	303	319	349	8.14%
	300억 원 이상	609	634	704	723	5.89%
계	734,227	751,840	770,634	789,706	2.46%	
식품료제조업	0.5억 원 미만	32,729	33,272	33,387	33,711	0.99%
	0.5~1억 원 미만	6,873	6,747	6,818	6,162	-3.57%
	1~5억 원 미만	8,053	8,149	8,747	9,213	4.59%
	5~10억 원 미만	2,806	2,923	2,943	3,105	3.43%
	10~50억 원 미만	4,668	4,802	5,169	5,378	4.83%
	50~100억 원 미만	1,148	1,267	1,386	1,432	7.65%
	100~200억 원 미만	711	698	780	839	5.67%
	200~300억 원 미만	223	254	260	279	7.75%
	300억 원 이상	523	541	581	596	4.45%
계	57,734	58,653	60,071	60,715	1.69%	
음료제조업	0.5억 원 미만	473	481	569	585	7.34%
	0.5~1억 원 미만	208	206	201	228	3.11%
	1~5억 원 미만	348	353	357	362	1.32%
	5~10억 원 미만	116	110	115	125	2.52%
	10~50억 원 미만	136	137	142	145	2.16%
	50~100억 원 미만	33	26	35	35	1.98%
	100~200억 원 미만	38	40	39	43	4.21%
	200~300억 원 미만	23	15	13	17	-9.59%
	300억 원 이상	62	68	78	74	6.08%
계	1,437	1,436	1,549	1,614	3.95%	
음식점 및 주점업	0.5억 원 미만	246,734	238,147	231,521	250,180	0.46%
	0.5~1억 원 미만	151,499	152,735	153,240	143,792	-1.73%
	1~5억 원 미만	232,908	251,863	271,479	277,091	5.96%
	5~10억 원 미만	30,314	34,036	36,429	38,881	8.65%
	10~50억 원 미만	12,758	14,102	15,422	16,343	8.60%
	50~100억 원 미만	623	627	643	734	5.62%
	100~200억 원 미만	166	182	189	250	14.62%
	200~300억 원 미만	30	34	46	53	20.89%
	300억 원 이상	24	25	45	53	30.22%
계	675,056	691,751	709,014	727,377	2.52%	

자료: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2016-2019)

○ 식품산업 종사자 수별 산업체 수를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10년 14개 업체에서 2020년 22개 업체로 연평균 4.6%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500인 미만 업체는 2010년 30개 업체에서 2020년 22개 업체로 연평균 4.6% 증가함. 300인 미만 기업체 수는 10년간 2.7% 증가함.

- 식료품 제조업 내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00인 미만/300인-500인 미만 /5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1.7%, 2.1%, 4.7%로 대규모 기업체 수가 더 큰 비중으로 증가
- 음료 제조업 내에서 동 기간 300인 미만/300인-500인 미만 기업체 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3.3%, 4.8%로 5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이후 없는 상황임.
- 외식업체의 경우 절대다수의 업체가 300인 미만 사업장임.

〈표 2-8〉 식품산업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개 사

구분	종사자 수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10~'20)
협회의 식품산업	300인 미만	642,428	714,985	734,174	751,789	770,579	789,651	837,480	2.7%
	300-500인 미만	30	39	33	32	32	34	38	2.4%
	500인 이상	14	16	20	19	23	21	22	4.6%
	계	642,472	715,040	734,227	751,840	770,634	789,706	837,540	2.7%
식료품 제조업	300인 미만	52,858	56,451	57,693	58,614	60,031	60,674	62,722	1.7%
	300-500인 미만	22	25	25	25	21	23	27	2.1%
	500인 이상	12	14	16	14	19	18	19	4.7%
	계	52,892	56,490	57,734	58,653	60,071	60,715	62,768	1.7%
음료 제조업	300인 미만	1,152	1,456	1,431	1,430	1,542	1,605	1,589	3.3%
	300-500인 미만	5	7	5	6	7	9	8	4.8%
	500인 이상	1	1	1	-	-	-	-	-100.0%
	계	1,158	1,464	1,437	1,436	1,549	1,614	1,597	3.3%
외식업	300인 미만	588,418	657,078	675,050	691,745	709,006	727,372	773,169	2.8%
	300-500인 미만	3	7	3	1	4	2	3	0.0%
	500인 이상	1	1	3	5	4	3	3	11.6%
	계	588,422	657,086	675,056	691,751	709,014	727,377	773,175	2.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 식품산업 연도별 인허가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광의의 식품 산업 인허가 건수는 감소하였고(132,654건 → 128,094건) 폐업 건수는 증가(61,976건 → 79,484건)하여 연평균 순증가 증감률이 -7.2%로 분석됨. 2020년 식품산업 인허

가 건수는 203,286건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같은 기간 연평균 12.5%의 폐업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 증감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4%로 분석됨.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외식업 인허가 건수가 이전 기간(2015~2020)의 10.1%에서 크게 감소하여 -1.6%로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배경으로 유통업체는 2020~2022년간 연평균 1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식품제조업은 인허가 업체 수 연평균 증감률이 2020~2022년간 -9.3%로 이전 기간(2015~2020년간 -3.6%)에서 크게 감소함에 따라 폐업업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가 연평균 13.9%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9〉 연도별 식품산업 분야별 인허가, 폐업, 순증가 업체 수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건, %

구분	연도	업체수			연평균증감률			
		인허가	폐업	순증가	구분	인허가	폐업	순증가
광의의 식품산업 (A+B+C)	2010	132,654	61,976	70,678	'10-'20	4.4	8.7	-1.6
	2015	128,094	79,484	48,610	'10-'15	-0.7	5.1	-7.2
	2020	203,286	143,110	60,176	'15-'20	9.7	12.5	4.4
	2021	211,877	145,340	66,537	'20-'22	1.9	4.7	-4.9
	2022	211,117	156,747	54,370				
협의의 식품산업 (A+B)	2010	99,808	48,104	51,704	'10-'20	4.9	9.3	-1.7
	2015	101,126	57,769	43,357	'10-'15	0.3	3.7	-3.5
	2020	160,366	116,787	43,579	'15-'20	9.7	15.1	0.1
	2021	166,606	117,803	48,803	'20-'22	-1.8	3.9	-18.7
	2022	154,775	125,955	28,820				
식품제조업 (A)	2010	4,361	1,624	2,737	'10-'20	-1.8	6.5	-14.2
	2015	4,365	2,597	1,768	'10-'15	0.0	9.8	-8.4
	2020	3,637	3,048	589	'15-'20	-3.6	3.3	-19.7
	2021	3,389	2,804	585	'20-'22	-9.3	-8.5	-13.9
	2022	2,991	2,554	437				
외식업 (B)	2010	95,447	46,480	48,967	'10-'20	5.1	9.4	-1.3
	2015	96,761	55,172	41,589	'10-'15	0.3	3.5	-3.2
	2020	156,729	113,739	42,990	'15-'20	10.1	15.6	0.7
	2021	163,217	114,999	48,218	'20-'22	-1.6	4.2	-18.7
	2022	151,784	123,401	28,383				
식품유통업 (C)	2010	32,846	13,872	18,974	'10-'20	2.7	6.6	-1.3
	2015	26,968	21,715	5,253	'10-'15	-3.9	9.4	-22.7
	2020	42,920	26,323	16,597	'15-'20	9.7	3.9	25.9
	2021	45,271	27,537	17,734	'20-'22	14.6	8.2	24.1
	2022	56,342	30,792	25,550				

주: 제조업에는 용기 및 포장재 제조업을 제외한 지방인허가데이터 식품 제조 전 품목이 포함되며, 외식업의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1.2.2. 식품산업 종사자 수 및 고용

○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2,272,027명에서 2015년 2,765,448명, 2020년 3,079,034명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가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서 12.1%로 감소하였고, 동 기간 음식점업의 비중이 70.8%에서 71.2%로 증가하였음.

-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광의의 식품산업 대비 비중) 추이: ('10) 278,712명 (12.3%) → ('15) 331,564명 (12.0%) → ('20) 372,126명 (12.1%)
- 음식점업 종사자 수(광의의 식품산업 대비 비중) 추이: ('10) 1,609,103명 (70.8%) → ('15) 1,944,531명 (70.3%) → ('20) 2,191,917명 (71.2%)
- 식품유통업 종사자 수(광의의 식품산업 대비 비중) 추이: ('10) 384,212명 (16.9%) → ('15) 489,353명 (17.7%) → ('20) 514,991명 (16.7%)

〈표 2-10〉 식품산업 종사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연평균 성장률		
								2010 ~ 2015	2015 ~ 2020	2010 ~ 2020
광의의 식품산업 (A+B+C)	2,272,027 (100.0)	2,765,448 (100.0)	2,815,780 (100.0)	2,812,973 (100.0)	2,881,521 (100.0)	3,007,864 (100.0)	3,079,034 (100.0)	4.0	2.2	3.1
협의의 식품산업 (A+B)	1,887,815 (83.1)	2,276,095 (82.3)	2,329,863 (82.7)	2,334,493 (83.0)	2,398,772 (83.2)	2,513,579 (83.6)	2,564,043 (83.3)	3.8	2.4	3.1
음식료품 제조업 (A)	278,712 (12.3)	331,564 (12.0)	341,336 (12.1)	346,021 (12.3)	362,090 (12.6)	374,807 (12.5)	372,126 (12.1)	3.5	2.3	2.9
- 식료품제조업	262,652 (11.6)	313,422 (11.3)	322,315 (11.4)	327,381 (11.6)	342,089 (11.9)	353,949 (11.8)	352,472 (11.4)	3.6	2.4	3.0
- 음료제조업	16,060 (0.7)	18,142 (0.7)	19,021 (0.7)	18,640 (0.7)	20,001 (0.7)	20,858 (0.7)	19,654 (0.6)	2.5	1.6	2.0
음식점업 (B)	1,609,103 (70.8)	1,944,531 (70.3)	1,988,527 (70.6)	1,988,472 (70.7)	2,036,682 (70.7)	2,138,772 (71.1)	2,191,917 (71.2)	3.9	2.4	3.1
식품 유통업 (C)	384,212 (16.9)	489,353 (17.7)	485,917 (17.3)	478,480 (17.0)	482,749 (16.8)	494,285 (16.4)	514,991 (16.7)	5.0	1.0	3.0
- 음식료품 도매업	215,732 (9.5)	298,147 (10.8)	295,314 (10.5)	292,136 (10.4)	290,667 (10.1)	296,332 (9.9)	308,731 (10.0)	6.7	0.7	3.6
- 식품 소매업	168,480 (7.4)	191,206 (6.9)	190,603 (6.8)	186,344 (6.6)	192,082 (6.7)	197,953 (6.6)	206,260 (6.7)	2.6	1.5	2.0

주1: 음식료품 도매업, 식품 소매업 매출액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담배를 제외한 값임.

주2: 음식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식점업을 포함함.

주3: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자료는 등록기반 자료와 조사기반 자료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등록기반 자료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경제총조사(2010, 2015),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 동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12년간 연평균 2.7% 규모로 증가하였고,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2.6% 수준으로 증가함. 외식업과 유통업 부문에서는 12년간 2.8%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음식료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감률은 3차 진흥계획 기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료제조업의 경우 3차 진흥계획 기간 -0.9%의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감률을 기록하는 등 음식료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세는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차 진흥계획 기간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2.6% 증가, 식품제조업은 2.3% 증가, 음료제조업(0.9%), 외식업(2.7%), 식품유통업(2.6%) 증가
- 2차 진흥계획 기간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2.4% 증가, 식품제조업은 3.4% 증가, 음료제조업(3.1%), 외식업(2.2%), 식품유통업(2.4%) 증가
- 3차 진흥계획 기간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3.4% 증가, 식품제조업은 1.5% 증가, 음료제조업은 0.9% 감소, 외식업(3.7%)과 식품유통업(3.3%)은 크게 증가

〈표 2-11〉 식품산업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감률(2008~2020)

단위: 개 사, %

구분	광의의 식품산업 (A+B+C)	협의의 식품산업 (A+B)	음식료품 제조업(A)			외식업 (B)	식품 유통업(C)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식품 도매업		식품 소매업		
전체기간 (2008-2020)	2.7	2.7	2.6	2.6	1.8	2.8	2.8	3.5	1.8
1차 (2008-2012)	2.6	2.6	2.2	2.3	0.9	2.7	2.6	2.9	2.1
2차 (2013-2017)	2.4	2.3	3.3	3.4	3.1	2.2	2.4	3.7	0.4
3차 (2018-2020)	3.4	3.4	1.4	1.5	-0.9	3.7	3.3	3.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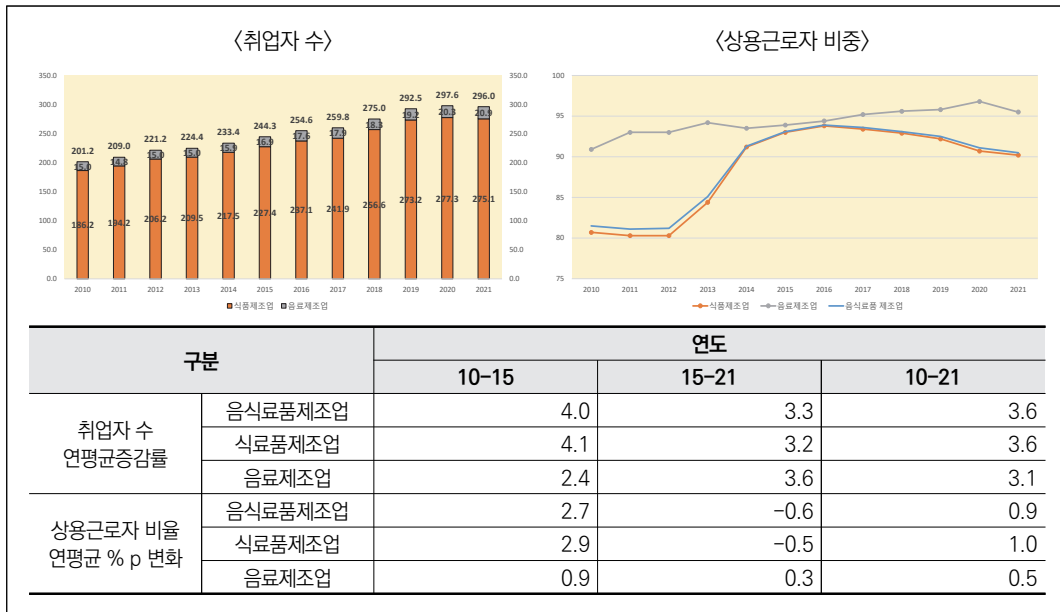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음식료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함. 상용근로자 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식품제조업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식품료품제조업 취업자 수(상용근로자 비중): ('10) 201.2천 명 (81.5%)→ ('15) 244.3 (93.1%)→ ('20) 297.6 (91.1%)→ ('21) 296.0 (90.5%)
- 식료품제조업 취업자 수(상용근로자 비중): ('10) 186.2 (80.7%)→ ('15) 227.4 (93.0%)→ ('20) 277.3 (90.7%)→ ('21) 275.1 (90.2%)
- 음료제조업 취업자 수(상용근로자 비중): ('10) 15.0 (90.9%)→ ('15) 16.9 (93.9%)→ ('20) 20.3 (96.8%)→ ('21) 20.9 (95.5%)

〈그림 2-9〉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 % p



주: 상용근로자 비율은 상용근로자수/전체취업자수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사업체노동력조사

○ 식품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체 제조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높는데³⁾, 식품산업 내에서 직종별로는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에 비해 생산직의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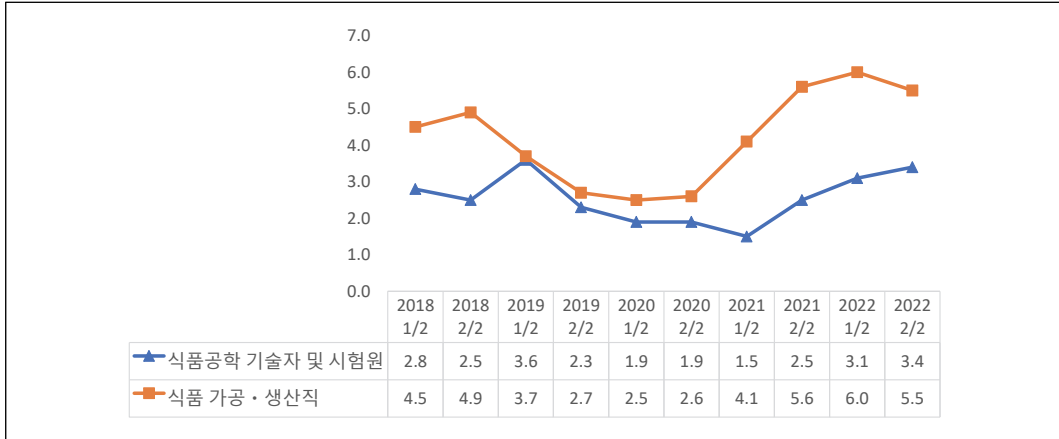
- 연구직군의 인력 부족률은 2018년 전반기 2.8%에서 2022년 하반기 3.4%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하게 증가함.

3) 22년 하반기 기준 전체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4.2%, 식품료품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5.7%임.

- 생산직군의 경우 2018년 전반기 4.5%에서 2022년 하반기 5.5%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 인력부족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0〉 식품산업 직종별 인력 부족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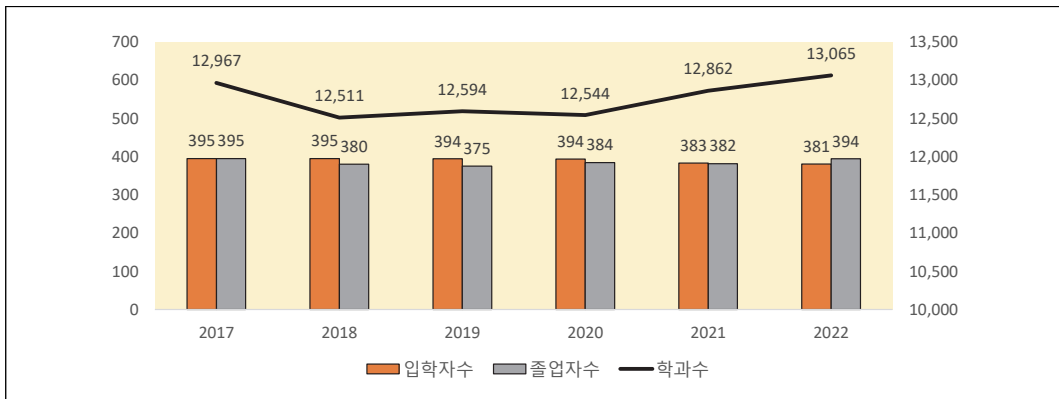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각연도. 직종별사업제노동력조사.

1.2.3. 식품산업 교육기관

- 식품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학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자 수와 졸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

〈그림 2-11〉 대한민국 대학과정 총 학과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단위: 천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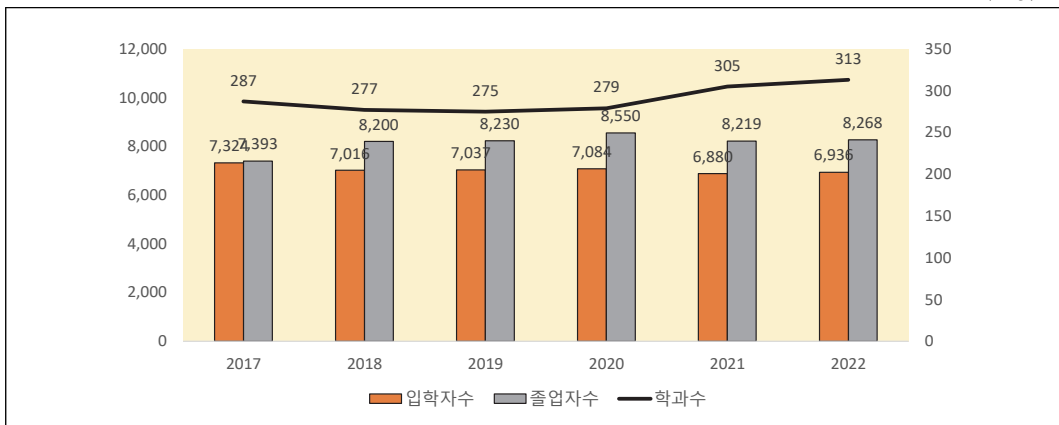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교육통계서비스에서 통계 항목으로 제공하는 학과 중, 식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영양학과 농림수산업의 총 학과 수를 살펴보면 식품영양학과와 관련한 학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자 수는 2020년 8,550명을 달성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2-12〉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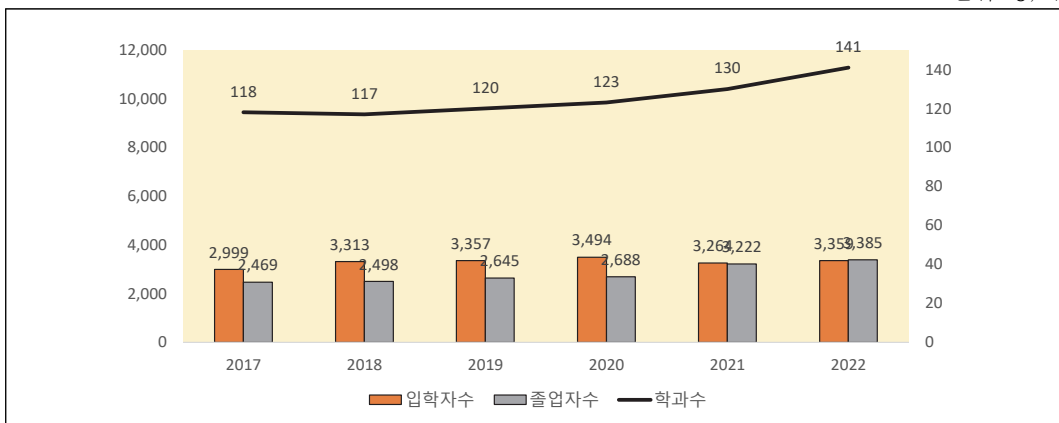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식품산업의 주요 후방산업인 농림수산업 관련 학과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입학자 수와 졸업자 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13〉 농림·수산 관련 학과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단위: 명, 개



자료: 교육통계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1.3. 식품제조업 비용구조 및 원재료 사용 동향

1.3.1. 식품제조업 비용구조 동향

○ 음식료품제조업의 영업비용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6% 증가했으며, 식료품제조업이 동 기간 연평균 6.2%, 음료제조업이 3.6% 증가하여 식료품제조업의 비용 상승이 음료제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최근 5개년 연평균증감률을 기준으로 식료품제조업은 5.1%, 음료제조업은 2.6% 증가하였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식업은 연평균 9.8%, 식품유통업은 연평균 8.4%씩 영업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음식료품 제조업 영업비용: ('10) 63,286십억 원 → ('15) 89,261 → ('20) 113,057
- 음식점업 영업비용:('10) 52,024십억 원 → ('15) 93,455 → ('20) 131,910
- 식품유통업 영업비용: ('10) 90,644십억 원 → ('15) 149,292 → ('20) 203,403

〈표 2-12〉 식품산업 영업비용 구성 요소별 추이 및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십억 원, %

구분	영업비용			연평균 증감률			
	2010	2015	2020	10-'15	'15-'20	10-'20	
전체 영업비용	광의의 식품산업 (A+B+C)	205,955 (100.0)	332,007 (100.0)	448,370 (100.0)	10.0	6.2	8.1
	협의의 식품산업 (A+B)	115,310 (56.0)	182,715 (55.0)	244,967 (54.6)	9.6	6.0	7.8
	음식료품 제조업 (A)	63,286 (30.7)	89,261 (26.9)	113,057 (25.2)	7.1	4.8	6.0
	- 식료품제조업	56,736 (27.5)	81,058 (24.4)	103,745 (23.1)	7.4	5.1	6.2
	- 음료제조업	6,550 (3.2)	8,203 (2.5)	9,312 (2.1)	4.6	2.6	3.6
	음식점업 (B)	52,024 (25.3)	93,455 (28.1)	131,910 (29.4)	12.4	7.1	9.8
	식품 유통업 (C)	90,644 (44.0)	149,292 (45.0)	203,403 (45.4)	10.5	6.4	8.4
	- 음식료품 도매업	80,549 (39.1)	130,726 (39.4)	172,783 (38.5)	10.2	5.7	7.9
	- 식품 소매업	10,096 (4.9)	18,565 (5.6)	30,619 (6.8)	13.0	10.5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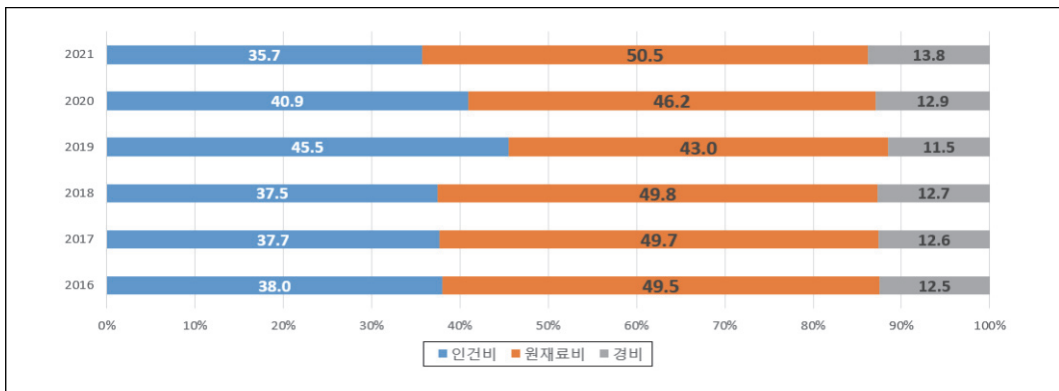
주1: 괄호 안은 광의의 식품산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각 연도)

○ 식품제조업의 비용구조는 원재료비 비중이 절반 정도의 높은 비중을 점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2021년 식품산업 인건비 비중은 35.7%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원재료비 비중은 50.5%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식품제조업의 2020년 이후 원재료비 상승에는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남미 작황 악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 농산물 물가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2022년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후 원재료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그림 2-14〉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자료: KED 한국 기업평가 데이터

1.3.2. 원재료 사용 동향

○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2012년 448만 톤에서 2020년 592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동 기간 29.8%에서 31.9%로 증가함.

〈표 2-13〉 식품산업 국산 원료 사용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원료 사용량	1,504	1,508	1,565	1,634	1,651	1,715	1,787	1,858	1,855
국산 원료 사용량	448	470	489	515	519	538	560	585	592
비중(%)	29.8	31.2	31.2	31.5	31.4	31.4	31.3	31.5	31.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각 연도)

○ 식품산업의 주요 원료의 국내산 이용률은 낮은 수준임.

-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원유(우유) 및 배추(99.9%)과 쌀을 제외하면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은 낮은 수준임.
- 쌀의 경우 자급률이 100%에 이르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 원재료 비중은 64.3%에 불과함.
- 사용량이 높은 옥수수, 대두, 주정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은 2020년 기준 각각 0.1%, 6.2%, 15.3%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국내에서 쌀을 대체하여 새로운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맥(밀) 및 소맥분(밀가루)의 국산 원료 이용 비중은 2016년 0.96%에서 2020년 0.09%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2-14〉 식품제조업 원물 사용량(30위) 및 해당 품목의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2016-2018)

단위: 톤, %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국산	국산비중	전체	국산	국산비중	전체	국산	국산비중
전체	16,511,606	5,188,829	31.4	17,151,146	5,382,154	31.4	17,871,369	5,598,275	31.3
소맥(밀)	2,297,167	13,270	0.6	2,370,338	18,566	0.8	2,173,720	22,524	1
원유	2,060,864	2,060,864	100	2,126,014	2,126,014	100	2,135,042	2,135,042	100
옥수수	1,804,779	3,183	0.2	1,901,000	3,777	0.2	2,193,228	5,985	0.3
원당	1,423,395	0	0	1,466,947	0	0	1,530,150	0	0
소맥분(밀가루)	1,116,027	19,368	1.7	1,135,316	12,961	1.1	1,181,650	2,681	0.2
대두	950,698	77,665	8.2	1,021,060	65,036	6.4	1,179,402	64,029	5.4
주정	973,248	100,921	10.4	1,049,666	91,503	8.7	1,050,080	103,931	9.9
쌀	556,662	355,903	63.9	585,572	358,808	61.3	647,509	342,194	52.8
백설탕	503,956	0	0	497,684	0	0	492,749	12	0
배추	444,658	444,424	99.9	455,643	455,294	99.9	499,063	496,355	99.5
돼지고기	315,667	222,171	70.4	351,535	258,812	73.6	408,348	313,287	76.7
무	353,873	347,068	98.1	351,920	343,437	97.6	370,981	359,484	96.9
닭고기	221,568	184,941	83.5	286,588	249,913	87.2	319,066	276,545	86.7
과당류	219,547	60,653	27.6	253,221	69,272	27.4	231,609	55,688	24
팜유류	204,409	0	0	201,748	668	0.3	206,026	0	0
김(원초)	167,741	167,741	100	192,563	192,563	100	215,296	215,296	100
물엿	197,899	25,835	13.1	184,594	20,562	11.1	205,124	22,291	10.9
대두유	150,424	624	0.4	136,109	632	0.5	145,579	2,820	1.9
보리	169,982	72,833	42.8	168,040	68,425	40.7	158,154	67,090	42.4
어육살	125,594	11,419	9.1	155,272	19,430	12.5	137,811	14,381	10.4
감귤	141,419	141,419	100	129,091	129,091	100	147,250	147,239	100
정제소금	110,322	97,793	88.6	113,947	98,834	86.7	118,689	92,281	77.8
계란	91,200	91,200	100	92,413	88,565	95.8	106,470	104,487	98.1
(물)오징어	100,985	57,169	56.6	92,262	58,575	63.5	105,144	66,694	63.4
타피오카	108,789	0	0	100,384	0	0	92,843	0	0
천일염	103,005	62,328	60.5	79,870	54,519	68.3	88,078	54,380	61.7
옥수수전분	100,264	1,933	1.9	104,433	1,488	1.4	88,301	4,389	5
쇠고기	81,398	17,758	21.8	82,329	20,483	24.9	84,379	19,034	22.6
커피원두	79,380	0	0	89,394	0	0	83,535	0	0
양파	69,300	60,660	87.5	75,644	68,272	90.3	81,716	73,895	90.4
그 외	1,266,050	488,356	38.6	1,299,621	505,721	38.9	1,394,387	536,246	38.5

자료: aT, 2021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각 연도)

〈표 2-15〉 식품제조업 원물 사용량(30위) 및 해당 품목의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2019-2020)

단위: 톤, %

구분	2019			2020		
	전체	국산	국산비중	전체	국산	국산비중
전체	18,571,897	5,842,214	31.5	18,553,726	5,921,679	31.9
소맥(밀)	2,382,619	6,485	0.3	2,389,104	2,940	0.1
원유	2,405,817	2,405,817	100	2,367,235	2,367,235	100
옥수수	2,189,437	4,291	0.2	2,167,297	2,529	0.1
원당	1,827,966	0	0	1,841,872	12	0
소맥분(밀가루)	1,216,746	9	0	1,290,781	280	0
대두	1,094,665	68,135	6.2	1,005,547	62,518	6.2
주정	970,551	108,146	11.1	999,771	152,734	15.3
쌀	627,566	326,090	52	614,489	395,326	64.3
백설탕	535,059	0	0	523,390	0	0
배추	479,755	476,094	99.2	483,324	482,848	99.9
돼지고기	420,841	323,986	77	416,957	313,751	75.2
무	371,042	363,421	97.9	358,760	355,300	99
닭고기	300,804	257,346	85.6	320,737	265,581	82.8
과당류	227,070	60,151	26.5	224,396	49,065	21.9
팜유류	235,451	0	0	246,498	0	0
김(원초)	237,874	237,874	100	228,338	228,338	100
물엿	188,555	20,214	10.7	181,024	20,369	11.3
대두유	176,412	2,596	1.5	178,323	2,043	1.1
보리	141,233	82,793	58.6	141,942	83,533	58.8
어육살	156,214	15,586	10	151,214	24,874	16.4
감귤	141,042	141,042	100	143,496	143,496	100
정제소금	104,552	93,707	89.6	111,040	94,049	84.7
계란	119,179	119,000	99.9	120,443	120,155	99.8
(물)오징어	84,596	41,445	49	89,328	43,484	48.7
타피오카	85,812	0	0	81,817	0	0
천일염	95,000	55,509	58.4	92,103	51,416	55.8
옥수수전분	83,889	4,191	5	77,505	4,028	5.2
쇠고기	86,577	25,389	29.3	89,400	21,606	24.2
커피원두	82,304	0	0	79,164	0	0
양파	78,709	71,485	90.8	76,348	70,884	92.8
그 외	1,424,555	531,407	37.3	1,462,082	563,286	38.5

자료: aT, 2021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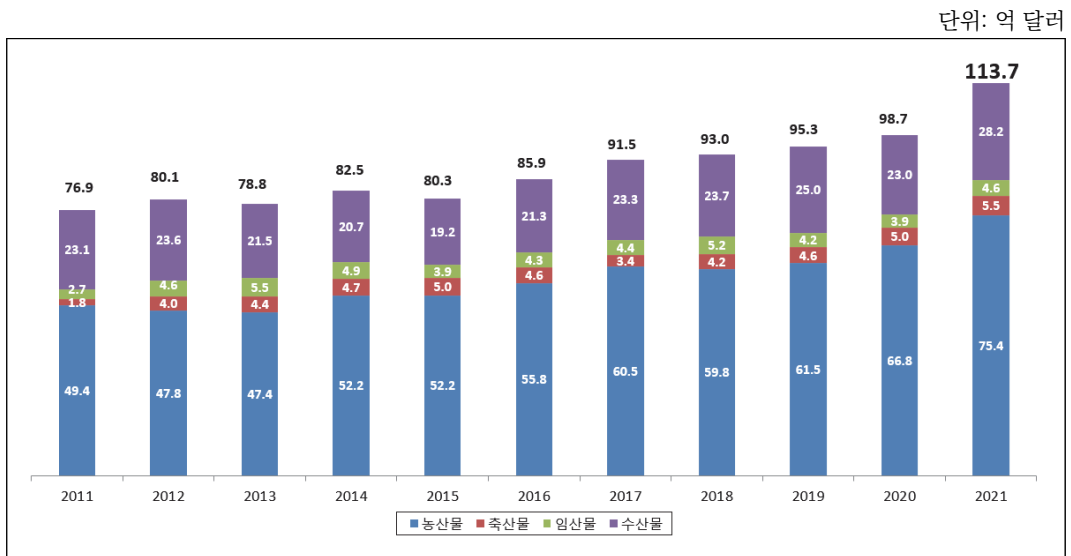
1.4. 식품산업 수출

1.4.1. 국내 농식품 수출현황

○ 국내 농식품 수출 및 수출액은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함.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2021년 85.5억 달러임.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농림수산물 수출액이 2021년 110억 달러를 상회함.

〈그림 2-15〉 농림수산물 부류별 수출금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 수출 품목은 확대 추세지만, 가공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2년 1~3분기까지 수출은 주로 참치, 라면, 김 등 가공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됨.
- 최근 7년간 수출을 많이 한 품목으로는 참치, 김,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등이며, 곡류조제품의 순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음.
- 맥주는 2020년 이후 10위 바깥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임.

〈표 2-16〉 연도별 농림수산물 수출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순위	'19		'20		'21		'22 (Q1~Q3)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1위	김	579.2	라면	603.6	김	692.9	라면	568.1
2위	참치	571.6	김	600.4	라면	674.4	김	520.7
3위	라면	467.0	참치	528.0	참치	579.2	참치	493.3
4위	음료	422.0	음료	410.4	음료	485.1	음료	407.9
5위	커피조제품	270.3	커피조제품	274.6	커피조제품	315.2	커피조제품	248.8
6위	인삼류	210.3	인삼류	229.8	인삼류	267.0	명태	212.3
7위	맥주	146.2	김치	144.5	김치	159.9	인삼류	179.1
8위	자당	119.8	자당	138.1	명태	151.9	곡류조제품	108.1
9위	비스킷	116.1	비스킷	117.6	자당	147.6	개 사료	108.0
10위	김치	105.0	어류제품	103.5	비스킷	134.2	김치	107.5
11위	조제분유	95.9	곡류조제품	92.5	곡류조제품	133.7	대구	104.8
12위	어류제품	94.8	조제분유	90.9	어류제품	106.6	비스킷	103.4
13위	파프리카	91.5	파프리카	86.4	조제분유	105.2	자당	103.2
14위	소주	89.7	소주	85.6	개사료	101.9	조제분유	78.0
15위	배	83.3	닭고기	75.7	대구	99.9	어류제품	73.2
16위	굴	76.7	배	71.7	소주	98.2	소주	69.9
17위	곡류조제품	68.9	굴	71.5	파프리카	82.4	굴	68.4
18위	대구	64.7	맥주	68.5	리큐르	82.1	리큐르	66.8
19위	전복	61.5	개사료	67.4	굴	80.1	굴	68.4
20위	닭고기	61.5	인스탄트면	58.2	오징어	76.9	오징어	4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각 연도); 이계임 외(2023, 발간예정), aT KATI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최근 7년간 수출 상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이며, 떠오르는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순위가 내려감.

- 대체로 일본, 중국, 미국이 수출 상위 1~3순위를 유지해 왔으며, 이어서 베트남, 홍콩과 대만이 4, 5위에서 경합하는 양상을 보임.
-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가 각각 1~3순위를 유지했으며, 이어서 브라질과 베트남이 4, 5순위로 확인됨.
- 2018년 이후 수출 상위 5개 국가에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되지 않음. 이는 할랄식품 등록 지원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의 부재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표 2-17〉 연도별 수출 상위 5개 국가

단위: %

순위	연도													
	'16		'17		'18		'19		'20		'21		'22 (Q1~Q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위	일본	22.1	일본	22.8	일본	22.4	일본	22.6	일본	20.2	중국	18.2	일본	18.3
2위	중국	17.2	중국	14.9	중국	16.1	중국	17.1	중국	16.0	일본	18.1	중국	18.2
3위	미국	10.2	미국	11.2	미국	11.6	미국	12.3	미국	15.4	미국	14.6	미국	13.9
4위	베트남	5.8	베트남	5.3	베트남	6.3	베트남	7.0	베트남	6.6	베트남	6.6	베트남	7.2
5위	아랍 에미 리트	4.8	아랍 에미 리트	4.9	홍콩	4.6	홍콩	4.3	홍콩	4.4	대만	4.1	대만	3.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수출입동향 및 통계(각 연도); 이계임 외(2023, 발간예정); aT KATI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4.2. 주요 국가 수출 현황

○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9년 기준 780백만 달러로, 수입량 중 0.5%에 불과하나 연평균 증감률은 4.6%로 전체 국가 연평균 농식품 수입액 증감률 2.8% 대비 높은 수준임. 미국 유통의 98%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대식 유통채널 비중은 88.5%에 달하여 슈퍼마켓(45.7%) 및 하이퍼마켓(28.5%)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KATI에 따르면,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874백만 달러로, 농산물 비중이 84.5%로 가장 높음. 2015-2019년 연평균 수출액 성장률은 7.3% 수준임.
- 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음료, 라면, 배(신선), 조제품 기타,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 조미료, 메주 외 기타) 등임.

○ 캐나다의 경우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9년 기준 126백만 달러로, 수입량 중 0.4%에 불과함. 연평균 증감률은 -4.0%로 저조함. 캐나다에서는 식품의 99.6%가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며, 현대식 유통채널 비중은 63.7% 수준임.

- aT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이슈 품목은 식물성 대체육 제품과 보존이 용이한 냉동신선식품 기반 제품임.

- 캐나다의 2020년 기준 인구는 3,769만 명이며 중위 연령 41.8세임.
- 신선식품 시장 규모가 ('19) 43.448백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낵류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12.1%에 불과함.
- 한국산 농식품 수출 둔화는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신선 농산물 및 냉동식품 위주의 소비트렌드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18〉 북미지역의 농식품 수입현황, 한국의 북미 농림축산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연평균 증감률
Global Trade Atlas	미국의 농식품 수입현황	전체	127,663	126,291	130,974	139,011	142,770	100	2.8
		대한민국(36위)	652	713	648	681	780	0.5	4.6
aT KATI	대미 농림축산식품 수출현황	전체	627	716	745	802	874	100	8.7
		농산물	558	633	641	674	739	84.5	7.3
		축산물	35	35	37	42	58	6.6	13.4
		임산물	34	48	68	86	77	8.8	22.6
	수출 상위 5개 품목	비알코올음료	0	0	61	67	69	7.9	-
		라면	30	36	41	50	54	6.1	16.0
		배(신선)	26	29	30	36	34	3.9	7.1
		조제품 기타	22	21	23	24	31	3.6	9.6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15	19	20	24	28	3.3	18.0
	Global Trade Atlas	캐나다 농식품 수입현황	전체	34,411	33,627	34,102	35,099	35,469	100
대한민국(31위)			148	90	103	124	126	0.4	-4.0
aT KATI	대 캐나다 농림축산식품 수출현황	전체	110	69	71	87	95	100	-3.6
		농산물	108	66	67	83	89	93.5	-4.7
		축산물	1.2	2.1	2.3	3.4	5.0	5.2	43.6
		임산물	1.1	0.6	1.3	0.9	1.2	1.2	2.1
	수출 상위 5개 품목	라면	5.9	7.0	9.5	8.9	10.0	10.5	14.2
		커피조제품	0.5	0.5	0.7	7.0	7.8	10	90.5
		아이스크림	1.1	2.2	3.3	3.9	5.8	6.1	50.0
		기타 음료	4.0	4.3	4.3	4.7	4.5	4.7	3.1
	혼합 조제 식료품	58.1	10.2	2.6	2.8	4.1	4.4	-48.3	

자료: aT,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미주, EU);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에서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금액은 2019년 33.9백만 달러에 불과함.

- 프랑스의 소비인구는 6,706만 명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이 이루어지는 국가임(96.6%). 주요 수출 품목은 조제품 기타, 라면, 과자류, 기타 음료, 기타 파스타 등이며, 연평균 18.2%의 수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실정임.
- 독일의 소비인구는 8,015만 명 수준으로, 중위연령은 47.8세로 높은 편임. 코로나 19 이후 과채류 등 신선식품 위주의 소비를 전개하고 있으며, 구매 시 건강을 고려하는 특성이 나타남.

〈표 2-19〉 유럽의 농식품 수입현황, 한국의 북미 농림축산식품 수출현황(2015~2019)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연평균 증감률
Global Trade Atlas	프랑스의 농식품 수입현황	전체	51803	53273	56376	59064	57212	100	2.5
		대한민국 (63위)	19	21	30	30	34	0.0	15.5
aT KATI	대 프랑스 농림축산 식품 수출현황	전체	14	18	22	27	27	100	18.2
		농산물	12	16	20	25	26	93.4	20.4
		축산물	0.6	0.4	0.5	0.1	0.2	0.9	-20.9
		임산물	1.2	1.3	1.1	1.4	1.5	5.7	6.4
	수출 상위 5개 품목	조제품 기타	4.7	5.8	8.9	13.5	13.0	47.2	28.5
		라면	0.9	2.0	1.5	3.1	2.2	7.9	24.2
		과자류	0.5	0.8	1.2	1.3	1.3	4.6	23.3
		기타 음료	0.5	0.7	0.8	0.6	0.8	3.0	15.0
		기타 파스타	0.6	0.5	0.7	0.6	0.8	2.9	6.2
Global Trade Atlas	독일의 농식품 수입현황	전체	89963	90766	96122	100426	96490	100	1.8
		대한민국 (66위)	67	55	58	74	74	0.0	2.5
aT KATI	수출 상위 5개 품목	전체	43	43	41	54	57	100	7.4
		농산물	39	39	37	48	53	92.1	7.7
		축산물	1.5	1.4	1.8	2.0	2.0	3.5	8.5
		임산물	2.2	2.2	2.2	2.6	2.5	4.4	2.2
	수출 상위 5개 품목	라면	2.0	2.7	3.8	5.9	6.3	11.0	33.0
		조제품 기타	1.2	1.1	1.4	1.7	3.0	5.3	26.4
		당류 및 혼합물	0.3	0.4	0.8	0.6	2.3	4.1	63.0
		베이커리 제품	0.8	1.1	1.4	1.4	2.0	3.5	23.3
		속을 채운 파스타	0.8	0.9	1.1	1.4	1.7	3.0	20.8

자료: aT,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미주, EU);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신북방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3개 국가) 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은 소득증대, 한류의 영향 등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며, 현대적 유통채널이 구축되고 있음. 한국 농식품은 주로 가공도가 낮은 라면, 음료, 커피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향후 과자류, 두부류, 소스류 등 수출 품목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 가이드).
 - 신북방국가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차 소비 증가, 패스트푸드, 간편식 선호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는 인구 1억 4,890만, 카자흐스탄은 1,863만, 우즈베키스탄은 3,325만, 몽골은 332만 명 규모의 시장임.
 - 러시아의 경우 현대적 유통채널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카자흐스탄 또한 23%를 차지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대적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이며 전통시장 위주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몽골의 경우 한국의 이마트와 CU가 진출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선정한 신북방국가 한국 농식품 유망 수출 품목은 커피류, 라면류, 소스류, 혼합 조미료, 장류, 음료, 과자, 과채류, 영유아 식품, 인삼, 김치, 차류, 맥주 등임.

〈표 2-20〉 신북방국가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품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8	2019	주요 수출품목
신북방국가	러시아	188,817	168,514	커피(13,670), 소스(13,608), 물(10,808), 조제품(7,644), 마요네즈(6,608), 라면(6,582), 맥주(6,582), 음료(10,267)
	카자흐스탄	34,992	26,984	커피(5,210), 라면(3,839), 양파종자(2,450), 조제품(2,445), 베이커리(1,372), 과자류(1,156), 두부(760), 소스(653)
	몽골	47,103	52,840	라면(4,451), 음료(5,734), 소스(2,448), 맥주(1,350), 과자류(1,330), 커피(819), 물(954), 조제품(1,257)
	우즈베키스탄	3,283	5,882	커피(1,564), 채소종자(1,034), 라면(322), 조제품(293), 전분(209), 음료(46), 소스(44), 고추장(32), 물(32)

자료: aT,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주로 동남아시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추세임.

-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식품업체 중 54.2%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2-21〉 기업 규모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여부

단위: %

구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여부	
	예	아니오
전체	54.2	45.8
소규모	75.0	25.0
중규모	37.8	62.2
대규모	57.1	42.9

자료: 이계임 외(2022, 발간예정);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 07.)

○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촉진 노력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식품업체 중 58.3%가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함.
- 판매 촉진을 위해 주로 노력하는 품목은 과자류(24.4%), 주류(12.2%), 음료류 및 조미료(각 9.8%), 아이스크림(7.3%), 홍삼(4.3%), 건강기능식품(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2〉 기업규모별 기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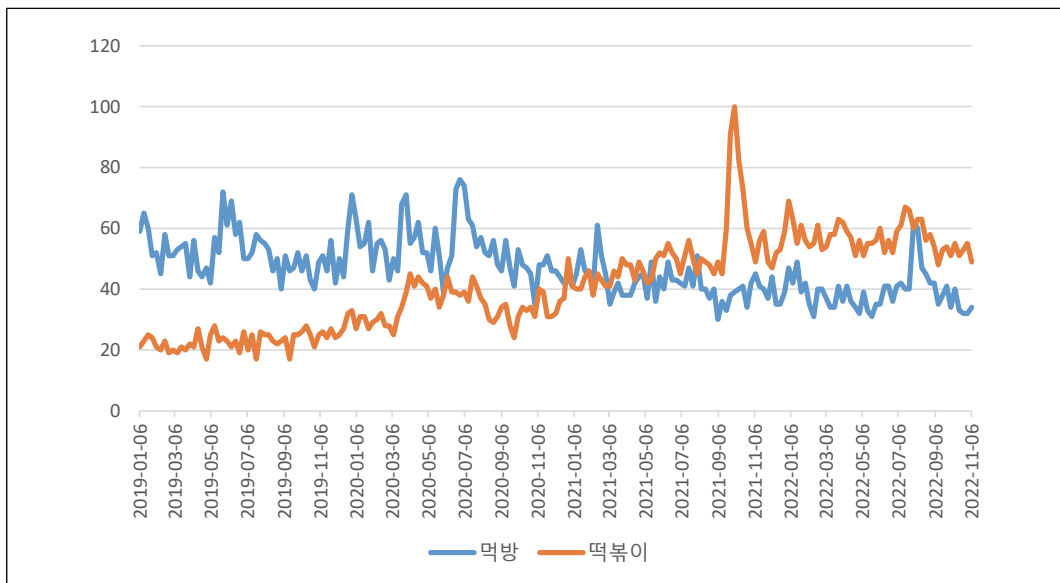
구분	새로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예	아니오
전체	58.3	41.7
소규모	64.3	35.7
중규모	54.1	45.9
대규모	57.1	42.9

자료: 이계임 외(2022, 발간예정);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 07.)

○ 한류 콘텐츠의 유행과 식품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K-Food 수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존재함.

- 한국의 수출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의 인기와 이를 활용한 ‘떡방’, 또는 국내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식한 음식이 수출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 미국에서 BTS에 소속된 멤버가 방송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방영된 이후, 떡볶이 관련 검색이 급등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해당 방송이 송출된 2021년 떡볶이 수출은 전년 대비 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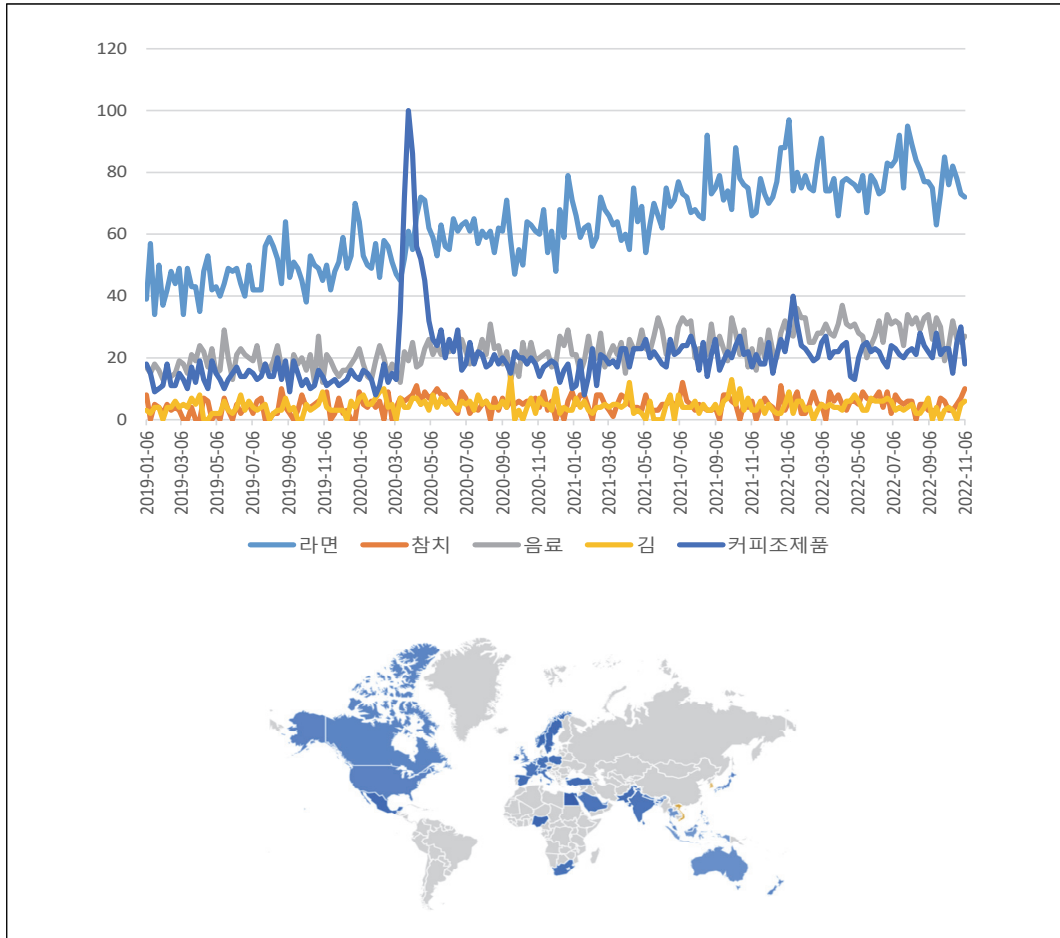
〈그림 2-16〉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 품목 전세계 검색 기록 및 주요 검색 국가



자료: Google Trends

- 기존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K-Food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수출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준으로 전세계의 검색 기록은 증가하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북유럽,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에서 관심을 보임.

〈그림 2-17〉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 품목 전세계 검색 기록 및 주요 검색 국가



자료: Google Trends

1.5. 식품산업 R&D, 클러스터 및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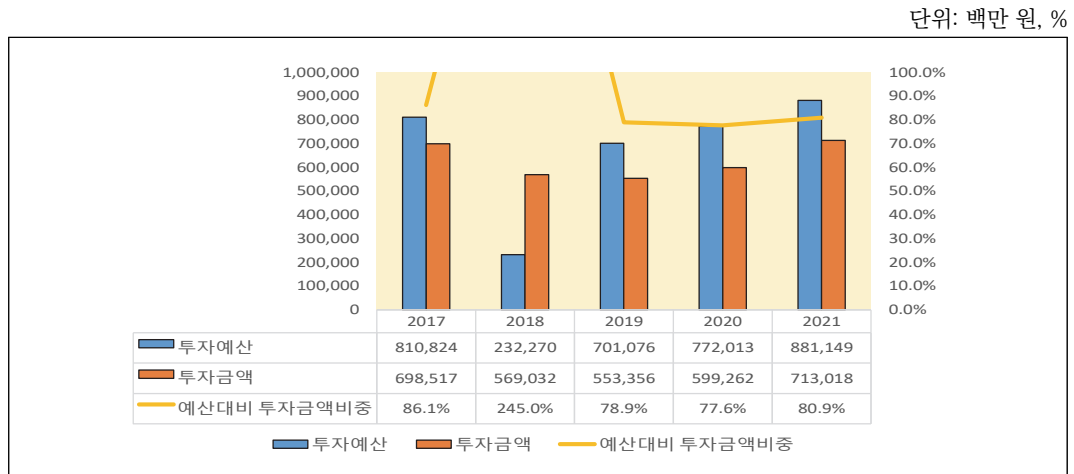
1.5.1. 식품산업 R&D

가. 공공 R&D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Fris에 따르면, 연도별 R&D 투자금액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대비 투자 금액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80.9% 수준임.

- 2018년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투자금액의 비중이 크지만, 예산 관련 통계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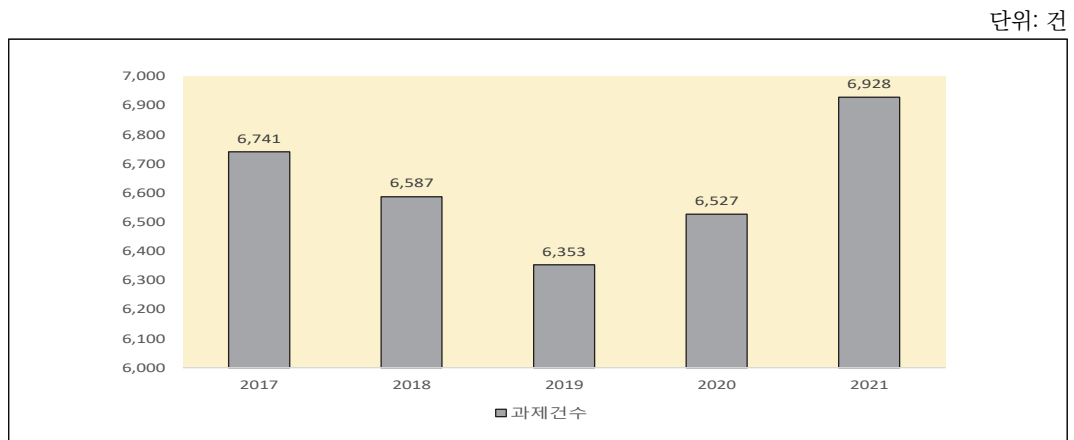
〈그림 2-18〉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추이



자료: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 농림축산식품 관련 공공 R&D 건수는 2021년 6,928 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2-19〉 농림축산식품분야 공공 R&D 과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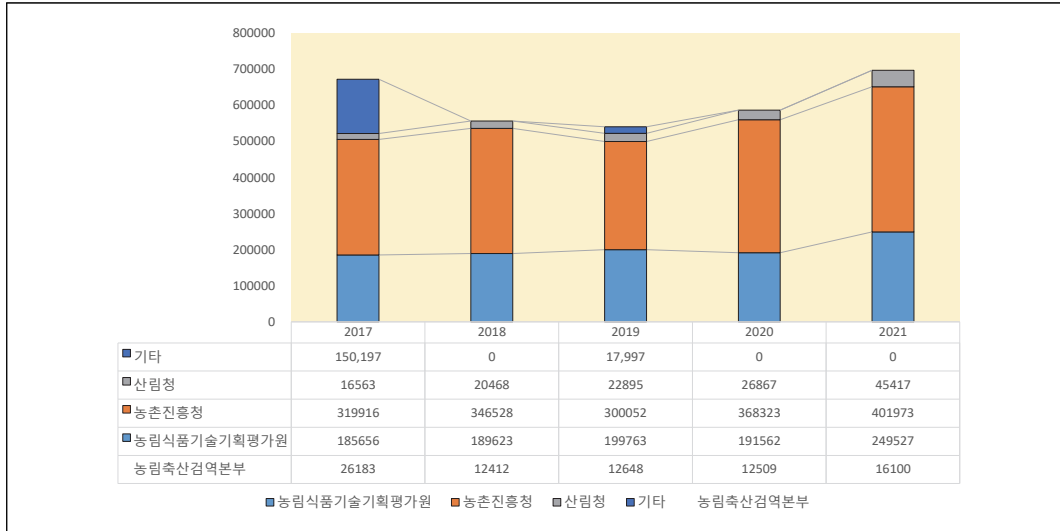


자료: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 연구기관별로 투자금액을 비교하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로 공공 R&D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2-20〉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별 공공 R&D 과제 건수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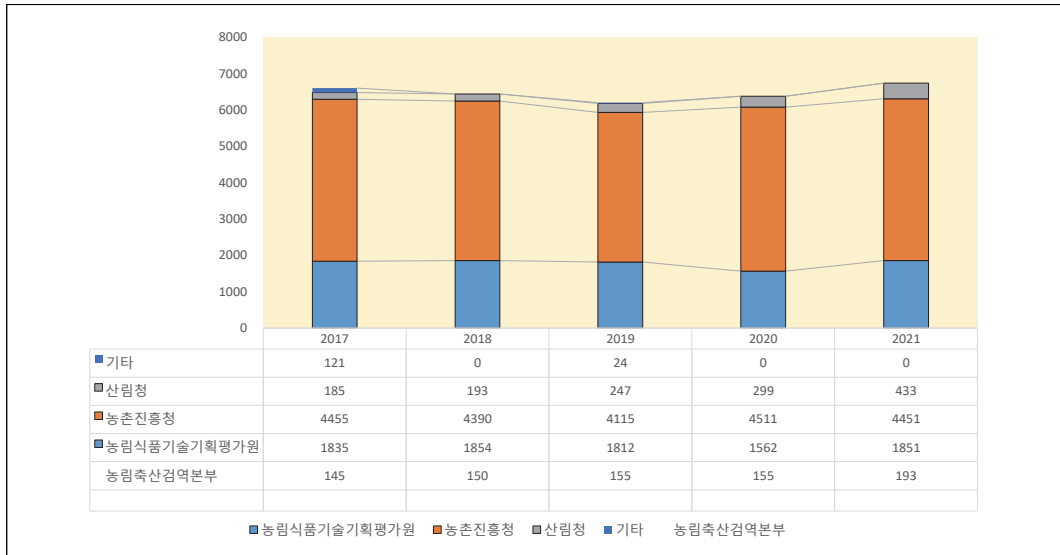


자료: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 연구기관별로 R&D 과제의 건수를 비교하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로 공공 R&D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2-21〉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별 공공 R&D 과제 건수

단위: 건



자료: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나. 민간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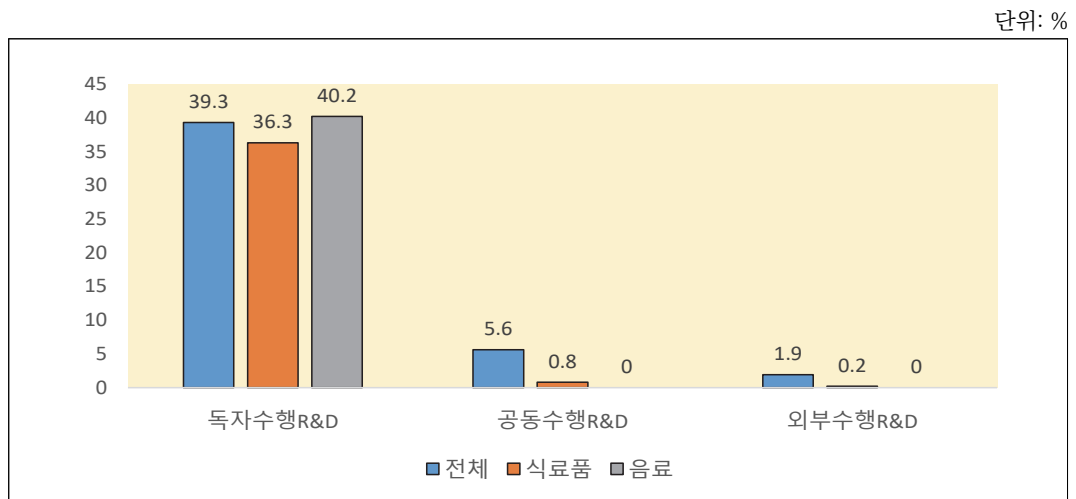
○ 민간 R&D는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식품기업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공개 자료의 부족으로 통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작성하는 국내 국가승인통계자료인 한국기업혁신조사(2020)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R&D 현황을 살펴봄.

- 한국기업혁신조사는 국제 혁신조사 가이드라인 (OECD 오슬로 매뉴얼)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일반사항, 전략, 지식 흐름, 기업혁신 및 정책 관련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2017년~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2020년 기준 식품기업 중 독자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36.3%로 전체 기업의 독자수행 R&D 활동 비중인 39.3%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음료제조기업의 경우 40.2%의 기업이 독자적 R&D를 수행함.

○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에서는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지 않는 편으로 분석됨. 전체 기업의 5.6%가 공동수행 R&D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식료품 제조업은 0.8%, 음료 제조업은 0%의 공동 수행 R&D 추진률을 보임.

〈그림 2-22〉 업종별 R&D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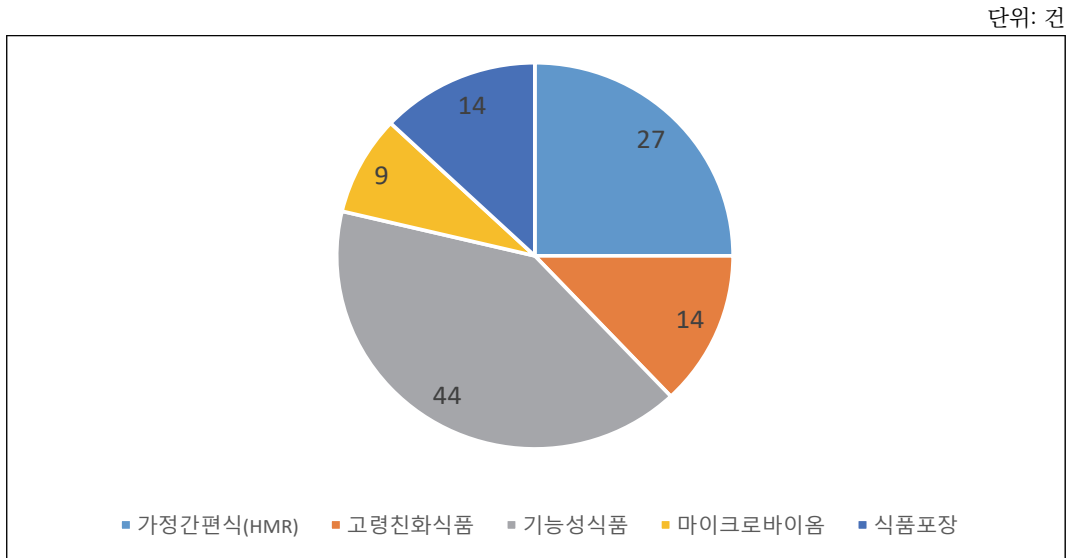


자료: 이정우 외(2020)

다. 푸드테크 관련 R&D 추진현황

○ 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추진된 푸드테크 관련 R&D는 총 108 건으로, 가정간편식 관련 연구 27건, 기능성식품 관련 연구 44건, 고령친화식품 관련 연구 14건 식품포장 관련 14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 9건임.

〈그림 2-23〉 미래유망식품 관련 R&D 건수(2018~20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등 R&D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가정간편식 분야 연구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는 2021년 대부분의 연구가 시작됨. 식품 포장 관련 연구는 2021년 및 2022년 다시 재개됨.
- 평균 연구기간은 2.7년에서 3.89년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평균 연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23〉 시작연도별 분야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 및 기간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연구기간
가정간편식(HMR)	7	12	0	5	3	27	2.70
고령친화식품	0	7	2	5	0	14	2.79
기능성식품	7	13	5	12	7	44	2.91
마이크로바이옴	1	3	0	5	0	9	3.89
식품포장	4	0	0	6	4	14	3.00
합계	19	35	7	33	14	-	-
평균 연구 기간	3	2.43	2	3.55	3.14	-	2.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연도별 과제금액을 살펴보면 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의 경우 증가 추세, 고령친화식품은 2021년 집중 투자, 마이크로바이옴은 2021년 신규 투자 확대, 식품 포장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임.

〈표 2-24〉 시작연도별 분야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가정간편식(HMR)	673	434	-	1,038	1,103	3,248
고령친화식품	-	429	614	1,154	-	2,197
기능성식품	802	408	564	1,429	1,012	4,215
마이크로바이옴	2,519	326	-	2,825	-	5,670
식품포장	949	-	-	1,304	693	2,946
합계	4,943	1,597	1,178	7,750	2,8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국내 식물기반 대체식품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2017년 319백만 원에서 2020년 747백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규모면에서는 배양육이나 식물곤충과 같은 다른 대체육의 투자규모에 미치지 못함.

- 해외에서는 식물성 대체육을 섭취하는 주요 목적은 동물성 식품인 육류의 대체에 있으나 그 맛과 조직감이 기존의 육류에 비해 부족하여, 이를 비슷하게 하는 대체육 조직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금까지 식물성 대체육의 조직화를 위한 방법으로 ① 방사법(spinning process), ②압출성형공정(thermoplastic), ③ 증기법(steam texturization)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것은 압출성형공정 기술임.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물과 혼합 후 압출기 내에서 가열하며 높은 압력으로 압출하면 압력, 열 및 기계적 전단력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소성과 신축성을 갖게 되고 단백질의 분자들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응고되어 식육과 비슷한 조직감을 만들 수 있음.

- 해외 식물성 대체육은 실제 육류와 유사한 조직감·맛·풍미 구현을 목적으로 한 소재 발굴 및 가공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다양한 제품을 출시 중임. 임파서블 푸드 등의 기업에서 기존 육류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두류식물 뿌리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하였으며. 식품에 활용 시 그 안전성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음. 또한, 지방을 대신해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는 등 식육 고유의 풍미를 식물성 대체육으로 재현하기 위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표 2-25〉 대체육 국내 정부 R&D 투자 규모

단위: 백만 원, 개

분야	정부연구비				
	2016	2017	2018	2019	2020
배양육	-	-	282	570	1,532
식물성식품	-	319	450	774	747
식용곤충	1,280	3,049	3,636	3,542	2,292
과제 수	19	39	45	53	39

자료: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대체육, 2021

○ 식물성대체식품의 연구수행주체별 수행비중을 보면 대학이 66%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2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26〉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수행주체별 R&D 연구 수행 비중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예산	비중
대학	208	360	478	538	1,584	66
중견기업	52	90	90	120	352	14
중소기업	59	120	206	89	474	20
소계	319	570	774	747	2,410	100

자료: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대체육, 2021

○ 식물성대체식품의 연구단계별 수행 비중을 보면 개발연구가 74%로 가장 많고, 응용연구(22%), 기초연구(4%) 순으로 나타나 기초 연구 지원이 매우 미흡함.

〈표 2-27〉 식물성대체식품 연구단계별 R&D 연구 수행 비중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예산	비중
기초연구	-	-	-	100	100	4
응용연구	78	130	221	70	499	22
개발연구	241	320	553	577	1,691	74
소계	319	450	774	747	2,2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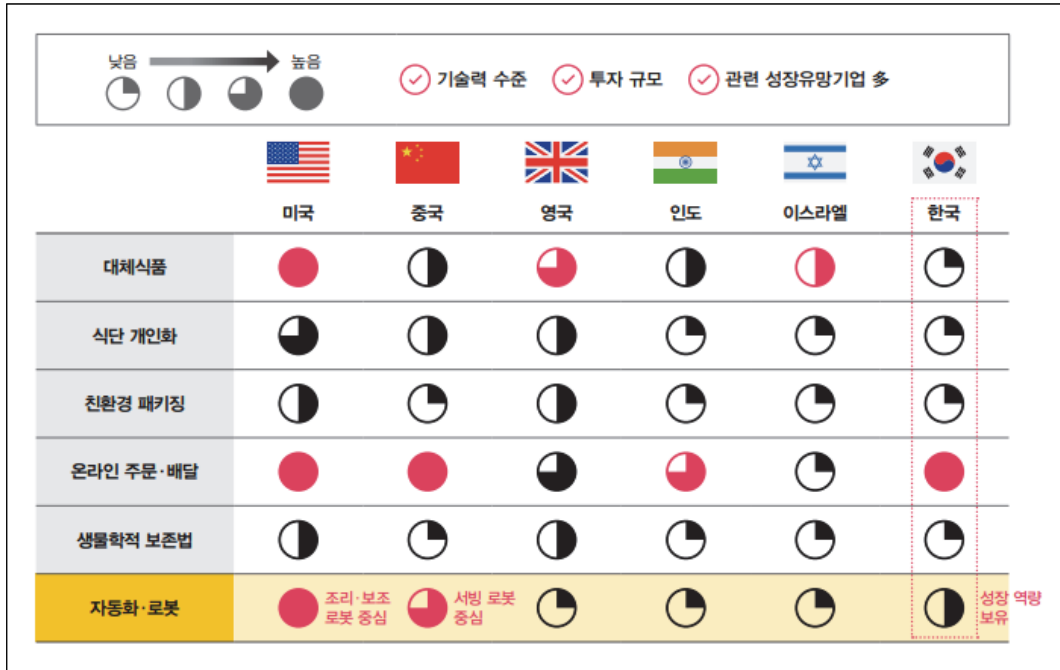
자료: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대체육, 2021

○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 규모와 기술별 수준 측면에서도 한국은 온라인 주문 배달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등 푸드테크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남.⁴⁾ 향후 대체식품, 식품 개인화, 친환경 패키징, 생물학적 보존법 등 미흡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스타트업 기업 DB인 Tracxn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은 미국 4,044개 사, 영국 1,082개 사, 인도 1,604 개 사 등 세나라에 에 집중되어있음.
- 이와 함께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력 수준, 투자 규모, 성장유망기업 개수 등을 고려하여 푸드테크 주요국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온라인 주문 배달과 자동화 로봇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⁴⁾ 다만, 이 자료는 스타트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2-24〉 푸드테크 주요국 경쟁력 비교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2)

1.5.2. 국가식품클러스터

가. 개요 및 분양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차, 2차,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지향점으로 삼아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 등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용지, 복합 및 기업지원 시설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기반 시설용지로 구성됨.

- 산업용지(65%):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식품, 물류, 연구, 일반 식품, 연관산업(5개 권역)

- 복합 및 기업시설 지원용지(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소스산업화센터, HMR기술지원센터,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기능성원료은행
- 상업용지(1%), 주거용지(3%), 기반시설용지(27%) 등

○ (투자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 6개사에서 시작하여 2020년 기준 96개 기업, 2021년 12월 기준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97만㎡) 및 65.2% 분양이 완료됨.

- (가동 기업) 2020년 11월 기준 96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기업 중 가동 준공기업은 45개로, 분양기업의 입주율(준공 및 착공기업)은 65.6%로 나타남.
- 201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상 유치 목표는 기업 150개사, 연구소 10개사임.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기준 기업 유치 달성률은 64.0%이고 연구소 유치 달성률은 0%로 적극적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확대가 필요함.

〈표 2-28〉 투자유치 현황(2015-2021)

단위: 개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11월 (누계)	2021년 12월 (누계)
분양 기업	6	24	50	69	90	96	114
분양 면적 (천 ㎡)	110	242	370	515	614	732	973
착공 기업	-	3	16	28	14	18	-
준공 기업	-	-	9	20	34	45	-
미입주 기업	6	21	25	21	42	33	-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편람(2022), 흥연아 외(2022).

○ 2020년 11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제1차 종합계획 목표 대비 선도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율은 각각 13.3%, 8.2%이며 소기업 위주로 기업 유치가 진행됨. 따라서 선도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유치노력 제고가 필요함(기업규모별 유치 현황: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87개사).

- 선도기업(매출규모 3천억 원, 해외는 5천억 원) 15개사 유치
- 중견기업(매출규모 300억 원~3천억 원, 해외는 500억 원~5천억 원) 85개사 유치
- 소기업(매출규모 300억 원, 해외는 500억 원) 50개사 유치

〈표 2-29〉 기업규모별 유치현황(2020년 11월 기준)

단위: 개사, %

구분	정의	목표 기업 수	유치 기업 수	달성률(%)
선도기업(앵커)	매출규모 3천억 원(해외 5천억 원)	15	2	13.3
중견기업	매출규모 300억 원(해외 500억 원)~3천억 원(해외 5천억 원)	85	7	8.2
중소기업	매출규모 300억 원(해외 500억 원) 미만	50	87	174.0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 (산업단지 분양현황) 총면적 2,321,929㎡ 중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205,929㎡ 로, 중소기업외국인 지정면적이 116,000㎡를 차지함.

- 산업단지 전체 분양(임대)률은 58.2%, 산업단지 지정면적 분양(임대)률은 62.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면적 임대율은 19.9%로 나타남.

〈표 2-30〉 산업단지 분양 현황(2020년 11월 기준)

구분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면적	분양공고면적	분양(임대)	분양(임대)률
계	2,321,929	1,492,867	1,256,910	731,669	58.2%
산업단지	2,205,929	1,376,867	1,140,910	708,535	62.1%
외국인투자지역	116,000	116,000	116,000	23,135	19.9%

주: 2020년 11월 기준.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물류존, 연구시설, 외국인투자지역 등 산업시설권역별로 구분됨. 96개 분양기업은 식료품제조업 기업 86개, 음료제조업 3개, 연관업종 3개, 물류존 3개, 연구시설 0개, 외국인투자지역 1개로 구성됨.

- 각 권역별 분양률은 식료품제조업 60.0%, 음료제조업 6.5%, 연관업종 33.1%, 물류존 100.0%, 연구시설은 0%, 외국인투자지역은 19.9%로 나타남.

〈표 2-31〉 산업시설권역별 분양률 현황(2020.11.30. 기준)

단위: 개사, m², %

구분	목표 기업 수	분양 기업 수	계약면적(m ²)	관리기본계획(m ²)	분양률(%)
식·음료제조업	100	86	583,787	926,929	63.0
음료제조업		3	12,051	186,158	6.5
연관업종	15	3	54,864	165,567	33.1
물류존	5	3	57,833	57,833	100.0
연구시설	10	0	-	40,381	0.0
외국인투자지역	30	1	23,135	116,000	19.9

주: 물류존에는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4,426m²)가 포함되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기본계획에 미포함됨.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분양면적이 없음.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홍연아 외(2022)

○ (가동 기업) 2017년 대비 2020년 가동 기업은 41개 사에서 85개 사로 증가함. 준공기업은 동기간 9개 사에서 45개 사로, 벤처기업은 32개 사에서 40개 사로 증가함.

〈표 2-32〉 가동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1월(누계)
합계	41	55	71	85
준공기업	9	18	34	45
벤처기업	32	37	37	40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홍연아 외(2022)

○ 2020년 가동 중인 기업 85개 사 중 식료품 제조업이 59개 사로 84.7%를 차지함. 음료 제조업과 식품연구개발업은 4개 사로 4.7%, 연관업종은 3개 사로 3.5% 순으로 나타남. 특히, 식료품 제조업 72개 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업종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13개 사)임.

〈표 2-33〉 2020년 가동기업 업종 분포(2020.11.30. 기준)

단위: 개사

업종별	2020년		
	소계	준공기업	벤처기업
합계	85	45	40
식료품 제조업 소계	72	38	34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6	6	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	1	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	2	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10	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	-	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	-	1
곡물 가공품 제조업	4	1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4	2	2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3	-	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5	3	2
기타 식료품 제조업	34	13	21
음료 제조업 소계	4	3	1
발효주 제조업	1	1	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	2	1
연관 업종 소계	3	2	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	1	0
포장용 플라스틱	2	1	1
물류 소계	2	2	0
보관 및 창고업	2	2	0
식품연구개발업 소계	4	-	4
식품연구개발업	4	-	4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홍연아 외(2022)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총 고용인원은 2017년 128명 대비 2019년 733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준공기업의 고용인력은 2017년 77명에서 2019년 581명, 동기간 벤처기업 고용인력은 51명에서 152명으로 약 세 배 증가함.
- 고용인원의 성비는 남성 59.9% 대비 여성 40%이며, 내국인이 98.4%로 대부분을 차지함.
- 상용근로자 비율이 98.8%, 직무별로는 생산직 56.2%, 사무직 29.1%, 연구개발직 11.3%, 기타 3.4%로 나타남.
-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 거주 비율이 90.7%로 나타남.

〈표 2-34〉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28	329	733
준공기업	77	223	581
벤처기업	51	106	152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홍연아 외(20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차 종합계획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유발인구를 산업단지 종사자 10,155명, 종사자 가족 9,140명으로 직접 유발인구 19,295명과 간접 유발인구 17,944명으로 계획하여 총 유발인구 37,239명을 목표로 함. 그러나, 2019년 산업단지 종사자 수 분석 결과 전체 종사자 수는 733명으로 계획 근로자수 10,155명 대비 달성률이 7.2%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지역 인구 또한 2015년 5,368명에서 2019년 4,79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실적

○ (매출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생산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4,270백만 원에서 2019년 83,910백만 원으로 약 186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생산실적은 가동 기업 전체매출의 19.4%이고 분양기업 전체 매출액의 12.9% 수준임.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이 가동 기업과 분양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낮아 기업 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차 종합계획의 2020년 매출액 목표 15조 원 대비 2019년 산업단지 생산실적 83,910백만 원은 5.6%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2-35〉 기업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가율(%)
산업단지 생산실적	4,270	31,141	83,910	169.5
가동기업 전체매출	78,610	167,067	432,356	158.8
준공기업	38,534	87,859	349,552	297.7
벤처기업	57,507	81,919	82,803	1.1
분양기업 전체매출	314,461	429,007	650,513	51.6
분양기업	256,954	347,088	567,709	63.6
벤처기업	57,507	81,919	82,803	1.1

주: 매출은 국내매출, 간접수출, 직접수출 합계임. 산업단지 생산실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 생산실적이며, 가동기업 전체매출은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업체의 단지 내 사업장과 타 사업장 실적의 합계임. 분양기업 전체매출은 분양 및 입차 계약한 기업체의 단지 내 사업장과 타 사업장 실적의 합계임.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 (수출 현황) 2017년 13개사에서 2019년 18개사로 입주기업 중 수출기업 수가 증가함.

- 2017년 4개사에서 2019년 6개사로 준공기업이 변화함. 벤처기업은 동기간 9개사에서 12개사로 늘어남.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액 분석 결과, 2017년 12,258백만 원에서 2019년 31,958백만 원으로 약 160.7% 증가하였음. 준공기업의 수출액은 동기간 6,638백만 원에서 23,518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은 5,620백만 원에서 8,439백만 원으로 증가함.

- 수출액 분석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차 종합계획 상 목표 수출액은 2020년 약 3조 원으로, 2019년 산업단지 수출실적 31,958백만 원은 1.1%에 불과한 수준임.

〈표 2-36〉 수출기업 수 및 수출액 현황

단위: 개사,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기업 수	계	13	16	18	12.5
	준공기업	4	6	6	0.0
	벤처기업	9	10	12	20.0
수출액	계	12,258	28,251	31,958	13.1
	준공기업	6,638	22,820	23,518	3.1
	벤처기업	5,620	5,431	8,439	55.4

주: 수출기업 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체수, 수출액은 간접 매출, 직접 수출의 합계를 말하며, 단지 내 사업장과 타 사업장 모두 포함한 실적임.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2020년 예산은 41,171백만 원으로 2019년 23,311백만 원 대비 76.6% 증액됨. 주요 요인은 대규모 시설 및 장비 투자로 2016년 및 2020년이 이에 해당됨.

〈표 2-37〉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6,250	7,580	26,318	55,583	14,721	24,370	20,269	21,013	23,311	41,171
기업 지원시설 구축	2,000	1,122	19,936	49,125	7,937	13,085	1,850	1,850	3,864	21,701
투자유치 및 홍보 강화	3,060	4,220	3,734	2,468	2,488	1,600	2,134	2,740	2,140	1,821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	-	-	-	-	144	499	1,414	2,947	2,946
기업 기술지원	530	580	515	775	997	2,367	5,652	4,526	4,813	4,770
기관 운영관리	660	1,658	2,133	3,215	3,299	7,174	10,134	10,483	9,547	9,933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총예산(23,311백만 원)은 국비 91.7%(21,378백만 원), 지방비 예산액 8.3%(1,933백만 원)으로 구성됨.

〈표 2-38〉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고 예산액	34,794	10,016	16,660	11,735	12,056	21,378	39,224
국고 결산액	34,132	9,966	16,660	11,734	12,056	16,194	-
자체수입	-	-	-	352	613	842	-
지방비 예산액	21,049	4,892	7,725	8,549	8,971	1,933	1,947
지방비 결산액	20,644	4,362	6,734	7,565	8,876	1,572	-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수익은 842백만 원이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가 60백만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함. 이는 2019년 예산액 대비 36.1% 수준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표 2-39〉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 수익

구분	사업명	수입(천 원)			
		계	2017	2018	2019
	계	1,806,122	351,863	612,624	841,634
1	진흥원 본관 임대료	167,285	55,283	59,083	52,918
2	식품벤처센터 임대료	1,316,555	266,604	443,495	606,456
3	시험분석·시제품제작	258,634	29,976	110,046	118,612
4	임가공수수료수입	63,648	-	-	63,648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부자료, 흥연아 외(2022)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현황

○ 2022년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은 10개소로, 청년식품창업센터 및 기능성원료은행이 준공 예정으로 향후 12개 기업지원시설이 구축될 예정임.

- 비즈니스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본관)
- 기술지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HMR기술지원센터, 기능성원료은행('23 준공예정)
- 시제품생산: 파일럿플랜트, 소스산업화센터
- 창업지원: 식품벤처센터(37개 식품기업 입주,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청년식품창업센터('23 준공예정)
- 원료중계: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1. 12.준공)
- 식품제형: 기능성식품제형센터('22. 4.준공, 장비구축중)

〈그림 2-2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구분	용도	기능
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업무시설	클러스터조성,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홍보 등 클러스터(H/W·S/W)의 총괄 관리·운영
② 식품패키징센터	기술지원시설	식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식품포장의 설계, 제조, 검사 등 지원
③ 식품품질안전센터	기술지원시설	식품기업의 품질안전과 관련된 검사, 자문 등 지원
④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센터	기술지원시설	식품소재의 성분분석, 기능성평가 제공 및 식품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⑤ 파일럿플랜트	생산시설	식품기업이 새로운 공정의 도입 및 신제품 출시 전 소규모 시제품 생산시설
⑥ 식품벤처센터	생산시설	식품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식품안전시설 갖춘 생산공간, 부대시설 제공
⑦ 소스산업화센터	생산시설	상품화지원(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애로기술지원(네트워크 HUB, R&BD), 정보지원(레시피, 산업정보)
⑧ HMR산업화센터	기술지원시설	가공기술지원(비열살균, 급속냉·해동, 대체육), HMR혁신제품개발지원, 상품성 검증, 포장개발
⑨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물류·보관	입·출고, 상온창고, 냉장·냉동창고, 야외 창고, 사무실
⑩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술지원시설 생산시설	제형·제제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생산지원 및 정보지원
⑪ 청년식품창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식품관련 상품기획부터 시제품제작-테스트-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창업과정을 실습·체험할 수 있는 설비 구축
⑫ 기능성원료은행	기술지원시설	기능성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기능성원료 플랫폼, 기능성 원료 생산, 공급, 기능성식품 테스트플랜트 구축 및 지원,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생산, 공급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https://www.foodpolis.kr/history/history2.php>).

1.5.3. 식품산업의 통계 및 빅데이터

- 식품산업 관련 빅데이터는 유통, 소비트렌드, 기업 재무/비용, 수출입, 웹스크레이핑 자료 등이 있음.
- 유통 분야에서는 유통 가격 데이터, 소매 가격 데이터, 스캐너 데이터(POS, CPS), 신용 카드 데이터 등이 있음.
 - 유통가격 데이터는 aT 등에서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음.
 - 소매가격 데이터는 소비자원과 aT 등에서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음.
 - 스캐너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 기업들이 수집하고 있으나, 대외 공개가 되지 않아 활용성이 낮은 상황임.
- 소비트렌드와 관련하여서는 검색어 순위 및 클릭 수 트렌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데이터, SNS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검색어 데이터는 검색 포털을 중심으로 제공됨.
 -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데이터는 민간 기업을 통해 제공되나, 향후 전망 도출을 위해서는 분석 기술이 필요할 수 있음.
 - SNS 데이터의 경우 시사점 도출을 위해 분석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존재
- 기업의 재무 관련 자료는 KED, NICE 등에서 수집하고, 수출입 자료는 US COMTRADE 및 무역협회에서 수집·제공하며, HIS Markit 등 민간 기업은 수출입 관련 통찰을 제공하나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재무 관련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사업체가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큼.
 - 수출입 자료는 US COMTRADE와 한국 무역 협회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향후 전망을 제공하지 않아 분석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수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구매가 필요하여 데이터의 접근성이 떨어짐.
- 웹스크레이핑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와이즈 앱 등에서 수집하고 있음.

〈표 2-40〉 식품산업 관련 빅데이터 현황

구분	데이터 종류	수집 및 제공업체	특징	개방 여부
유통	유통 가격 데이터	aT 등	농축수산물 품목별 일일 도매/소매 가격 제공 (도매가격: 118품목, 소매가격: 94품목, 친환경소매가격: 54품목)	○
	소매가격 데이터	소비자원	600여개의 업체에서 판매되는 337개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	○
	스캐너(Scanner) 데이터: POS	마켓링크, 닐슨 등	소매점 POS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의 가격, 판매액 등	×
	스캐너(Scanner) 데이터: CPS	칸타월드, 닐슨 등	소비자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특성별식품소비 차이 및 변화 관련 정보	×
	외식업체 POS 데이터	나이스지니데이터 등	외식업체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식 메뉴별가격, 판매 관련 정보	×
	신용카드 데이터	각 신용카드사, 나이스지니, 와이즈앱 등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상권별/지역별 매출액 관련 정보	×
소비 트렌드	검색어 순위 및 클릭 트렌드	네이버, 구글, 카카오톡 등	검색어 트렌드를 제공하여 식품 관련 인기 순위 및 클릭량 트렌드 정보	○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데이터	IGAWorks, 와이즈앱 등	어플리케이션별 소비자 그룹별 앱 사용 시간 정보	△
	SNS 데이터	다수의 SNS 분석 업체	SNS 작성글의 자연어 및 감성분석 등을 통해 소비 트렌드 관련 정보	△
기업 재무	기업 재무	KED, NICE 등	천 만개 이상의 기업 재무정보(식품제조업의 경영 관련 정보 분석 가능)	×
수출입 관련	수출입 자료	HIS Markit 등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관련 정보	×
웹스크래핑 (web-scraping)	온라인 유통/가격 데이터 등	KREI, 와이즈앱 등	온라인 소매업체, 배달앱 등에서 상품/메뉴 description 정보를 스크래핑하여 가격, 제품 특성, 소비 트렌드 관련 정보 도출	△

자료: 저자 작성

○ 식품산업 관련 통계로는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국민계정, 전국사업체조사,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소비행태조사 등 약 30여 개의 통계가 매월 또는 매년 공표되고 있음.

○ 대부분의 통계에 접근할 수 있으나, 통계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산업을 전망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함.

〈표 2-41〉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

구분	통계명	출처 (작성기관)	공표 주기	공표시점	기준시점
GDP	경제총조사	통계청	5년	조사기준 년도 익익년4월	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1년	조사기준 년도 익년 12월	분석시점 2년 전
	국민계정	한국은행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사업체수및 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1년	조사기준 년도 익년 12월	분석시점 2년 전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행정안전부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출하, 물가, 출하액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경제총조사	통계청	5년	조사기준 년도 익익년 4월	2015년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1년	조사기준 년도 익년 12월	
고용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가공식품 수출입 추이	Global Insight	IHS Markit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기업경영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년	익년 10월	전년도
	외감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년	익년 12월	전년도
식품산업 여건변화	고령인구, 1인가구 비중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1년	익년 12월	전년도
	주요국 환율의 분기별 동향	한국금융연구원	1년	익년 12월	전년도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월	조사기준월 익익월마지막주	전월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환율(아시아)	IMF	월	익월 마지막주	당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월	익월 마지막주	당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식품산업 전망	Global Insight	ISH Markit	월	익월 마지막주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1년	조사기준 년도 익년 12월	분석시점 2년 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1년	조사기준 년도 익년 12월	분석시점 2년 전
식품소비 및 동향 등 주요 이슈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분기	해당 분기 기준 4달 이후	전분기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월	조사기준월 익익월마지막주	전월
	FIS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1년	조사기준 년도 3년 후 1분기	조사기준 년도 2년 전

구분	통계명	출처 (작성기관)	공표 주기	공표시점	기준시점
	식품 등 생산실적(각 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1년	익년 3분기	전년도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농림축산식품부	1년	익년 2월 말	해당년도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년	익년 3월 말	해당년도
	농식품수출정보(KATI)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월	익월 마지막주	전월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	5년 단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반기	조사기준 반기 익반기	
	일본 경제산업성(공업통계), 법인기업 통계조사	재무성재무총합정책 연구소	-	-	-
세계 식품산업 동향	Alternative Protein Market by Stage/Type, Application, and Geography	Meticulous Research	-	-	-
	유로모니터 보고서	유로모니터	보고서 구독 시스템		
전통식품 관련	전통식품시장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비공개		

자료: 저자 작성

1.6. 식품산업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 개념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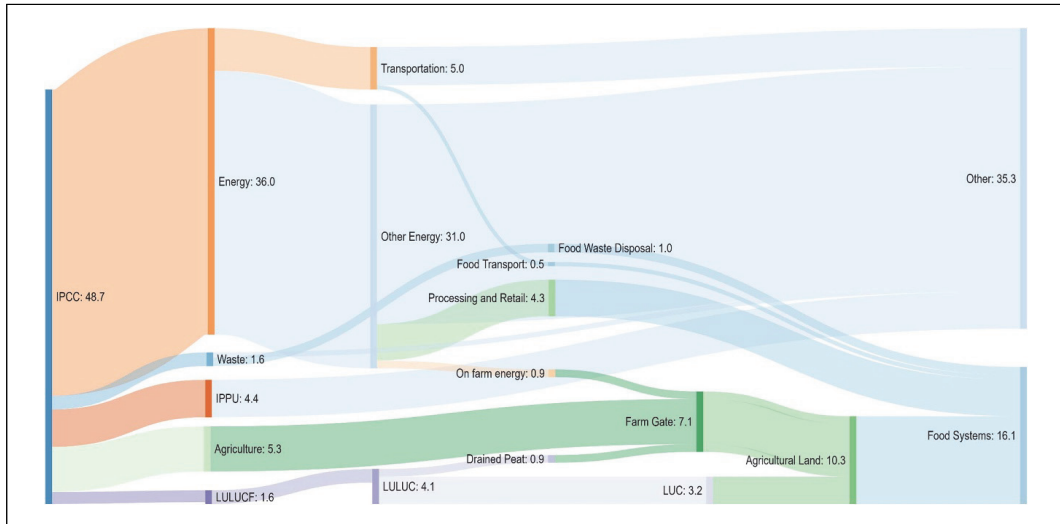
○ UN은 2015.9월 제70차 UN총회에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고 SDGs17(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구체화함(장명화, 2022).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및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통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념
- UN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수립에 합의하고 이행 주체를 모든 회원국 및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로 설정

○ 식품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가시화 단계임. IPCC(2018)는 식품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 16.1%에 달한다고 분석하였음. 이는 현재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분야인 에너지 다음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식품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분야는 식품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물, 수송 등 식품시스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임.

〈그림 2-26〉 식품시스템 및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



자료: IPCC (2018); Tubiello et al. (2021)

- ESG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임(한국거래소, 2021).
 - 경우에 따라 ESG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표현
 -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

〈표 2-42〉 ESG의 요소(예시)

요소			재무적 영향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 삼림파괴	인권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조건 근로자 관계	뇌물 및 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조세 전략	자본 접근성 비용절감 및 생산성 리스크 관리 매출 증대 및 시장 접근성 브랜드 가치 및 평판 영업 라이선스 인적 자본 직원 유지 및 고용 인수대상으로서의 기업 가치 유지 다른 우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

자료: 한국거래소 (2021)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식품기업 수출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가 진행되고 있어, 수출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ESG 실천도가 중요해짐.

- 유럽은 공급망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 환경, 인권 등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를 규정하였고, ESG 실사 전략 수립 및 이행 의무화를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ESG 실사 의무화 적용대상은 EU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EU 내 시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까지도 포함함. 또한, 가치사슬 전반 또는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실사 의무를 확장함.
- ESG 실사를 통해 ESG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이에 대응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관련 사례: 네슬레는 공정근로연합(Fair Labor Association)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들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주요 회사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공정근로연합의 추천에 따라 네슬레에게 공급망 내 주요 업체들의 종합적 근로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코코아 산업의 현대 노예 사용 리스크로부터 네슬레가 벗어날 수 있게 함.

〈표 2-43〉 EU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내용

국가	내용
영국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실사 절차, 위험 관리 절차, 효과성 평가 결과, 임직원 교육 등을 공개
프랑스	공급망 내 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공개
네덜란드	자사 공급망 아동노동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성명서 제출, 위반 시 해당 기업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10% 벌금, 5년 이내 2회 이상 법규 위반 벌금 부과 시 책임이사 2년 이내 징역
독일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및 보고 의무화 공급망 내 인권침해, 환경 보고 기준 미충족 기업은 연 매출액의 2% 벌금 부과 및 공공조달 제외
EU	임직원 500명 이상,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대기업(그룹 1), 섬유, 농수산물업, 광업 등 고위험 분야의 임직원 250명 이상, 매출 0.4억 유로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그룹 2, 유예기간 2년) 대상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위험 예방 완화를 위한 기업 실사 보고서 제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행정 제재

자료: 한국 ESG 연구원, IBK 중소기업 CEO REPORT(10월호)를 바탕으로 작성

○ 미국은 환경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여러 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규제를 신설 중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금지를 입법함.

-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는 Secretary Order 3407을 통해 국립 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2032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함.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2023년 초에 구체적 계획 수립 예정
-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54(California Senate Bill 54)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금지함. 이 법안은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25% 감축하고, 65%의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재활용할 것을 규정함. 또한 플라스틱 산업에게 5조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등에 영향받는 빈곤지역을 돕도록 함.

〈표 2-44〉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54 규제 전망

연도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54 규제 예고 내용
2028	30%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2030	40%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2032	65%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25%의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자료: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5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식품산업 주요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

○ 본 절에서는 최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세계 식품시장 유망품목으로서 식품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과 식품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면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1. 식품산업 업종별 현황

2.1.1. 업종별 출하 및 판매액 동향

○ 생산액 측면에서 2018년 이후 연 5% 이상 성장한 업종은 단백질 위주의 육류 가공제품과 편리성을 중시한 즉석식품류 등이며, 5% 이내 성장한 업종은 식품첨가물 및 장류, 수산물 가공품, 특수용도식품 및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임.

- 연간 5% 이상 생산액 측면에서 성장한 업종은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28.1%)’, ‘동물성 가공식품류(13.1%)’, ‘식용유지류(9.6%)’, ‘농산가공식품류(8.7%)’, ‘즉석식품류(8.7%)’, ‘조미식품(8.2%)’, ‘두부류 또는 목류(6.8%)’, ‘절임류 또는 조림류(6.0%)’, ‘면류(5.5%)’임.
- 5% 이내 생산액 측면에서 성장한 업종은 ‘식품첨가물(4.9%)’, ‘장류(4.7%)’, ‘수산가공식품류(4.1%)’ 및 ‘음료류(4.1%)’, ‘특수용도식품(3.8%)’,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3.7%)’, ‘별꽃 및 화분가공품류(3.4%)’, ‘잼류(2.9%)’, ‘빙과류(2.9%)’임.
- 반면에, ‘알가공품류(-0.4%)’, ‘기구 및 용기포장(-0.6%)’, ‘옹기류(-5.5%)’,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8.0%)’의 생산액은 역성장함.

〈표 2-45〉 식품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

품목	연도				2018-2021 연평균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전체 합	48,685,303	49,890,950	50,699,966	56,265,959	4.9%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11,615	148,097	185,478	234,513	28.1%
동물성가공식품류	54,137	77,958	64,943	78,316	13.1%
기타식품류	1,390,612	1,511,687	1,637,244	1,839,544	9.8%
식용유지류	1,970,287	2,002,073	1,989,527	2,597,401	9.6%
농산가공식품류	2,695,854	2,845,311	3,120,842	3,466,105	8.7%
즉석식품류	3,581,323	4,158,420	4,003,288	4,604,495	8.7%
조미식품	3,670,041	3,869,774	4,080,600	4,652,976	8.2%
당류	1,430,720	1,465,195	1,507,391	1,791,127	7.8%
두부류 또는 묵류	600,692	612,468	646,945	732,710	6.8%
절임류 또는 조림류	1,968,069	2,093,843	2,197,748	2,340,705	6.0%
면류	2,882,969	2,827,122	3,058,338	3,381,836	5.5%
식품첨가물	2,087,397	2,133,580	2,342,578	2,410,276	4.9%
장류	786,459	689,312	836,169	902,744	4.7%
수산가공식품류	4,692,169	4,807,610	4,807,543	5,300,053	4.1%
음료류	6,477,864	7,016,616	6,512,930	7,302,771	4.1%
특수용도식품	268,784	265,212	284,187	300,642	3.8%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5,651,384	5,931,482	6,070,923	6,301,218	3.7%
별꽃 및 화분가공품류	6,087	5,819	8,312	6,731	3.4%
잼류	120,701	95,071	131,595	131,583	2.9%
빙과류	336,433	328,710	330,330	349,522	1.3%
알가공품류	6,972	8,368	6,974	6,880	-0.4%
기구 및 용기포장	6,769,922	5,868,036	5,943,293	6,655,827	-0.6%
용기류	18,656	17,870	17,933	15,767	-5.5%
코코아가공품류또는 초콜릿류	1,106,156	1,111,318	914,855	862,216	-8.0%

주: 2017년 이전 자료는 품목 구分的 차이가 존재하여 제외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각 연도)

○ 코로나19 이후 품목별 판매액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마트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022년에 판매액이 감소한 품목은 유제품, 가공면류, 조미료, 편의식품, 통조림 등임.

- 유제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구르트와 흰우유가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옴.
- 가공면류 역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에 판매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조미료의 경우, 소금과 꿀을 제외한 모든 세부 품목에서 2019년 1분기~2022년 1분기까지 판매액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판매액이 감소한 품목은 음용식초와 겨자/와사비, 요리주, 액젓 순으로 나타남.
- 편의식품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대부분의 품목에서 판매액이 증가한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품목은 스프(-29.6%), 죽(-13.2%), 햄/소시지(-6.3%), 만두(-5.1%)로 나타났으나, 씨리얼(5.8%)과 레토르트 식품(34.4%)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 통조림의 경우, 축산통조림, 수산통조림, 참치통조림은 2019년 1분기에서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인 판매액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반찬통조림, 야채통조림, 과일통조림의 경우 동기간 지속적인 판매액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대체식으로 활용되던 반찬, 야채, 과일 통조림의 판매액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정책들이 완화되며 소비가 감소해 온 것으로 추측됨.
- 차류는 원두커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품목에서 2019년 1분기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판매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 판매액이 대체로 증가한 품목은 건강식품, 음료, 주류, 등이며, 세계 시장에서는 편의식품 등 간편식 산업과 소스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건강식품은 20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모든 세부 품목(기타건강식품, 홍삼가공, 비타민)들의 판매액이 증가하였음.
- 음료의 경우,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대체로 판매액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그 중 동기간 탄산수의 판매액 증가율이 약 52.4%로 가장 크게 성장함.
- 주류의 경우, 2019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위스키, 와인과 같은 수입 주류의 판매액이 각각 199.3%, 50.8%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일본주류가 79.2%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세계 농림축산식품 유망 품목 전망⁵⁾ 양 측면에서 유망한 업종은 편의식품 등 간편식 산업과 소스산업(장류 등) 산업임.

〈표 2-46〉 품목군별 판매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

품목군	세부분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19/2021 변화율	2021/2022 변화율
유제품	크림	3,264	3,702	3,982	3,463	22.00%	-13.00%
	버터	6,490	7,092	7,879	6,858	21.40%	-13.00%
	치즈	43,769	45,723	47,181	44,867	7.80%	-4.90%
	요구르트	102,141	101,593	93,324	85,913	-8.60%	-7.90%
	흰우유	101,790	104,629	96,411	93,899	-5.30%	-2.60%
	가공우유	24,320	24,073	24,150	26,948	-0.70%	11.60%
가공면류	파스타면	3,385	4,126	4,161	4,078	22.90%	-2.00%
	당면	7,227	7,682	7,663	6,824	6.00%	-11.00%
	기타면	23,005	25,062	24,300	23,844	5.60%	-1.90%
	국수면	3,445	4,375	3,490	3,504	1.30%	0.40%
	라면	148,527	167,982	125,894	131,124	-15.20%	4.20%
소스류	드레싱	1,194	1,378	1,509	1,459	26.40%	-3.30%
	스파게티소스	10,881	12,601	12,457	13,603	14.50%	9.20%
	기타소스	22,399	24,043	24,050	23,140	7.40%	-3.80%
	팜스프레드	7,343	7,247	6,369	6,343	-13.30%	-0.40%
	케찹	4,660	4,840	4,165	4,466	-10.60%	7.20%
	마요네즈	5,034	5,344	4,973	5,131	-1.20%	3.20%
식용유	올리브유	4,390	5,293	5,287	6,430	20.40%	21.60%
	참기름/들기름	7,576	8,821	8,401	8,587	10.90%	2.20%
	대두유	4,733	4,816	5,049	5,371	6.70%	6.40%
	기타 식용유	43,875	34,550	25,928	20,944	-40.90%	-19.20%
분말류	분말카레/짜장	7,352	8,789	6,812	7,138	-7.30%	4.80%
	분말류	15,147	16,716	14,669	13,471	-3.20%	-8.20%
조미료	겨자/와사비	1,970	2,039	2,562	2,158	30.00%	-15.80%
	소금	2,657	2,859	2,933	2,998	10.40%	2.20%
	물엿	4,275	4,883	4,635	4,429	8.40%	-4.50%
	후추	2,694	3,067	2,884	2,821	7.00%	-2.20%
	요리주	2,585	2,637	2,764	2,493	6.90%	-9.80%
	액젓	1,439	1,626	1,502	1,381	4.30%	-8.00%
	기타조미료	21,220	22,198	21,722	20,358	2.40%	-6.30%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글로벌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추정된 2020년 ~2024년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성장이 유망한 업종은 영유아용 식품(8.3%), 낙농품(8.2%), 육류(7.8%), 편의 식품(7.9%), 과일 및 견과류(7.7%), 채소류(7.5%), 소스 및 향신료(6.8%) 등임.

품목군	세부분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19/2021 변화율	2021/2022 변화율
	꿀	3,706	3,341	2,786	3,061	-24.80%	9.90%
	설탕	6,355	5,503	5,007	4,946	-21.20%	-1.20%
	음용식초	2,027	1,808	1,685	1,272	-16.90%	-24.50%
	요리식초	3,195	3,284	3,108	2,923	-2.70%	-5.90%
장류	된장	4,122	4,609	4,143	4,755	0.50%	14.80%
	고추장	13,312	13,118	11,601	12,722	-12.90%	9.70%
	간장	17,136	17,562	16,182	15,421	-5.60%	-4.70%
	쌈장	4,711	4,755	4,652	5,262	-1.20%	13.10%
편의식품	스프	3,187	3,273	5,810	4,093	82.30%	-29.60%
	즉석국	17,599	22,947	23,121	24,899	31.40%	7.70%
	어묵	22,876	26,876	25,450	24,703	11.30%	-2.90%
	즉석밥	42,283	51,644	45,194	44,945	6.90%	-0.60%
	죽	11,856	16,023	12,403	10,765	4.60%	-13.20%
	햄/소시지	67,747	76,715	69,099	64,752	2.00%	-6.30%
	씨리얼	30,802	31,490	26,678	28,227	-13.40%	5.80%
	기타레토르트	8,738	8,892	7,569	10,170	-13.40%	34.40%
	만두	52,693	59,894	46,759	44,384	-11.30%	-5.10%
통조림	맛살	12,166	12,315	11,355	11,001	-6.70%	-3.10%
	기타 통조림	51,576	60,007	76,632	62,055	48.60%	-19.00%
	축산통조림	50,733	46,964	55,686	61,829	9.80%	11.00%
	수산통조림	41,522	37,159	29,406	34,493	-29.20%	17.30%
	참치통조림	21,777	24,939	18,673	18,762	-14.30%	0.50%
	반찬통조림	2,721	3,489	2,352	2,159	-13.60%	-8.20%
	야채통조림	3,464	3,433	3,205	2,902	-7.50%	-9.40%
건강식품	과일통조림	2,347	2,650	2,191	1,896	-6.70%	-13.50%
	기타건강식품	22,871	29,650	31,333	29,147	37.00%	-7.00%
	홍삼가공	45,962	52,790	51,597	48,025	12.30%	-6.90%
음료	비타민	6,308	8,178	6,357	7,086	0.80%	11.50%
	탄산수	2,774	3,268	3,999	4,228	44.20%	5.70%
	기능성음료	12,458	12,438	9,626	11,213	-22.70%	16.50%
	주스	40,387	38,844	32,002	31,777	-20.80%	-0.70%
	두유	19,091	16,591	15,226	17,884	-20.20%	17.50%
	생수	44,437	46,845	37,977	40,847	-14.50%	7.60%
주류	탄산음료	41,787	41,163	41,140	45,805	-1.50%	11.30%
	위스키	11,751	12,283	20,089	35,168	71.00%	75.10%
	와인	44,051	43,843	63,947	66,437	45.20%	3.90%
	기타주류	11,580	11,481	14,898	18,981	28.70%	27.40%
	국산맥주	60,145	71,006	75,568	78,849	25.60%	4.30%
	탁주	7,513	7,568	9,000	9,693	19.80%	7.70%
	과실주	2,027	1,988	2,387	2,657	17.80%	11.30%
	소주	47,861	52,607	55,056	57,333	15.00%	4.10%
수입맥주	57,979	40,255	36,522	30,758	-37.00%	-15.80%	

품목군	세부분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19/2021 변화율	2021/2022 변화율
	청주	4,229	4,047	3,561	3,582	-15.80%	0.60%
	일본주류	1,269	456	1,097	1,966	-13.60%	79.20%
	민속주	6,181	5,619	5,468	5,843	-11.50%	6.90%
차류	원두커피	10,752	13,773	14,772	15,096	37.40%	2.20%
	전통음료	1,584	1,721	1,766	1,750	11.50%	-0.90%
	녹차/홍차	4,188	3,481	2,743	3,301	-34.50%	20.30%
	식수차	5,836	5,083	4,174	4,275	-28.50%	2.40%
	인스턴스커피	104,557	86,010	79,968	74,057	-23.50%	-7.40%
	전통차	11,819	10,962	9,203	10,355	-22.10%	12.50%
	기타차	13,062	11,857	10,419	11,400	-20.20%	9.40%
	기타차음료	9,359	10,089	8,664	9,003	-7.40%	3.90%
	커피음료	10,958	11,018	10,459	9,748	-4.60%	-6.80%

자료: 대형할인점(온라인 + 오프라인) POS 데이터. 2022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에서 재인용(2023 발간예정).

2.1.2. 업종별 국내산 원료 사용비중

○ 2021년을 기준으로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전통식품 등 국산 농산물 비중이 높거나, 국내에서 원료 자급이 원활하게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으로 신선도가 중요한 신선편의식품 및 간편식 등으로 분석되었음.

- 전통적으로 국산 농산물 비중이 높은 품목은 김치류(97.2%), 절임류(92.9%), 홍삼 비중이 높은 건강기능식품(72.5%), 장류를 포함하는 조미식품(57.8%), 떡류(41.7%) 등으로 분석됨.
- 국내에서 원료 자급이 원활하게 가능한 품목은 알가공품(97.9%) 및 육류 가공품(69.1%), 건조수산가공품(80.9%), 우유를 주로 사용하는 유가공품(91.2%) 및 아이스크림류(51.4%) 등 단백질 위주의 제품으로 판단됨.
-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은 과일/채소가공품(84.6%), 즉석섭취식품(82.2%), 즉석조리식품(61.1%), 특수용도식품(49.9%) 등으로 분석됨

〈표 2-47〉 품목별 국산 원료 사용량 및 비중

단위: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17-'21)
육류 가공품	335,078 (64.7)	448,953 (70.7)	516,893 (69.7)	506,990 (69.8)	514,797 (69.1)	11.3
알가공품	66,950 (74.8)	25,166 (79.8)	13,632 (93.6)	37,194 (91.9)	38,087 (97.9)	-13.2
건조수산가공품류	247,656 (74.4)	262,349 (82.1)	299,164 (80.7)	308,933 (80.8)	298,374 (80.9)	4.8
조미수산가공품류	71,024 (27.4)	95,711 (21.3)	84,915 (18.9)	55,066 (18.4)	68,282 (22.3)	-1.0
김치류	573,088 (97.3)	622,245 (98.5)	682,692 (96.8)	673,830 (96.4)	690,911 (97.2)	4.8
절임류	275,232 (88.2)	242,734 (88.8)	246,629 (88.1)	229,399 (91.8)	224,018 (92.9)	-5.0
과일/채소 가공품	118,814 (78.3)	110,347 (78.6)	126,289 (84.1)	110,640 (86.2)	106,926 (84.6)	-2.6
식용 유지류	1,587 (0.2)	3,993 (0.6)	3,412 (0.4)	11,698 (1.3)	2,306 (0.3)	9.8
식용유지가공품	132 (0.4)	70 (0.4)	112 (0.5)	187 (1.0)	108 (0.6)	-4.9
유가공품	1,747,403 (88.6)	1,738,520 (88.1)	1,743,808 (88.3)	2,227,140 (91.3)	2,185,782 (91.2)	5.8
아이스 크림류	121,496 (68.6)	122,034 (70.7)	130,627 (71.4)	79,853 (48.0)	86,967 (51.4)	-8.0
밀가루/분말류	84,044 (3.0)	78,434 (2.4)	77,007 (2.4)	56,450 (1.7)	54,116 (1.6)	-10.4
면류	49,825 (7.4)	34,718 (5.1)	30,112 (4.5)	41,729 (4.8)	40,324 (4.3)	-5.2
곡물 가공품	21,524 (18.7)	26,366 (38.0)	34,550 (37.8)	32,006 (34.9)	32,301 (34.2)	10.7
빵류	38,579 (10.2)	48,014 (15.2)	90,534 (20.2)	43,144 (12.7)	40,139 (12.0)	1.0
떡류	52,521 (38.6)	60,104 (43.0)	56,863 (32.0)	64,338 (38.1)	75,519 (41.7)	9.5
만두류	50,363 (51.1)	49,066 (49.3)	40,237 (38.6)	60,612 (49.4)	55,825 (40.6)	2.6
과자류	60,845 (12.8)	62,041 (13.3)	74,741 (16.1)	52,129 (13.8)	58,764 (15.4)	-0.9
캔디/초콜릿/껌류	5,935 (7.0)	29,220 (25.3)	8,197 (10.0)	7,053 (8.2)	9,289 (10.2)	11.9
당류	8,825 (0.4)	34,614 (1.3)	21,223 (0.7)	11,821 (0.4)	13,810 (0.4)	11.8
잼류	6,700 (50.4)	3,920 (50.8)	11,273 (43.6)	11,712 (71.3)	11,106 (70.2)	13.5
장류	42,013 (27.4)	40,423 (20.3)	39,715 (18.0)	42,557 (16.7)	35,771 (15.9)	-3.9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17-'21)
드레싱/소스류	38,894 (24.4)	33,886 (21.4)	34,601 (23.1)	29,970 (22.5)	27,700 (21.3)	-8.1
조미식품	118,542 (59.1)	109,159 (37.3)	118,558 (51.8)	121,278 (58.7)	125,455 (57.8)	1.4
커피/코코아류	173,766 (56.5)	229,427 (64.1)	211,229 (60.1)	82,666 (35.2)	66,147 (31.0)	-21.5
차류	23,768 (27.7)	18,722 (23.3)	28,334 (28.2)	29,933 (27.8)	27,345 (33.6)	3.6
즉석섭취 식품	111,939 (69.9)	136,481 (74.7)	151,158 (77.6)	165,885 (80.9)	155,778 (82.2)	8.6
즉석조리 식품	70,115 (54.2)	78,600 (48.5)	77,255 (56.1)	114,468 (64.6)	129,833 (61.1)	16.7
균질화 식품류	1,174 (50.2)	2,282 (63.5)	1,529 (50.2)	2,024 (74.6)	1,676 (39.9)	9.3
신선편의식품	1,019 (100.0)	3,564 (98.4)	10,814 (90.5)	2,229 (98.0)	6,557 (99.1)	59.3
연식품	57,899 (21.4)	53,940 (19.1)	53,839 (20.8)	57,304 (19.9)	50,369 (13.3)	-3.4
기타가공 식품류	12,206 (38.8)	19,932 (39.4)	24,185 (30.6)	14,887 (20.5)	14,344 (17.9)	4.1
음료류	287,755 (45.7)	276,173 (43.6)	270,854 (46.9)	293,526 (46.5)	299,389 (46.7)	1.0
주류	195,584 (15.6)	145,826 (12.0)	159,979 (13.3)	146,785 (15.3)	164,841 (17.5)	-4.2
건강기능식품	8,387 (81.9)	10,029 (69.4)	9,576 (32.9)	8,272 (75.8)	9,083 (72.5)	2.0
건강지향 식품	83,283 (26.4)	112,110 (31.2)	95,318 (27.4)	102,624 (17.9)	180,938 (31.6)	21.4
특수용도 식품	2,933 (90.1)	4,007 (99.5)	5,096 (72.2)	4,502 (61.6)	2,858 (49.9)	-0.6

주: 괄호 안은 품목별 원료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국산 원료 사용량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원료소비 실태조사(각 연도)

2.1.3. 가구의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동향

○ 가구의 품목별 지출액 분석 결과 2012년 이후로 안정적인 가구의 연평균 지출액 증감률을 보이는 품목은 즉석조리식품(16.5%) 및 즉석섭취식품(12.6%), 김치류(9.4%), 주류(7.7%) 등으로 나타났고, 2019년 이후 높은 증감률을 보이는 품목은 알가공품, 유지류, 즉석섭취식품, 김치류, 주류, 연식품, 아이스크림류, 조미식품 등으로 분석되었음.

〈표 2-48〉 품목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구분	2012	2015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감률		
						('12-'21)	('16-'21)	('19-'21)
알가공품	4715	5264	5468	6635	8744	7.1	8.8	26.5
유지류	2461	2591	2579	3291	3645	4.5	5.9	18.9
즉석섭취 식품	2974	3871	6389	7181	8650	12.6	14.3	16.4
김치류	1493	1584	2548	3357	3352	9.4	13.3	14.7
주류	8965	10835	13779	15673	17449	7.7	8.3	12.5
연식품	2922	2676	2673	3199	3358	1.6	3.9	12.1
아이스 크림류	5340	5305	5547	6667	6938	3.0	4.6	11.8
조미식품	13928	10718	12797	15616	15772	1.4	6.7	11.0
육류 가공품	9891	9707	12189	14470	14871	4.6	7.4	10.5
즉석조리 식품	2757	4539	9205	10772	10875	16.5	15.7	8.7
빵떡류	18873	18908	22361	24616	26394	3.8	5.7	8.6
조미수산가공품류	6272	6286	6975	8305	8127	2.9	4.4	7.9
커피/코코아류	5781	5015	6254	7009	7190	2.5	6.2	7.2
과일/채소 가공품	3890	4997	5815	6428	6574	6.0	4.7	6.3
차류	1739	1496	1985	2101	2224	2.8	6.8	5.8
면류	7415	7265	8132	9588	9022	2.2	3.7	5.3
건조수산가공품류	6408	6740	6168	6679	6519	0.2	-0.6	2.8
당 및 잼류	1029	858	715	734	755	-3.4	-2.1	2.7
유가공품	22697	19896	20189	21363	21243	-0.7	1.1	2.6
음료류	20289	21599	27432	28732	28559	3.9	4.8	2.0
과자류	11920	12290	13590	14511	14032	1.8	2.2	1.6
캔디/초콜릿/껌류	2543	3179	7358	3644	3518	3.7	1.7	-30.9

자료: 통계청 MDIS,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 종합하면, 출하액 기준으로는 간편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미래유망식품과 장류, 조미식품 등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판매액 측면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 및 수산가공품, 김치류, 절임류, 과채가공품 등의 성장세가 높았음.
- 국산 원료 이용률 측면에서는 육류, 수산가공품과 김치류, 절임류, 조미식품의 국산 원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산 원료 이용 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간편식품(즉석조리 식품, 즉석섭취식품 등)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 지출액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단백질 제품 및 유지류, 간편식품과 김치류, 주류, 조미식품, 육류 가공품 등의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2.2.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높은 품목 사례: 전통식품

2.2.1. 소스산업(장류 등)

가. 소스산업 현황

- 소스류는 식초, 카레,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식염과 함께 조미식품을 구성하는 품목류에 해당함. 소스류는 다시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으로 구분 가능함. 본 절에서는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을 제외한 소스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장류 산업의 현황을 진단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주요 소스 제품은 양식소스, 증식소스, 일식소스, 동남아소스임.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스는 한식소스, 양식소스, 기타소스(버거소스, 굴소스 등), 드레싱, 디핑소스 등이 해당됨.
- 소스산업을 포함하는 조미식품 업체 수는 2010년 2,646개 사에서 2021년 5,724개 사로 연평균 8.0% 증가하였음.
 -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는 연평균 6.2% 성장
- 생산량 및 생산액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소스산업의 생산량은 285천 톤에서 855천 톤으로 연평균 10.5% 성장하였고, 생산액은 동 기간 579,621백만 원에서 2,108,488백만 원으로 연평균 12.5% 성장함.
 -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는 생산량은 연평균 5.3%, 생산액은 연평균 9.6% 성장
- 판매량 및 판매액 측면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소스산업 판매량은 248천 톤에서 765천 톤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였고, 판매액은 동 기간 655,301백만 원에서 2,473,855백만 원으로 연평균 12.9% 성장함.
 -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는 판매량은 연평균 3.8%, 판매액은 연평균 10.6% 성장

- 수출입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 4천 톤에 불과하였던 소스 수출량은 2021년 33천 톤으로 연평균 21.2%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년 증감률은 33.6%로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수출액 지표 또한 2010년 12,028백만 달러에서 2021년 97,607백만 달러로 연평균 21.0% 성장하였고, 최근 5개년 증감률로 보면 28.0%에 달함.

〈표 2-49〉 소스산업 현황

단위: 개 사, 천 톤, 백만 원, 백만 달러, %

구분	'10	'15	'16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감률	
									'10-'21	'17-'21
업체수 (조미식품)	2,464	4,046	4,368	4,507	4,965	5,199	5,431	5,724	8.0	6.2
생산량	285	578	532	695	630	652	745	855	10.5	5.3
생산액	579,621	1,158,700	1,355,825	1,459,531	1,553,177	1,650,709	1,833,423	2,108,488	12.5	9.6
판매량	248	486	490	659	584	612	662	765	10.8	3.8
판매액	655,301	1,359,214	1,595,554	1,653,173	1,910,143	2,017,016	2,130,569	2,473,855	12.8	10.6
수출량	4	12	11	10	11	17	27	33	21.2	33.6
수출액	12,028	35,899	32,778	36,393	38,549	47,482	77,314	97,607	21.0	28.0

주: 업체수의 경우 조미식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생산량, 생산액,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은 소스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장류산업 현황

- 장류산업체 수는 2010년 1,325개 사에서 2021년 2,003개 사로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나, 2017년 대비 2021년 업체 수는 연평균 0.7% 감소하는 추세임.
- 생산량 및 생산액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류산업의 생산량은 637천 톤에서 722천 톤으로 연평균 1.2% 성장하였고, 생산액은 동 기간 702,971백만 원에서 902,744백만 원으로 연평균 2.3% 성장함.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는 생산량 연평균 3.9%, 생산액 연평균 5.7% 성장한 유망산업임.
- 판매량 측면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류산업 판매량은 554천 톤에서 578천 톤으로 연평균 0.4%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판매액 측면에서는 동 기간 911,446백만 원에서 1,198,909백만 원으로 연평균 2.5% 성장함.

-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는 판매량은 연평균 1.7%, 판매액은 연평균 4.9% 성장

○ 장류 제품은 K-Food에 대한 관심 증대에 힘입어 수출량 및 수출액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 장류 수출량은 2010년 21천 톤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45천 톤으로 연평균 7.4% 증가함. 수출액은 2010년 29,658백만 달러에서 2021년 85,663백만 달러로 연평균 17.1% 증가함.

〈표 2-50〉 장류산업 현황

단위: 개 사, 천 톤, 백만 원,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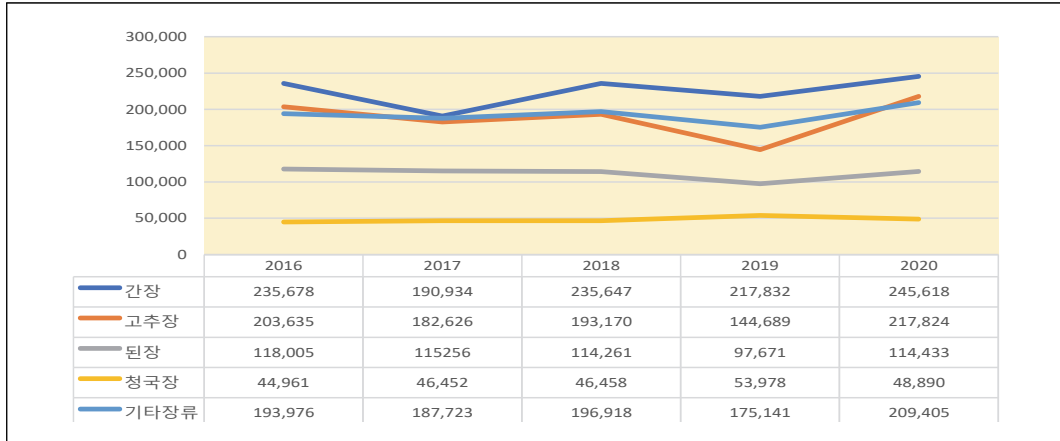
구분	'10	'15	'16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감률	
									'10-'21	'17-'21
업체수 (조미식품)	1,325	2,025	2,048	2,062	2,032	2,047	2,014	2,003	3.8	-0.7
생산량	637	656	719	619	665	685	680	722	1.2	3.9
생산액	702,971	787,771	796,255	722,991	786,459	689,312	836,169	902,744	2.3	5.7
판매량	554	569	629	540	548	598	589	578	0.4	1.7
판매액	911,446	1,053,165	1,056,260	990,855	1,045,261	1,071,645	1,165,419	1,198,909	2.5	4.9
수출량	21	29	26	27	37	37	46	45	7.4	13.3
수출액	29,658	45,540	39,688	45,533	53,471	61,349	85,516	85,663	10.1	17.1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 장류 종류별 생산량 및 생산액 비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간장, 고추장, 된장, 기타장류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2-27〉 주요 장류별 생산액

단위: 백만 원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 장류 수출액 규모는 춘장, 고추장, 기타장류, 양조간장, 혼합간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표 2-51〉 품목별 장류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17)-(21)
합계	45,533	53,471	61,349	85,516	85,663	17.1
재래한식간장	92	-	-	-	-	-
한식메주	41	38	5	0	0	-73.6
개량메주	-	-	69	2	1	-
개량한식간장	531	-	-	-	-	-
메주	-	-	-	-	-	-
한식간장	-	700	713	764	823	-
양조간장	3,130	3,234	2,912	3,357	4,018	6.4
산분해간장	1,465	1,436	1,805	1,213	988	-9.4
효소분해간장	-	-	-	-	-	-
혼합간장	6,105	7,848	7,579	7,792	7,094	3.8
한식된장	178	174	168	223	289	12.8
된장	4,847	6,754	6,150	8,608	7,631	12.0
조미된장	39	-	-	-	-	-
고추장	21,853	24,719	32,597	45,941	47,876	21.7
조미고추장	-	-	-	-	-	-
춘장	319	439	728	1,246	1,171	38.5
청국장	628	204	228	351	402	-10.6
혼합장	6,261	7,925	8,328	15,941	15,207	24.8
기타장류	45	0	66	78	162	38.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각 연도)

다. 소스산업 소비 동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소스산업을 비롯한 소스류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는 ‘클린 라벨’, ‘양극화 및 프리미엄화’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 ‘요리의 편리함 추구’, ‘건강과 웰빙 추구’임.

- 클린 라벨은 합성첨가물 무첨가, 간결한 원료 사용, 가공 최소화 등을 통한 첨가물 감소 및 소비자 이해를 돕는 제품을 의미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HMR 식품 시장의 발달과 함께 조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프리미엄화 트렌드와 전통적인 요리 방식을 유지하려는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관찰됨.
- 에스닉 푸드는 코로나19의 유행과 디지털화의 결과 다양한 국가의 요리 및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특정 문화와 관련된 요리 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레스토랑 제품과 유사한 HMR 제품 혹은 재료를 찾는 프리미엄화 경향이 나타남.
- 동시에 요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소스류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건강과 웰빙 추구는 코로나19 이후 해외 식품 소비 트렌드임.

○ 국가별 소스류 시장 성장 현황도 양호한 수준임(aT, 2021).

- 중국 소스류 시장은 2020년 기준 175억 달러로 2016년 127억 원 대비 37.8% 성장하였고, 2025년 22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소스류 시장은 ('16) 167억 달러 → ('20) 205억 달러로 성장하였고, 2025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 내 간장 수입액은 ('20) 1.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상승함. K-Culture 유행과 함께 한식 베이스 소스인 간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 소스류 시장 규모는 ('16) 92억 달러 → ('20) 105억 달러로 성장
- 러시아 소스류 시장은 ('20) 26.5억 달러 규모임.

2.2.2. 전통주산업

가. 전통주산업 현황

○ 2021년 기준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해당하는 전통주의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는 약 941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1.1%에 해당함. 일반 막걸리 등을 포함한 전통주 등의 시장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13.5%를 차지함.

- 전체 주류시장의 규모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통주 시장은 2016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함.
-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함.

〈표 2-52〉 전통주 출하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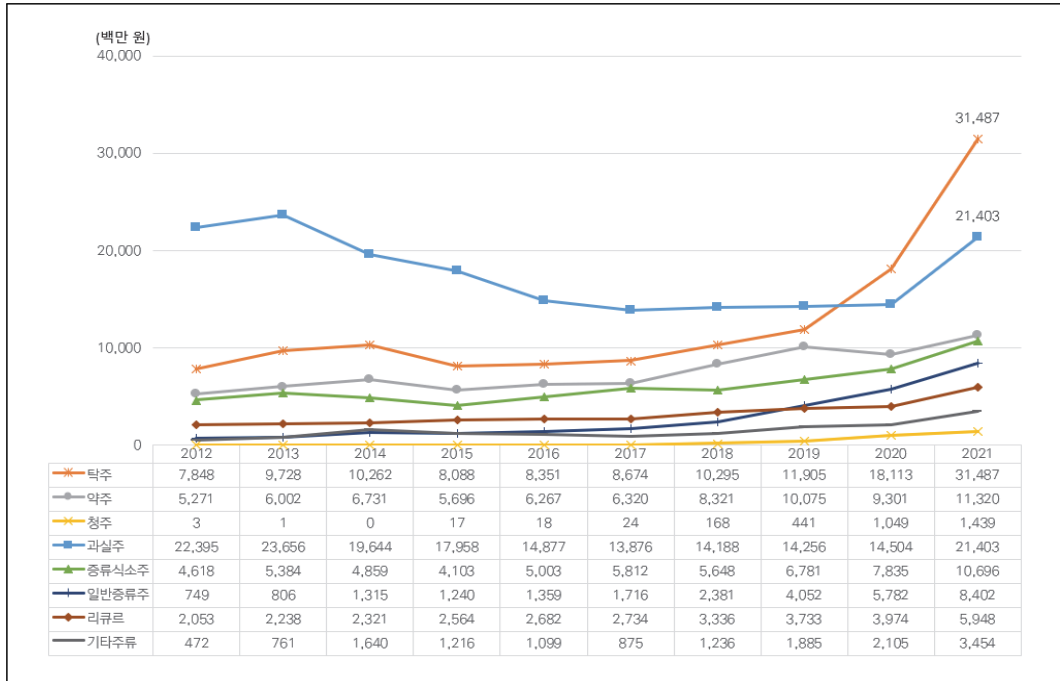
연도	주류 전체	전통주 등			
		전통주	민속주	지역 특산주	
2011	8,144,771	898,673	41,501	8,884	32,617
2012	8,395,767	844,470	43,409	9,020	34,389
2013	8,811,704	847,853	48,576	9,773	38,803
2014	9,126,908	851,997	46,772	10,891	35,881
2015	9,361,633	1,021,422	40,882	10,335	30,547
2016	9,296,077	984,624	39,656	10,437	29,219
2017	9,243,659	959,529	40,029	10,307	29,722
2018	9,039,379	1,065,911	45,573	11,999	33,574
2019	8,941,277	1,027,639	53,128	12,167	40,961
2020	8,799,538	1,090,250	62,664	11,997	50,668
2021	8,834,540	1,192,385	94,149	10,973	83,176
비중	100.0	13.5	1.1	0.1	0.9

주: 전통주 등은 국산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출고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2021년 기준으로 전통주는 주종별로는 탁주, 과실주, 약주, 증류식 소주 등의 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모든 전통주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탁주와 과실주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2-28〉 전통주의 주종별 출하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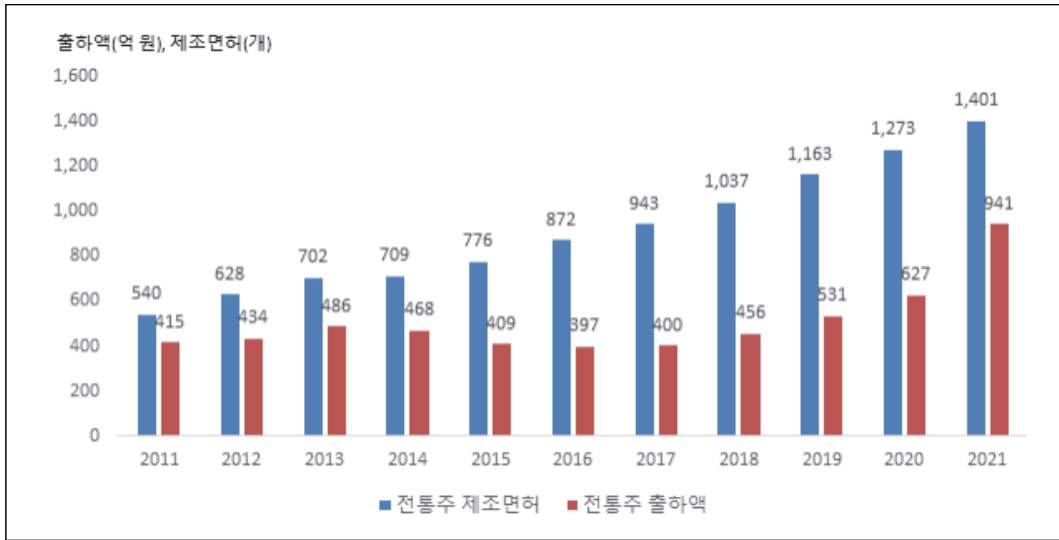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2021년 기준 전통주 면허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수는 1,401개로, 2011년 540개 업체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주 제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출하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6년 이후 전통주 출하액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8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2-29〉 전통주 제조면허 수 및 출하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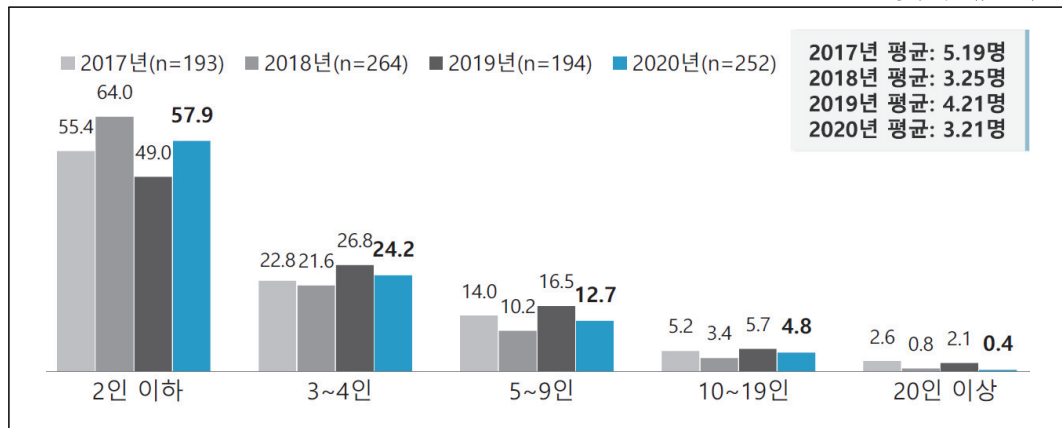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2020년 기준 2인 이하 종사자 수의 기업이 57.9%였으며, 평균 종사자 수가 3.21명임.

- 전통주 업체의 대부분은 종사자 수는 1~2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들임.
- 평균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2-30〉 전통주 업체 종사자 수

Base: 전통주 업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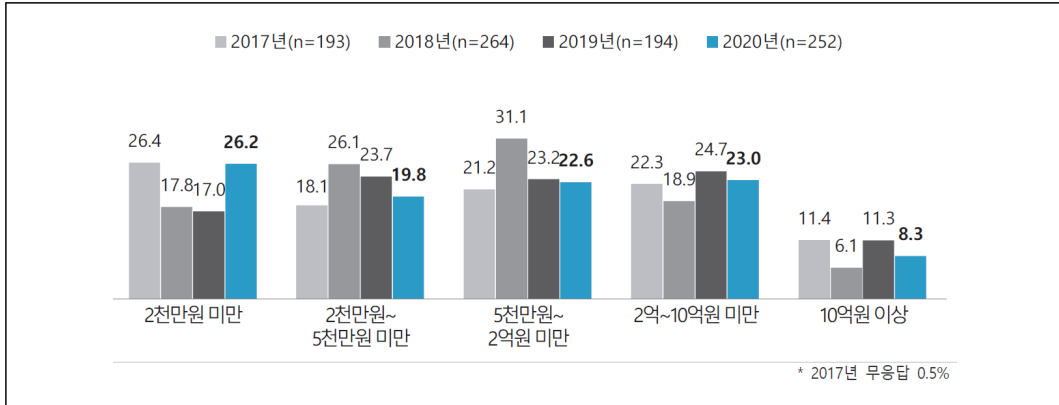


자료: 2020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 2020년 기준 매출액 기준 2천만 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대형업체들은 가장 적은 편임.

〈그림 2-31〉 전통주 업체 매출액

Base: 전통주 업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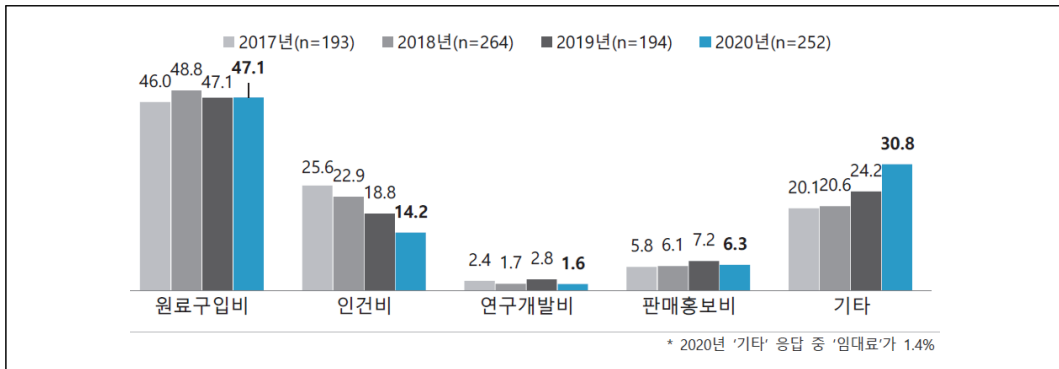
자료: 2020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 전통주 제조업체의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원료구입비 인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전체 영업비용 중 원료구입비가 47.1%로 가장 높았고, 인건비 14.2%, 판매홍보비 6.3%, 연구개발비 1.6% 순으로 높았음.
- 전통주 업체들의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부문 투자는 많지 않은 편임.

〈그림 2-32〉 전통주 업체 영업비용 세부 구성비

Base: 전통주 업체, 단위: %



자료: 2020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 2021년을 기점으로 전통주 등의 수출이 인삼주를 제외한 전체 주종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전통주 중 탁주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순
- 미국의 경우 약주, 사과주, 기타과실주, 인삼주 등 수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
- 이외에도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 전통주의 수출이 많이 이뤄짐.

〈표 2-53〉 전통주 수출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년 대비 증감율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	금액 (%)
총계	14,611	17,664	14,558	17,361	14,780	18,224	17,704	23,521	19.8	29.1
탁주	12,848	12,410	12,772	12,190	12,556	12,468	14,643	15,804	16.6	26.8
약주	245	782	224	722	186	648	242	837	30.1	29.2
청주	384	795	357	768	291	663	372	845	27.8	27.5
사과주	268	547	448	868	983	1,700	1,449	2,609	47.4	53.5
기타 과실주	819	2,650	713	2,394	720	2,341	960	3,144	33.3	34.3
인삼주	48	480	43	419	44	404	39	282	△11.4	△30.2

주: 법적으로 규정된 전통주 외의 통상적인 전통주류를 모두 포함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재인용

나. 전통주 소비 동향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주로 식당이나 주점 등의 업소에서 주류를 음용하던 문화에서 홈술과 혼술 대표되는 가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술을 찾아서 즐기는 음주 문화로 전환됨. 코로나19 기간에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존 전통주의 주요 소비층이 중장년층이었다면, 최근에는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전통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통주의 소비층이 다양해짐.

○ 그리고 젊은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주의 양조, 마케팅, 유통, 그리고 플랫폼 등 전통주 관련 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전세계적인 K-clure와 K-food 열풍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점과 보틀샵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기존 전통주가 가진 오래되고 건강에 좋은 낡은 이미지를 벗고, 최근 젊은층이 찾는 참신하고 새로운 매력적인 술로의 이미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결국 전통주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 최근 전통주 관련 정책들은 전통주와 음식·문화 등과의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전통주를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찾아가는 양조장’과 ‘전통주 갤러리’ 등의 프로그램들과 방송과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전통주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전통주를 홍보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2.3. 김치산업

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기반 김치산업 현황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김치산업 사업체 수는 증가 경향을 보임. 단, 조사모집단이 변경된 2020년의 경우 이전과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19년 이전 및 2020년 이후로 구분하여 서술함.
 - 김치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16년 대비 2019년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0개 사(1.5%)→1,248개 사(2.1%)로 증가함.
 - 2020년 이후 사업체 수는 1,703개 업체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비중 또한 2.4% 수준으로 보고됨.
- 김치류 제조업 종사자 수의 경우 만 명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식품산업 내 종사자 수 비중은 감소 추세임.
 - 김치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6년 9,415 명에서 2019년 10,336 명으로 증가함. 전체 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종사자 수 비중은 2.9%로 동일한 수준임.
 - 2020년 및 2021년 김치제조업 종사자 수는 35,686 명에서 36,255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식품산업 내에서의 비중은 2.9%→2.8%로 감소함.

〈표 2-54〉 김치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사,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체수	식품품 제조업	57,734	58,653	60,071	60,715	70,089	71,98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620	3,900	4,396	4,780	7,323	7,609
	김치류 제조업	860	970	1,150	1,248	1,703	1,703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	1.5%	1.7%	1.9%	2.1%	2.4%	2.4%
종사자수	식품품 제조업	324,392	327,381	342,089	353,949	370,629	374,128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6,745	27,905	29,999	31,416	35,686	36,255
	김치류 제조업	9,415	9,445	10,171	10,336	10,802	10,510
	김치류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2.9%	2.9%	3.0%	2.9%	2.9%	2.8%

주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 발표한 것은 2016년이며, 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던 통계 자료임.

주2: 2020년에는 기존 방식과 유사한 조사 기반 자료와 별도로 기업등록부 기준 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며, 김치류 제조업에 대한 자료는 등록 기반 자료로 발표하고 있음. 모수의 차이로 인해 시계열 불연속이 발생하여 2019년 통계와 2020년 이후 통계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를 살펴보면, 소규모 업체 비중은 2016년 53.1% → 2019년 64.3% → 2021년 74.2%로 증가하여 영세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규모의 경제 단계에의 진입을 저해하여 김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표 2-55〉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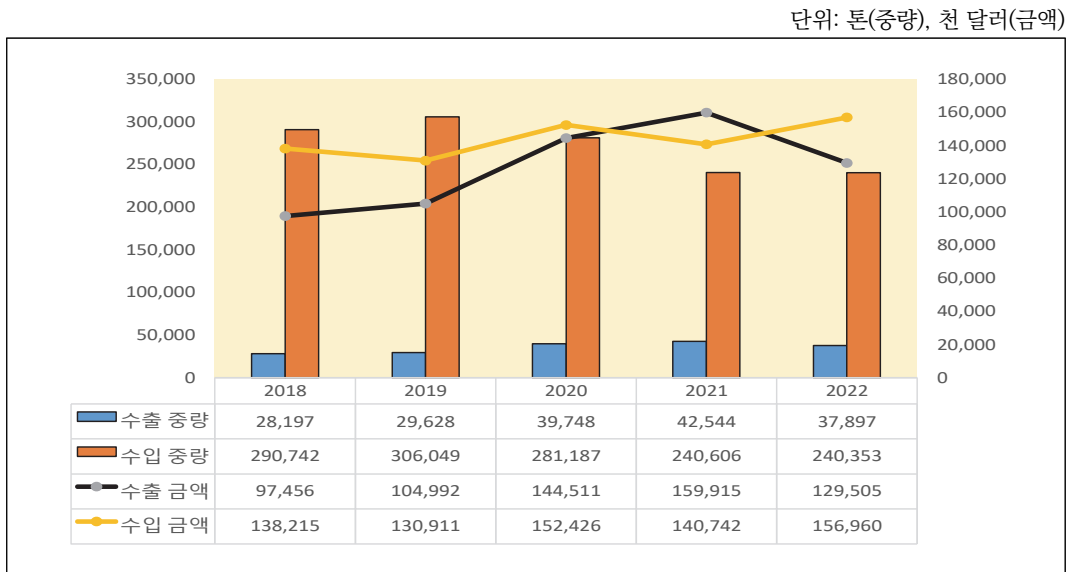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기반)	2021 (등록기반)
1~4명	457(53.1)	558(57.5)	705(61.3)	802(64.3)	1,250(73.4)	1,263(74.2)
5~9명	172(20.0)	173(17.8)	211(18.3)	209(16.7)	218(12.8)	185(10.9)
10~19명	107(12.4)	122(12.6)	108(9.4)	113(9.1)	116(6.8)	135(7.9)
20~49명	93(10.8)	85(8.8)	94(8.2)	90(7.2)	86(5.0)	91(5.3)
50~99명	22(2.6)	23(2.4)	25(2.2)	29(2.3)	25(1.5)	25(1.5)
100~299명	9(1.0)	9(0.9)	7(0.6)	5(0.4)	8(0.5)	4(0.2)
합계	860	970	1,150	1,248	1,703	1,703

주: 2019년 이전 자료는 기업 조사 자료이며, 2020년 이후 자료는 등록 기반 자료로 모집단 규모의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 최근 5개년 김치 수출 중량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2022년에는 37,897 톤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함. 수출 금액 또한 129,505천 달러로 전년 대비 19.0% 감소함.

○ 김치 수입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240,353 톤으로 집계되었고, 수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가 급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56,960천 달러를 기록함.

〈그림 2-33〉 김치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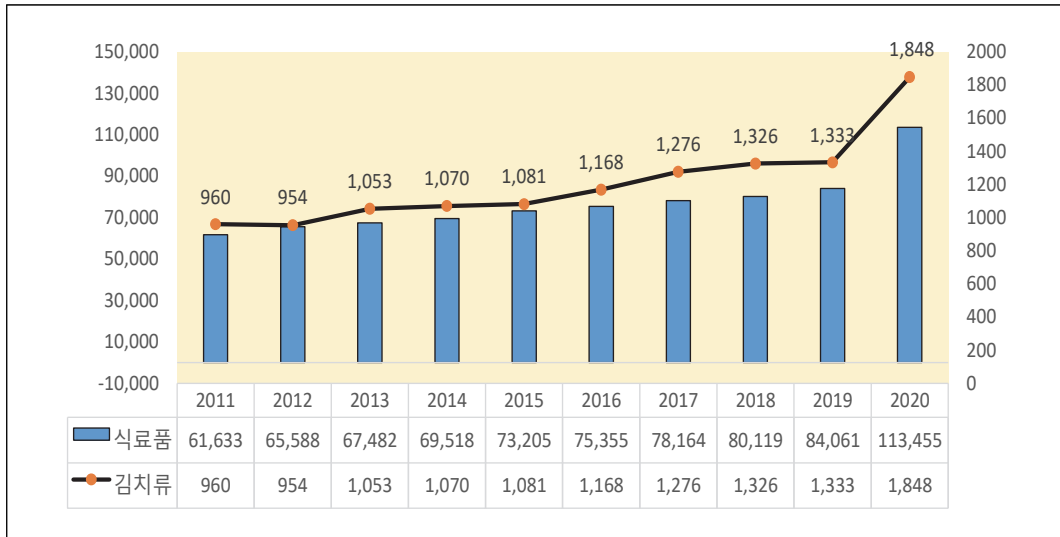


자료: aT KATI

○ 식료품 제조업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김치류 제조업 매출액은 2019년 까지 정체 양상을 보임. 2020년 자료는 모수의 변화로 인해 2019년과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2020년 기준 1.8조 규모의 시장으로 분석됨.

〈그림 2-34〉 식료품 제조업 및 김치류 제조업 매출액 추이

단위: 10억 원



주: 2019년 이전 자료는 기업 조사 자료이며, 2020년 이후 자료는 등록 기반 자료로 모집단 규모의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나. 김치산업 동향 및 김치산업실태조사 기반 현황

○ 2015~2018년, '김치산업 동향'(세계김치연구소), 2019년과 2020년은 '김치산업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결과를 종합하여, 2015~2020년 기간동안의 김치 생산과 소비 흐름을 수치로 표시함.

- 조사방법, 표본 수의 차이 등으로 가구의 상품김치 구매량이 이전에 비해서 2020년에 절반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방법 및 표본 수 등의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해야 함.

○ 2020년 기준 국내에 유통된 김치의 총 공급량(상품김치+자가 제조용+수입 김치)은 1,775천 톤 규모로 추정됨.

- 외식업체·급식기관·소비자 가구가 직접 제조(담근)한 김치 1,086천 톤(61.2%)
- 상품김치 국내 유통량 689천 톤(38.8%), 이 중 국산은 408천 톤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생산된 김치 중 수출을 제외한 국내 유통량은 407.7천 톤 규모임.

- 외식업체의 국산 상품김치 총 구입량은 161천 톤(37.9%)으로 추정
- 소비자 가구의 총 구입량은 157천 톤(38.7%), 급식기관 총 구입량은 62.6천 톤(15.4%)으로 추정
- 기타는 25.3천 톤(6.2%)으로 추정

〈표 2-56〉 국내 김치산업 구조, 2015~2020년

단위: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	A. 상품김치(총량): 제조업	436	433	441	428	486	449
	a1. 수출	23	24	24	28	30	41
	B. 자가 제조: 가구	871	918	824	816	747	771
	C. 자가 제조: 외·급식(c1+c2)	113	247	399	319	368	315
	c1. 외식업					358	287
	c2. 학교급식('20년은 급식기관)					10	28
	D. 상품김치_국내산(A-a1)	413	409	417	400	456	408
E. 상품김치_수입산	224	253	276	291	306	281	
F. [소계] 상품김치 공급량(D+E)		637	662	693	691	762	689
G. [소계] 자가제조 공급량(B+C)		984	1,165	1,223	1,135	1,115	1,086
H. 총공급량 (F+G)		1,621	1,827	1,916	1,826	1,877	1,775
총공급량 대비 가구 자가제조 비율(B/H)(%)		53.7	50.2	43.0	44.7	39.8	43.4
총공급량 대비 외·급식 자가제조 비율(C/H)(%)		7.0	13.5	20.8	17.5	19.6	17.7
상품 김치 구매	I. 가구	321	397	519	406	320	166
	J. 외·급식(i1+i2+i3+i4+15+i6)	296	288	312	350	432	523
K. [소계] 상품김치 구매량(I+J)		617	685	831	756	752	689
상품김치 공급량 대비 구매량 비율(K/F)(%)		97	104	120	109	99	100
총 소비량	L. 가구(B+I)	1,192	1,315	1,343	1,222	1,067	937
	M. 외·급식(C+J), 기타('20년부터 조사)	409	535	711	669	800	838
[전체] 총소비량		1,601	1,850	2,054	1,891	1,867	1,775

주1: '자가제조'는 가구 또는 외급식업체에서 직접 담가 소비한 김치의 양

주2: 김치수요는 '19년까지 소비자가구, 외·급식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년부터 외식업체, 급식기관, 소비자가구,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됨.

자료: 2015~2018년은「김치산업 동향」(세계김치연구소), 2019년과 2020년은「김치산업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국산 상품김치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으나 김치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추세임.

- 통계자료별 차이가 존재하나 국산 상품김치 점유율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다소 하락함.
- 국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김치는 거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으므로 국산 상품김치로 볼 수 있음.
- 국산 상품김치 시장점유율(%)은 국내 유통 상품김치 총량(국산 상품김치와 수입산 상품김치 물량의 합)에서 국산 상품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됨.
- 이는 중국산 저가김치의 수입량 증가, 구개산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인건비 인상 등의 제조 원가 상승과 외식업 및 가공업의 성장에 따른 수입산 김치의 양 증가 등에 기인함.

〈표 2-57〉 국산 상품김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

	연도	국내 유통 상품김치 물량(천 톤)			국산 상품김치 시장점유율(%) (a/c)
		국산 상품김치 (a)	수입산 상품김치 (b)	합계 (c)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계	2015	441	224	665	66.3
	2016	442	253	695	63.6
	2017	450	276	726	62.0
	2018	471	291	762	61.8
	2019	476	306	782	60.9
	2020	469	281	750	62.5
김치산업실태 조사 통계	2015	413	224	637	64.8
	2016	409	253	662	61.8
	2017	417	276	693	60.2
	2018	399	291	690	57.8
	2019	456	306	762	59.8
	2020	408	281	689	59.2

주: 국산 상품김치 국내 유통량은 국내 제조 상품김치 총량에서 수출량 제외한 값이며, 수입 김치 국내 유통량은 2020년 김치 수입량 기준(무역협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김치 수출량은 2000년 30,014 톤에서 2020년 39,748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7.0% 늘어난 42,544 톤으로 증가세가 이어짐.

- 무역수지의 개선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물동량 감소 및 외식 수요 감소, 비위생적 중국 절임배추 영상 파문 등으로 2021년 김치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58〉 김치 수출입 실적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연평균 증감률 (2010- 2021)	
수출	수량(A)	29,672	23,111	23,490	24,311	28,197	29,628	39,748	42,544	3.33	7.03
	금액(B)	98,360	73,543	78,900	81,393	97,456	104,992	144,511	159,915	4.52	10.66
수입	수량(C)	192,936	224,124	253,432	275,631	290,742	306,049	281,187	240,606	2.03	-14.43
	금액(D)	102,019	113,237	121,485	128,679	138,215	130,911	152,426	140,742	2.97	-7.67
무역수지	수량(A-C)	-163,264	-201,013	-229,942	-251,320	-262,545	-276,421	-241,439	-198,062	.	.
	금액(B-D)	-3,659	-39,694	-42,585	-47,286	-40,759	-25,919	-7,915	19,173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 김치제조업체 규모의 양극화 심화는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임.

- 2020년 김치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김치제조업체의 판매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하가 전체의 58.2% 비중으로 과반 이상임.
- 김치 판매액이 30억 원 이하인 업체 비중이 83.1%에 달함. 한편,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의 비중은 12.3%이며, 10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4.6%

〈표 2-59〉 판매실적별 김치제조업체 비중 분포

구분	업체 수	비중(%)	
전체	538	100.0	
김치 판매실적	10억 원 이하	313	58.2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34	24.9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66	12.3
	100억 원 초과	25	4.6

주: 김치 판매실적은 국내 판매액과 수출액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농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김치산업 실태조사」

○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치업체 9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김치 생산량이 500톤 미만인 업체 비중이 56.7%로 60%에 육박하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1,000톤 이상 비중은 22.7% 수준임. 김치제조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5.2%에 달하는 등 소수의 규모가 큰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규모가 영세한 구조를 보임.

〈표 2-60〉 김치판매 상위업체 집중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내 판매액	803,434	898,491	942,239	1,014,427	929,578	1,029,590	1,104,398	1,235,865	1,237,955
상위 5업체	194,622	196,431	191,172	271,252	177,807	254,413	276,441	327,736	336,700
CR ₅ (%)	24.2	21.9	20.3	21.4	19.1	24.7	25.0	26.5	27.2
상위 10업체	264,127	268,816	268,380	299,998	249,540	342,185	370,134	440,377	435,660
CR ₁₀ (%)	32.9	29.9	28.5	29.6	26.8	33.2	33.5	35.6	35.2

주1: 2010~2012년은 국내 출하액, 2013~2017년은 국내 판매액 자료를 이용하였음.

주2: 2018년부터는 김치류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절임류 또는 조림류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어 2018년 수치는 식품저널의 「2020 식품유통연감」을 참고하였음.

주3: 2018년 상위 업체 판매액 및 집중도는 백만 원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이용하였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저널(2020: 249), 「2020 식품유통연감」.

2.2.4. 한식산업 현황

가. 국내 한식산업

- 한식산업 일반 현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음식점 및 주점업에 따라 조사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된 자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함.
- 전체 음식점업 추정 모집단 727,014개 업체 중, 한식 음식점업은 317,223개 업체로 한식 일반음식점이 190,476개 업체로 전체 음식점업 대비 26.2%를 차지함. 다음으로 한식 육류요리가 74,536개 업체(10.3%)를 기록함.
 - 한식 음식점업은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으로 세부 구분됨.
 - 한식 내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식 일반 음식점이 60.0%,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이 23.5%,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9.3%, 한식 면 요리 전문점이 7.1%를 차지함.

〈표 2-61〉 한식업체 구성 비중(2021년)

단위: 개

구분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비중
전체 음식점업	194,336	211,644	209,201	91,019	20,303	511	727,014	100%
한식 음식점업	66,402	97,145	105,093	41,955	6,518	110	317,223	43.6%
한식 일반	46,114	58,932	60,152	21,802	3,407	69	190,476	26.2%
한식 면요리	5,529	6,439	7,304	2,988	405	2	22,667	3.1%
한식 육류요리	10,880	21,694	26,692	12,964	2,270	36	74,536	10.3%
한식 해산물요리	3,879	10,080	10,945	4,201	436	3	29,544	4.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식 업체의 비중은 감소함. 한식 업체 비중은 2018년 45.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1년 43.6%로 낮아짐.

〈표 2-62〉 연도별 전체 외식업체 중 한식업체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한식			
		2018	2019	2020	2021
전체	소계	45.6	45	44.2	43.6
운영형태	프랜차이즈	22.7	20.3	25.4	27.1
	비프랜차이즈	49.7	51.2	51.2	49.5
지역	서울권	33.3	40.7	34.7	31.6
	수도권	39.4	45.1	45.2	42.2
	충청권	51.2	36.6	50.6	46.7
	호남권	53.6	47.7	62.4	62.2
	경남권	47.8	48.6	40.2	47.6
	경북권	57.1	47.4	38.6	46.9
매출액규모	5천만 원 미만	45.8	28	36.5	3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3.4	40.4	39.5	39.5
	1억 원~5억 원 미만	46.8	48.5	46.4	45.9
	5억 원 이상	40.8	47.6	53.4	54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일반음식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업체 비중이 11.8%로 일반음식점 평균 대비 1.0%p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매출액은 19,932.8만 원으로 나타남.

〈표 2-63〉 일반음식점 매출액 분포

단위: 개,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3,198	13.7	22.9	59.2	4.2	18,053.6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10.8	19.8	64.3	5.1	20,440.9
	한식	1,182	11.8	20.8	62.3	5.2	19,932.8
	중식	188	5.5	13.7	75.7	5.1	23,012.8
	일식	110	3.7	11.6	78.3	6.4	27,800.4
	서양식	93	3.7	17.3	76.3	2.7	20,560.8
	기타 외국식	47	15.2	18.2	62.4	4.2	18,679.9

자료: 이계임 외(2022)

○ 한식 업체의 경우 평균 연령이 56.1세로 외식업 분야 중 가장 사업주 연령대가 높음.

〈표 2-64〉 일반음식점 사업주 연령 분포(전체)

단위: 개, %, 세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	
전체	3,198	1.2	8.1	24.8	39.7	26.2	53.0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0.4	6.4	18.7	40.7	33.7	55.0
	한식	1,182	0.3	5.1	15.7	41.6	37.4	56.1
	중식	188	1.1	5.3	22.6	48.7	22.2	53.5
	일식	110	1.6	11.2	46.0	31.4	9.8	48.3
	서양식	93	1.7	27.8	42.9	23.4	4.2	44.5
	기타 외국식	47	0.0	25.9	49.1	18.8	6.1	45.4

자료: 이계임 외(2022).

○ 한식업의 평균 종사 기간은 중식(14.9년) 다음으로 긴 13.0년으로 나타남.

〈표 2-65〉 일반음식점 사업주 종사기간(전체)

단위: 개, %, 년

구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3,198	16.1	31.0	23.3	13.9	7.7	4.1	3.9	11.5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13.1	27.4	24.1	13.8	10.5	5.6	5.5	12.8
	한식	1,182	12.4	26.3	24.0	14.4	11.3	6.2	5.4	13.0
	중식	188	10.0	25.9	21.8	16.5	8.1	5.3	12.3	14.9
	일식	110	15.3	41.7	26.6	8.9	7.5	0.0	0.0	8.9
	서양식	93	34.8	29.9	29.8	0.7	1.5	0.0	3.4	7.8
	기타 외국식	47	15.2	52.3	19.9	6.5	2.8	2.9	0.3	8.6

자료: 이계임 외(2022).

○ 한식업의 경우 완전서비스 비중이 52.9%로 전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남. 배달 서비스 특화 비율이 16.2%로 일반음식점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포장 또한 27.7%로 중식을 제외하면 가장 저조한 비중을 나타냄.

- 이러한 낮은 배달 서비스 및 포장 서비스 제공 여부 비율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거래 및 배달앱 기반 외식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표 2-66〉 일반음식점 서비스 유형 분포(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완전서비스	제한적서비스	배달	포장(테이크아웃)
전체		3,198	44.1	6.4	19.4	30.1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50.8	3.0	18.9	27.3
	한식	1,182	52.9	3.1	16.2	27.7
	중식	188	42.7	1.5	35.6	20.1
	일식	110	40.7	2.3	26.4	30.6
	서양식	93	40.8	4.5	26.3	28.4
	기타 외국식	47	42.1	3.2	26.5	28.1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자료: 이계임 외(2022).

○ 실제로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2021년 한식산업의 배달앱 이용 현황은 타 업종 대비 가장 낮은 22.5%로 나타남. 배달대행 이용 현황 또한 15.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줌.

- 한식산업에서 배달앱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비용이 아닌 배달 방식과 한식이 어울리지 않아서가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7〉 일반음식점 배달앱 이용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배달앱 이용 현황	전체	3,198	29.5	70.5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26.5	73.5
		한식	1,182	22.5	77.5
		중식	188	41.0	59.0
		일식	110	55.4	44.6
		서양식	93	52.3	47.7
		기타 외국식	47	56.2	43.8
배달대행 이용 현황	전체	3,198	18.5	81.5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17.5	82.5
		한식	1,182	15.9	84.1
		중식	188	22.6	77.4
		일식	110	23.5	76.5
		서양식	93	28.1	71.9
		기타 외국식	47	47.2	52.8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자료: 이계임 외(2022).

○ 한식산업 사업장 고객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비중이 3.1%로 가장 낮음. 주요 고객층은 50대(39.5%) 및 40대(29.8%)로,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소비트렌드 및 유통트렌드 적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함.

〈표 2-68〉 일반음식점 고객 연령대 분포(전체)

단위: 개, %, 세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70대	
전체	3,198	2.0	12.7	21.7	25.8	26.6	10.1	
일반 음식점	소계	1,620	0.5	5.2	14.8	29.7	36.2	12.5
	한식	1,182	0.4	3.1	11.3	29.8	39.5	14.5
	중식	188	0.0	8.0	28.4	32.4	27.1	4.1
	일식	110	0.8	16.5	36.4	30.1	15.4	0.8
	서양식	93	2.5	28.7	38.7	24.3	5.3	0.4
	기타 외국식	47	0.0	28.5	38.8	19.9	12.8	0.0

자료: 이계임 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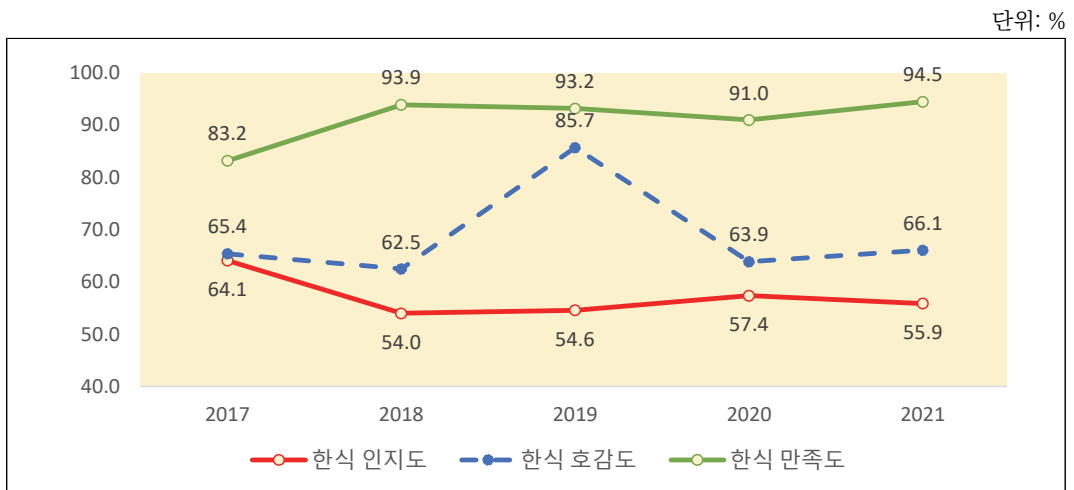
나. 해외 한식산업 현황

○ 해외 한식산업 현황은 향후 한식의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한식진흥원(2021)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 한식진흥원에서는 연도별 대표 도시의 현지인 중,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n=8,500).
- 단, 연도에 따른 조사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표본 크기 차이가 존재하여 시계열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존재함.
- 조사 대상, 조사 모집단 변화에 따라 시계열 변화를 한식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만족도 변화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평년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한식 인지도는 2021년 조사에서 55.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해외 현지인들이 한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식에 대한 호감도는 2019년 85.7%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평년 65% 내외의 수준을 보임. 해외 현지의 한식 만족도는 2018년 이후 9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5〉 해외 한식 인지도, 호감도, 만족도(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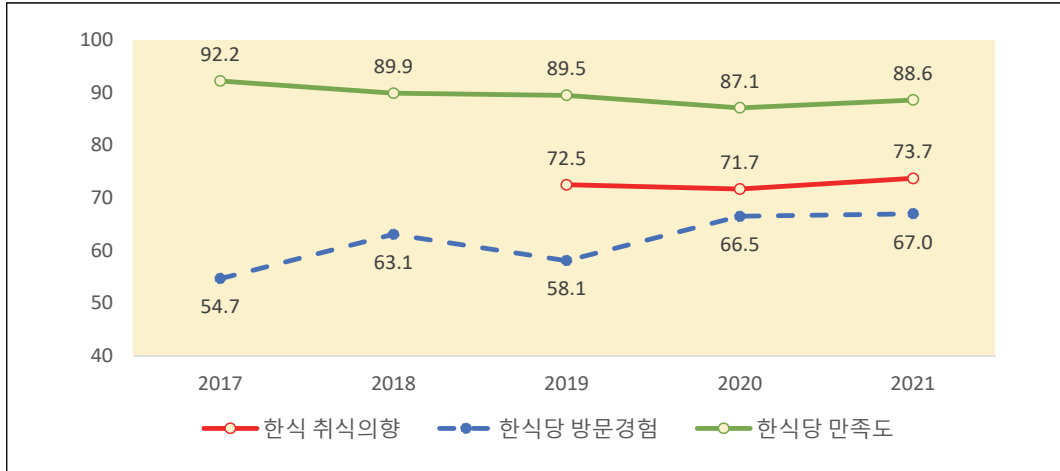


자료: 한식진흥원(2021)

○ 2019년부터 설문한 한식 취식의향의 경우 연도에 따라 71.7%~73.7%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2021년 한식당 방문경험은 전년도 조사결과와 67%를 나타냈으며, 이용한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87%를 웃돌고 있음.

〈그림 2-36〉 해외 한식 취식의향, 한식당 방문경험, 이용한 한식당 만족도

단위: %



자료: 한식진흥원(2021)

○ 권역 및 연령대, 성별에 따른 한식당 만족도 평가 조사 결과, 젊은 사람일수록, 여성일수록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북중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유럽, 동북아시아 순으로 높은 만족도가 보고됨.

- 전반적 만족(5+6+7점) 기준으로는 동남아시아(93.6%)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9〉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한식당 만족도 평가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n=5,544), 단위: %, 점

구분	Base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7점	6점	5+6+7점				
전체	(5,544)	25.4	41.9	88.6	8.8	2.6	5.8	
권역	북중미	(997)	34.7	38.7	90.7	7.1	2.2	5.9
	유럽	(684)	23.4	41.8	81.4	11.4	7.2	5.6
	동북아시아	(1,468)	14.0	41.9	85.7	12.1	2.2	5.5
	동남아시아	(1,696)	29.5	45.5	93.6	6.0	0.4	6.0
	오세아니아/남미/중동	(699)	28.0	38.1	86.8	8.3	4.9	5.7
성별	남성	(2,930)	24.2	41.6	87.8	9.5	2.7	5.7
	여성	(2,614)	26.8	42.3	89.6	7.9	2.5	5.8
연령대	20대 이하	(1,472)	27.2	40.1	87.4	9.1	3.5	5.8
	30대	(1,750)	28.8	41.6	90.3	7.3	2.4	5.9
	40대	(1,343)	21.4	45.0	89.2	8.9	1.9	5.7
	50대 이상	(979)	22.1	41.2	86.6	10.7	2.7	5.7

자료: 한식진흥원(2021)

○ 한식에 대한 이미지는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2020년 ‘맵고(32.5%)’, ‘이색적이며(32.4%)’, ‘풍미가 있는(31.4%)’ 식품에서 2021년에는 ‘풍미가 있고(40.4%)’, ‘건강하고(38.7%)’, ‘채소 위주의(38.4%)’ 식품으로 변화함.

○ 한식 취식 여부는 2021년 70.8%로 전년 대비 5.8%p 증가하였고, 자주 먹는 한식 메뉴는 김치(33.6%),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에서 한국식 치킨(30.0%), 김치(27.7%), 비빔밥(27.2%)로 한국식 치킨의 인지도가 상승함.

○ 한식 조리 여부는 2020년 65.0%에서 2021년 70.8%로 증가하였으며, 조리 경험이 있는 메뉴는 김치(24.8%), 한국식 치킨(22.4%), 비빔밥(21.7%)에서 한국식 치킨(23.1%), 떡볶이(19.3%), 김치(18.9%)로 변화함.

〈표 2-70〉 2020-2021 한식 이미지, 취식여부 및 조리여부와 메뉴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내용	비율	내용	비율	
한식 이미지	1위	매운	32.5	풍미가 있는	40.4
	2위	색다른/이색적인	32.4	건강식의	38.7
	3위	풍미가 있는	31.4	채소위주의	38.4
한식 취식여부		있다	65.0	없다	70.8
자주 취식하는 메뉴	1위	김치	33.6	한국식 치킨	30
	2위	비빔밥	27.8	김치	27.7
	3위	한국식 치킨	26.9	비빔밥	27.2
한식 조리여부		있다	65.0	없다	70.8
조리경험이 있는 한식 메뉴	1위	김치	24.8	한국식 치킨	23.1
	2위	한국식 치킨	22.4	떡볶이	19.3
	3위	비빔밥	21.7	김치	18.9

자료: 한식진흥원(2021)

○ 2021년 기준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16.1%), 김치(11.3%), 비빔밥(10.7%)로 나타났으며, 비선호 메뉴는 삼계탕(10.5%), 부대찌개(10.1%), 김치(10.1%) 순으로 나타나 김치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71〉 2021년 한식 선호 메뉴 및 비선호 메뉴 추이

단위: %

구분		선호메뉴		비선호메뉴	
		내용	비중	내용	비중
한식 이미지	1위	한국식 치킨	16.1	삼계탕	10.5
	2위	김치	11.3	부대찌개	10.1
	3위	비빔밥	10.7	김치	10.1

자료: 한식진흥원(2021)

○ 2021년 한식 간편식에 대한 구매 의사와 한국 주류 섭취 여부를 설문한 결과, 구매 의사가 높은 한식 간편식은 비빔밥(29.0%), 김밥(25.3%), 한국식 치킨(21.8%)로 나타났으며, 한국 주류를 섭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해외 소비자 비중은 64.9%에 달하는 등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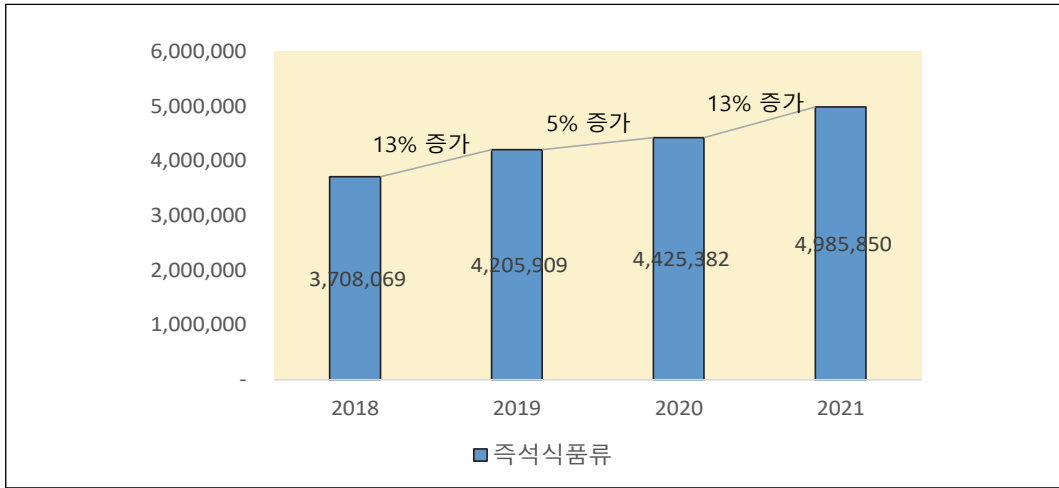
2.3. 성장 유망 품목 사례: 미래유망식품

2.3.1. 간편식산업

- 즉석식품의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은 2020년 코로나19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관련 제품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석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8년 3,708,069백만 원이었던 총 국내 판매액은 2021년 4,985,850백만 원을 달성하여, 국내 판매액은 총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이후 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은 ('18) 3,708,069백만 원 → ('19) 4,205,909백만 원 → ('20) 4,425,382백만 원 → ('21) 4,985,850백만 원으로 성장

〈그림 2-37〉 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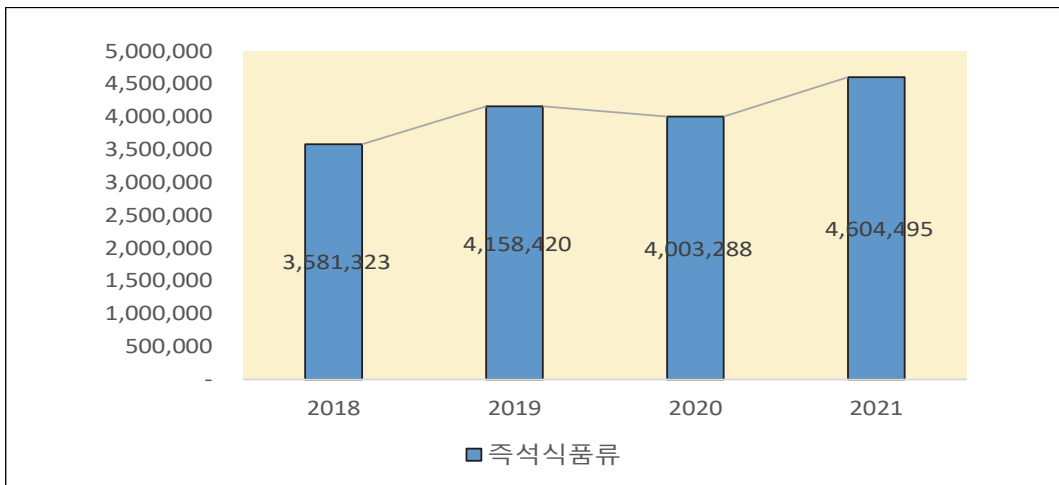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8-2021)을 바탕으로 작성

○ 즉석식품의 생산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즉석식품의 생산액은 2018년 3.6조 원에서 2021년 4.6조 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생산액은 총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8〉 국내 즉석식품 생산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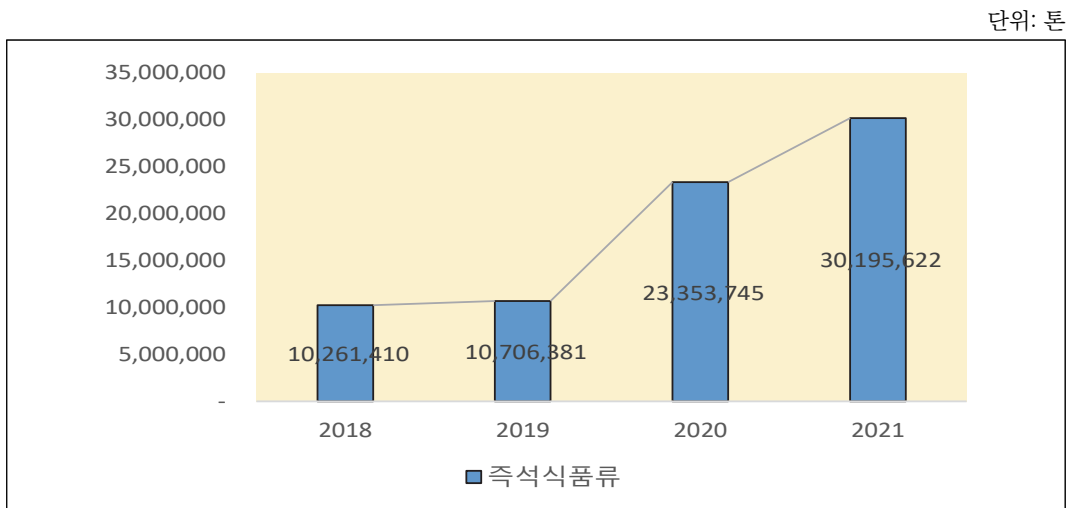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8-2021)을 바탕으로 작성

○ 즉석식품류 생산능력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즉석식품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짐.

- 코로나 이전 2018년과 2019년의 즉석식품류 생산능력은 44만 톤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1,265만 톤, 2021년 684만 톤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증가 등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판매량 증가가 즉석식품 투자로 이어졌음을 의미함.

〈그림 2-39〉 국내 즉석식품 생산능력



자료: 통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8-2021)을 바탕으로 작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즉석식품 수출량 및 수출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회복세를 보임. 2018년 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만두(39.0%), 생식함유제품(35.2%), 선식(45.0%), 순대(117.7%), 탕(24.5%), 국(22.8%) 등임.

〈표 2-72〉 국내 즉석식품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성장률 '18-'21
전체	487,969	555,643	195,114	198,749	-25.9%
생식제품	197	29	29	79	-26.1%
생식함유제품	126	128	80	311	35.2%
즉석섭취식품(도시락)	439,370	507,949	137,961	104,161	-38.1%
즉석섭취식품(선식)	339	585	980	1,032	45.0%
즉석섭취식품(기타)	7,570	3,364	507	473	-60.3%
즉석조리식품(순대)	16	6	14	161	117.7%
즉석조리식품(국)	893	1,469	1,430	1,652	22.8%
즉석조리식품(탕)	2,598	608	1,764	5,020	24.5%
즉석조리식품(수프)			11	88	-
즉석조리식품(기타)	21,799	23,766	31,711	46,403	28.6%
만두	14,595	17,560	20,343	39,235	39.0%
만두피	467	178	284	135	-33.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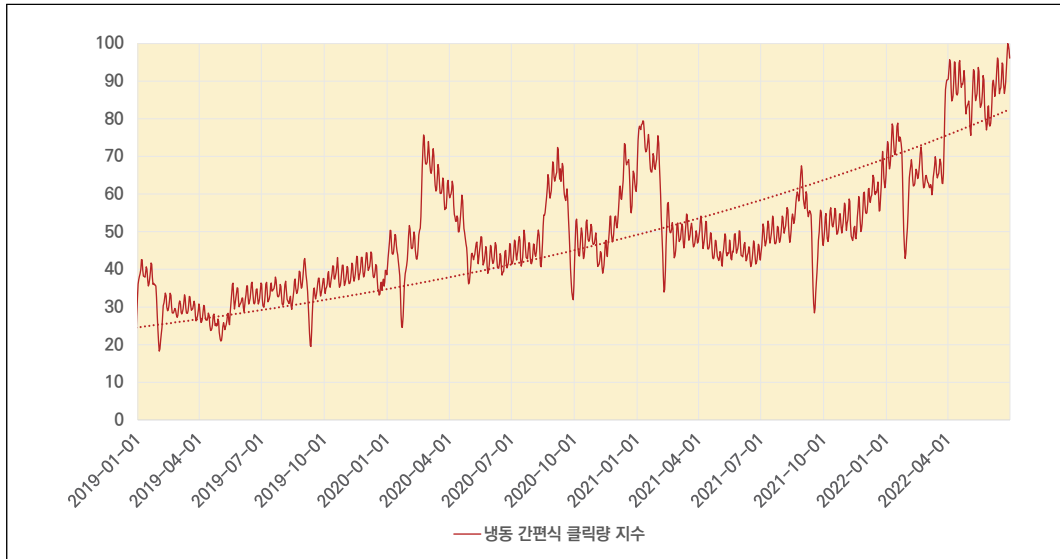
○ 네이버 데이터랩의 냉동 간편식 상품 카테고리 클릭량 지수⁶⁾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일시적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시적인 증가세 이후 클릭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40 이하에 머무르던 냉동 간편식 클릭량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임.
- 2021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클릭량의 관계성이 낮아지며 꾸준한 클릭량 지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⁶⁾ 클릭량 지수는 기간 내 최고 클릭량을 100으로 하는 지수

〈그림 2-40〉 냉동 간편식 클릭량 추이

단위: 클릭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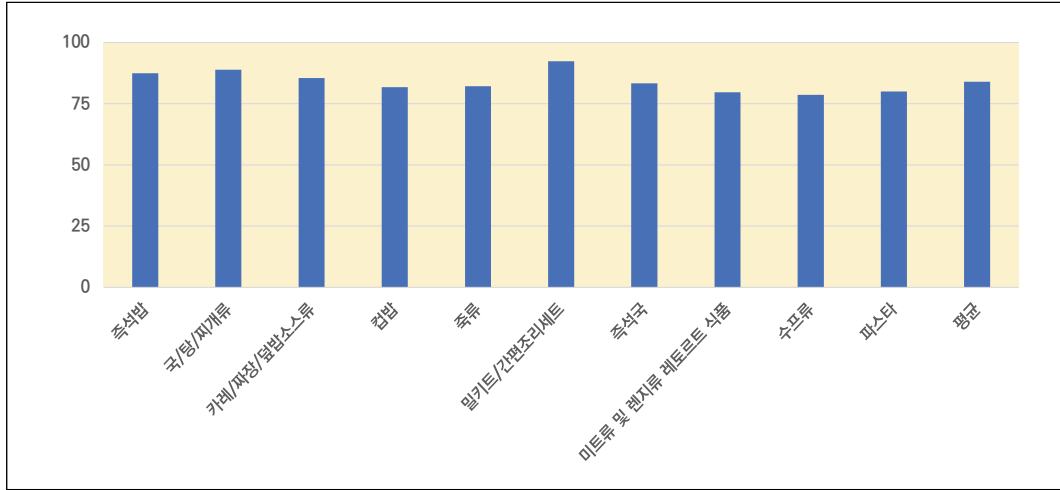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데이터랩 상품별 클릭량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은 즉석식품의 향후 구입빈도 조사결과 평균 84.0%의 응답자가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답함.
 - 92.2%의 응답자가 밀키트/간편조리세트의 구입빈도가 증가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8.9%, 87.4%의 응답자가 국/탕/찌개류와 카레/짜장/덮밥소스류에 대해서 구입빈도가 증가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응답의 패턴은 현재의 구입패턴과 유사한데, 이는 현재의 구입패턴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음.

〈그림 2-41〉 즉석식품류의 향후 구입빈도 증가 혹은 유지 응답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3.2.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가. 특수용도식품 현황

○ 특수용도식품 시장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업체 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및 판매액, 수출량 측면에서 2010년 대비 2021년 높은 연평균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음,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하여 해외 시장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업체 수는 2016년 이후 180대 중반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음.
- 생산량 측면에서는 2010년 대비 2021년 연평균 5.5% 성장하였고, 최근 5개년 증감률은 9.2%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생산액은 생산량만큼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10년~2021년 연평균증감률 4.2%, 2017~2021년 연평균증감률 5.1%로 준수한 성장세를 보임.
- 국내판매량은 최근 5개년 7.8%의 연평균증감률을 보여 56천 톤에서 75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판매액은 동 기간 370,659백만 원에서 439,659백만 원으로 연평균 4.4% 성장함.

- 반면, 수출물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2017년~2021년 -4.1% 역성장함.

〈표 2-73〉 특수용도식품 시장 현황

단위: 개 사, 천 톤, 백만 원,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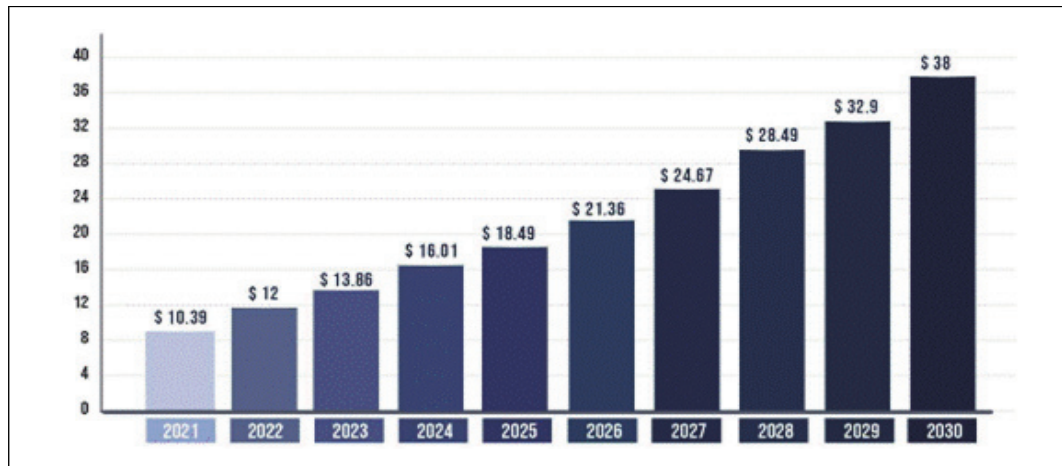
구분	'10	'15	'16	'17	'18	'19	'20	'21	연평균증감률	
									10~21	17~21
업체 수	74	175	183	185	180	188	183	185	8.7	0.0
생산량	41	47	48	52	63	59	69	74	5.5	9.2
생산액	191,350	212,988	223,653	246,583	268,784	265,212	284,187	300,642	4.2	5.1
국내판매량	36	45	42	56	55	79	65	75	6.8	7.8
국내판매액	292,534	316,370	341,330	370,659	370,369	392,424	397,899	439,659	3.8	4.4
수출량	0.96	0.98	1.25	1.08	1.28	1.56	1.31	1.23	2.3	3.3
수출액	12,555	11,319	14,126	16,283	13,989	12,765	18,775	13,794	0.9	-4.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각 연도)

○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고령친화식품과 치료용 메디푸드와 같은 특수용도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임. 세계 개인 맞춤형 영양식품의 시장규모는 2021년 104억 달러에서 2030년 380억 달러 규모로 3.8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2-42〉 세계 개인 맞춤형 영양식품시장 규모 현황과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최지현 외(2022, 발간예정): Personalized Nutrition Market Size, Share, Report 2022-2030 (precedenceresearch.com) 재인용

나. 건강기능식품 현황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2010년 매출액 자료의 부재로 2011년부터 시계열 추이를 분석함.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3.9%의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는 동 기간 2.4%, 2.1%의 증감률을 보임.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 103,420개 사에 이르는 수준임.

○ 건강기능식품 총 매출액은 2011년 1,368,188백만 원 규모에서 2021년 4,032,130백만 원 규모로 연평균 11.4% 성장하였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5.9%의 성장세를 보임.

- 국내판매액 측면에서는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11.2% 성장하였고, 최근 5개년 15.6%의 성장세를 보임.

- 수출액 측면에서는 2011년 55,630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230,632백만 원으로 연평균 15.3% 성장함. 최근 5년 동안에는 21.0%의 성장세를 보임.

〈표 2-7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단위: 개 사, 백만 원, %

구분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감률	
									11~21	17~21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수	80,605	95,178	95,792	89,330	87,849	82,067	92,010	103,959	2.6	3.9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424	487	487	496	500	508	521	539	2.4	2.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80,181	94,691	95,305	88,834	87,349	81,559	91,489	103,420	2.6	3.9
매출액	1,368,188	1,822,993	2,125,996	2,237,398	2,522,050	2,950,787	3,325,388	4,032,130	11.4	15.9
국내판매액	1,312,558	1,732,560	2,017,548	2,129,743	2,396,225	2,808,103	3,098,950	3,801,498	11.2	15.6
수출액	55,630	90,434	108,448	107,656	125,826	142,684	226,438	230,632	15.3	21.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각 연도)

2.3.3. 대체식품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89.9억 달러, 2018년 96.2억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단백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는 식물기반 제품(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우유 및 음료 등), 곤충 제품, 해조류 제품 순으로 크며, 특히 식물기반 대체식품시장은 전체 시장규모의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표 2-75〉 세계 대체식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2017~2025)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5	연평균증감률 (2019~2025)
식물단백질기반 식품	7,890.8	8,395.8	8,962.5	14,319.8	8.1
곤충단백질기반 식품	514.8	607.5	722.9	2,470.1	22.7
해조류단백질기반 식품	485.1	517.6	553.8	894.0	8.3
미생물단백질기반 식품	98.2	102.2	106.5	143.1	5.0
배양육	-	-	-	31.6	19.5
계	8,988.9	9,623.1	10,345.7	17,858.6	9.5

자료: 박미성 외(2020)

가. 식물성 대체식품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169억 원에서 2021년 221억 원, 2025년 271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5.4%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의 유형별 시장규모는 미트볼이 32%로 가장 많고, 버거패티(21.5%), 너겟류(17.8%), 소시지(12.0%) 등의 순서

- 동물성 대체식품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음.

〈표 2-76〉 국내 식물성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2017~2025)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5 (추정치)	연평균증감률 (2016~2025)
식물성 대체식품	169	185	203	204	209	221	271	5.4
동물성 대체식품	시장 형성 이전(초기 투자 유치 단계)							

자료: 푸드테크, aT 식품시장뉴스레터. 2022.8. Global data(2022) 인용

○ 국내 식물성원료 유형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콩류 62.0%로 가장 크며, 채소·식물성 단백질류 29.3%, 곡물류 8.7% 순으로 나타남. 콩류에는 두부 및 유부, 채소·식물성 단백질류는 완두콩류 및 고구마류, 곡물류는 밀 단백질 등을 말함.

- 2018~2021년까지 비건인증을 받은 식품 제품수는 612개(누적)로 2019년 114개 품목에서 151% 증가함. 비건품목은 장류, 제과, 라면, 주류 등 다양함.
-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기업 66개 대상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체의 75.8%를 차지하여 푸드테크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임.
- aT발표(aT,2022)에 의하면 응답업체 중 63%만 매출을 실현했고, 나머지 36.8%는 제품개발 및 출시단계로 국내 식물성대체식품 시장은 초기단계로 보임.

〈표 2-77〉 국내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업체

단위: 개, %

구분	기업수	비중
대기업	7	10.6
중견기업	3	4.5
중소기업	37	56.1
스타트업	13	19.7
기타	3	4.5
무응답	3	4.5
계	66	100.0

자료: aT(2022).

○ 세계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는 대체식품의 정의에 따라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Global Market data(2022)에 의하면 2020년 약 60억 달러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10.1%성장했고, 2025년까지는 1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두 기관의 발표자료를 종합해 볼 때 2025년 시장규모는 110~1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2-78〉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추정기관	추정연도	시장규모	연평균증가율
전망1	블룸버그	2022	294(2020) → 1,620(2030)	18.6
전망2	Global Data	2022	60.7(2020) → 101.3(2025)	10.8
전망3	Meticulous Research	2019	89.9(2017) → 178.6(2025)	9.0

자료: 최지현 외(2022, 발간예정).

○ 2020년 대륙별 식물성 대체식품의 시장점유율은 유럽 37.4%, 북미 27.3%, 아시아-태평양 22.7%, 기타 12.6% 순으로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2025년 기준 북미 37.8%, 유럽 33.9%, 아시아·태평양 18.5% 북미시장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전망됨 (aT, 2022).

〈표 2-79〉 대륙별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 분포(202-2025)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0		2025(추정치)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북미	1,658.3	27.3	4,169.6	37.8
유럽	2,268.5	37.4	3,740.3	33.9
아시아-태평양	1,378.7	22.7	2,041.4	18.5
기타	765.4	12.6	1,081.8	9.8
합계	6,071.7	100.0	11,033.1	100.0

자료: 최지현 외(2022, 발간예정).

나. 동물성 대체식품

○ 배양육 시장규모에 대한 Statistics(2019)의 전망치는 2019년 23.9백만 달러에서 2026년 39백만 달러로 추정한 반면 Marketand Market(2019)는 2025년 214백만 달러에서 2032년 593백만 달러까지 큰 차이가 있음.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2022~25년 배양육의 세계 시장규모는 20~40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2-80〉 세계 배양육식품 시장규모(2019~2032)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5	2026	2032	연평균증가율(%)
추정1	23.9	-	39.0	-	7.2 (2019~2026)
추정2	-	214	-	593.0	15.7 (2025~2032)

자료: 최지현 외(2022, 발간예정).

○ 배양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더 많은 배양육 회사가 출현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VC)도 배양육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총 54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에 31.5%(17개), 영국·이스라엘·독일에 각 9.3%(5개), 네덜란드·중국·캐나다에 각 5.6%(3개) 분포함.

- 2019년에 19개(18.5%)가 신규 설립
- 배양육 생산 이외에 배지, 지지체, 생물반응기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존재
- VC 투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6만 달러(58건)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만 77.1만 달러(21건) 투자가 이루어짐- 2019년 투자 금액은 전체 금액의 47%를 차지하며, 2018년보다 63% 증가함.

〈표 2-81〉 외국의 배양육 주요회사 및 투자 유치 현황

구분	회사명	설립연도	R&D 중점분야	투자유치금액 (백만 달러)
미국	JUST	2011	배양육 생산(닭)	372.53
	Memphis Meats	2015	배양육 생산(소, 닭, 오리)	22
	BlueNalu	2017	배양육 생산(생선)	24.5
이스라엘	SuperMeat	2015	배양육 생산(닭)	4.22
	Aleph FARms	2016	배양육 생산(소)	14.4
네덜란드	Mosa Meats	2015	배양육 생산(소)	9.09
일본	Integriculture	2015	배양육 생산(닭, 푸아그라), 배지, 배양시스템	2.73
싱가포르	Shiok Meats	2018	배양육 생산(갑각류)	5.11

자료: 최지현 외(2022, 발간예정).

3. 식품산업의 당면 문제점

3.1. 식품산업 전반의 문제점

3.1.1. 식품산업 성장 정체

- 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4.1% 규모로 성장했으나 2015년 이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을 포함한 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하였으나 2015년~2020년 연평균성장률은 4.8%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15년~2020년 음식료품 제조업(4.3%), 외식업(5.3%)은 식품유통업(5.6%)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느리게 성장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대비 재고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는 식품제조업의 성장 정체를 설명하는 근거일 수 있음. 코로나19 이후 식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고지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경영 안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2021년 식료품제조업 재고지수는 138.8로 출하지수(109.5) 대비 급증하였고, 음료제조업 재고지수는 144.8로 출하지수 104.8 대비 높음.
- 부가가치 측면에서 국내 식품산업 GDP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이 국가 전체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품산업 1.3% 수준에 정체된 상황임. 외식산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역성장하였으며 식품산업 부가가치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전 산업 대비 유통업을 제외한 식품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함.
-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대비 식료품제조업 내에서 설탕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음료제조업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악화되었고, 코로나19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음료제조업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는 둔화됨. 신선식품 생산

자물가지수가 2021년 135.1을 기록하여 2019년 114.0 대비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1년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내에서 원재료비 비중은 50.5%에 육박하는 상황임. 동시에 폐업률은 높아지고 작업장 안전성 지표는 정체되어 있음. 식품산업 내 성장 둔화 업종의 현황을 진단하고 식품산업 성장동력 확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과업으로 판단됨.

3.1.2. 식품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 어려움

- 식품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 제고와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정체되어 있음.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2,272,027명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하였으나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감률은 2.2%로 성장세가 둔화됨.
 - 2021년 식료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0.5% p 줄어듦.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임. 그 결과 식품산업 가공·생산직 인력 부족률 및 식품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등 고급 인력의 부족률이 높아짐.

3.1.3.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부족

- 농업과의 연계 강화는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동반성장에 있어서 중요함.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2020년 584만 톤으로 2017년 대비 연평균 4% 수준으로 양적 측면에서 성장하였음. 질적 측면에서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미흡한 수준임. 2013년 이후 식품산업 내 주요 원료의 국내산 이용률은 31~32%대에 정체되어 있음.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원유(우유) 및 배추(99.9%)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자급률이 100%에 이르는 국내산 쌀 또한 식품제조업에서 활용되는 비중은 64.3%에 불과함. 사용량이 높은 옥수수, 대두, 주정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은 2020년 기준 각각 0.1%, 6.2%, 15.3%에 그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쌀을 대체하는 주식으로 부상한 밀가루의 경우 2016년 자급률이 0.96%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0.09%로

감소한 실정임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산업의 중장기적 과제일 것임.

3.1.4. 식품산업 R&D 및 정보기반 조성 미흡

- 푸드테크의 도입과 식품산업의 디지털화로 농식품분야 R&D가 갖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공공 부문에서 R&D 규모가 증가하고 최근 미래유망식품 관련 R&D가 다수 수행되었으나, 고령친화식품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는 2022년 추진되지 않았고, 식품 포장 관련 R&D 과제 금액은 감소 추세임. 대체육 관련 기초연구의 지원 확대도 필요한 시점임.
- 대한민국의 식품 관련 통계자료는 푸드테크, ESG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제외하면 식품산업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다가오는 푸드테크와 국가 전반의 디지털화 트렌드 속에서 신규 산업, 신규 소비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는 통계를 집적하고, 분석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3.1.5. 농식품 수출 시장 한계

- 국산 농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출 품목의 발굴 및 기존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요하나 최근 5년간 상위 농식품 수출 상위 4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이들 국가가 2022년 기준 전체 농식품 수출금액의 57.6%를 차지하며,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라면, 김, 참치, 음료, 커피조제품으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 금액의 24.2%를 차지함.
-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나 K-Food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함.
- 신북방 국가의 경우 한류 문화의 확산과 함께 시장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한류 콘텐츠

의 유행과 식품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K-Food 수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3.1.6. 국가식품클러스터 가동률 저위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목적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지향점으로 삼아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 등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과제는 미래식품산업의 선도, 식품산업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일 것이나, 분양률 및 준공업체 비율 측면에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시급한 문제점은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의 집적화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나, 연구시설 유치 실적이 저조함. 기업지원센터가 연구시설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식품산업에의 푸드테크 도입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저조한 수익률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019년 자체 수익은 842백만 원이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 진흥원 본관 임대료를 제외하면 시험분석 및 시제품제작(119백만 원), 임가공수수료수입(64백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자체 수익의 21.6%에 불과함. 수출기업 수는 2019년 기준 18개 기업, 수출액 규모는 31,958백만 원이나 이는 해당 기업의 클러스터 이외 사업장을 포함한 것으로, 추후 수출 기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낮은 가동률과 수익률 지표는 향후 준공기업 비중의 증가 및 기업지원시설의 가동에 따른 신제품의 성장사업화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방향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산업체·연구기관·연관업체의 집적화는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계획 기간에 달성되지 못하였고, 규모화를 이끌 선도기업 유치 부족은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전 선결과제이자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일 것임.

3.1.7. 식품기업 ESG 대응 부족

- 향후 기후변화는 기업의 위험(Risk)이자 재무관리 차원에서 잠재적 변수로 여기고 대응해야 할 것임. 기후변화는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평판 등 기업이 직면한 각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를 통해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

〈표 2-82〉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 활동의 위험 및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요인

유형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요인
전환 위험 (Transition Risk)	정책 및 법률(Policy and Leg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격 인상 • 강화된 배출량 보고 의무 •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권한 및 규제 • 소송에 대한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비용의 증가 (예: 준법감시 비용 상승, 보험료 인상) • 평가 절하, 자산 손상 및 정책 변화로 인한 기존 자산의 조기 제각 • 비용의 증가 및/또는 벌금과 판결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
	기술(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옵션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 대체 • 신기술에 대한 투자 실패 • 저탄소 기술로 전환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절하 및 기존 자산의 조기 제각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 • 신기술 및 대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 기술 개발에 대한 자본 투자 • 새로운 실무관행 및 프로세스 적용/배치 비용
	시장(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행동 변화 • 시장 신호의 불확실성 • 원료 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선호도 변화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 • 투입 가격 (예: 에너지, 물) 및 산출 요구량 (예: 폐기물 처리) 변동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 • 에너지 비용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변화 • 수익 구성 및 원천의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 자산 재평가 (예: 화석 연료 매장량, 토지 평가, 증권 평가) 	
평판(Repu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섹터의 낙인화 • 이해관계자의 우려 증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 생산 능력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예: 개발 계획 승인 지연, 공급망 중단) • 인력관리 및 계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익 감소 (예: 직원 유치 및 보유) • 자본 가용성 감소 	

유형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요인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	급성(Ac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능력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예: 운송 장애, 공급망 중단) • 인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익 감소 및 비용 증가 (예: 건강, 안전, 결근)
	만성(Chro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절하 및 기존 자산의 조기 제각 (예: “고위험” 지역의 재산 및 자산 손상) • 영업 비용의 증가 (예: 수력 발전소 또는 핵 발전소 및 화석 연료 발전소 냉각수를 위한 수도 시설 부족) • 자본 비용의 증가 (예: 설비 손상) • 판매/생산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 보험료 상승 및 “고위험” 지역 자산에 대한 보험 가용성 감소 가능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수 유형의 변동과 날씨 패턴의 극단적 변동성 • 평균 온도 상승 • 해수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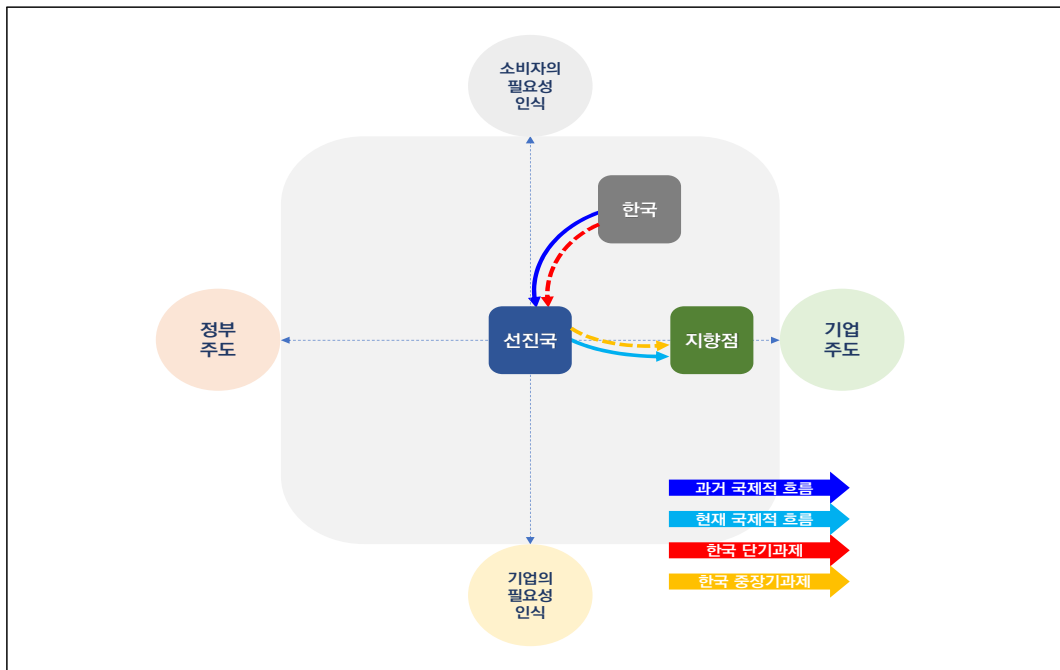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2021).

- 향후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출, 책임투자,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ESG 지표 마련 필요성이 있음. 김상효 외(2020)는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ESG 이행의 주된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식품 안전, 건강한 식품 공급노력 제고, 식품 폐기 감축, 취약계층 식품 지원 연계, 환경 친화적 포장재 사용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목함.
- ESG 관련 제도 마련 및 식품제조업체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 작성은 정부의 역할일 것이며,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평가지표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김상효 외(2020)은 기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평가지표는 이행실적 및 위반사항 관련 감점의 영향이 크지 않음. 사회적 책임이행 위반에 대해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의 ESG 평가 지표, 책임투자를 위한 ESG 기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수출기업 ESG 기준 등 기업유형별 공통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식품산업의 지각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표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는 실정으로 통일된 ESG 경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수출 측면에서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ESG 경영 준수 여부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납품기업에게도 요구될 전망으로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은 수출 증대 측면에서도 시급한 문제임. 내수 위주의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식품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모별 별도의 지표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전체 775개 ESG 평가 참여 기업체 중 식품기업 숫자는 37개 회사로 적지 않은 수준이나,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식품기업 업체수가 19,043임을 고려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임. 또한, 평가 기준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국한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ESG의 기준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림 2-43〉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자료: 김상효 외 (2020)

3.2. 주요 업종별 문제점

3.2.1. 전통식품

- 전통식품은 주재료 혹은 부재료를 국산 원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전통식품 시장 파악에 활용되는 통계는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로, 품목을 기반으로 조사되어 ‘전통식품’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전통식품산업의 문제점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통식품 분야 통계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전통식품은 식문화 계승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제고 등 식품산업의 주요 목적과 관련성이 높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함. 국내산 장류를 비롯한 소스류 산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한류 확산 속에서 수출중심의 성장 역량이 높은 산업이므로 검역 대응, 홍보 등 수출 확대가 당면 과제일 것임.
- 전통주산업과 관련하여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R&D 투자가 부족함. 전통주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새로운 설비 및 품질향상을 위한 R&D 투자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제품출시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품질향상과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음. 이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서 시작한 막걸리 열풍으로 국내 막걸리의 인기가 크게 높았던 시기가 있었음. 하지만 업체들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경험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통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규모의 양극화, 가격 안정화, 수출 확대, 제조단계 자동화율 제고 등의 선결과제가 있음. 2020년 김치제조업체의 판매액 규모 10억 원 이하 기업이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고, 김치 가격은 2020년 3,154 원/kg로 전년 2,355원/kg 대비 33.9% 급등함. 국산 김치의 높은 식품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출 전

략 마련이 요구될 것이나, 수출 시 활용가능한 국제 표준인 ISO22000인증업체 비중은 2.4%, FSSC 22000 인증업체 비중은 1.5%, 아랍권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할랄인증 보유업체 비중은 1.5%에 불과하여 수출 확대 측면에서 인증 취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동화가 미흡한 공정은 절단된 재료의 이물 등을 제거하는 원료 선별공정과 포기 김치의 속냉기 공정 등임.

- 국내 한식 진흥을 위해서는 젊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식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식 업체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일반음식점 내 타 업종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낮음. 또한 사업주 연령대가 높은 편이며, 한식의 경우 30대 이하 고객 비중이 3.5%로 전체 외식업체 평균인 14.7%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배달 및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적응력도 높지 않은 편임.
- 해외 한식 진흥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임.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한식 콘텐츠의 유행은 한식에 대한 기존 해외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켰음. 현지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높은 비빔밥, 김밥, 한국식 치킨 등 고부가가치 HMR 제품, 가공도가 높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판단됨.

3.2.2. 성장 유망업종

- 미래유망식품의 성장산업화가 필요하나, 간편식품산업과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유망식품의 한 분야로 R&D, 신성장산업화와 관련된 투자가 3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추진되었고,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 식품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수 시장의 포화도를 고려하여 간편식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간 통상 관련 문제는 정부의 주도 하에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특수용도식품은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을 비롯한 특수용도 식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이르는 산업화 지원이 필요한 단계임. 대체식품의 경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기술 확보가 과제일 것임.

3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국내 식품산업 정책 동향

1.1.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1.1.1. 제1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08~'12)⁷⁾

○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된 후, 농식품부는 해당 연도 11월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 당시 농식품부는 해당 종합대책이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해 수립하도록 한 '식품산업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힘.

○ 해당 대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 식품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래 3가지 전략을 제시함.

⁷⁾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11월 13일 보도자료(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2년까지 150조 원 규모로 육성)를 참고하여 정리

- 첫째, 세계 일류 수준의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공급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함.
- 둘째, 식품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함.
- 셋째, 농어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둠.

○ 또한, 주요 전략을 바탕으로 아래의 7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12년까지 매출액 150조 원 달성(연 7% 증가), 종사자 178만 명으로 확대, 농수산물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연 22% 증가),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등 구체적인 목표도 수립하였음.

〈표 3-1〉 제1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7대 핵심 정책과제

번호	내용
1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생산·공급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2	식품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3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등을 통해 세계 5대 음식권 진입
4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한 100억 불 수출 달성
5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식품기업 투자 활성화
6	식재료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요 창출
7	농어업·식품산업 연계강화를 통한 융복합 효과 극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11월 13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당시 농식품부는 이러한 전략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08년(8,195억 원) 대비 16.1% 증가한 9,158억 원을 소요 예산으로 책정하였음. 특히,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이 식품산업 진흥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는 첫해로서, 새로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진흥,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5년간('08~'12) 총 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1.1.2. 제2차 식품산업 진흥계획(‘13~’17)⁸⁾

○ 2011년 9월 농식품부는 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추진성과 및 당면과제와 함께 추진 배경을 설명함.

- 추진성과로는 식품산업(식품제조 8.6%, 외식 11%)이 타 산업(평균3.38%)에 비해 GDP 성장률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2010년 농식품 수출액이 2007년 대비 1.6배 증가한 5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농식품 R&D 지원(2010년 기준 183억 원을 6대 전략 분야에 지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천일염의 산업화, 고추장·된장·인삼의 CODEX 규격 채택 등 전통·발효식품 시장의 성장 및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 그 외에도 fine-dining 분야의 국가 브랜드 기여, 토종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확산 등을 추진성과로 내세움.

○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식품 기술 수준이 낮고, R&D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 연계강화, 신시장 개척, 소비자 권리보호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식품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국내 식품산업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래 4가지 목표를 제시함.

- 첫째, 인프라 확충으로 식품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킴.
- 둘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
- 셋째, 해외 시장개척 및 전략 품목 육성으로 신시장을 개척함.
- 넷째, 소비자 보호 강화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⁸⁾ 농림수산식품부(201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2~’17)을 참고하여 정리, 1차 추진기간과의 중복성 및 시행계획의 작성을 고려하여 13~17년도로 표기함.

○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2017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 245조 원 달성, 농식품 수출액 200억 불 달성, 식품분야 고용 200만 명으로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표 3-2〉 제2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주요 정책과제

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①	식품 R&D를 확대하고 연구·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②	식품 인력양성 시스템 확충 및 통계·정보 관리 강화
③	민간투자 활성화 및 농수산식품기업 One-Stop 서비스 지원
④	원활한 원료조달을 위해 자급률 상향 및 해외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2.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지역 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 융합 추진
②	가공산업 육성 및 사이버거대소 활성화로 국산 식재료 소비촉진
③	가공플랜트 확충으로 농어업인의 1사기업 창업 지원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농식품 수출확대 및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②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세계화 역량 집중
③	전통발효 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 원 시장으로 육성
4.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	
①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②	유사 인증제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
③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2011)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1.3.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18~'22)⁹⁾

○ 2018년 4월 농식품부는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실제로 해당 계획은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 후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극복하여 제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래 3가지 목표를 제시함.

⁹⁾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4월 2일 보도자료(제3차'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발표)를 참고하여 정리, 세부 분야별 성과 및 한계점은 다음 장에서 다룸.

- 첫째,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함.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210조 원 수준인 식품제조·외식업 매출액을 2022년까지 172조 원으로 확대함.
- 둘째, 국산 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으로 농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함.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519만 톤 수준인 국산 농산물 사용량을 2022년까지 690만 톤으로 확대함.
- 셋째, 유망분야 육성, 취·창업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고용을 확대함.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233만 명인 식품제조·외식업 종사자 수를 2022년 268만 명으로 확대함.
- 또한, 수립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분야 및 21개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표 3-3〉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주요 정책과제

1.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①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가정간편식 등)
②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③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④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2.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①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②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③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②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③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④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①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②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③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④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5.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①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②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③	사전에방적 안전관리 강화
④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1.4. 제1차 ~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교

- 현재까지 수립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표 3-4>와 같음. 지난 15년간 공통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으로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식품 R&D·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 안전 등이 있음.
- 제1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안전 세부과제가 포함되고, 한식 세계화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출산업이 강조된 특징이 있음.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력교육, 정보 강화 등의 세부과제가 추가되었으며,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과 농공상 융합형기업 육성 등이 강조됨. 또한 기능성 식품과 연관산업 활성화가 명시되고, 식품 안전 중심에서 식생활교육과 인증제도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정책 분야로 확대됨.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과 4차산업 대응 등 선제적 육성이 강조되고, 균형성장을 키워드로하는 중소/영세기업 성장 지원 정책이 새롭게 포함됨.

〈표 3-4〉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흐름

발전 전략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기간	'08-'12	'12-'17	'18-'22
비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목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 강화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구조 정착 해외시장개척 및 전략품목 육성으로 신시장 개척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 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으로 농업과 동반성장 유망분야 육성, 취·창업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고용확대
목표 지표	- 식품산업 매출액 ('06) 100조 원 → ('12) 150 - 식품산업 종사자 ('06) 163만명 → ('12) 178 - 농수산물 수출 ('07) 38억불 → ('12) 100 -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 식품산업 매출액 ('09) 131조 원 → ('17) 245 - 농식품 수출 ('09) 48억불 → ('17) 200 - 식품분야 고용 ('09) 176만명 → ('17) 200	- 식품산업 매출액 ('15) 210조 → ('22) 330 - 국산농산물 사용량 ('16) 519만톤 → ('22) 690 - 식품산업 종사자수 ('16) 233만명 → ('22) 268
주요 정책 과제	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 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물 수출 확대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	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인력양성 등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③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소비자 권리정보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②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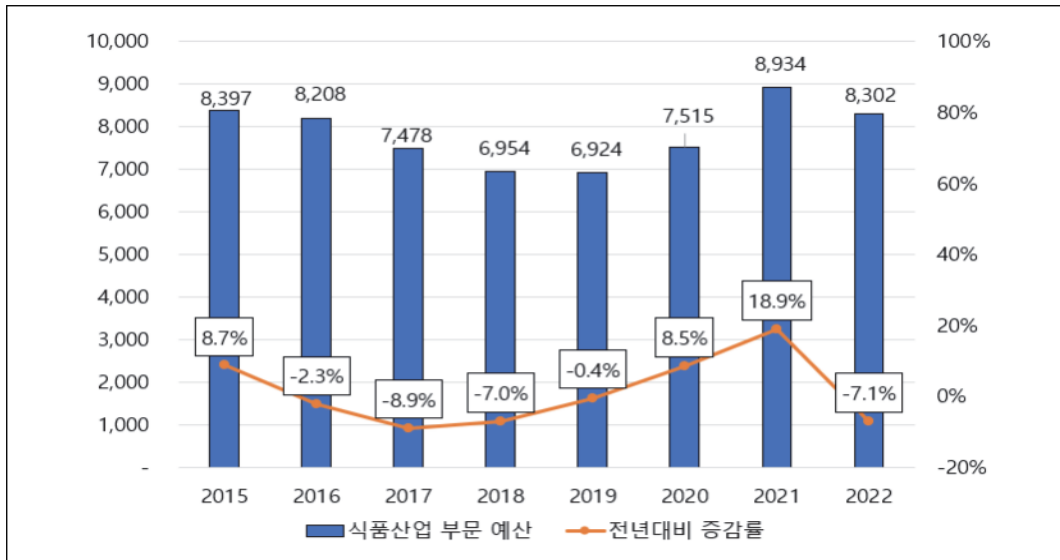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정책 추진 예산

○ 농식품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농식품부는 2015년 8천 4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식품산업에 투입하였으나, 2019년 6천 9백억 원 규모까지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2020년부터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투자의 본격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및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됨.

- 2021년에는 외식할인지원사업,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등 사업의 예산이 확대되면서 가장 많은 예산 규모인 8천 9백억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투자 금액과 자금융자 지원 예산의 감소 등으로 8천 3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

〈그림 3-1〉 식품산업 관련 실제 예산 및 기금운용 추이(2015~2022년)



주: 1) 동일한 연도에 대한 예산액이 보정작업 등으로 상이하계 기입된 경우, 가능한 최신자료의 예산액을 활용함.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 식품 부문 예산액은 각각 2016년, 2017년 예산자료에서 비교용으로 제시한 전년도 예산액을 활용함.

2)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의 전년대비 급격한 감소의 원인을 외식쿠폰 종료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일부 센터 완공에 따른 자연감소라고 밝힘.

3) 본 그래프의 식품산업 부문 예산액은 농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총괄 부분에서 제시한 총 지출액(예산+기금) 중 식품산업 부문 예산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내부 거래 등으로 인해 세부 내역 합계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자료: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15~2022년)

-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의 전년 대비 급격한 감소의 원인을 외식쿠폰 종료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일부 센터 완공에 따른 자연감소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농식품부가 추진한 사업 중 푸드서비스선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순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표 3-5〉 2022년 식품산업 관련 농식품부 실제 예산 및 기금 내역

단위: 억 원, (%)

사업명		2021 (A)	2022 (B)	증감 (B-A)	증감율 (%)	세부 정책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식품외식 산업육성)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R&D)	208	338	130	62.4	미래대응식품, 식품 품질안전, 차세대 식품가공,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맞춤형혁신식품 및천연안심소재기술 개발(R&D)	105	-	△105	순감	맞춤형혁신식품개발, 천연안심소재산업화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61	63	2.8	4.6	식품기능성평가지원,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기능성표시식품제도정착지원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148	179	30	20.5	식품표준화,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식품외식정 보분석,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 식품 기술거래이 전 지원,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식품판로지원, 기능성HMR실증·실용화 지원센터
	농식품해외시장진출	475	446	△29	△6.0	해외정보조사, 우수농식품 콜드체인구축, 우수농 식품 판로개척,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지 원, 민관수출협의체운영, 외식산업수출지원
	농식품 시장 개척	74	65	△9.0	△12.1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 규베이팅,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농식품글로벌 비대면마케팅지원	62	83	21	33.6	한국식품관구축 및 온라인 페어 개최, 온라인모바 일마케팅, 뉴미디어마케팅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453	358	△95	△20.9	기업지원시설 구축,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비즈 니스 활성화, 기업기술지원, 기관운영관리
푸드서비스선진화	723	50	△672	△93.0	외식창업 인규베이팅,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 식사문화 개선, 외식소비문화개선, 청년외 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소계	2,309	1,584	△726	△31.4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식품외식 산업육성)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31	125	△6.6	△5.0	한식진흥 기반의 강화, 한식의 국내외 확산, 한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 남도등항토음식진흥원설립 타당성연구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융자)	3,729	4,029	300	8.0	운영자금(원료구매), 시설자금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885	855	△30	△3.4	생산기반조성, 판매조직육성, 농식품우수기업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	144	119	△25	△17.2	전통식품산업육성, 발효식품산업경쟁력강화, 김치 산업육성, 한국술산업육성
	식품외식종합 자금(융자)	1,958	1,618	△340	△17.4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소계	6,847	6,745	△101	△1.5		
합계	9,156	8,329	△827	△9.0		

주: 1) (△)표시는 감소를 의미함.

2) 표에 제시된 합계금액은 2022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총괄 부분에서 제시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데, 이는 농식품부 내부 회계 거래 등으로 인한 차이로 확인됨.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21년 예산액은 수정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농식품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2년에 시행되는 식품산업 정책 중 융자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855억 원), 농식품해외시장진출(446억 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358억 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338억 원),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179억 원) 순으로 나타남.

1.3.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률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는 식품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며, 외식산업 진흥법, 김치 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식진흥법 등이 개별 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립되어 있음.
 - 식품산업진흥계획에서 모든 개별 산업의 진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담을 수 없는 한계성이 존재하고, 전통 및 한식문화 계승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김치, 전통주, 한식 산업 등은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산업 정책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표 3-6〉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률

관련 법률	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식품산업 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	내용
	<p>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p> <p>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p> <p>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p> <p>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p> <p>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외식산업 진흥법</p>	<p>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산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김치산업 진흥법</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관련 법률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식진흥법	<p>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09.05.)

2. 국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

2.1. 해외 주요국(일본, 미국, 유럽)의 식품정책 동향

○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미국은 「농무부 2022-2026 전략계획」을, 유럽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통해 미래지향적 식품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표 3-7〉 주요국 정책 동향 요약

구분	일본	미국	유럽
정책 문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20)	농무부 2022-2026 전략계획 (2021)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2020)
정책 동향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한 수요 탐색 글로벌 시장의 전략적 탐색 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성 강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신뢰 구축	안전·건강·저렴·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식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식품 분야의 공정한 경제적 보상 유기농업 확대
주요 정책	개호식품(스마일 케어 식품) 보급 일본 농림 규격(JAS) 제정 및 활용 촉진 글로벌 생산지 확대 및 일본식품해 외진흥센터 (JFOODO) 활성화를 통한 수출 확대 화식(和食) 문화 보존 및 계승 지리적표시(GI)제도 보급 및 활성화 지역사회 지원 농업(CSA) 활성화 식품정보 추적시스템 구축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영양 프로그램 (CNP) 여성·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WIC) 식중독 등 식품관련 질병 예방 및 관리 배양육 관련 문제 대응 및 관리 규정 마련	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식품 활용 환경친화적 식품 포장 지리적 표시제 등 유통 기준 개선·유통 거리 단축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라벨링 등 활용) 환경적 비용 고려한 조세체계 개편 2030년까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계측법 사용

자료: 저자 작성

2.2. 일본의 식품정책 동향

2.2.1. 일본 농림수산물 예산 동향

○ 일본 농림수산물성에서 발표한 2023년 농림수산물성 총예산은 2조 6,808억 엔으로, 향후 검토 예정인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과 관련된 경비,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강’을 감안한 농림수산물 분야의 경비, 식량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대응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 13,099억 엔이 편성됨.

- 9개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전액 증액됨.

○ 식품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출 확대, 스마트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현,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예산 활용의 주요 목표로 제시됨.

- 2030년 수출 5조엔 목표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력 강화, 식품산업 강화
- 스마트 농림수산업, eMAFF 등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추진
-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

〈표 3-8〉 2023년 일본 농림수산물 예산

단위: 억 엔

목표	세부목표	세부사업	예산	
			2022	2023
총액			10,551	13,099
생산기반 강화와 경영소득 안정대책의 착실한 실시, 수요확대 추진	축산·낙농, 채소, 과수, 화훼, 차·약용작물, 양봉 등의 생산기반 강화	지속적 생산강화 대책사업	174	201
	논 활용에 대한 직접지불 등에 의한 수요에 따른 생산 추진, 국산 밀·쌀가루 등의 생산·수요 확대	논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3,050	3,460
	사료용 옥수수, 고영양 목초 등 국산 사료 생산 및 유통 추진	축산생산력·생산체제 강화 대책 사업	9	15
	수입보험, 참나무, 채소 등 가격 안정 대책, 마르킨(マルキン) 등 경영안정대책의 착실한 실시	수입보험제도의 실시	184	334
	국민 이해양성 및 수요확대 추진	일본푸드시프트 종합추진사업 등	-	133
2030년 수출 5조엔 목표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력 강화, 식품산업 강화	해외 수요 개척, 수출 지원 플랫폼을 통한 자원 체제 강화, 품목 단체의 대응 강화	마켓-인(Market-in)을 통한 해외 판매 강화	31	42
	GFP를 통한 산지 육성·공급 체제 강화, HACCP 시설 정비, 지역 가공식품 수출 촉진	수출 산지·사업자의 육성·전개	10	13
	육성자권관리기관 등에 의한 지적재산의 실효적인 관리·보호	지적재산의 실효적인 관리·보호와 해외유출 방지	3	6
	식품산업의 국산 원료 전환 촉진, 가격 전가 원활화, 유통 합리화	지속가능식품산업모델 실증사업	-	1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화학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저감과 높은 생산성을 양립하는 신품종·기술 개발	녹색의 식량 시스템 전략 실현 기술 개발·실증 사업	35	80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수요 확대, 퇴비 등 국내 자원 활용을 통한 화학비료 저감 등 녹색 재배체계로의 전환, 퇴비의 고품질화·광역유통 촉진	녹색의 식량 시스템 전략 추진 종합 대책	8	30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교부금에 의한 폭넓은 대응 추진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급교부금	27	28
	환경부하 저감 가시화 등을 통한 관계자 행동변용 촉진, 국민 이해 양성	일본푸드시프트 종합추진사업 등	1	2

목표	세부목표	세부사업	예산	
			2022	2023
스마트 농림수산업, eMAFF 등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추진	환경부하나 자재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진적인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실증·산지지원	스마트농업 종합추진대책	14	39
	지역 전체에서 임업·수산업의 생산·유통 등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전략거점 구축	임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종합대책 등	-	32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스타트업 창출 강화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4	10
	농림수산성 공동신청서서비스(eMAFF)를 통한 행정절차의 근본적 효율화	eMAFF 등에 의한 DX추진(디지털청 계상)	45	77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침입 예방과 만연 방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의학 제공 체제 강화	가축위생등 종합대책	65	70
	중요 병해충의 침입·확산 방지, 화학농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방·예찰'에 중점을 둔 종합방제 추진	소비·안전대책 교부금	21	37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적 확보·육성, 농업농촌 정비	지역계획 책정과 그 실현을 위한 대응 추진	지역계획의 책정의 추진	-	24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활용한 농지 집약화,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활용한 농지의 집약화의 추진	51	104
	신규 취농자 육성·확보, 여성 활약 추진	신규 취농자 육성·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207	224
	경쟁력 강화·국토 강인화를 위한 농업 농촌 정비 추진	농업농촌정비사업	3,322	3,933
농산어촌의 활성화	중산간 지역 등의 농용지 보전을 축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디지털 기술에 의한 과제 해결, 농촌 RMO 형성,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추진, 정보통신 기반·생활 인프라 정비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	98	138
	ICT를 활용한 조수 피해 방지 대책 추진과 지비에 이 활용 확대	조수 피해 방지 대책과 지비에 활용 추진	101	127
	일본형 직불에 의한 다면적 기능 발휘, 중산간 지역의 조건 불리 보정, 계단식 논 보전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487	493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삼림·임업·목재 산업에 의한 녹색 성장	국산재 공급체제 강화를 위한 가공유통시설 정비,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 노망정비, 담당자 확보·육성, CLT 등 목재이용 촉진을 통한 국산재 수요 확대	삼림·임업·목재산업 녹색성장 종합대책	116	155
	재조림 촉진을 위한 엘리트 트리 등 묘목 공급 강화 등 산촌지역 활성화	산림·임업·목재산업 녹색성장 종합대책	116	155
	삼림흡수량 확보·강화, 국토 강인화에 이바지하는 산림정비·치산대책 추진	산림정비사업	1,248	1,478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	자원조사·평가 확충, 차세대 인재 육성·확보, 어업경영 안정대책의 착실한 실시	어업경영안정대책의 착실한 실시	335	642
	다목적어선이나 대규모 양바다양식시스템 등의 도입 실증, 공동이용시설 정비 지원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	20	100
	어업단속 안전 실시, 해조장·갯벌 보전 등 다면적 기능대책의 착실한 실시	수산 다면적 기능 발휘	42	56
	해업 진흥, 거점어항 유통기능 강화, 국토 강인화 등을 추진하는 수산기반 정비	수산기반 정비사업	727	860

주: 예산 합계가 2조 6,808억 엔보다 적은 것은 '방재·감제,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과 관련된 경비,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강'을 감안한 농림수산 분야의 경비, 식량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대응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 예정이기 때문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23년(令和5년)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2.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침을 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음.
 - 보고는 2020년 3월에 발표된 최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중에서 식품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정리하도록 함.

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 내「신규 가치 창출을 위한 수요 탐색」¹⁰⁾

-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식생활의 외부화, 간편식 선호, 간강 지향성 증가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진함.
- 최근 들어 급변하는 시장 변화(건강 지향적인 행태 및 식품관련 시장 변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
 - 개호식품(스마일 케어 식품) 보급
 -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브리딩
 - 식품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 수요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Affrinnovation(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innovation의 합성어)을 추진하고, 농업과 2차·3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고(高)부가가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함.
-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함.
 - 전체 공급망의 간소화

¹⁰⁾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3.) 가운데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한 수요 탐색” 부분을 정리한 내용임.

-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
- 원활한 거래 보장 및 소비자 선택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일본 농림 규격) 및 국제표준의 제정 및 활용 촉진

○ 식량 손실, 식품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식품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강화를 촉진함.
- 동시에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외식 및 식품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함.

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 내「글로벌 시장의 전략적 탐색」¹¹⁾

○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식품산업의 해외사업 진출 촉진,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함께 추진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림축산식품 및 식품수출본부를 수출진흥의 컨트롤타워로 설치하여 실행계획 마련 및 진도 관리를 통해 수출을 촉진함. 구체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수출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
- GFP(Global Farmers/Fishermen/Foresters/Food Manufacturers Project)를 통하여 글로벌 생산지를 조성함.
- 품목별 당면 과제에 따라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일본식품해외진흥센터(Japan Food Product Overseas Promotion Center; JFOODO)를 통하여 일본산 농림수산물과 일본산 식품의 수출 확대 전략을 구축함.
- 글로벌 체제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식품산업, 농업 등)의 해외사업 확대 등 제품 수출 뿐만 아니라 해외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도 전략적으로 추진함.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전략을 구축함.

11) 일본 농림수산성의「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3.) 가운데 “글로벌 시장의 전략적 탐색” 부분을 정리한 내용임.

- 지리적표시(GI)의 등록이나 신청을 지원하며, 지리적표시(GI) 보호제도 활성화를 지원함.
 - 현행 식물품종 보호제도로는 일본에서 개발된 새로운 식물품종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기때문에 식물품종 등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 가축의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다.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 내「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성 강화」¹²⁾

- 소비자와 식품·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생활 패턴 및 식습관의 변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식품 보존을 기반으로 한 식문화 교육 및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함. 또한 일본의 전통 식문화(화식; 和食)의 계승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식품교육 활성화 및 일본 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함.
 - 소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가 일본 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소비자가 일본 음식과 농업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식생활의 다양화와 세대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품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소비를 위한 현지생산 등을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함.

- '자연을 존중한다'는 정신에 입각한 일본인의 전통 식생활인 화식(和食)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함.
 - 화식(和食)의 건강상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 지역별 향토 음식 연구 및 해당 향토 음식 DB 구축
 - 화식(和食) 문화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¹²⁾ 일본 농림수산업성의「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3.) 가운데 “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성 강화” 부분을 정리한 내용임.

- 화식(和食)에 대한 인식 개선(예: 화식(和食)의 예술적 가치)을 통해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지원

○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음식과 농업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와 농민이 직접 연결되어 사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활성화를 추진함.
- 아울러, EC 사이트와 SNS를 활용하여 생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노력을 확대함.

라.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 내 「국제 활동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소비자 신뢰 구축」¹³⁾

○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칙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 위험 관리 및 위해정보 교류를 꾸준히 수행함.

- 또한, 식품정보 표시 강화를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함.

○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래의 노력을 강화함.

- 식품 내 유해성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 생산자 및 식품관련 사업자와 공조하여 안전성 향상 방안 마련
-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표준 및 행동규범 개발
- 생산, 제조 및 수입의 각 단계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노력 수행

○ 식품정보 표시 강화 등을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함.

¹³⁾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20.3.) 가운데 “국제 활동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소비자 신뢰 구축” 부분을 정리한 내용임.

- DNA 분석과 같은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바른 식품 표시를 촉진함.
- 식품 관련 사업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 보급함.
- 외식·가정식 대용품의 경우, 중소기업도 원재료 원산지를 원활하게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식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로트번호 (lot number)를 식별하고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식품정보추적시스템 (food traceability)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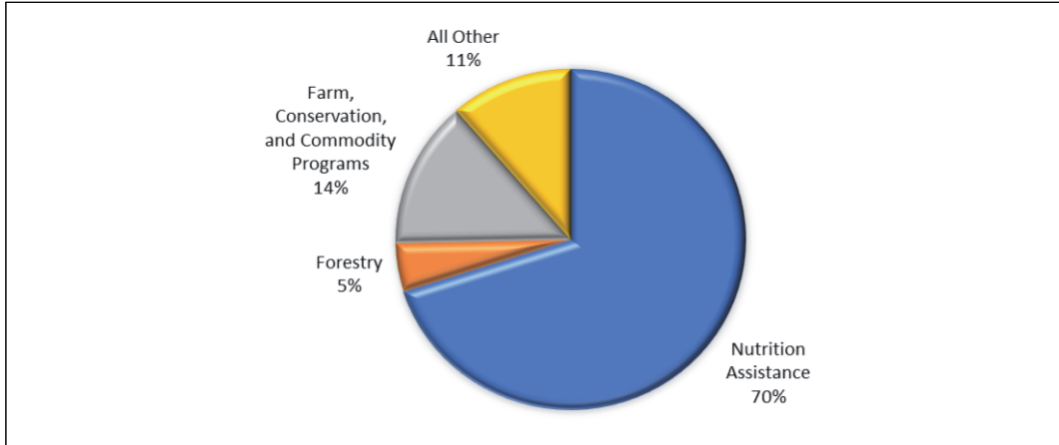
2.3. 미국 식품산업 정책 동향

2.3.1. 미국 농무부 예산 동향

- 미국 농무부는 농업, 식품, 영양, 자원 보호 및 관리, 농촌 개발의 영역에서 효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과학 기반의 공공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USDA의 총지출액은 2,093억 달러로 추정됨. 이중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총지출의 80.9%인 1,694억 달러임. 필수 프로그램에는 농작물 보험, 대부분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 농산물 및 무역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나머지 399억 달러(19.1%)는 아래와 같은 재량 프로그램에 사용됨.
 - 여성·영·유아를 위한 특별 보조영양 프로그램
 - 식품 안전, 농촌개발 대출 및 보조금
 - 연구개발 및 교육
 - 토양 및 수질 보존 기술 지원
 - 동식물 건강
 - 국유림 관리, 산불 진화 및 기타 산림 서비스 활동

- 국내 및 국제 마케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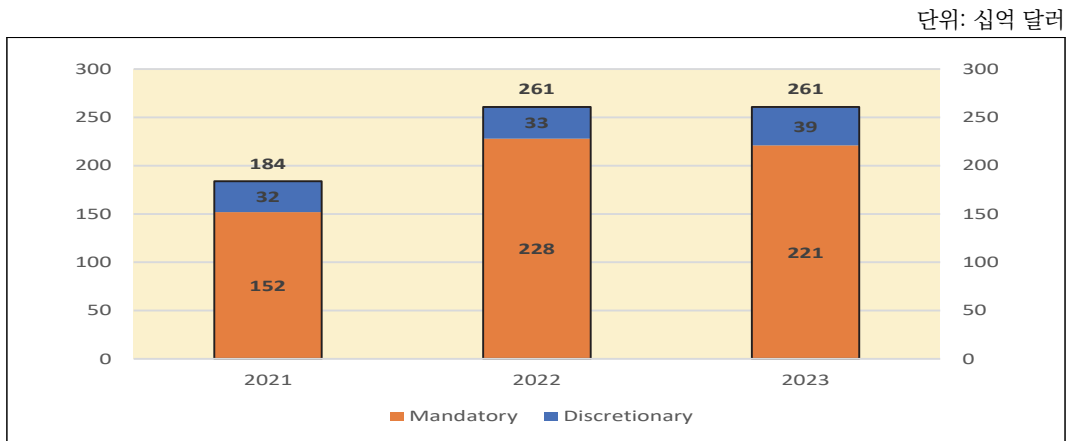
〈그림 3-2〉 USDA 2023년 분야별 예상 지출액 비중



주: 기타 항목(All other-)에는 농촌개발, 연구, 식품 안전, 마케팅 및 규제, 부서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USDA(2022)

- 2022년 및 2023년 예산은 2021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의무(Mandatory) 지출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고 재량(Discretionary) 지출 비중은 증가함.
 - 2023년 미국 농무부 의무 지출은 221십억 달러로 전년 대비 7십억 달러 감소
 - 2023년 미국 농무부 재량 지출은 39십억 달러로 전년 대비 6십억 달러 증가

〈그림 3-3〉 USDA 예산 요청 추이(2021-2023)



자료: USDA(2022)

2.3.2. 미국 주요 식품산업 정책 동향

가. 미국 농무부 5개년 전략계획(USDA 2022-2026)

-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농식품 산업 정책 목표 수립과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5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중장기 전략계획은 농무부의 연간 예산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됨.
- “USDA 2022-2026 전략계획”에서는 미국의 농업과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5가지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6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함.
 - USDA가 제시한 주요 주제로는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임업·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둘째, 인종 간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기회를 개선하는 것. 셋째,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더 좋은 시장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식품 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 넷째, 식량문제 및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 다섯째, USDA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총 5가지가 있음.
 - 이러한 5가지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제시된 전략목표에는 첫째, 농지·자원·공동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둘째, 공정하고, 회복력 있으며, 풍족한 농업시스템 구축, 셋째, 농업 생산자들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육성, 넷째,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 다섯째,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 확대, 여섯째, USDA 인력 확보 및 동기부여 총 6가지가 있음.
- 위의 6가지 전략 목표 중에서 4번 목표(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5번 목표(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 확대)가 식품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해당 목표는 “USDA 2023년 예산 계획서” 상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되고 있음.
- USDA는 4번 목표(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서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식중독을 예방하고 공중 보건 조치를 강화면서 건강한 음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농업을 지원하고 대중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영양 교육을 주도함.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필수적인 안전·건강·저렴·지속가능한 식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식품 공급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관련 부처는 식품 불안정과 불균형한 영양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시함. 여기에는 하루에 필수로 채워야 하는 양적 칼로리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필수적인 질적인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됨.
- 식품 공급의 안정성을 위하여 육류, 가금류, 유제품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하여 식품 검사 시스템 강화 및 식품 안전 규정 준수를 시행함. 동시에 USDA의 연구, 교육 및 각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품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과학, 정보, 도구와 기술을 계속하여 제공함.
-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범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함.

○ USDA는 5번 목표(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 확대)에서 식품산업과 관련한 세부 목표는 ‘식품 공급망 강화’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식품 가공업체, 파머스 마켓 (farmer’s market), 푸드 뱅크, 지역 식품 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재설계를 위해 지원함.
- 더 나은 식량 안보와 영양을 위해 식품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로컬 가치 사슬 (Local Value Chain)을 촉진함.
- 현지 및 지역 생산에 뿌리를 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함.
- 주(州), 부족 (tribe) 및 기타 지역의 협력사들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로부터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함.
- 필수 식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도구 및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지급 또는 대출을 지원함.

○ 이처럼, 미 농무부 중장기 전략계획 및 예산계획서에 나타난 미국의 식품산업정책은 식품산업 전반 각 부문별 목표와 정책을 제시한 일본과 달리, 영양지원정책과 식품공급의 안정성 측면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미국 영양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동향

○ 영양 지원 정책은 영향력이나 예산 비중 면에서 미국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정책에 해당함. 영양 지원 정책에는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여성·영·유아를 위한 특별 보조영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각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및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SNAP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품구매지원, 영양 교육,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며, 2008년까지는 푸드 스탬프로 알려졌던 사업임.
-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동안 SNAP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됨.
- SNAP 수혜자는 2022년 월평균 4,230만 명에서 2023년 4,35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수혜자의 증가는 과거의 경제 위기 이후 참여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대상자의 참여율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20-2022 회계연도 동안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을 통해 긴급 승인(Emergency Authorization, EA) 된 비용으로 인한 절감으로 예상됨.

○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

- CNP는 영양을 맞추어 식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보호하며,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CNP는 다음과 같은 급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학교 점심급식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School Breakfast Program), 여름 방학 중 급식 프로그램 (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아동 및 성인 보호 급식프로그램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신선과일·채소 제공 프로그램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우유 급식 프로그램 (Special Milk Program)

- 2023년에는 56억 회의 점심과 간식(2022년 현재 추정치보다 약 3억 5천만 회 증가), 학교에서의 27억 회의 아침식사, 아동 및 성인 보호 급식 프로그램에서의 22억 회의 식사, 여름 방학 중 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1억 4,500만 회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여성·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WIC는 저소득층의 임산부, 모유 수유부, 산후 여성, 유아 및 5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임.
- 현재 WIC는 미국 전체 영유아의 약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여성, 영아 및 유아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인증된 WIC 소매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영양 교육, 모유 수유 상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제공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현금성 혜택(Cash Value Benefits; CVBs)을 제공할 것이며, 참여하는 모든 여성과 어린이가 권장 수준의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선함.
- 2023년에는 월평균 630만 명의 저소득층 여성, 영·유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국민들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필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아울러, 더 건강한 식단과 인종적 형평성을 위해서는 연방 영양 안전망(Federal Nutrition Safety Net)을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영양 안보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음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다. 미국 식품안전 관련 정책 동향

○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은 육류, 가금류 및 계란 공급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라벨링과 더

불어 안전하게 포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포함됨.

○ 미국에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이며, FSIS는 FDA(미국 식품의약국), CDC(질병 통제 예방 센터), 환경 보호국을 비롯한 다른 USDA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함. FSIS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육류 (떼기과의 어류 포함), 가금류 및 계란 제품에 대한 연방국 단계에서의 검사
- 육류 및 가금류 검사 프로그램의 비용 지원
- 공중 보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 기반 데이터로 검사 추적
- 수입 식품 안전 시스템 구현 및 동등성 평가

○ FSIS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제품 보관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대중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함. 또한, 연방 식품안전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위해 CDC 및 FDA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식중독(Foodborne illness)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 CDC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약 128,000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3,000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USDA와 기타 부처 및 기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음.

○ 또한, FSIS는 가금류 제품과 관련된 살모넬라균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향후 대책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 활동을 시작함.

- 가금류 도축 및 가공시설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포함한 살모넬라균 제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받을 예정임. 모든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축장으로 유입되는 살모넬라균의 사전 관리임.

○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배양육(cell-cultured products)의 발전과정에서 규제 관할권, 식품 안전 관리, 세포 배양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됨. 이를 위해 FSIS와 FDA는 2021년까지 배양세포농업에 대한 협력을 이어옴.

- 구체적으로 FSIS는 육류검사법(FMIA) 또는 가금제품검사법(PPIA) 대상 동물의 세포로 만들어지거나 이 세포를 포함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라벨링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사전규제도입안(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PR)을 공고함. 추후 FSIS는 본 사전규제도입안을 통해 제출된 의견과 정보를 활용하여 동물 세포 배양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라벨링을 위한 기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2.4. 유럽의 식품산업 정책

○ 유럽연합은 2019년 4월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그린딜(Green Deal)¹⁴⁾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4월 그린딜의 농식품 부문 실행전략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Farm to Fork Strategy)를 발표함.

- 유럽연합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분야 대표정책으로는 공동 농업 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산업이 포괄하는 범위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임.
- 본고는 2020년 4월에 발표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¹⁵⁾을 발췌하여 정리함.

14) EU는 2019년 12월 2030년 배출량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7대 분야에 향후 10년간 1조유로(약 1,354조 원)를 투자(개별회원국 독자 예산 제외)하겠다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함. 그린딜(Green Deal)은 기후변화 대응전략인 동시에 전 산업분야의 그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제 규범을 선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임(김종안 외, 2020b).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0). 「A Farm to Fork Strategy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2.4.1.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수립 배경 및 방향성

-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식량안보 위기를 경험하면서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한편 유통 거리가 짧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는 기후 목표(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지속가능한 생산,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를 최종 목표로 삼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식품 분야의 공정한 경제적 보상 및 유기농업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2.4.2.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주요 정책

-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생산자·기후변화·환경을 모두 고려한 농식품 공급 체인을 구축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녹색 비즈니스 모델, 순환 바이오 경제, 통합 병해충 관리(IPM) 강화, 통합 양분관리 실행계획 수립, 항생제 사용 감축, 동물복지 개선, 생물 다양성 확보, 유기농업 장려, 공동 농업 정책(CAP)에서 환경계획 예산 확보,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개선 등
 - (식량안보) 위기관리대책 수립, 위기유보금 재정비
 - (지속가능한 제조업·도소매업·외식산업·서비스 산업) 책임감 있는 사업 및 마케팅을 위한 행동규범 수립, 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식품 활용, 환경친화적 식품 포장, 지리적 표시제 등 유통 기준 개선, 유통 거리 단축
 -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라벨링등 활용), 환경적 비용 고려한 조세체계 개편
 - (식품손실과 음식물 쓰레기 감축) 2030년까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측정법 사용
 - (식품 사기 방지) 무관용 원칙, 기관 간 데이터 공유

○ 한편, 다음과 같은 연구, 혁신, 자문서비스 분야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 (연구, 혁신, 기술, 투자) 전략계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EIP-AGRI)'의 역할 강화, 유럽지역개발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통해 농식품 공급체인 혁신에 투자, 농촌에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강화
- (자문서비스, 데이터 및 지식 공유, 기술) 효과적인 농업지식혁신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구축, 농가 지속성 데이터 네트워크(Farm Sustainability Data Network) 수립

3.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의 시사점

3.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요구

-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산업의 영역으로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지속가능한 로컬 가치 사슬 (Local Value Chain)을 촉진하고 현지 및 지역 생산에 뿌리를 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은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안전 관련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식생활교육과 인증제도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기업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제4차 식품산업 진흥정책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산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 대응, ESG 요구에 대한 대응, 건강한 식품생산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발판으로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2. 식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및 교역 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효과에 의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은 전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즉,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국민들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필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영양안보에도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음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한 식용유 값 상승, 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의 영향으로 식품 공급의 안정성과 자급률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쌀 이외의 작물의 자급률이 낮아 당장의 자급률 상승을 꾀하기는 힘들 실정이며, 결국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 확대, 위기대비 비축량 및 유보금의 적절한 확보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3.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내수 식품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일본은 수요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고(高)부가가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함. 또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식품산업의 해외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지를 구축하고, 품목별 당면과제에 따라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우리나라 또한 최근 들어 급변하는 시장 변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K-food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방향성과 정책 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 더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평가

1.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달성 평가

1.1. 목표 대비 달성 현황

○ 3차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과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도약, 농업과의 동반성장, 식품분야 고용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 3차 진흥계획에서는 혁신 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체계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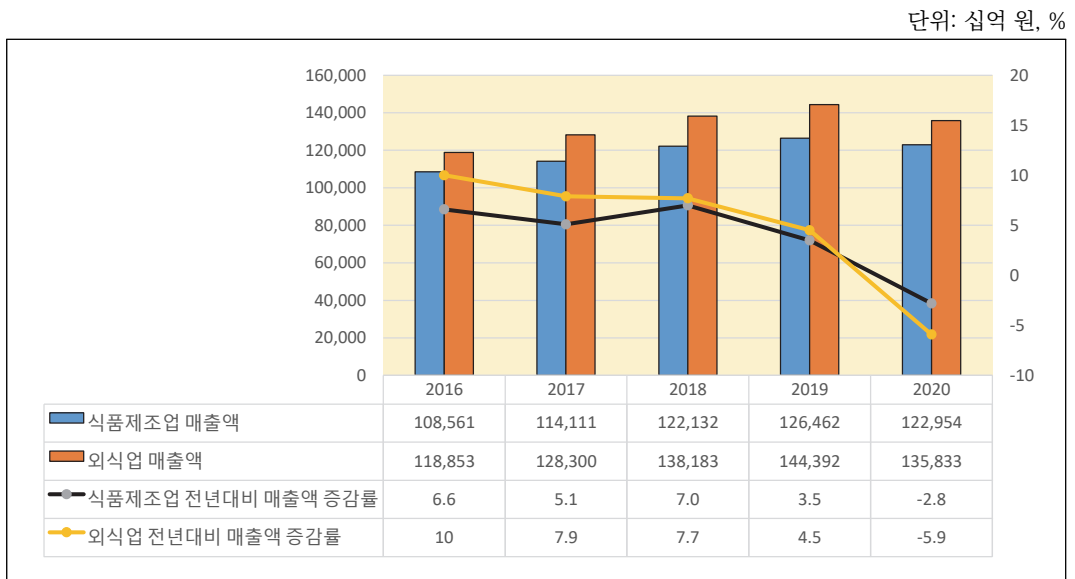
1.1.1. 매출액(식품제조/외식)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매출액 목표: (‘15) 210 (102/108)조 원 → (‘22) 330 (158/172)조 원임.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목표로 하였던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차츰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

- 특히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에 계획하였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 식품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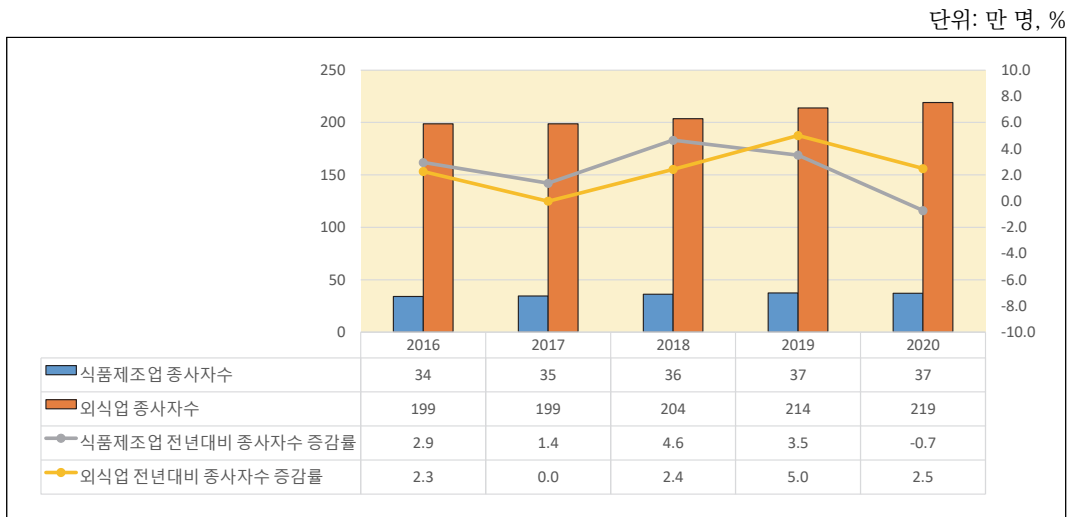
1.1.2. 종사자수(식품제조/외식)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종사자수 목표는 ('16) 233 (34/199)만 명 → ('22) 268 (38/230)만 명임.

○ 종사자 수도 매출액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2015년 이후 식품산업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업의 종사자 수가 12.4% 감소하였음.

- 식품제조업의 경우 이미 목표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라면 목표 대비 10% 이상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2020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가 2021년 4분기의 70.34보다 2022년 2분기 85.56으로 15.22% p 증가하였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외식업 종사자 수 23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2〉 식품산업 종사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1.1.3. 국산 농산물 사용량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국산 농산물 사용량 목표는 ('15) 515만 톤 → ('22) 690만 톤임.
- 국내 식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국산 농산물의 양은 2020년 약 592만 톤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690만 톤의 85.8% 수준임. 가격경쟁력으로 수입 원료 사용이 높은 편이지만, 국산 원료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36%를 추가하여도 약 634만 톤으로 목표 대비 91.7%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표 4-1〉 국산 농산물 사용 추이

단위: 톤, %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용량	비중	사용량	비중	사용량	비중	사용량	비중	사용량	비중
5,188,829	31.4	5,382,154	31.4	5,598,275	31.3	5,842,214	31.5	5,921,679	3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1.2. 주요 정책과제별 성과와 한계

1.2.1. 미래유망분야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 “미래유망분야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활력대책」(2019.12)을 수립하여 5대 유망 식품 분야에 대해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 측면이 높게 평가되나,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논의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인프라 강화 관련 예산이 계획 후기에 집중 투입되어 성과를 효율적으로 거두지 못함.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규정 마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령 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육성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시장 활성화 추진 미흡, 정책 개발 필요

○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을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유망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함. R&D 예산이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장으로 확대되었으나, 2018~20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 R&D에서의 비중이나 제조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여 절대적 규모가 작은 수준임. 또한 국가 식품 R&D가 산업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푸드테크 미래식품 계약학과’를 신설/확대하여 성장기반을 조성하였으나, 식품 R&D를 추진할 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의 세부 과제로 추진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는 수출경쟁력 제고, 온라인 홍보 강화, 유망품목 및 유망시장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과 물류난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한 6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 기준으로 농식품과 수산식품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억 달러): (‘20년) 36.0 → (‘21년) 41.8 → (‘22년) 45.0(7.9%↑)

-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억 달러): (‘20년) 11.0 → (‘21년) 12.5 → (‘22년) 17.1 (37.2%↑)

1.2.2.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

○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은 3차 진흥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정책과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소비축진 지원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및 성장 지원 규모는 미흡한 수준임.

-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2019년 종료되고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 내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식품 품질·위생역량 제고, 식품판로 지원(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육성) 3개 내역사업이 신설되었으나 기존의 예산보다 감소하였음.

○ 지역단위 외식업 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외식업 협업화를 위한 정책은 잘 추진이 되었으나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된 외식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짧은 행사 기간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임. 외식업을 창업하는 대다수의 창업주들이 시장정보 수집, 사업 노하우, 마케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어 실패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준비된 창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함.

-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2022년 5월 기준 448개)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기업 지정관리, 판로개척 지원, 선도기업 육성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함.

1.2.3.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전통식품 육성, 한식 진흥을 통해 국내산 원료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1차 진흥계획부터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생산자 조직화와 가공용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한 계약재배는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계약 유지와 물량 조달 한계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움. 단, 중소식품기업이 국산 원료를 구입 시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도입과 외식업체 대상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통식품의 경우 우수 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균주 보급,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됨. 한식 진흥을 위해 「한식진흥법」이 제정(‘19.8)되고 하위법령이 시행(‘20.8)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마련이 추진되었으나, 예산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국산 김치의 수출 물량이 크게 성장하였고, 기업 맞춤형의 종균 보급을 통해 전통식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 전통식품 품질인증 사업체 수가 증가함. 반면, 국가별 김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한국 김치 인지도 제고, 지역특산물 범위 확대(주세법 시행령 개정), 탁·약주 외 주종의 2인 이상 공동 면허 발급 등은 추진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한식·음식 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평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한식의 해외 홍보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가치 확산, 안정적인 한식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한식진흥법)를 마련하는 등 정책기반을 다졌으며,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추진함.
 - 계획한 대부분의 목표들이 세부추진내역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한식진흥법 수립 이후인 2020년부터 추진됨.

1.2.4.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의 농식품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식품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와 식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목표가 일관되지 않음. 소비자의 소통·협력 기반 조성,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의 두 분야에서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목표 달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 유망 중소식품기업, 우수 외식업지구 등 정책현장에 대한 소비자 팸투어, 대학생 사이버 감시단 운영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2022년까지 5,000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지역별 명예감시원 확대사업은 2022년 3,500명을 확보하는 데 그침.
-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가 확산되고 교육기관 지정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이 감소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됨. 한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관련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현물지원 확대의 기반이 조성된 것은 성과로 평가됨.
- ‘사전예방적 안전 관리 강화와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 제고’는 국내 농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된 과제로 국가 인증 농식품 지원이 축소되고, GAP 및 HACCP 인증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정제·감소되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중소 및 영세 규모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HACCP

지원, 원료축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간편식 안전성 제고 등 가공식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 최근 소비자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의 관련 활동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 식품산업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ESG 경영 확대가 향후 정책과제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2021.01.14.)하고 자산총액 기준 의무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전체 775개 ESG 평가 참여 기업체 중 식품기업 숫자는 37개이며, 1차 협력업체로 확대될 경우 평가등급에 미달하는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ESG 경영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1.3.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별 예산 추이

- 농림축산식품부 내 사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 개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기술사업화지원,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등의 예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맞춤형 혁신 식품 및 천연 안심소재 기술개발사업이 신규 추진됨.
-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및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고, 수출 관련 사업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음.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만큼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전통식품 관련 사업 등 다수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유사한 규모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 측면에서는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기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 식품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으

며,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고 있음.

〈표 4-2〉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2017-2022)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축방역	10,427	15,889	-	-	-	-
검역해소품목및대중국전락품목육성지원	4,400	3,000	2,700	3,700	4,000	4,00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4,400	32,508	20,981	6,708	20,826	33,81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5	12,056	21,378	39,224	45,320	35,842
국가인증농식품지원	9,581	9,099	9,178	8,260	7,817	7,222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2,636	2,636	2,806	2,948	6,051	6,331
기술사업화지원	10,284	8,910	7,181	205	14,946	24,460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3,168	34,727	30,959	27,896	30,062	31,750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4,402	14,705	14,115	55,530	15,218	15,659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용자)	38,300	38,300	38,300	39,300	43,170	38,850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	-	-	600	1,20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	6,781	6,951	83,751	45,207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2,523	79,484	80,903	85,483
농식품글로벌비대면 마케팅지원	-	-	-	-	6,200	8,282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377,500	338,642	338,642	372,882	372,882	402,882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	-	-	3,500	8,900	8,900
농식품바우처지원	-	500	-	-	-	-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 시장 개척)	8,420	8,420	7,578	8,103	7,444	6,544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38,232	48,520	52,875	52,047	49,307
농업관측	8,339	8,518	8,520	16,860	17,138	16,741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	1,608	2,776	3,880	23,950	31,652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	-	5,631	10,509	10,506	-
수출인프라강화	43,478	47,896	43,106	44,538	47,506	47,506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0,427	15,889	-	-	-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양곡관리특별회계전출(일반)	842,656	1,296,277	1,674,800	1,607,313	1,615,355	1,773,41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	-	13,540	15,780	15,780
전통발효식품육성	13,732	7,026	8,400	9,146	14,383	11,911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7,708	5,535	-	-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2,940	2,581	4,500	5,050	10,650	9,86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25,393	20,896	20,636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2,940	2,581	1,501	-	-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7.2	7.2	7.2	7.2	7.2
축산물 HACCP 지원	-	1,650	1,650	1,650	1,567	1,714
축산물 수급관리	105,533	78,340	118,505	117,390	234,873	116,378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860	1,666	1,461	1,212	2,850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13,020	13,922	11,847	11,936	11,710	11,674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2,630	72,250	5,035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539	12,106	9,858	13,396	13,134	12,473

자료: 저자 작성.

2. 세부 사업별 평가

2.1.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2.1.1.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가정간편식 등)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미래대응 유망산업으로 선정된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계획한 대부분의 목표들이 세부추진내역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획 초기보다는 후기에 예산이 집중되어 원료은행 착공, 기능성HMR 실용화 지원센터 건립이 2022년에 들어서야 진행됨.
-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및 식품공전 내 정의 신설, 고령친화우수식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장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우수식품 검증 단계가 현재 진행중이며, 소비자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명칭 개발이 필요함.

〈표 4-3〉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관련 정책 현황

분야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가정간편식	표준 정립 및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및 산업표준 마련	• 해당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 없음
		관련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	-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표준화를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한 R&D 지원	• 27개 R&D 과제 약 184억 원 예산 투입 •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건립
		정책자금을 활용한 국산 원료 사용 유도	•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가정간편식 브랜드화 및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
고령친화식품	표준 정립 및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제공	• 식품산업 정보분석 사업 및 aT FIS 운영
		고령친화식품 정의 확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새로운 명칭 개발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식품공전 내 고령친화식품 정의 신설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 세분화 및 단계별 표준 마련	• 고령친화우수식품 기준 마련 •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고령친화식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관련 부처 정책 연계(식사재료비의 급여화)	• 실증연구 진행중이나 3차 계획 내 적용 불가능
	기업 주도 R&D 지원 확대	• 14개 R&D 과제 약 100억 원 예산 투입	

분야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기능성 식품	기능성식품 관련 규제로 인한 시장확대 제약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식품에 대한 신고, 표시 제도(가칭 효능강조식품) 신규 도입	•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기능성 농식품 DB 구축	• 국산 농산물 기능성 규명 사업단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기능 강화(GLP 시험기관으로 지정)	•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한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 사업 시행
		국산 기능성 소재 이용 촉진을 위한 원료은행 구축	• 원료은행 착공 22.08.

자료: 저자 작성.

○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3차 계획 후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음. 하지만 계획의 추진 단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4-4〉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2,636	2,636	2,806	2,948	6,051	6,331
식품기능성평가지원	2,636	2,106	2,606	1,796	1,796	1,846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	530	200	200	200	180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정착 지원	-	-	-	952	4,055	4,305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기능성HMR실증·실용화 지원센터	-	-	-	-	500	2,970
식품표준화-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	-	-	600	1,284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5	12,056	21,378	39,224	45,320	35,842
기업지원시설구축-기능성식품제형센터	-	-	-	-	6,870	5,033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21,000	21,000	21,000	21,000	23,800	23,800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86,880	86,880	89,000	114,000	124,000	113,000
농식품시설현대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품원료계열화	-	-	-	2,000	2,000	-
외식업체 육성	2,400	7,400	10,000	10,000	20,000	15,000

자료: 저자 작성.

2.1.2.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차세대 10대 식품 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에 집중 투자하여 2018년 이후 총 70건, 약 1,5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R&D의 특성상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산업 간, 분야 간 융합·협력을 통한 개방형 R&D의 확대로 융복합 기술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식품산업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일 R&D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식품제조업만의 제한적 수요가 기계, 장치 산업에서의 독자적 개발 유인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임.
- 3차 기본계획 상에서 식품산업분야 스마트팩토리 도입 촉진의 목표를 설정하고도 세부적으로 추진 내용이 부재한 것은 타산업과의 연계 기술개발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함.
-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생산직 노동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계의 상황에서 스마트팩토리 등 노동력을 대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표 4-5〉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업계의 영세성으로 대응이 미흡 푸드테크 산업이 배달업 등 O2O 서비스에 치중하여 발전	차세대 10대 식품 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 집중 투자 ① 식품의 대사조절 원리 구명 및 바이오식품 개발 예측 시스템 구축 ② IoT 기반 전통발효식품 공정제어 기술 ③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기술 ④ 미래형 대체식품 기술 ⑤ Robotics를 활용한 중소기업 식품생산기술 ⑥ 빅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바이오헬스 식품 기술 ⑦ 대사질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식의약 기술 ⑧ 인공지능 기반, 품질정보의 비파괴 신속 계측기술 ⑨ AI, VR/AR 등의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포장기술 ⑩ 식품 스마트 안전유통 시스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식품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20.5.) • 데이터·네트워크·AI 기술 적용 등 식품가공 기술 개발('21 69억 원, 11건) • 친환경·기능형·지능형 식품포장 기술 개발('21 20억 원, 6건) • 산-학 협력 기반의 푸드테크 창업 교육 추진 및 창업성과 관리 강화('19 10개팀 '20 20개팀 '21 20개팀 '22 30개팀) • 식품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신규 적용
	미래식품 개발·지원(대체 육류, 식물성 달걀, 인공우유, 곤충활용 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식량·환경 문제 및 건강관리 트렌드 대응을 위해 대체식품·맞춤형 식품 등 유망분야 R&D 중점 지원(21 98억 원, 24건)
	식품산업분야 스마트 팩토리('17:134개) 도입을 촉진	-
	스마트 팩토리를 식품분야에 구축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포럼을 발족('18)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전망을 토대로 인력 수급에 맞는 핵심인재 양성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식품 R&D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과정의 '기능성식품 계약학과'(2개 대학) 신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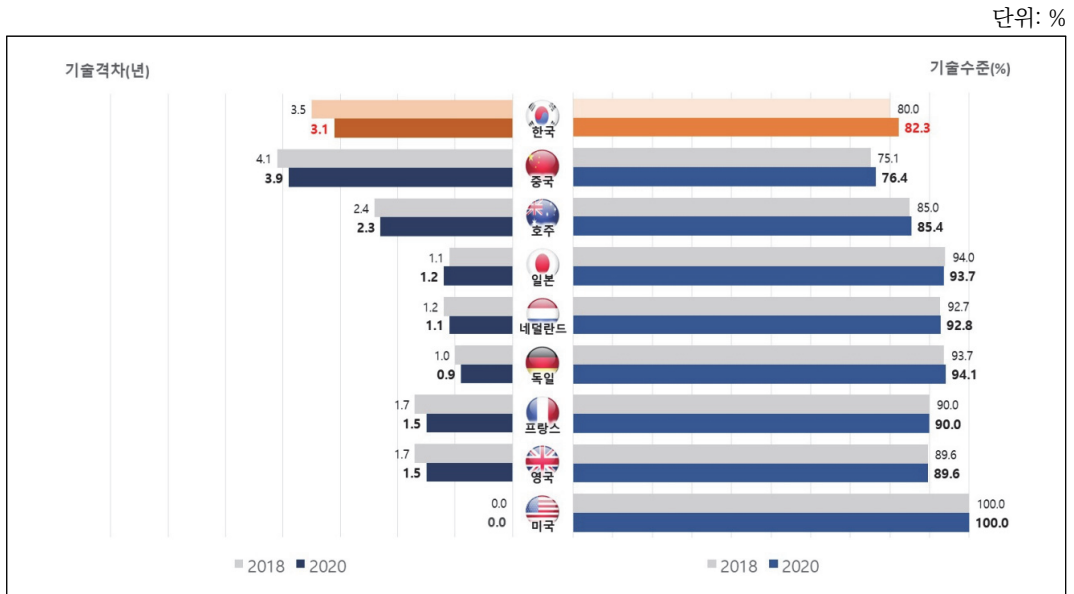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계약학과(석사학위)를 기능성식품에서 미래식품, 푸드테크로 추가 확대 식품기업의 R&D 분야 신규 채용자 대상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
	스마트키친, 이미지 경제 등으로 외식분야 푸드테크 영역 확장	-

자료: 저자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야별 R&D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 내 과제 단위로 반영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농림식품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식품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82.3%로 선도그룹에 속하며, 주요 9개 국가 중 8위임.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2018년 80.0%에서 2020년 82.3%로 상승하였으며,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는 3.5년(‘18)에서 3.1년(‘20)으로 0.4년 단축됨.
-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별로 평가를 따로하고 있지 않음.

〈그림 4-3〉 9개국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0. 『2020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표 4-6〉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4,400	32,508	20,981	6,708	20,826	33,816
기능성전통식품	9,016	6,451	5,426	2,146	10,847	15,804
식품품질관리	9,771	10,407	4,426	1,179	2,530	5,778
식품핵심소재	7,378	6,765	4,966	1,790	-	-
기자재·신가공(차세대 식품가공)	7,461	8,167	5,691	1,442	2,045	5,967
기획평가관리비	774	718	472	151	704	-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	-	-	-	4,700	6,267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	-	5,631	10,509	10,506	-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	-	-	2,500	5,661	6,560	-
천연안심소재산업화	-	-	2,969	4,514	3,703	-
기획평가관리비	-	-	162	307	243	-
기술사업화지원	10,284	8,910	7,181	205	14,946	24,460
현장연계고부가가치제품사업화(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8,782	7,390	6,268	-	6,680	11,295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민간중심 R&D 사업화지원)	1,267	1,367	788	201	7,830	13,165
기획평가관리비	235	153	125	4	436	-

자료: 저자 작성.

2.1.3.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중소식품기업, 외식업체의 식재료 조달을 원활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전처리 비용 절감, 국산원료 사용확대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함.

- 식품소재 및 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지원 대상을 2015년 3개소, 9억 원에서 2021년 10개소, 29.4억 원까지 확대하였음.

〈표 4-7〉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반가공화는 저조	B2B 판로를 연계해주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규모 확대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현황 조사
	지역농협 가공공장 중 일부를 식품소재·반가공에 특화된 센터로 리모델링	• 식품소재 및 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지원
산지 유통시설 및 기존 가공공장 외 소재 및 반가공을 위한 특화된 전문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부족	중소과 품종개발, 기능성 용기 등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
	산지와 외식·가공업체간 식재료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확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신유통경로확산(온라인직거래,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판로확대 등) • 직거래장터 및 활성화 지원

자료: 저자 작성.

○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도 잘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의 유동성 완화를 위해 가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식품가공원료매입 자금 160억 원을 증액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보여줌.

- 또한 우대금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농산물 구매 실적 증대를 유인함.

〈표 4-8〉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내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3,168	34,727	30,959	27,896	30,062	31,750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2,100	2,150	2,150	2,990	2,990	3,405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	-	-	1,000	1,000	3,000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4,402	14,705	14,115	55,530	15,218	15,659
직거래장터 지원	2,450	2,450	2,450	2,205	1,358	1,168
직거래활성화지원	1,265	2,265	2,265	2,265	2,040	1,150
직매장 지원	6,300	5,250	4,200	4,200	7,200	8,700
사이버거래소 지원	3,087	3,440	3,000	3,100	3,100	2,790
농산물 신유통경로 확산	700	1,200	1,200	43,760	1,560	1,651
전통시장지역농산물 판매촉진	100	100	100	-	-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옹자)	38,300	38,300	38,300	39,300	43,170	38,850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옹자)	25,300	25,300	25,300	25,300	29,170	26,250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옹자)	13,000	13,000	13,000	14,000	14,000	12,600
식품외식종합자금(옹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21,000	21,000	21,000	21,000	23,800	23,800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86,880	86,880	89,000	114,000	124,000	113,000
농식품시설현대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품원료계열화	-	-	-	2,000	2,000	-
외식업체 육성	2,400	7,400	10,000	10,000	20,000	15,000

자료: 저자 작성.

2.1.4.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패키징센터를 통해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제품, 패키징, 레시피, 트렌드 기술 개발, 유효성 평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식품포장 산업, 식품기계 산업 등의 연관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는 힘들.

- 특히, 식품기계의 경우 제한적인 수요와 농산물 품목별 요구 기술의 난이도가 상이하
여 기계설계에 어려움이 있어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 4-9〉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혁신적인 식품가공기계·포장재 등 연관산업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파생되고 있으나 주로 수입시장에 의존 통계기반, 검정장비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	식품기계·포장 산업 분류를 신설	-
	식품패키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포장 기술개발·보급의 중심기관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패키징센터 운영 활성화 • 맞춤형 포장개선('20: 23건→'21p: 25) • 포장재 시험분석('20: 856건→'21p: 900) • 유통환경 시험('20: 370건→'21p: 400) 등 패키징 기술개선 지원
	고부가가치 가능성 식품포장재 및 식품고도화 설비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과 식품패키 징·물류 등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20.5) • HMR 포장, 스마트 포장, 친환경 포장 등 개발 및 산 업화 지원

자료: 저자 작성.

○ 2018년 이후 총 14건, 약 144억 원을 투자하여 식품 포장 관련 R&D를 진행하였음.

〈표 4-10〉 식품포장 관련 R&D 현황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출연금	연구기간
혼합음식물의 진공포장이 가능한 IoT기반 일체형 Auto Packaging Machine	오성시스템	420	'18~'19
식품포장용 하이베리어 필름 기술개발	한국식품연구원	1,487	'18~'20
가정간편식(HMR) 냉동제품의 비결정 생성 억제 가능한 포장용기 기술개발	한국식품연구원	747	'18~'20
유당처리 식품용 재활용 가능 포장재 개발	(주)농심	1,140	'18~'21
허들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농식품의 해충 피해 방지 포장기술 개발 및 상업화	고려대학교	175	'22~'23
연신 PE필름 기반의 재활용이 용이한 PE 유니소재 식품포장 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소프트팩	484	'22~'24
식품 및 물류용기를 위한 물리적 재생 플라스틱 적용 공정기술 및 제품화 개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1,560	'22~'25
식품포장재 적용을 위한 친환경 수용성 잉크 인쇄 기법 개발	(주)에스피씨팩	553	'22~'23
항균·항바이러스 식품 포장 소재 및 조리기구 등 응용제품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0	'21~'24
식품포장 재활용 용이성 향상을 위한 유니소재 및 종이기반 식품용 포장소재 개 발 및 제품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92	'21~'23
식품포장 소재의 원천 감량을 위한 경량화 기술 개발	케미코첨단소재(주)	807	'21~'23
김치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탈취 포장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세계김치연구소	807	'21~'23
EVOH 대체 고차단성 식품포장 소재 및 마이크로웨이브 적용 친환경 포장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에버캠텍	1,613	'21~'23
식품포장용 센서 및 인디케이터 상용화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	807	'21~'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2.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2.2.1.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 식품산업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 과장의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및 푸드테크·미래식품 계약학과를 신설하였음.

- 또한 청소년 대상 식품산업 관심 유도 및 비전제시를 위해 식품산업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산·학 협업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식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채용부터 고용유지 사후관리까지 식품외식산업 인력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

〈표 4-11〉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한 인재양성 시스템 미흡으로 기업수요 인력 조달 한계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부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인력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설비·공간 등의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창업관련 교육 확대	청년 식품창업 Lab 지원규모 확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규모 확대
	국내·외 인턴십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품기업 일자리 성공패키지를 통한 직무체험 제공 식품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 지원 확대
	농식품분야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형시장 등에 파견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 규모 확대 해외 한식인턴 취업지원 대상 확대
	식품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	재직자 대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식품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계약학과 개설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추진

자료: 저자 작성.

○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표 4-12〉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2,630	72,250	5,03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00	700	700	980	980	1,260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	-	-	1,000	375	1,125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38,232	48,520	52,875	52,047	49,307
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	410	410	754	754	754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1,700	1,462	1,462	2,542	3,332	3,204
농식품수출시장 다변화	8,420	8,420	7,578	8,103	7,444	6,544
시장 개척단 운영	-	-	-	3,555	3,557	3,417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	100	405	390	-	-
청년식품창업센터	-	-	-	-	5,571	8,427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539	12,106	9,858	13,396	13,134	12,473
전문인력양성	2,081	2,527	2,500	2,307	1,957	2,957

자료: 저자 작성.

2.2.2.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였던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이후에 수립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에 따라 R&D의 방향성이 변화하였음.

- 단기적, 정량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방형 융복합 R&D로의 방향성을 수립

〈표 4-13〉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식품업체의 영세성으로 R&D투자 저조, 원천기술 수준 낮아 경쟁력 제고에 한계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중소기업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R&D 확대	타 분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연구 확대 - 타 분야 연구진과의 융복합 연구, 지자체의 R&D 기획·수행 강화 -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 분야별 R&D 거점 등 연구자간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식품 R&D 지원의 전 과정(심사 → 선정 → 중간평가 → 완료)을 성과 중심으로 개선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에 따라 방향 변경 - 단기적·정량적 성과 위주의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혁신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에 투자 확대
	농식품 R&D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업 강화	부·청·소속기관의 R&D 협업, 정책부서 R&D 참여 확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총괄 조정 강화
식품 R&D 연구과제 평가체계 미흡으로 연구성과 관리에 한계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유인 방안 발굴	민간의 농식품 R&D 촉진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 국가와 민간의 중점 역할모델 제시하여 국가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 민간 R&D 투자기반 조성, 기술이전·창업 등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및 후속연구 지원 확대	

자료: 저자 작성.

○ 2020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이 일몰되면서 관련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중심 R&D 사업화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가 중심의 연구에서 민간 중심의 연구로의 방향성 전환을 볼 수 있음.

〈표 4-14〉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술사업화지원	10,284	8,910	7,181	205	14,946	24,460
현장연계고부가가치제품사업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8,782	7,390	6,268	-	6,680	11,295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민간중심 R&D 사업화지원)	1,267	1,367	788	201	7,830	13,165
기획평가관리비	235	153	125	4	436	-

자료: 저자 작성.

2.2.3.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스타품목의 수출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하고, 선박 부족, 운임상승 등 전세계적 물류난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업 하였으며,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유통·소비 확대 및 건강·간편식품 선호 등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함.

-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고도화, 단계별 저온유통체계 구축, 새로운 스타품목 육성 등의 농림축산식품부 내부과제와 국가 간 식품안전 기준 협상(산업통상자원부), 한류를 통한 마케팅(문화관광체육부) 등의 다부처 협업이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음.

〈표 4-15〉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주력시장에 편향된 수출구조, 수출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미흡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전략국가를 선정, 신시장 적극 개척	신남방·신북방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유통·물류 인프라 개선 및 홍보 강화 극동·중양아 등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 시범 도입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수출 통합조직 등 조직화 기반 확대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강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One-Stop으로 지원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온·오프라인 소통체계 구축
	수출 유형·역량별 특화성장 지원 수출바우처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해외진출 인프라(정보, 인력) 강화 비대면 소비 확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기반 수출지원 확대 품질제고, 물류 효율화, 수출통합조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프리미엄 수출품목으로 육성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운영, 안전성 관리, 검역관 초청, 수출통합·선도 조직,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보험 지원, 항공 공동물류 활성화,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해외 인증등록 지원, 현지화 지원사업, 수출컨설팅, 미라클 K-FOOD 프로젝트, 수출상품화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해외정보 조사 및 전파, 수출홍보사이트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냉장냉동 운송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Global K-FOOD Fair, 소비자체험홍보, 바이어 거래알선,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해외 안테나숍 운영, 농식품 홍보관 운영, 해외 판촉, 온라인 판촉, 판매플랫폼 구축지원, 검역해소품목 지원, 전략품목육성사업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지원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뉴미디어마케팅, 한국식품관구축 및 온라인페어 개최
	농식품 시장개척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

자료: 저자 작성.

○ 식품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이나 농산물에 비해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크기가 작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4-16〉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검역해소품목및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4,400	3,000	2,700	3,700	4,000	4,000
대중국수출전략품목 육성	4,400	3,000	2,700	2,850	-	-
검역해소품목				850	-	-
수출인프라강화	43,478	47,896	43,106	44,538	47,506	47,506
대중국수출전략품목 육성	-	-	-	-	2,850	2,850
검역해소품목	-	-	-	-	1,150	1,150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4,492	4,700	4,500	4,300	3,732	3,359
농식품 콜드체인구축	3,700	3,700	3,700	3,920	3,422	3,422
농식품 수출홍보	31,436	37,646	33,106	34,518	35,140	32,760
민관수출협의회 운영	750	750	700	700	350	315
외식산업수출지원	3,100	1,100	1,100	1,100	862	779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 시장 개척)	8,420	8,420	7,578	8,103	7,444	6,544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6,470	6,470	5,030	5,555	5,277	4,617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1,950	1,950	1,278	1,270	953	834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	1,278	1,278	1,214	1,093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2,523	79,484	80,903	85,483
생산기반조성	3,703	3,823	3,823	4,087	2,800	3,400
판매조직육성	3,390	3,790	4,790	6,200	7,880	8,187
수출업체맞춤지원	64,239	63,341	63,541	66,493	70,223	73,896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	410	369	369		
농식품글로벌비대면 마케팅지원	-	-	-	-	6,200	8,282
온라인모바일마케팅	-	-	-	-	1,600	2,362
뉴미디어마케팅	-	-	-	-	4,000	4,750
한국식품관구축 및 온라인 페어 개최	-	-	-	-	600	1,170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377,500	338,642	338,642	372,882	372,882	402,882
농식품 원료구매	375,700	333,842	338,842	348,082	368,082	398,082
가공식품 시설현대화	4,800	4,800	4,800	4,800	4,800	4,800

자료: 저자 작성.

2.2.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 한미 FTA 협상 타결('07.6)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농어업 발전견인을 위해 식품산업의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2년까지 식품기업, 연구소 등 160개 유치 및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함.

- 2021년까지 총 114개사 97만㎡ 투자 유치 및 65% 분양을 완료하여 160개 목표 대비 약 71.3%의 성과를 달성함. 단, 국외기업 유치실적은 1건에 불과해 3차 기본계획 시작 시점의 문제점 인식 단계에서 개선된 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지원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소스산업화센터, HMR기술지원센터,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23년 준공), 기능성원료은행(23년 준공) 총 12개가 조성되었으며 목표 대비 200%의 성과를 달성함.

〈표 4-17〉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 실적 미흡	업종별·규모별 등 타겟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하여 관심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분양 체결 유도 - 투자유치기업: ('17) 50개소 → ('22) 160개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및 전략적 투자유치로 유망 식품기업의 투자 수요 발굴 - 투자유치 성과(114개사, 산업시설용지 65.2%) * 국외기업(1): 코아바이오(발효음료, 조미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R&D벨트(국클-한식연-농진청 등)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상시 애로대응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식품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확대 • 공유자원개발(시설·장비), 벤처·창업촉진 및 식품빅데이터(기능성·소스·맞춤형 식이설계) 등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 식품기업 전용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푸드비즈온) 운영,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 기업의 마케팅·판로 확대 지원
	농식품 원료 및 지역 우수인력에 대한 중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구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추진 • 대학연계 현장실습프로그램('21: 60명→'22: 100) 및 청년창업Lab 사업(60개팀→120) 등 확대
	사업부지 확장(2단계) 및 푸드랜드마크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클러스터의 식품 R&D 기능 확충 방안 등 모색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20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감소하였음.

- 기업지원시설의 경우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었으나 투자유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8〉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5	12,056	21,378	39,224	45,320	35,842
기업지원시설구축	1,850	1,850	3,864	21,701	26,619	15,552
기업기술지원	3,303	3,050	4,332	4,293	4,293	2,812
비즈니스 지원 활성화	-	-	2,652	2,652	2,732	3,622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1,900	1,900	1,926	1,638	1,638	1,573
기관운영관리	4,682	5,256	8,604	8,940	10,038	12,283

자료: 저자 작성.

2.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2.3.1.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HACCP 인증 획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업종(품목)전환 컨설팅, 온·오프라인 전용판매관 입점 지원 및 신규 판매채널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컨설팅 위주의 지원사업만으로 중소식품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표 4-19〉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 자산 규모 영세 - 10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 - (평균 자산 규모) 일반 제조업의 27% 수준	기업경영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식품기업 기술지원 사업(한식연)'과 연계하여 생산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권역별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온·오프라인 전용판매관 확대·개선 및 신규 판매채널 구축

자료: 저자 작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2019년 종료되고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 내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식품 품질·위생역량 제고, 식품판로 지원(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 3개 내역사업이 신설되었으나 기존의 예산보다 감소하였음.

〈표 4-20〉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내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7,708	5,535	사업종료	-	-	-
식품컨설팅	2,845	-	-	-	-	-
협력지원활성화	1,953	-	-	-	-	-
중소식품기업 진단·맞춤지원	-	2,000	-	-	-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900	2,035	-	-	-	-
대한민국식품대전	1,600	1,400	-	-	-	-
한국형 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	200	100	-	-	-	-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3,168	34,727	30,959	27,896	30,062	31,750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2,100	2,150	2,150	2,990	2,990	3,405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식품표준화	1,380	1,189	1,100	1,100	1,700	2,384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1,700	1,462	1,462	2,542	3,332	3,204
식품외식정보분석	1,955	1,681	1,681	1,797	2,656	2,536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000	1,700	1,700	1,700	2,600	2,600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1,370	1,178	-	-	-	-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603	519	-	-	-	-
건강한 식생활 확산	6,426	5,504	-	-	-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	250	-	-	-	-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	-	1,000	1,000	1,000	1,000
식품 품질·위생역량 제고	-	-	1,000	1,000	1,000	1,000
식품판로 지원	-	-	1,985	2,242	2,054	2,193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	2,035	985	992	1,242	1,242
기능성HMR실증·실용화 지원센터	-	-	-	-	500	2,970
식품외식융합자금(융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21,000	21,000	21,000	21,000	23,800	23,800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86,880	86,880	89,000	114,000	124,000	113,000
농식품시설현대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품원료계열화	-	-	-	2,000	2,000	-

자료: 저자 작성.

2.3.2.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 지역단위 외식업 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외식업 협업화를 위한 정책은 잘 추진이 되었으나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된 외식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짧은 행사 기간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시도별 신용카드 이용정보, POS데이터, SNS검색어 등 빅데이터 기반 외식 소비 분석 정보 제공한 것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정보의 질과 접근성, 활용성이 부족함.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로는 시장의 트렌드 정보도 중요하지만, 동종업계 식자재 평균 구매가격, 평균적 비용구조 등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함.

〈표 4-21〉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높은 경영비와 낮은 수익률 등으로 경영악화 심화 - 낮은 진입장벽과 생계형 창업으로 인해 5년 내 생존율은 17.3%로 낮고, 폐업률은 23.8%로 높음('16)	지역별 우수 외식업 지구를 발굴·홍보 (年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외식업 지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개최 • 지역특화 거리 조성(군산 수제맥주, 청주거리, '19~'20) 지원 •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식·농업연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창업준비 단계부터 경영·업종전환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영세 업체의 경영 안정화 도모 • 외식 할인 지원 등 외식 소비 활성화를 통한 외식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지속 • 외식업 경영 정보 제공(업종별·시도별 신용카드 이용정보, POS데이터, SNS검색어 등 빅데이터 기반 외식소비 분석 정보 제공)

자료: 저자 작성.

○ 외식업 관련 예산은 2021년 외식 할인 지원사업 예산 외에 대부분이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만이 예산이 증가함.

- 외식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임. 외식업을 창업하는 대다수의 창업주들이 시장정보 수집, 사업 노하우, 마케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어 실패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준비된 창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함.

-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으나 지원하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음. 때문에 다수의 창업주들이 준비된 창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22〉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내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2,630	72,250	5,035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200	250	250	250	250	250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00	700	700	980	980	1,260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	500	-	-	-	-
평창올림픽 대비 음식관광 기반조성	1500	-	-	-	-	-
푸드페스타&캠페인(외식소비 문화개선)	-	-	400	400	67,395	400
식사문화 개선	-	-	-	-	2,450	1,200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	-	-	1,000	375	1,125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	-	-	-	800	800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	(1,608)¹⁶⁾	2,776	3,880	23,950	31,652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활성화	-	-	-	-	-	360
식품외식융합자금(융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외식업체 육성	2,400	7,400	10,000	10,000	20,000	15,000

자료: 저자 작성.

2.3.3.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ESG/CSR대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우수사례 포상들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ESG/CSR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식품외식업체만이 수상할 수 있도록 주최측과 포상 관련 협의가 필요함.

16) 사회적농업활성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예산 합계임.(19년 통폐합)

〈표 4-23〉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 필요	식품기업 간 및 외식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공정한 시장질서 확산을 위하여 모범 협력사례 발굴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제조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홍보 확대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간 모범 경영사례 발굴·포상
	대-중소기업 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 모델 확산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마련된 불공정사례 접수창구('18-)를 통해 대-중소 식품기업 간 불공정사례 파악

자료: 저자 작성.

2.3.4.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2022년 5월 기준 448개)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농공상기업 지정관리, 판로개척 지원, 선도기업 육성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함.

〈표 4-24〉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산업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다양한 관련 산업주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특화산업화 미흡	지역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융복합산업 추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네트워크(누적): ('19) 77개소 → ('20) 84 → ('21) 90 → ('22) 92 인증사업자 수: ('18) 1,524명 → ('19) 1,624 → ('20) 1,909 → ('21) 2,034 → ('22) 2,164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온·오프라인 판로구축
	지역의 전략품목을 산업화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을 육성	
기존 선정·지원된 지역전략식품사업단에 대한 정책환류(Feedback)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효과 미미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주체(경영체)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적화된 산업기반·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 R&D·기술이전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누적): ('19) 24개소 → ('20) 28 → ('21) 32 → ('22) 36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확산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 기존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종료되고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예산이 추가되었지만 지역 식품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음.

〈표 4-25〉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내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25,393	20,896	20,636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6,118	6,456	5,037	-	-	-
향토산업육성	19,275	14,440	15,599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2,940	2,581	1,501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356	341	-	-	-	-
향토산업육성	2,584	2,240	1,501	-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2,940	2,581	4,500	5,050	10,650	9,860
지자체 계획수립 지원	-	800	500	1,000	1,000	1,000
푸드플랜 확산기반 조성	-	350	-	900	1,400	2,150
푸드플랜 운영 지원	-	-	4,000	3,150	2,650	300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	-	-	-	5,600	5,750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	-	-	-	300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활성화	-	-	-	-	-	360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식품판로 지원	-	-	1,985	2,242	2,054	2,193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	2,035	985	992	1,242	1,242

자료: 저자 작성.

2.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2.4.1.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제시한 구매이행 보증보험 도입 및 운영, 계약 재배 확대, 우수 협력 사례 발간 관련 사업은 진흥계획 기간 내 충분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단, 가공용 적성품종 개발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을 농진청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단계로 실질적인 품종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 완화의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중단된 상황임.

-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2018년 최초 도입하였으며,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초기 보험가입비 지원금 50%를 2022년 80%로 확대함. 지원금액 또한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원 범위를 생산자단체에서 국산 농산물 유통법인, 모든 농축산식품 거래업체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폭넓은 지원정책으로 개선함.

- 생산자의 조직화, 품질관리,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식품기업 간 국산 농산물 계약재배 체결 및 신용거래를 지원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2020년 14.5억 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21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됨. 계약재배 지원정책의 결과 계약재배 거래액이 ('19년) 93억 원→('20) 1,104억 원 →('21) 1,455억 원으로 증가함.
- 매년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에서 자부담 비중을 지방비로 대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 5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함. 또한, 국산 원료 안정 공급을 위해 기능성 원료은행을 2023년까지 구축 중임.
- 2022년에는 외식업체 국산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적 우수 사업 대상자에게 인센티브(최대 20백만 원) 지급 및 사업신청 절차를 간소화(공모→지자체 선정)하여 추진함.

〈표 4-26〉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국산원료농산물 가격이 높고, 업체가 영세하여 원료사용이 저조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부족	구매이행 보증보험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시 보험료의 50('19)~80%('22)를 지원하고, 업체당 5천만 원('19)~2억 원('22) 한도 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구매 가능토록 하는 정책으로 도입 및 확대
	산자와 기업이 연계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 기업관 연계강화 사업을 2020년 12억 원에서 2021년 21억 원으로 확대 추진, 우수농가 사업기간 연장(3년→5년)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로 가공적성정보를 통합하여 식품업체에 제공, 가공용품종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 원료은행(2023년 구축예정) 건립추진
	규제 완화(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으로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
	산지와 기업간 우수 협력 사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협의체 운영 및 경진대회 개최 및 다양한 유형의 우수사례 발굴·시상(10개 업체)
	해외한식당 협의체, 우수 외식업지구를 활용한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자부담 50% 지방비 지원, 외식업체 국산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활성화 지원 •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사업 추진(2021)

자료: 저자 작성.

○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만큼 관련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은 2018년 1,70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상향 편성된 이후 2021년 2,600백만 원으로 규모가 확대됨.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0백만 원으로 균 일하게 유지됨.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은 2018년 86,880백만 원에서 2022년 113,000백만 원으로 확대됨.
-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됨.

〈표 4-27〉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관련 예산 현황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000	1,700	1,700	1,700	2,600	2,600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	250	-	-	-	-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2,630	72,250	5,035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200	250	250	250	250	250
푸드페스타&캠페인(외식소비 문화개선)	-	-	400	400	67,395	400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	(1,608)	2,776	3,880	23,950	31,652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활성화	-	-	-	-	-	360
직매장 지원*	-	-	-	-	7,200	8,700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3,168	34,727	30,959	27,896	30,062	31,750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2,100	2,150	2,150	2,990	2,990	3,40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4,402	14,705	14,115	55,530	8,018	6,959
직거래장터 지원	2,450	2,450	2,450	2,205	1,358	1,168
직거래활성화지원	1,265	2,265	2,265	2,265	2,040	1,150
직매장 지원*	6,300	5,250	4,200	4,200	-	-
사이버거래소 지원	3,087	3,440	3,000	3,100	3,100	2,790
농산물 산유통경로 확산	700	1,200	1,200	43,760	1,560	1,651
전통시장지역농산물 판매촉진	100	100	100	-	-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옹자)	38,300	38,300	38,300	39,300	43,170	38,850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옹자)	25,300	25,300	25,300	25,300	29,170	26,250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옹자)	13,000	13,000	13,000	14,000	14,000	12,600
식품외식종합자금(옹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21,000	21,000	21,000	21,000	23,800	23,800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86,880	86,880	89,000	114,000	124,000	113,000
농식품시설현대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품원료계열화	-	-	-	2,000	2,000	-
외식업체 육성	2,400	7,400	10,000	10,000	20,000	15,000

자료: 저자 작성.

2.4.2. 농업인 소규모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목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확대, 농가형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발굴·지원, 농업인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마케팅 지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유연하게 추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한계가 존재함.

- 농산물가공센터는 당초 목표치(2020년 110개소)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2020년 90개소, 2021년 96개소, 2022년 101개소가 건립되어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함. 또한,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조성(4개소), 소비트렌드 대응상품 전용시설을 설치함(10개소).
- 농업인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마케팅 지원을 위해 도 및 시, 군 센터를 활용하여 8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농가맛집 메뉴를 활용한 밀키트 출시 및 네이버 스토어 등 신규 온라인 유통매체를 활용한 상품 홍보를 확대하였음.
- 농가형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 분야에서는 HMR 등 소비트렌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공기술 지원 사업이 2021년에 추진됨.

〈표 4-28〉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제조 · 가공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지원기능이 제한적	전국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확대(2020년 110개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년 90개소→'21년 96개소→'22년 101개소 설치
		기존 가공센터에 대해서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고도화 추진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개발 전용 시설 설치(2022년, 10개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2022년, 4개소, 신규) 등 일부 진행
		가공센터 내 창업보육교육을 확대	-
		지역별·분야별 농산물 가공 연구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지원 병행	-
기술 지원	농가형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현장 중심적 기술 부족	농가형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현장 애로기술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MR 등 소비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21년 55개소 • 구매력 높은 제품개발 지원 및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2022년, 45개소) • HACCP 인증 의무화 전면시행('21.12.)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 및 사업을 통한 우수성과 발굴·확산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판로 지원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가 제약되어 활성화에 한계	농업인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원 및 시·군 센터의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지원 사업 추진('20년 8개소, 개소당 1억 원) • 온라인·비대면 판매방식의 지역 가공상품 기획홍보 확대(12개소) 및 농촌자원 활용 비대면 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 기반조성(3개소)

자료: 저자 작성.

○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련 사업의 예산이 식품판로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추진기간 꾸준히 감소하였음.

-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식품판로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700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2021년 2,600백만 원으로 확대됨. 그러나 농업인의 가공식품 판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예산이 대폭 삭감됨.
- 식품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온라인 거래활성화 사업이 2021년 새로이 편성되어 2022년 1,200백만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은 2019년 및 2020년 예산이 점차 삭감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는 산지유통센터 예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표 4-29〉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식품판로 지원	1,000	1,700	1,700	1,700	2,600	2,600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	2,035	985	992	1,242	1,242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3,168	34,727	30,959	27,896	30,062	31,750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17,985	19,665	21,905	17,988	15,930	11,150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	-	-	1,000	1,000	3,000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	-	-	600	1,200
온라인거래시스템구축	-	-	-	-	600	700
농산물온라인거래소 기본계획 수립	-	-	-	-	-	500

자료: 저자 작성.

2.4.3.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해 김치, 발효식품, 전통주, 소비기반 확충 분야의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내 전통발효식품 진흥사업 및 전통주 진흥사업, 김치산업 육성사업, 발효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등 진흥계획 추진기간 내 분야별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특히, 김치와 전통주 분야에서 진흥계획이 수립되고 소스산업화센터, 김치 종균 보급시설 조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음.
 - 김치산업진흥법 수립에 기초한 「2018~2022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2021년 10월 김치 종균 보급사업 및 생산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세계김치연구소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김치종균 대량생산 시스템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대, ‘김치의 날(11.22)’ 행사 진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통발효식품 진흥사업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의 운영,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운영 및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스산업화센터를 2019년 11월 개소하여 다양한 소스류 시제품을 생산중에 있음.
 - 전통주 진흥 분야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기초한 「제2차 전통주산업발전 기본계획(2018~2022)」이 작성되었으며,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개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찾아가는 양조장 운영 등 신수요 발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간 국산 김치의 수출 물량이 크게 성장하였고, 기업 맞춤형의 종균 보급을 통해 전통식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 전통식품 품질인증 사업체 수가 증가함.
 - 김치의 수출량은 2017년 24,311톤에서 2021년 42,544톤으로 증가함.
 - 기업 맞춤형 종균 보급 사업을 통해 2017년 5개소(100백만 원)에서 2021년 25개소(500백만 원)로 지원을 확대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수는 2018년 405업체, 677개 제품에서 2021년 447개 업체, 759개 제품으로 증대됨.

○ 그러나 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목표인 국가별 김치 수요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지역특산주 범위 확대(주세법 시행령 개정), 탁·약주 외 주종도 2인 이상 공동면허 발급이 여건상 추진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전통식품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전통식품산업 육성 내에 포함되어 있던 기초통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식품 실태조사 통계자료에 대한 실제 업체 혹은 통계 수요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임.

〈표 4-30〉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김치	수입김치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수요확대 어려움	김치 전방산업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절임배추 및 김치양념(소스)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산업화센터를 통해 장류 제품 등 다양한 소스류 시제품 생산 및 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 지원
		우수종균을 배양하여 이를 활용한 품질 좋은 김치를 생산함으로써 수입김치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상품김치 시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품질 향상을 위해 김치종균 보급 지원('20.4월~) 및 복합종균 연구 추진, 김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맛 숙성도 등 표준화 연구 진행 •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김치 종균 개발·보급 확대(400백만 원)
		국가별 김치 수요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전통 발효 식품	홍보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근본 전략 미흡	전통·발효식품의 과학적 품질관리 및 산업화를 위해 토종 종균 및 유용 발효미생물을 발굴하고 표준생산공정 확립(식초, 장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 식초 등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기업 맞춤형으로 기술지원(500백만 원) • 발효차·발효음료 등 남해안권 중심의 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전남 순천) •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2022년 추진중)
	기초 연구 및 데이터 부족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 장(醬)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 및 고추장 등 장류 CODEX 세계규격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유네스코 등재 요건 마련 • 차기 등재 후보 조사 중(2022년)
전통주	판매·영업망 부족으로 판로 확보 난항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추진(2020) 이후 사업 없음
		지역특산주 범위를 확대(주세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단계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탁·약주 외 주종도 2인 이상이 공동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간 생산시설 공유를 위한 OEM 허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면허 발급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여건 조성 중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OEM 허용 (2020년)
		전통주 등 우리 술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조용 발효제(효모, 누룩) 개발 및 보급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운영: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신규 4개소(곡순당, 도란원, 여포와인농장, 좋은술) 선정(누적 총38개소) 및 홍보대사 위촉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운영 전통주 갤러리 운영 양조용 발효제 개발 및 보급 지원(80개소)
신수요 창출	잠재수요 발굴, 다양한 제품군 개발 등 시장 세분화를 통해 저가시장 위주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포함하도록 소비기반 확장 필요	식품명인 생산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은 백화점 및 생협(한살림, icoop) 등 고품질의 프리미엄 시장 타겟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명인 등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체험 기회 확대(식품명인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9품목, 40회 운영, 1,215명 참가)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적 우수성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식품 업체 온라인 판촉 지원 및 전시·판촉전 개최로 인지도 제고(롯데백화점 연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판로 개척, 발효식품대전 지원) 한국전통식품문화관(이음) 전통식품 체험홍보 행사 활성화 추진

자료: 저자 작성.

○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20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꾸준히 증가함. 내역 사업별로는 한국술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김치산업 육성사업, 전통발효식품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함.

- 2022년도 발효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소스산업화센터 등 설비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표 4-31〉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통발효식품육성	13,732	7,026	8,400	9,146	14,383	11,911
전통식품산업 육성	분류불가	2,060	1,430	1,530	2,780	2,780
김치산업육성			550	900	2,350	3,315
발효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050	3,250	3,698	6,471	2,925
한국술산업 육성		3,916	3,170	3,070	2,782	2,891

자료: 저자 작성.

2.4.4.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 5개년 사업 목표는 평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식의 해외 홍보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가치 확산, 안정적으로 한식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한식진흥법) 마련 등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관광 활성화임. 계획한 대부분의 목표들이 세부추진내역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한식진흥법 수립 이후인 2020년부터 추진됨.

- 한식 홍보사업의 경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홍보사업, 온라인 중심 한식 홍보 관련 사업은 충실하게 수행되었으나, 한식의 영양적·과학적 우수성 규명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2022년에는 해외 한식요리 경연대회,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한식 영상 공모전을 상시화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정책기반 마련에서는 한식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인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한식 메뉴 보급사업 차원에서 2018년부터 꾸준히 한식 전문인력을 해외 교육기관, 재외공관, 호텔에 파견하여 2021년까지 해외 교육기관 수료생 1,681명, 해외호텔 한식 교육 수강 셰프 174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둠.
- 음식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한식문화관과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음식관광 자원과 연계한 한식 체험 원데이 투어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 사업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진 상황임.
- 진흥계획에 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산농산물 확대를 위한 한식 소비 촉진행사,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2022년 예정) 등의 사업을 추진함.

〈표 4-32〉 한식, 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한식 홍보	한식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산 식재료 수출은 저조	평창동계올림픽('18), 도쿄 올림픽('20), 베이징 동계올림픽('22) 등을 계기로 관광객 대상 한식의 독창성·우수성에 대한 홍보 집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식 서포터즈 평창올림픽 선수촌 파견사업, KTX 활용 평창올림픽 한식콘텐츠 홍보사업 추진(2018) 2022 카타르 월드컵 한식 교류 지원사업(2022)
		온라인(이메일·SNS 등)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컬처 페스티벌 연계 한식행사 진행(2020~2021)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2020~2022)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2020~2021) 외국인 대상 원데이 투어 지역 먹거리 사업(2021~2022)
		한국 전통 식단의 과학적·영양적 우수성 규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홍보 콘텐츠로 활용	-
정책 기반 마련	한식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산 식재료 수출은 저조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진흥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
		조리법 체계화, 한식의 퓨전화를 통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한식메뉴를 한식당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 체험 밀키트 지원사업(2020~2022) 한식 전문인력 파견 사업(2018~2022)
음식 관광 활성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 미흡	지역별 한식테마 미식관광상품을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문화관 운영
		‘음식관광해설사’를 양성	-
기타 추진 사업		지역별 대표 ‘농가맛집’ 콘텐츠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청을 통한 향토음식 간편조리세트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 소비 촉진행사(2020~2022) 한식 산업 실태조사(2018~2021)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2018~2022) 국내 한식당 국산 식재료 활용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2022년 예정)

자료: 저자 작성.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대폭 삭감된 2019년을 제외하고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음. 그러나 2022년 음식관광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감축된 점은 한계로 보임.

- 한식 해외 확산 사업의 경우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남도 등 향토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2022년 수행중임.

〈표 4-33〉 한식, 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한식진흥 및 음식 관광활성화	10,539	12,106	9,858	13,596	13,134	12,473
한식진흥 기반강화	5,018	4,663	5,549	6,380	4,948	5,853
음식관광 활성화	2,370	1,750	1,809	2,709	4,209	
전문인력양성	2,081	2,527	2,500	2,307	1,957	
한식 해외 확산	1,070	3,166	-	2,000	2,580	-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	-	-	-	3,277	2,967
한식의 국내외 확산	-	-	-	-	5,909	3,453
남도 등 향토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	-	-	-	-	200
농특회계				200		

자료: 저자 작성.

2.5.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2.5.1.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부문에서는 소비자의 소통·협력 기반 조성,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의 두 분야에서 3차 진흥계획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수립 당시 목표 달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 소비자-생산자 간 공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됨.
- 유망 중소식품기업, 우수 외식업지구 등 정책현장에 대한 소비자 팸투어, 대학생 사이버 감시단 운영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2022년까지 5,000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지역별 명예감시원 확대사업은 2022년 3,500명을 확보하는 데 그침.

〈표 4-34〉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소비자와의 소통·협력 기반 조성	원산지표시 이행률(96.7%)은 높으나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	소비자-생산자 공동 참여 프로그램(CSA) 프로그램을 대상을 농업인 가공품 생산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등으로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A 프로그램은 추진되지 않음 원산지 표시제도 확산, 로컬푸드 가치확산 교육·홍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홍보, GAP 소비자 리더 교육, 차 일상화 범국민 운동, 사회적농업 교육, LMO 모니터링, 꽃 생활화, 공익형직불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교육 등 13개 협력사업 지원(2019~2022)
		유망 중소식품기업, 우수 외식업지구 등 정책현장에 대한 소비자 팸투어를 추진하여 상호 신뢰 형성 기반 마련	-
	명예감시원의 전문성과 활동이 미흡하여 민간 감시효과가 미미	소비자의 이용도·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식품·외식분야 카드뉴스 등 정보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관련 유관기관 제휴 및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를 통한 정보현행화서비스 제공 및 '사실검증(Fact Check)' 콘텐츠 제작 확대로 실생활 체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	농식품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가 미흡	소비자단체와 정책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 운영(연 5회) 및 간담회 추진(연 3회)
		지역별 명예감시원을 확대(3→5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에 명예감시원 3,500명 달성(2022년) 매년 명예감시원 중 합동단속·부정유통신고·지도 활동 실적우수자를 "TOP 감시원"에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 시장 모니터링	-

자료: 저자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내 추진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농식품 소비정보망 활성화 사업,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이 유사한 규모로 편성됨.

- 2021년에는 코로나19대응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정책이 추진됨.

〈표 4-35〉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1,370	1,178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으로 이관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으로 이관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	6,781	6,951	83,751	45,207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	1,178	1,348	1,348	1,008
농식품 소비정보망 활성화	-	-	519	519	519	519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	-	-	-	77,000	39,000
농업관측	8,339	8,518	8,520	16,860	17,138	16,741
농식품소비실태조사	-	-	-	1,100	1,380	1,600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860	1,666	1,461	1,212	2,850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860	860	860	860	860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	190	190	190	190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0,427	15,889	-	-	-	-
특사경, 명예감시원활동비 등	179	185	-	-	-	-
가축방역	10,427	15,889	-	-	-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0	30	-	-	-	-

자료: 저자 작성.

2.5.2.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
본계획에서는 건강식생활 확산 기반 마련,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건
강식생활 확산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국가표준식품성분 DB 활용 및 전문 식생활체험
지도사 양성사업을 제외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 중인 농식품바
우처 지원제도는 신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

- 추가로 진흥계획 추진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
업,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영양필요계층의
영양 섭취를 지원함.

〈표 4-36〉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건강식생활 확산 기반 마련	국민 식생활 개선 노력 요구	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푸드플랜 연계 식생활교육' 모델 제시 및 지역 인프라 확충	• 지역 중심의 식생활 교육 확산을 위해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실시('20년 15개소, 440백만 원, '21년 15개소, 440백만 원)
	청소년 식생활교육에 있어서 식재료의 이해 및 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 등의 학습공간 부족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확산('17:32곳→'22:100) 및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 확대('17:1개소 →'22:50)	•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실시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17) 59 → ('20) 62개소 이상 •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조기 확대 ('17: 32 → '21: 120개소)
		국가표준식품성분 DB를 기초로 국민 식생활 관리에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를 개발하고, 전문 식생활체험 지도사 양성(2,000명)	• 추진 사업 없음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바른 식생활에 대한 범국민적 가치 확산이 미흡	식품구입에 용도가 한정된 바우처를 지원하여 육류, 과일 등 양질의 식품 섭취와 섭취 품목의 다양화 유도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022) 및 신정부 국 정과제 선정
	저소득층 대상 현금 공공부조를 통한 충분한 식품 확보에 한계	보건소 등의 영양·건강지원사업과 연 계하여 수혜자 대상 식생활 상담·교육 을 병행함으로써 개인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 농식품바우처와 연계한 식생활교육 추진(식생활네 트워크)
기타 사업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학교우유급식,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추진

자료: 저자 작성.

○ 소비자 교육 부문에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예산은 3차 진흥계획 기간 매년 예산
이 확보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였고,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예산은 2021년 증액되
어 본격적인 추진 준비단계에 있음.

- 기타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 또한 일부 증액됨.

〈표 4-37〉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7,200	7,200	7,200	7,200	7,200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7,200	7,200	7,200	7,200	7,200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건강한 식생활 확산*	6,423	5,504	-	-	-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강한 식생활 확산	-	-	6,781	6,951	83,751	45,207
건강한 식생활 확산*	-	-	5,084	5,084	4,884	4,680
농식품바우처지원	-	500	-	-	-	-
농식품바우처 도입기반 마련*	-	500	-	-	-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	-	-	3,500	8,900	8,900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	-	-	3,500	8,200	8,200
판매·정산관리시스템 구축	-	-	-	-	500	370
협업체 운영 및 교육·상담 등 사업운영·관리	-	-	-	-	200	330
양곡관리특별회계전출(일반)	842,656	1,296,277	1,674,800	1,607,313	1,615,355	1,773,419
일반회계에서 양특회계 지원	842,656	1,296,277	1,674,800	1,607,313	1,615,355	1,773,419
축산물 수급관리	105,533	78,340	118,505	117,390	234,873	116,378
학교우유급식	37,016	37,016	37,016	37,256	45,383	47,04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	-	13,540	15,780	15,780
친환경농산물 지원	-	-	-	13,120	15,360	15,360
사업운영비	-	-	-	420	420	420

자료: 저자 작성.

2.5.3.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는 농산물 GAP, 축산물 및 가공식품 HACCP 제도를 중심으로 3차 진흥계획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제시된 목표에 따라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HACCP 인증 지원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스마트 HACCP 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이 추진됨.
- 단, HACCP 사후관리 강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 별도의 사업은 구성되지 않음.

〈표 4-38〉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관련 정책 현황

3차 계획 시작 시점 문제점		3차 진흥계획의 목표	3차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
농산물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	GAP 집단 인증 활성화 및 내부관리자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인증 농가의 내실화를 위한 내부심사자 교육(연 1천명 규모)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내부심사자 반영
		민간기업과의 협업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판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유통업체와 정기 협의회(상·하반기 각 1회) 등을 통해 신규 판로를 발굴하고, GAP 우수사례 발굴, 팸투어 등 GAP 이해 확산
축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의 GAP 인지도 및 이해도 부족	'22년까지 HACCP 인증을 단계별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스마트 HACCP 인증지원(기업당 20백만 원) 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HACCP 인증 컨설팅 추진 (HACCP 관련 108개 업체)
		위생·안전관련 중요 인증기준 미 준수 시 1회 위반에도 HACCP 인증 취소,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조사 평가 수행, 2020년 평가검증 및 사후관리 제도 도입
가공식품	생산자 참여 및 유통업체의 취급 확대가 미흡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 의무적용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의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스마트 HACCP 인증지원(기업당 20백만 원) 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HACCP 인증 컨설팅 추진 (HACCP 관련 108개 업체)

자료: 저자 작성.

○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GAP 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예산은 2019년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규모로 편성·추진되었으며, GAP 운영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규모로 편성됨. HACCP 컨설팅, 현장기술지도, 교육, 홍보, 평가예산 역시 유사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편성됨.

〈표 4-39〉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13,020	13,922	11,847	11,936	11,710	11,674
친환경농산물인증	3,062	3,631	4,049	4,322	4,222	4,280
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5,702	6,163	3,846	3,754	3,752	3,752
국가인증농식품지원	9,581	9,099	9,178	8,260	7,817	7,222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7,013	7,013	6,812	6,000	5,700	5,130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800	800	800	774	700	640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589	439	439	439	417	377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397	397	397	397	350	350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	300	150	150	150	150	150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82	-	-	-	-	-
PLS 교육·홍보 지원	-	300	580	500	500	575
축산물 HACCP 지원	-	1,650	1,650	1,650	1,567	1,714
HACCP 컨설팅	-	1,120	1,120	1,120	1,037	1,037
현장기술지도	-	320	320	320	320	288
교육, 홍보, 평가 등	-	210	210	210	210	389

자료: 저자 작성.

2.5.4.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3차 진흥계획 추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해외식품인증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한식당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음.

5

식품산업 전망과 4차 진흥정책 전략도출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식품산업 전망

1.1. '식품산업 진흥'의 현장 중심적 구조화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의 관점에서 식품 산업진흥의 요소들을 구조화할 수 있음. Y라는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요소가 필요하지만, 자본(K)과 노동(L)이 기본적 구성요소임. 이 식에서 f 는 자본 및 노동을 조합하여 최종산출물 Y를 생산해 내는 생산기술을 나타내며, Y는 '식품산업 진흥'을 의미함.

$$Y=f(L,K)$$

- 본 연구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증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식품산업 진흥'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식품산업 진흥'을 구조화하고, 식품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관련된 요소들로 구분함.

1.1.1. 식품산업 생산활동을 둘러싼 요소

가. 식품시장을 둘러싼 환경/여건 변화

- 식품산업을 향한 소비자 및 사회/환경의 요구, 주기적 감염병의 가능성,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등 각종 위기의 도래, 인구절벽 등과 같은 사회 변화 전망, 전통 식생활의 계승/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등이 이와 관련되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식품시장 환경 및 여건은 ① ESG 대응, ② 감염병의 주기적 출몰 등 위기 대응 ② 디지털화, 온라인화, 푸드테크 대응일 것임.

나.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의 전후방산업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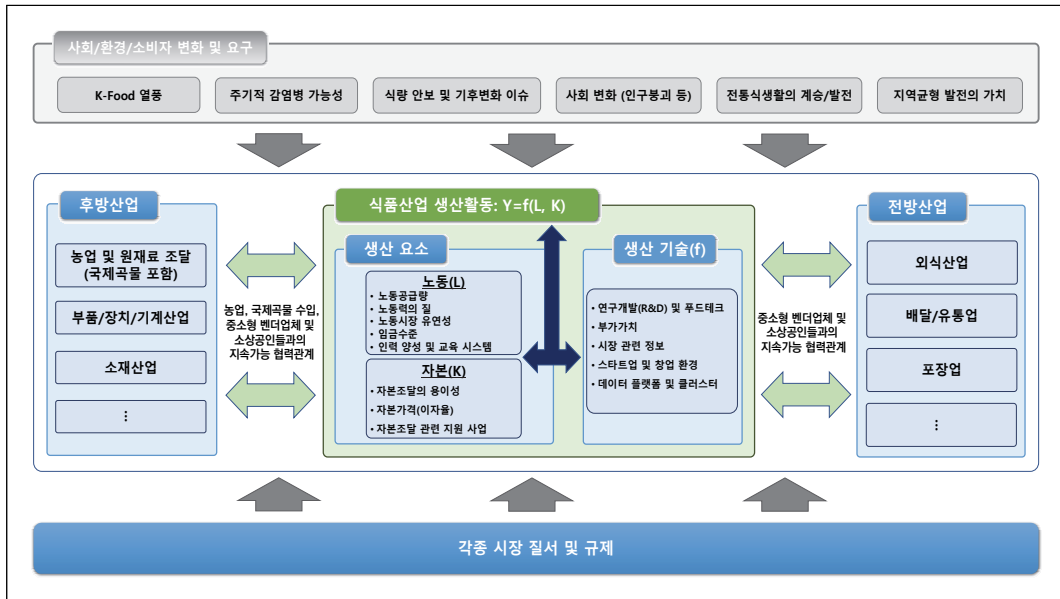
- 산출물(Y)의 생산활동과 대내외 시장 여건 변화 이외에도, 원료의 조달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전후방산업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성이 큰 전후방산업은 농업 및 원재료 조달(국제곡물 포함), 장치/기계산업, 소재산업, 포장산업, 외식산업, 유통업 등임.
- 한편, 중소형 벤더업체 및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협력관계 또한 산출물의 생산 및 유통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임.
- 최종적으로 생산된 산출물(Y)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내수/수출 수요, 홍보 및 마케팅, 판로 개척 및 판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연관됨.

다. 각종 시장 질서 및 규제

-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질서와 규제도 식품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 추진된 정책을 포함한 대내외 정책 여건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2. 식품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요소

〈그림 5-1〉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요소의 구조도



자료: 직접 작성.

-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L)의 경우 노동공급량(양적 측면; 외국인 노동력), 노동력의 질(high skilled and low skilled labor: 생산직/판매직/연구직, 전문인력),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수준, 노동시장 관련 정보, 인력 양성 및 교육 시스템 등이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됨.
 - 따라서 노동 부문의 여건 변화와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추이, 식품 관련 고등교육시설 현황, 식품산업 종사자 수 등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음.
- 자본(K)의 경우는 자본조달의 용이성, 자본가격(이자율) 및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자본 조달 관련 지원사업 등이 관련됨.
 - 따라서, 환율, 이자율 등 경제적 대외 여건 변화 바탕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전망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생산기술(f)과 관련해서는 R&D 및 푸드테크, 부가가치가 포함됨.

- 플랫폼, 정보제공, 스타트업/창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 및 클러스터 등의 개념도 관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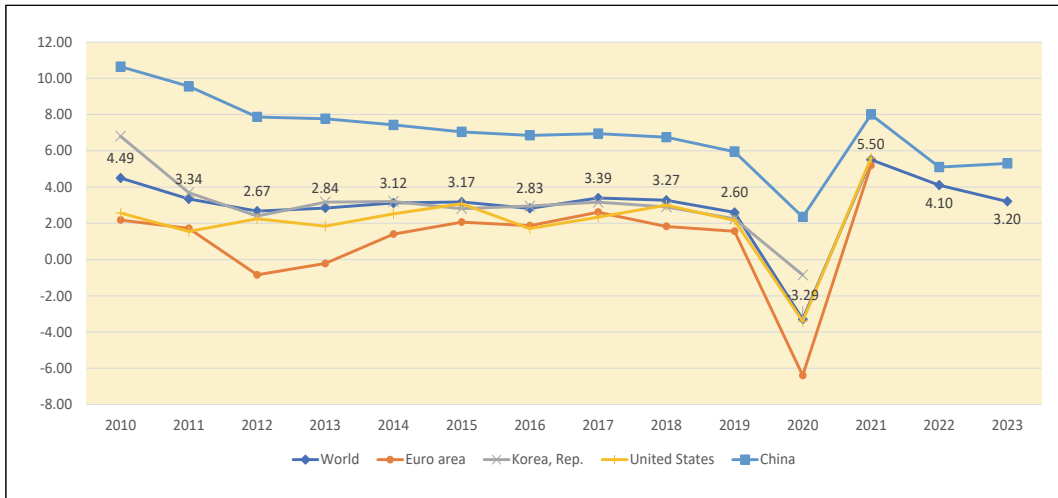
1.2. 세계 식품시장 여건 변화와 전망

1.2.1. 세계 경제성장률

○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9%로 2010년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5.5%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 세계 주요국인 유럽연합,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5.5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5-2〉 세계 경제성장률(2022년 기준)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성장률.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

1.2.2.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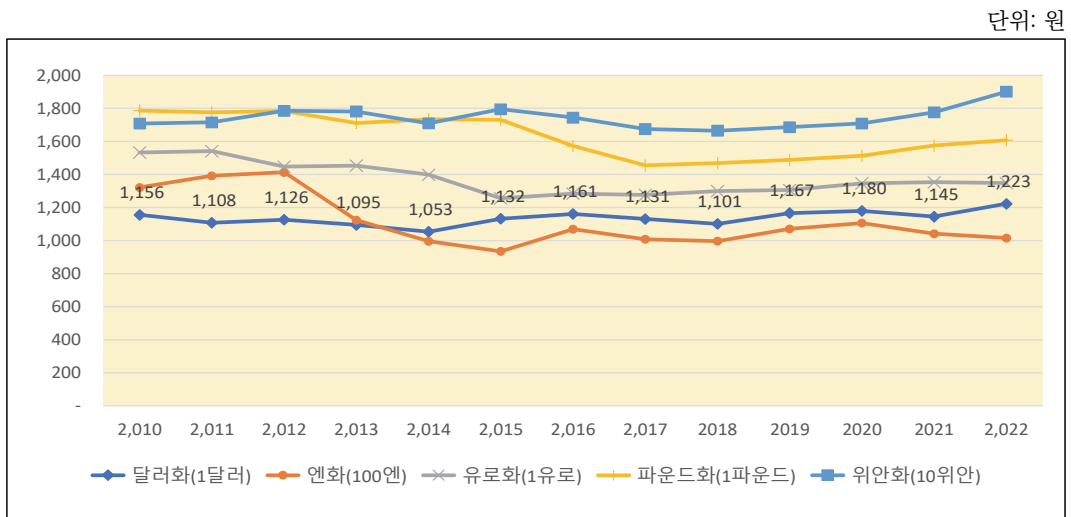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2020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1년에 상승세로 전환함.

- 2021년 원·달러 환율(평균)은 1,147원으로 전년 동기의 1,180원 대비 2.8% 하락하여 원화가치는 평가절상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으로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을 언급한 바 있음¹⁷⁾.
- 2021년 이후 엔화를 제외한 주요 통화 환율이 증가 추세임.

○ 한국무역협회의 환율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금리 차이 확대에 의한 원화 약세가 심화됨. 2022년 초 1달러당 1,189.50원으로 시작된 환율은 2022년 2분기 1,300원을 넘어 4분기에는 1,300~1,400원 내에 형성되어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FOMC를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 긴축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그림 5-3〉 주요국 환율 추이(2020.1-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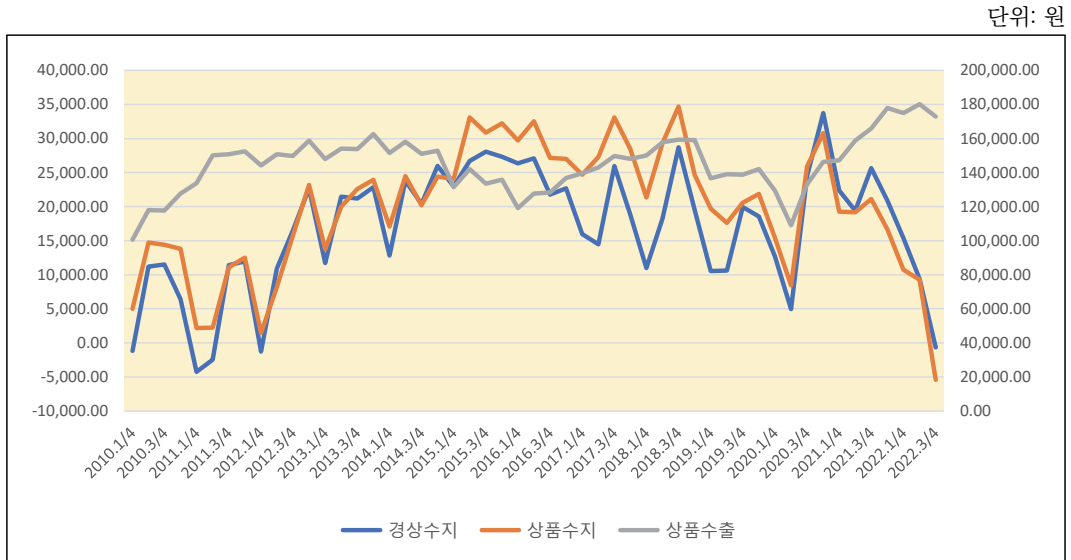
자료: 우리은행 연평균 환율(매매 기준환율)

17)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0404호)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3. 경상수지, 무역수지, 상품수출

○ 원화 약세로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2022년 3분기 악화됨.

〈그림 5-4〉 경상수지, 상품수지, 상품수출 추이(2020.1-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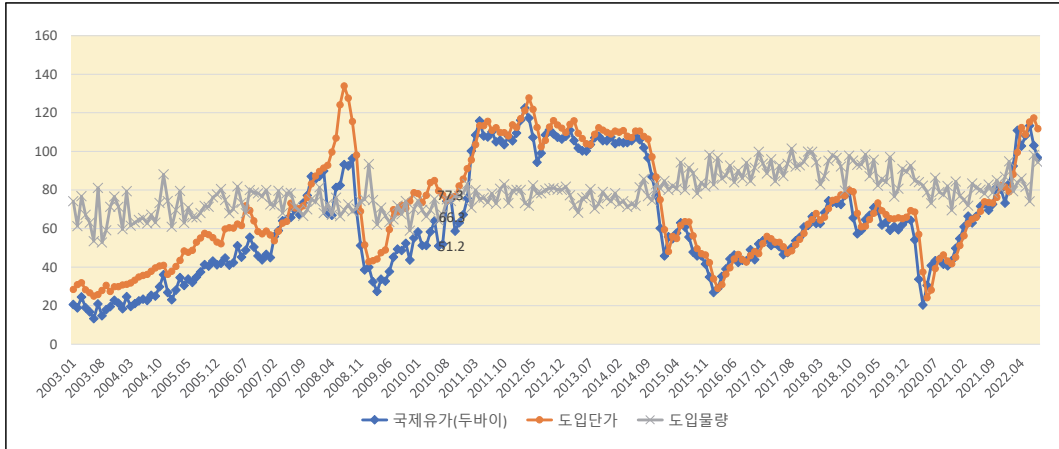
자료: 우리은행 연평균 환율(매매 기준환율)

1.2.4. 국제유가

○ 2020년 5월 이전 급감한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한 이후 2022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증가함. 2022년 7월 및 8월 원유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 식품산업이 직면하는 국제유가는 더 인상될 수 있음. 이는 국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농업생산 및 식품기업의 생산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5-5〉 월별 국제유가 추이(2015.1-2022.8)

단위: US\$/배럴, US\$/배럴, 백만 배럴



자료: 통계청 국제유가 도입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23)

1.2.5. 세계 식품산업 전망

가. 세계 식품시장 규모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시 식료품 시장이 약 4.2조 달러(전년 대비 4.25% 성장), 음료시장이 약 2.7조 달러(전년 대비 8.92% 감소)를 접하여 전체 규모가 약 7.7조 달러 수준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59%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식품시장(2020~24년)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하여 2024년에 약 9.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식료품 시장 규모는 5조 달러에 근접하며, 음료시장은 약 3.3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시장구분별)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e)	2024(e)
세계 식품 시장	7,415.3 (100.0)	7,743.2 (100.0)	7,832.3 (100.0)	7,707.6 (100.0)	8,141.9 (100.0)	8,428.7 (100.0)	8,746.5 (100.0)	9,154.4 (100.0)
식료품 시장	3,847.2 (51.9)	3,994.2 (51.6)	4,013.7 (51.2)	4,184.4 (54.3)	4,349.4 (53.4)	4,514.9 (53.6)	4,697.6 (53.7)	4,966.9 (54.3)
음료 시장	2,853.4 (38.5)	2,968.7 (38.3)	2,992.3 (35.4)	2,725.4 (36.0)	2,933.9 (36.1)	3,039.6 (36.1)	3,153.4 (36.1)	3,261.2 (35.6)
담배 시장	714.4 (9.6)	780.3 (10.1)	826.3 (10.5)	797.8 (10.4)	858.6 (10.5)	874.3 (10.4)	895.5 (10.2)	926.3 (10.1)

주: 제조업 기준임.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식품시장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태 지역, 유럽, 북미 순임. 향후(2020~24) 식품시장 증가예상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6,793억 달러, 유럽 3,180억 달러, 북미 1,935억 달러, 중동·아프리카 1,672억 달러 등임.

〈표 5-2〉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대륙별)

단위: 억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e)	2024(e)
세계	7,415.3 (100.0)	7,743.2 (100.0)	7,832.3 (100.0)	7,707.6 (100.0)	8,141.9 (100.0)	8,428.7 (100.0)	8,746.5 (100.0)	9,154.4 (100.0)
유럽	2,088.7 (28.2)	2,198.8 (28.4)	2,140.7 (27.3)	2,062.7 (26.8)	2,153.3 (26.4)	2,212.9 (26.3)	2,274.1 (26.0)	2,380.7 (26.0)
아시아, 태평양	2,832.1 (38.2)	3,031.3 (39.1)	3,138.9 (40.1)	3,125.0 (40.5)	3,330.6 (40.9)	3,470.5 (41.2)	3,628.9 (41.5)	3,804.3 (41.6)
북미	1,261.3 (17.0)	1,297.8 (16.8)	1,329.1 (17.0)	1,323.8 (17.2)	1,403.6 (17.2)	1,438.9 (17.1)	1,477.0 (16.9)	1,517.3 (16.6)
중남미	744.6 (10.0)	706.4 (9.1)	689.7 (8.8)	664.1 (8.6)	687.2 (8.4)	706.7 (8.4)	728.2 (8.3)	753.1 (8.2)
중동·아프리카	488.5 (6.6)	508.9 (6.6)	534.0 (6.8)	531.9 (6.9)	567.1 (7.0)	599.8 (7.1)	638.4 (7.3)	699.1 (7.6)

주: 제조업 기준임.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IS의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산물 및 동물 사료 품목이 제외된 STATISTA 통계자료의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정치를 일치시켜 품

목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한 결과, 2022년 기준 스낵류(19.5%), 육류(15.0%),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3.5%), 낙농품(12.5%), 채소류(11.5%), 과일 및 견과류(9.3%), 편의식품(7.0%), 영유아용 식품(3.5%), 소스 및 향신료(2.9%) 순으로 추정됨.

-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에서 소비량이 감소한 품목은 유지류(-6.0%), 스프레드 및 당류(-5.8%),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4.8%)이며, 전년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한 품목은 소스 및 향신료(8.1%), 편의식품(6.3%), 영유아용 식품(6.3%), 낙농품(6.2%), 과일 및 견과류(5.9%), 육류(5.8%), 채소류(5.6%)로 분석됨.

○ 추정된 2020년~2024년 연평균 증감률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는 품목은 세계 인구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관련된 식품, 간편식품으로, 전체 식품 연평균증감률인 4.4% 대비 높은 유아용 식품(5.4%), 낙농품(5.3%), 편의식품(5.0%) 및 육류(5.0%), 과일 및 견과류(4.8%), 채소류(4.7%) 등이 유망 품목으로 추정됨.

〈표 5-3〉 세계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구분	2020	2021	2022(e)	2023(e)	2024(e)	비중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21-22)	연평균 증감률 (20-24)
	전체	7,708	8,142	8,429	8,747	9,154	100.0%	3.5%	4.4%
1	스낵류	1,509	1,573	1,648	1,658	1,714	19.5%	4.8%	3.2%
2	육류	1,140	1,198	1,267	1,315	1,383	15.0%	5.8%	5.0%
3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29	1,198	1,141	1,264	1,324	13.5%	-4.8%	4.1%
4	낙농품	934	995	1,056	1,092	1,149	12.5%	6.2%	5.3%
5	채소류	868	920	972	991	1,042	11.5%	5.6%	4.7%
6	과일 및 견과류	695	738	782	799	838	9.3%	5.9%	4.8%
7	편의식품	521	556	591	607	633	7.0%	6.3%	5.0%
8	영유아용 식품	261	278	296	303	321	3.5%	6.3%	5.4%
9	소스 및 향신료	217	225	243	243	253	2.9%	8.1%	3.9%
10	스프레드 및 당류	217	235	222	243	253	2.6%	-5.8%	3.9%
11	유지류	217	225	211	233	243	2.5%	-6.0%	2.9%

주: 수산물 및 동물사료가 제외된 STATISTA 통계자료(2022년 7월 기준)와 aT FIS 전 세계 식품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글로벌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 거래 형태별 세계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오프라인 시장(84.6%), 온라인 시장(15.4%)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증감률 추정치(2020~2024)를 고려하면 전

자상거래(18.8%) 및 배달 식품(18.8%)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17.3%)이 오프라인 시장(2.3%)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5-4〉 거래 형태별 글로벌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e)	2023(e)	2024(e)	비중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21-22)	연평균 증감률 (20-24)
전체 시장(A+B)	7,708	8,142	8,429	8,747	9,154	100.0%	3.5%	4.4%
오프라인 시장(A)	6,796	6,901	7,130	7,230	7,431	84.6%	3.3%	2.3%
온라인 시장(B)	912	1,241	1,299	1,517	1,724	15.4%	4.7%	17.3%
배달 식품	565	770	813	920	1,032	9.6%	5.6%	16.3%
전자상거래	347	471	486	597	691	5.8%	3.2%	18.8%

주: 수산물 및 동물사료가 제외된 STATISTA 통계자료(2022년 11월 기준)와 aT FIS 전 세계 식품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글로벌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나. 세계시장에서 ESG 요구 심화

○ 해외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ESG 공시와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투자자 및 시장경쟁자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압박¹⁸⁾과 이를 제도화려는 각국의 움직임 심화로 연결됨.
- 공급망에 대한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위험 및 공급망 선정과정에서 배제 위험 가중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ESG 관련 기업 정보 공시 의무화는 2015년을 전후하여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중임.
- (각국 연기금) 일본은 positive screening, 노르웨이는 negative screening 방식으로 기업의 ESG 공시와 활동 강조
- Tyson Foods (1935년~ 미국, Sara Lee 등 브랜드 보유 다국적 포장식품기업)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회사의 정보공개정책, 노동조건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이유로 경영진 선임에 반대표 행사

¹⁸⁾ Ibid. p.10.

- Danone (1919~ 프랑스, evian 등 브랜드 보유 다국적 식음료 기업), 프랑스 내 entreprise a mission(사회적 책임기업) 급 내규 개정 추진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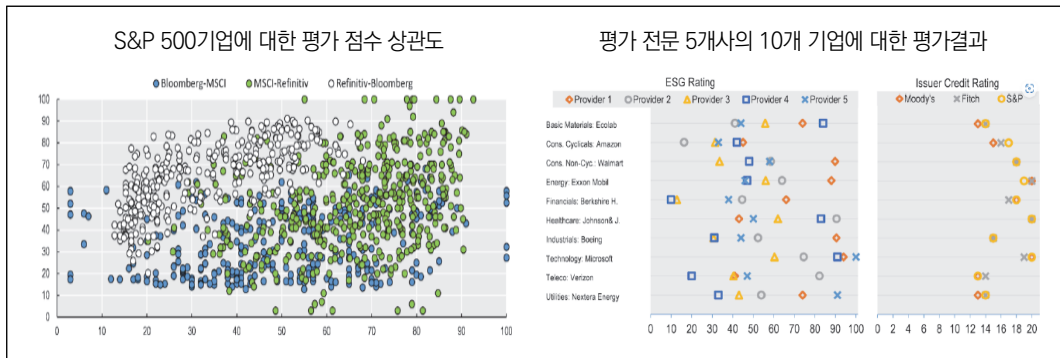
〈표 5-5〉 국가별 환경 및 ESG 관련 기업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황

지역	국가	시행년도	지역	국가	시행년도
아시아	중국	2008	유럽	오스트리아	2016
	홍콩	2016		프랑스	2003
	인도네시아	2012		독일	2016
	말레이시아	2007		헝가리	2016
	필리핀	2011		아일랜드	2016
	싱가포르	2016		이탈리아	2016
	호주	2003		네덜란드	2016
	파키스탄	2009		폴란드	2016
	인도	2015		슬로베니아	2015
중남미	칠레	2015		스페인	2012
	페루	2016		영국	2013
	아르헨티나	2008		아프리카	남아공

자료: 이연우(2022)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쟁점분석과 적용포인트
 (https://www.bkl.co.kr/lawData/itemUrl.do?itemNo=810, 접속일: 2022.09.20.)

○ ESG 평가의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평가기관 및 체계에 따라 평가 결과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준이 변하거나 가중치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OECD 2020).

〈그림 5-6〉 측정방식에 따른 상이한 평가결과



자료: 이계임 외(2023, 발간예정); OECD (2020)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20

○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ESG 달성(디지털역량과 지속가능성 등의 이름으로)에
관련한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

- 폐기물, 탄소배출 등 다양한 측정을 통한 증감의사결정,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이슈의 해결, 공정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
- 클라우드 지원 데이터 플랫폼, AI등을 활용한 디지털 지원 에너지 컨트롤 타워 등의
개발과 보급 등

다. 미국의 유망 식품산업

○ 미국은 기후 위기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건강식품과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관련된 품목이 유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품이자 식
품 폐기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과 업사이클(up-
cycle) 식품¹⁹⁾이 유행하는 등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식품시장이 재편되고 있음.

- 미국 식물기반 식품협회(Plant based foods association, PBFA)는 2021년 식물성
고기와 우유 매출액은 2018년 이후 74%, 33% 상승하였다고 분석함.
- Gardein, Beyond Meat, Tyson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였고, 델
몬트는 업사이클된 재료로 만들어진 통조림 제품, 과일주스 등을 출시함. 2022년 7
월 미국 농무부에서 학교 급식의 나트륨 함량을 10% 줄이는 ‘우유, 통곡물 및 나트륨
에 대한 표준’을 시행함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북미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10억 2,920만 달러로 추정되
며, 2027년까지 연평균 7.9%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됨(aT, 북미 식품시장 2022년 분
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라. 유럽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큰 이슈

○ EU EIT는 코로나19 이후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함. 유럽의 2021
년의 식품 5대 트렌드는 건강, 편리성&기술, 대체단백질, 지속가능성 및 폐기물 감소,

¹⁹⁾ 소비되지 않고 폐기되었을 재료 중, 검증 가능한 공급망에서 제조된 식품을 의미함.

새로운 맛과 경험이며, 2022년 유럽의 식품 트렌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 재생 농업, 대체 단백질, 젊은 사람들, 친환경 라벨링임.

- 코로나19 이후 맞춤형 영양, 맞춤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편의성과 기술 중심의 대체 단백질 등의 식품생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속가능성과 폐기물 감소 노력은 유럽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맛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22년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큰 이슈로 지목되었고, 재생 농업, 대체 단백질 및 친환경적인 라벨링과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요 식품산업 이슈로 떠오름.

〈그림 5-7〉 유럽의 2021-2022 식품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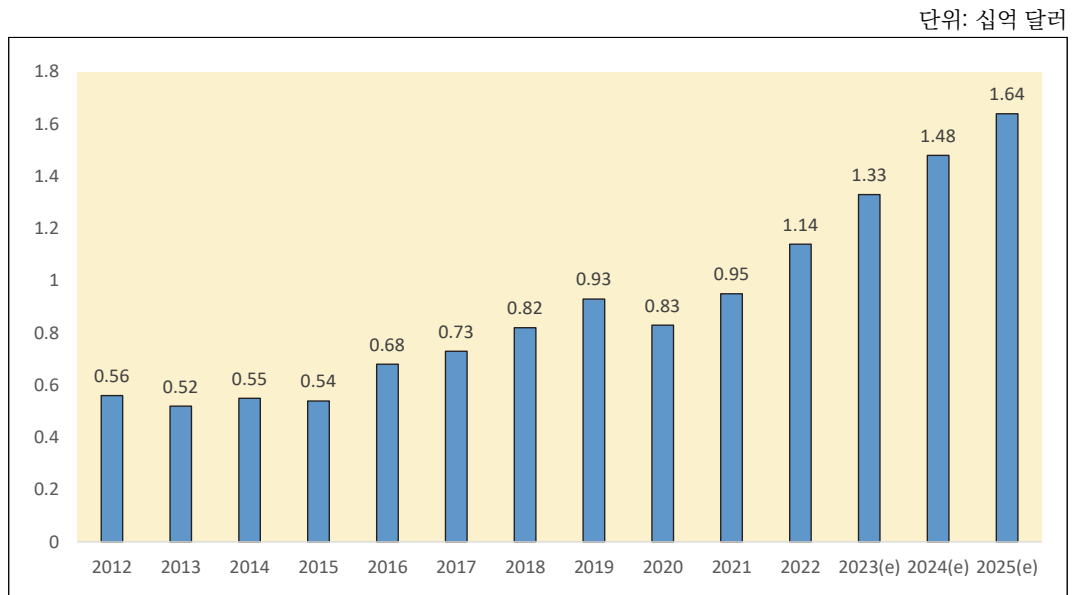
자료: EIT Food

마. 일본은 간편식 및 건강음료 시장이 성장

-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레스토랑의 맛을 낼 수 있고 외식 대비 저렴한 고품질 가정간편식과 건강 및 식이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기능성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일본 가정간편식 시장은 10조 엔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5만 원 이상의 HMR 제품이 출시됨(aT, 일본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일본 내 건강 및 미용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는 기능성 음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식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한국산 식초의 수출액은 2020년 38,592천 달러에서 2021년 54,753천 달러로 증가함.

- 무알콜 맥주를 중심으로 등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2022년 기준 일본의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11억 4,000만 달러 규모로, 2023년 13억 4,000만 달러로 1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8〉 일본 무알코올 맥주 매출액 추이



자료: aT, 일본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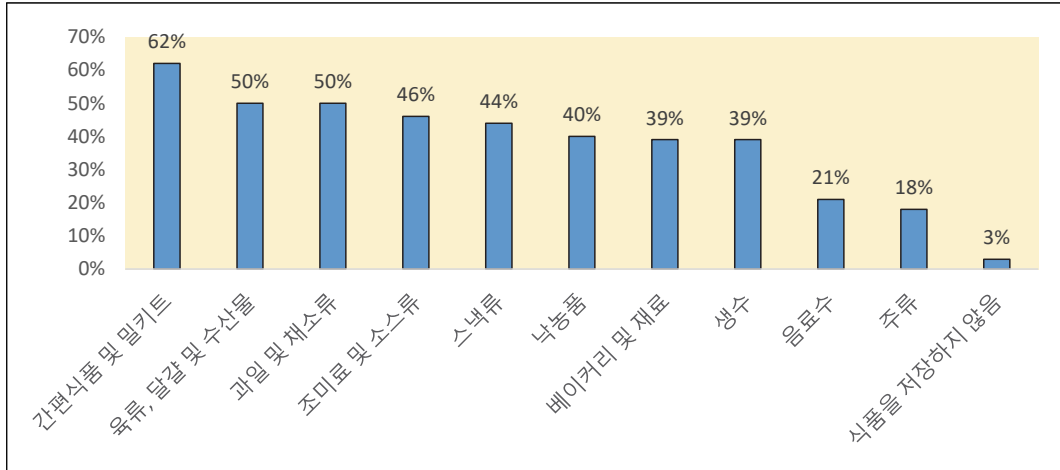
바. 중국은 간편식품 및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

○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로 간편식품 및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하였고, 외식에 대한 제약에 따라 고급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을 위주로 성장하고 있음. 동시에 인스턴트 면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1200명의 중국 소비자 중 62%가 지난 3개월 동안 간편식품 및 밀키트 제품을 소비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중국 밀키트 배달 시장은 2020년 166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2027년 499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스턴트 면 제품 매출액은 ('21) 145.5억 달러에서 ('25) 166.6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9〉 중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T, 중국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중국 소비 트렌드는 자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중국 내 방역 관련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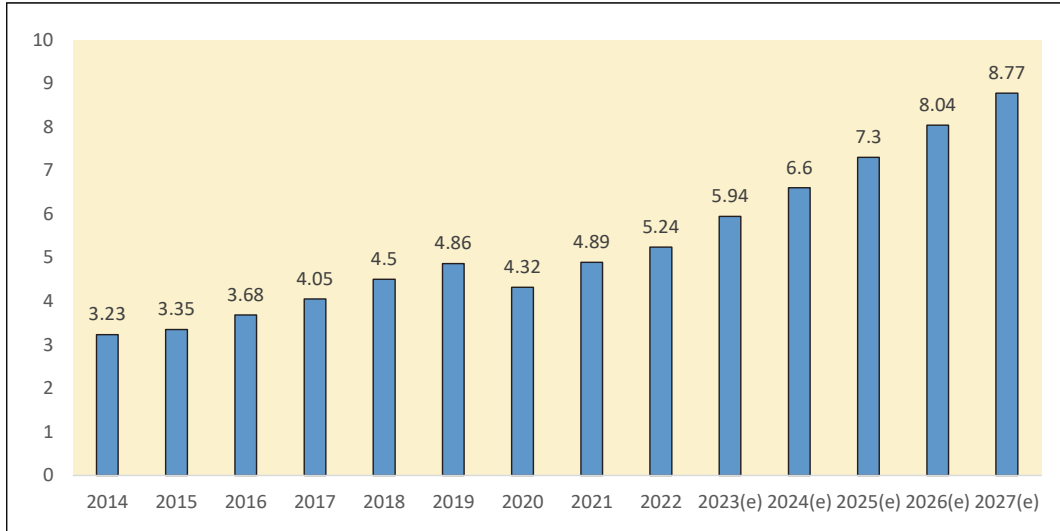
사. 아세안 국가에서는 커피 및 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식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강 관심도 증대 등으로 발효음료 등 기능성 음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맛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서 음식 성분을 고려하는 소비로 변화가 관찰됨. 이에 따라 저당 및 저탄수화물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커피 및 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aT, 아세안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태국의 흑생강 음료 등 간편하게 발효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발효음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
- 베트남 소비자의 27%(전체 소비자 대상)~67%(Z 세대 대상)가 식품 섭취 전 영양 성분을 확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Brand Vietnam, Decision Lab)
- 태국은 2022년 11월 포장된 가공식품의 표시 언어, 성분,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고, 베트남은 2022년 1월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강화를 발표함.

〈그림 5-10〉 아세안 시장 커피 및 차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T (2022).

○ 한국산 식품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대 아세안 라면 수출액은 2022년 10월 기준 1.9억 달러 규모이며, 식품 유튜버의 한국산 식품 리뷰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라면류뿐만 아니라 스낵류, 스낵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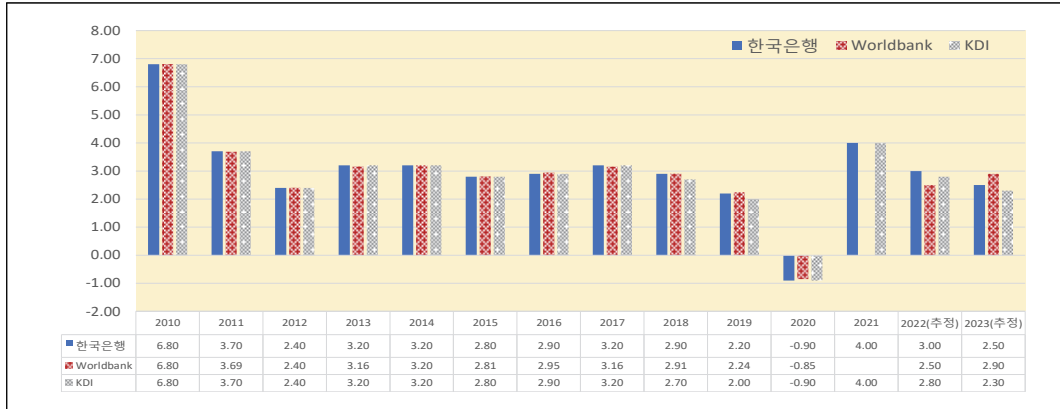
1.3. 국내 식품시장 여건 변화와 전망

1.3.1. 경제성장률

○ 연도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GDP)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2~3% 대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함. 2021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IMF는 대한민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2.5%, 2023년에는 2.9% 수준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5-11〉 대한민국 경제성장률(2010-2021)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2022-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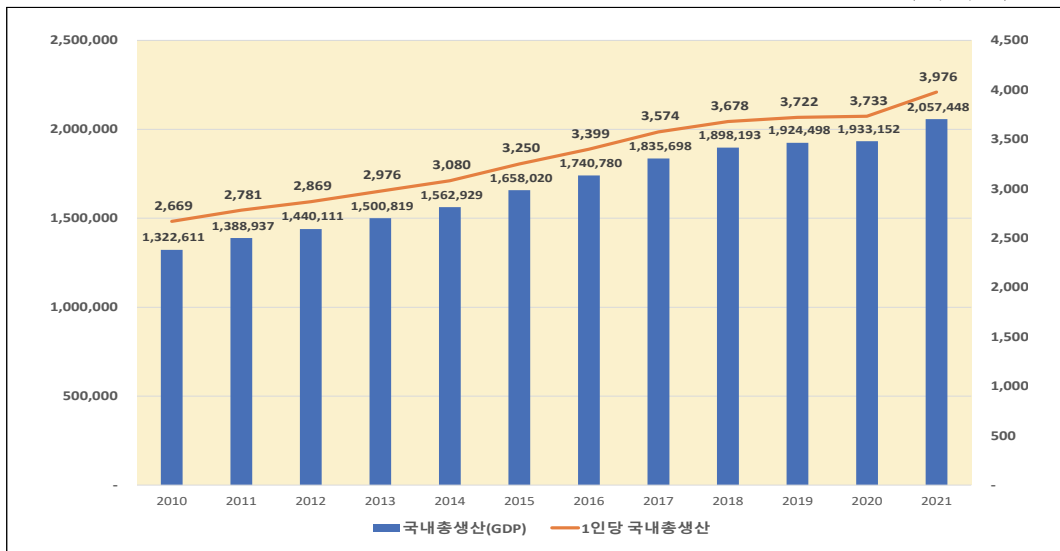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2.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IMF. 2022.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

1.3.2. 국내총생산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21년 기준 3,976만 원으로 4,000만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그림 5-12〉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내총생산(2010-2021)

단위: 십억 원,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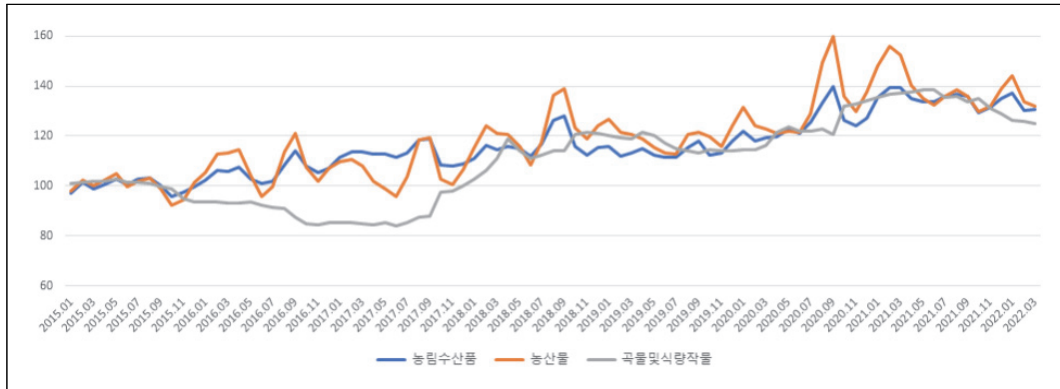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간지표(국내총생산)

1.3.3. 생산자물가

○ 국제곡물가격,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급등하는 추세임.

〈그림 5-13〉 대한민국 월별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2015.1-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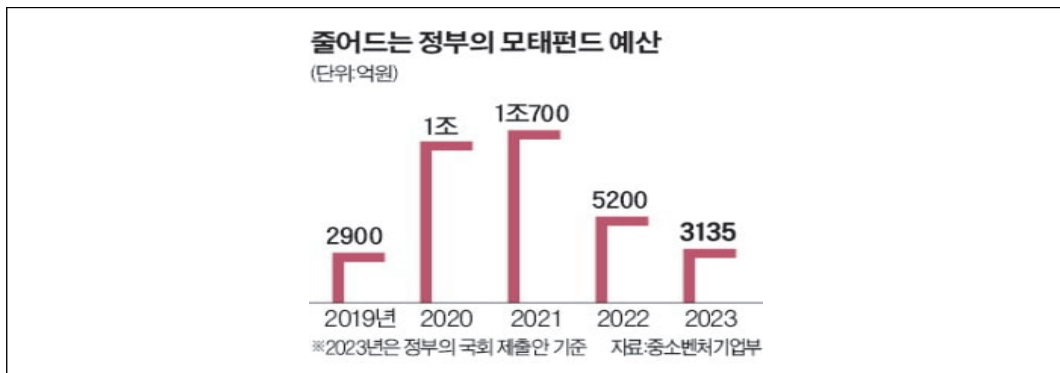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월별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

1.3.4. 모태펀드 축소

○ 정부 모태펀드 예산은 2023년 3,135억 원으로 2020년 1조 원 대비 68.7% 감소함. 모태펀드의 축소는 식품 벤처기업이 자금 확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요인임.

〈그림 5-14〉 모태펀드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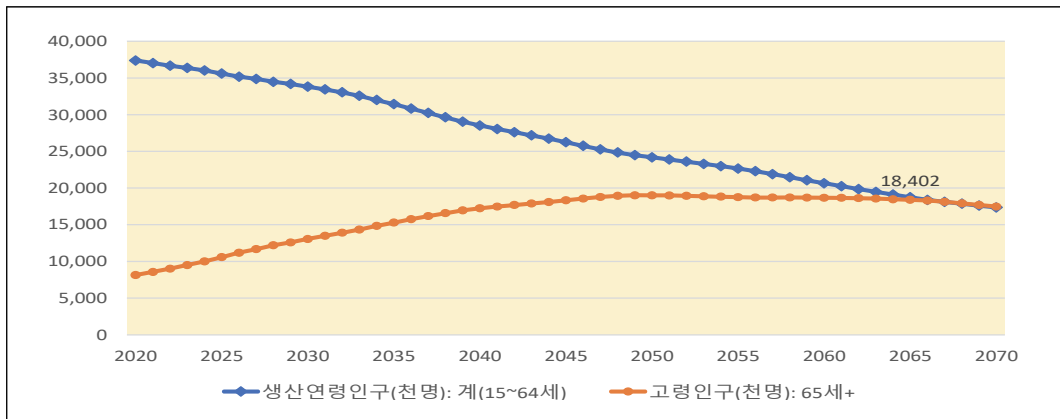


자료: 한국경제신문. 2022.08.31. “정부, 모태펀드 결국 삭감...벤처 한파 거세지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3116991>, 검색일: 2022. 09. 05.)

1.3.5.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산율이 저하(0.92 → 0.84)하고 사망률은 상승(574.8 → 593.9)해 2020년 총인구는 전년보다 0.1%(49,933명) 증가함.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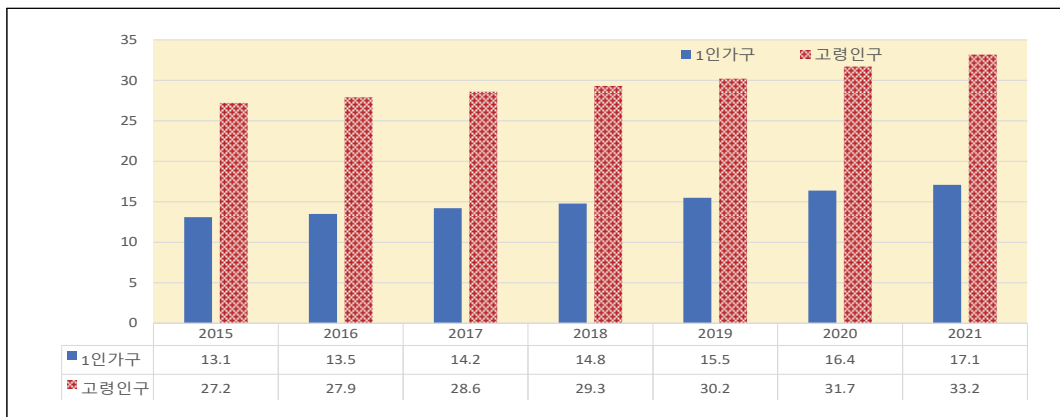
〈그림 5-15〉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9% → 15.7%로 상승하였고, 1인 가구 비중은 30.2% → 31.7%로 상승함.

〈그림 5-16〉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중 추이



주: 2021년 1인 가구 비율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고령인구비율(2010~2021), 통계청 1인가구비율(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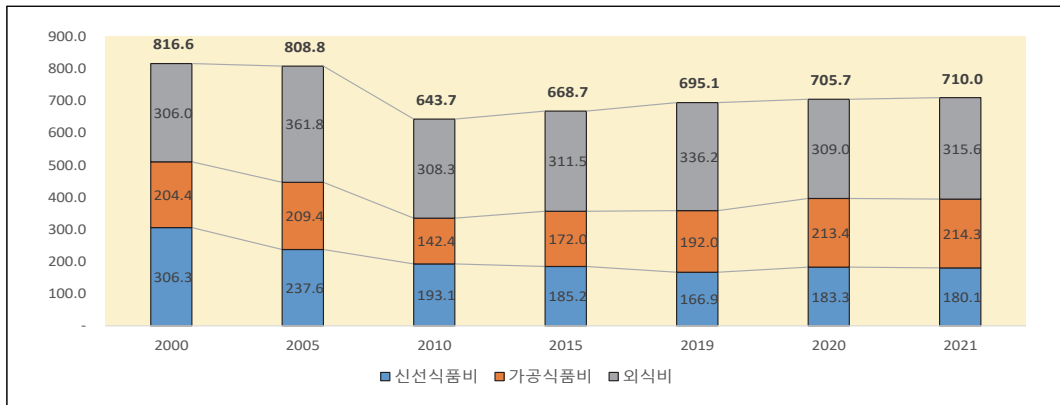
1.3.6. 국내 식품소비트렌드 변화

○ 2010년 이후 가구의 실질 식품비 지출액 추이를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신선식품 지출액은 감소하고 가공식품 및 외식 지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구의 월평균 실질 신선식품 지출액은 2010년 237.6천 원에서 2021년 180.1천 원으로 감소
- 가구의 월평균 실질 가공식품 지출액은 2010년 142.4천 원에서 2021년 214.3천 원으로 크게 증가
- 가구의 월평균 실질 외식비는 2010년 308.3천 원에서 2021년 315.6천 원으로 소폭 증가

〈그림 5-17〉 연도별 가구 내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 추이(실질)

단위: 천 원



주: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신선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질 지출액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2000-2021) 및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2000-2021)를 분석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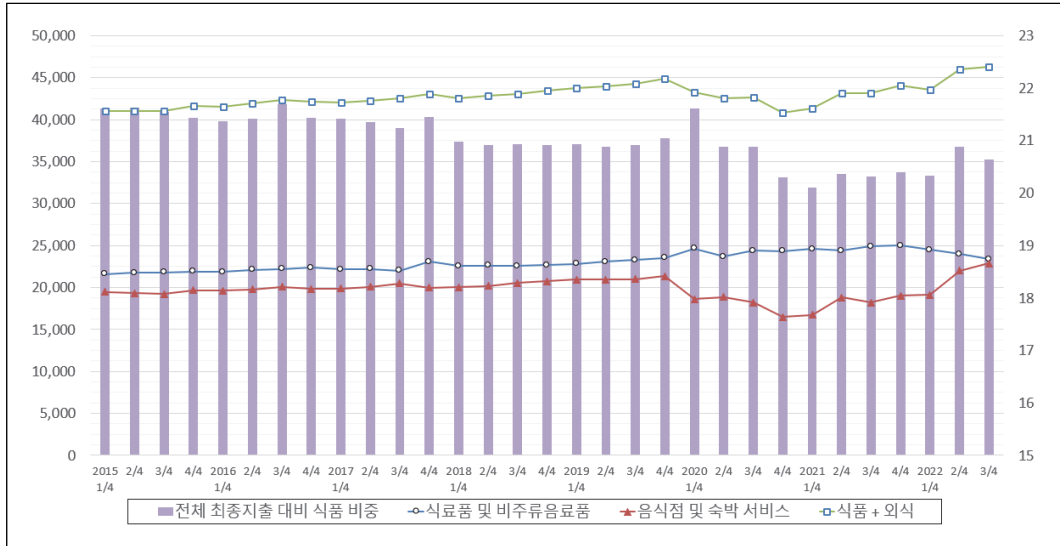
○ 최근 가구 내 식품비 지출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월평균 총 식품 지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기별 월평균 총 식품 지출액은 '22년 1~3분기 135.9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

- 2022년 3분기 식품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3%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년 하반기 수준을 크게 상회함.

〈그림 5-18〉 식품 및 외식 실질 지출액 분기별 추이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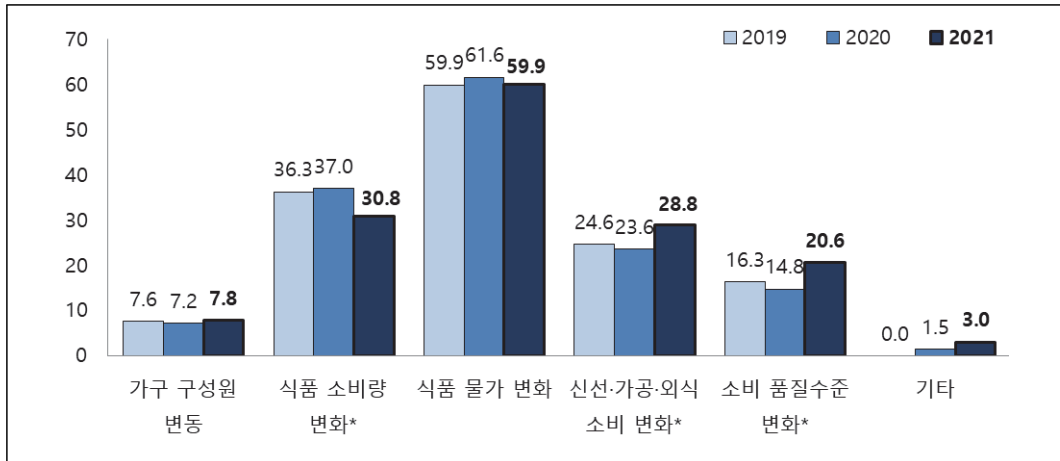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목할 점은 2021년에는 식품 소비량 변화 때문에 지출액을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감소한 것과 반대로 소비 품질수준 변화와 신선·가공·외식 소비 변화로 인해 지출액이 달라졌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생활의 고급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 이는 식품 주구입자들의 응답에 근거한 것으로, 식품이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재화임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에 의해 식품비 지출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전년 대비 체감 장바구니 물가 수준을 설문한 결과,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1.6%에 달함.

〈그림 5-19〉 전년 대비 식품소비 지출액 변화 이유

단위: %



자료: 이계임 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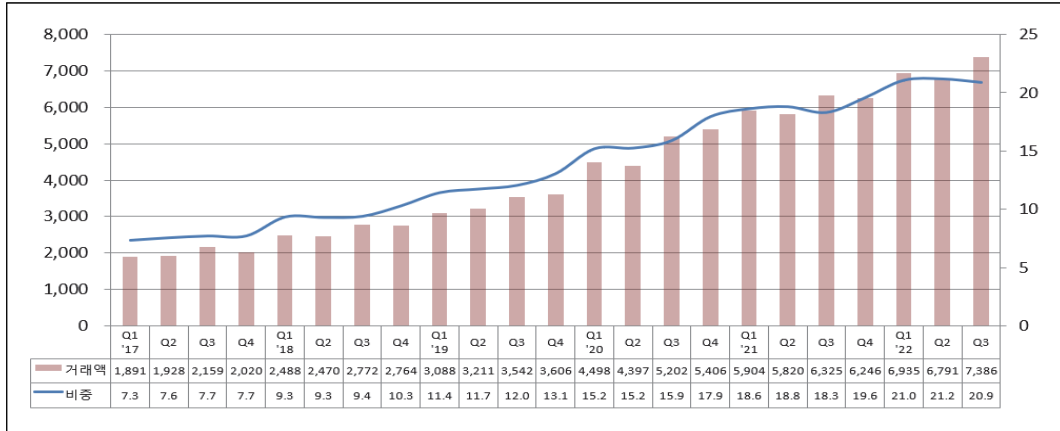
○ COVID-19의 여파로 외부활동이 축소되고, 개인별 취향과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하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를 키워드로 하는 소비트렌드인 ‘미코노미 (MEco-nomy)’가 급부상하고 있음.

○ 온라인 식품 판매액(거래액)의 경우, 2017년 1분기 1조 9천억 원에서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2년 3분기의 경우 7조 4천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함.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식품 소매판매에서 판매하는 비중은 2017년 1분기 7.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4분기 기준 17.9%까지 상승하였고, 2022년 3분기에는 약 21%를 기록함.

〈그림 5-20〉 온라인 식품 판매액과 소매판매액 대비 비중 추이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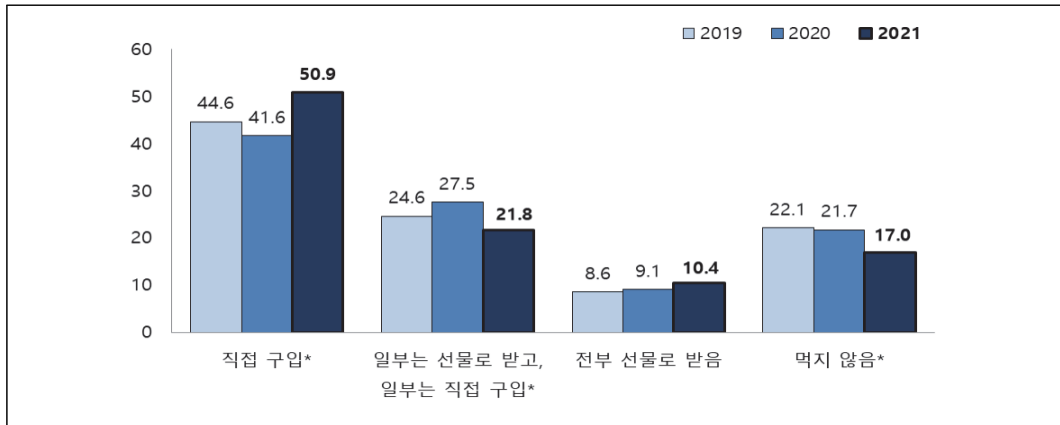


자료: 이계임 외(2023, 발간예정);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소매판매액),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온라인 식품 판매액)

○ 코로나19 이후 기능성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기능성식품을 먹지 않는 응답자는 2019년 22.1%에서 2022년 17.0%로 감소함.

〈그림 5-21〉 기능성식품 취식 여부 및 조달 방식

단위: %



자료: 이계임 외(2021)

○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이 급증하는 등 소비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됨(김상효 외, 2020). 또한,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변화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품 시장 환경 조성을 선도할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1.3.7. 국내 식품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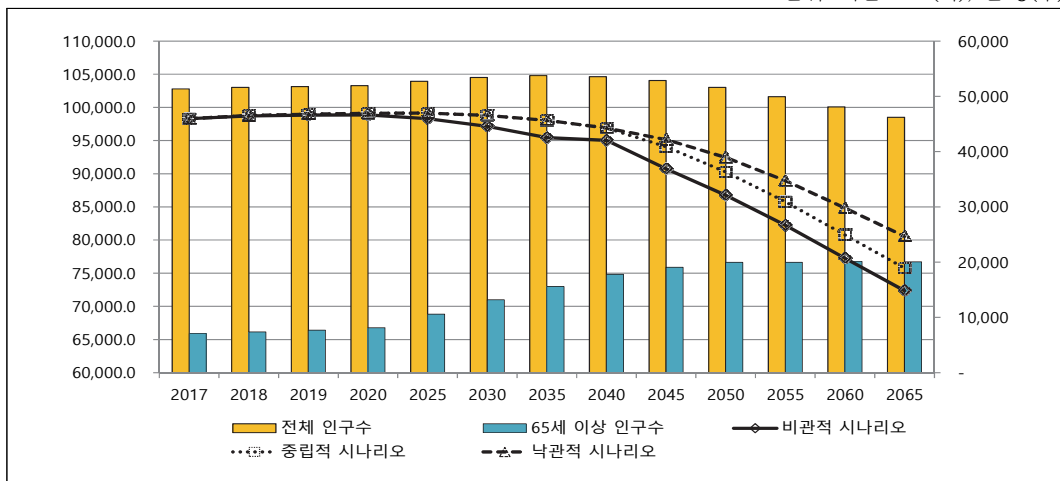
가. 국내 식품시장 총수요

○ 김상효 외 (2020)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식품 총수요가 감소하는 식품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1인 가구 비중도 2020년 30.3%에서 2025년 3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김상효 외(2020)는 중립적인 식품 절벽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0년 100% 대비 2060년 국민들의 칼로리 총 섭취량은 약 81.5%, 2065년에는 76.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그림 5-22〉 우리나라 전체 칼로리 섭취량 전망(인구절벽 및 식품절벽)

단위: 백만 kcal(좌), 천 명(우)



자료: 김상효 외(2020)

나. 식품산업 노동력 수급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함께 출산률의 저하, 총 인구 증가폭의 감소, 사회의 고령화가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675천 명 → 2027년 34,867 → 2032년 33,040으로 감소 전망

-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17.1%를 달성하였고,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이 종료되는 2027년에는 11,670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

○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의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 수는 2017년 287개에서 2022년 313개로 증가하였으나 졸업자 수는 2017년 7,393 명에서 2020년 8,550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8,268 명으로 감소함.

- 2021년 분기별 1.5~1.9% 내외의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부족율은 2022년 2분기 3.4%를 기록

○ 이에 따라 생산인력과 고급 연구인력 양 측면에서 인력 수급 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 식품업체 의견에 따르면 단순 생산직 수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식품제조업 가공 및 생산직 부족률은 2022년 2분기 5.5%를 기록함.
- 인력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정원이 2017년 172,221명에서 2023년 140,125명으로 감소함.
-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 갈 고급 R&D 인력 수급을 위해 타 분야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나, 식품 분야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기업 ESG 도입 확대에 따라 중소식품기업의 거버넌스 확보 과정에서 노동 대체 이슈와 고용 감소 이슈가 예상됨.
- 특히,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단순가공업체들임. 영세 가공업체들은 연간 공장 가동 일수가 수개월에 그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짧은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낮아 인력의 전문성 또는 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향후 타 산업 대비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임금 등)을 제공해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타 산업 대비 높은 임금수준을 제공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식품산업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가가치의 유의미한 증대 없이 타 산업 대비 임금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푸드테크의 등장과 식품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적용으로 노동 수요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 단순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과 무인화 설비(키오스크 등)의 개발·보급으로 식품산업 전 영역에서 노동 총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다. 식품업체 자금지원 및 융자 정책의 중요성 증대

○ 러·우 전쟁, 국제유가 및 식품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식품업체의 자본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은 완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금융 정책 여파로 원화가치 하락 지속 전망, 내년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3.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2분기 기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2.5% 내외(한국은행, 월드뱅크, KDI)
- 한국은행 연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2010년 이래 최저치인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 11월 3.25%로 급등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식품 분야 수출기업은 K-Food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수 위주의 영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 등 자본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110억 달러를 상회

○ 식품산업체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등 타 부처 자금 및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확대 등

○ 식품분야에 도입되는 ESG 경영은 투자를 통한 자본 확보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액은 2015년 6.9조 원에서 2019년 32.2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ESG 실천 노력에 따른 책임투자 기회 확대 전망
- 장기적으로는 단순 책임투자 기회 확대를 넘어 책임투자에서의 ESG 준수의 의무화가 전망됨.

라. 식품산업 전 분야 푸드테크 도입 가속화

○ 푸드테크는 식품제조, 외식, 유통, 소비, 관련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산업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식품제조 분야에서는 대체식품, 맞춤형 특수식품 등 미래유망식품 시장 성장
- 식품제조 분야 식품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로봇 기술 등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 안전관리에 이르는 식품제조업 전후방산업 사슬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의 도입 가속화 전망
- 외식분야 주방·서빙·주문·배달 등 전 분야에서의 자동화가 가능한 기술 보급이 이뤄지는 단계
- 온라인 식품 시장 확대와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식품외식시장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것임.

○ 푸드테크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25년 3,6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도 약 9.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식물기반 대체식품 산업의 경우 추정 기관에 따라 9.0~18.6%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
- 배양육 시장은 2026년까지 7.2%, 2032년까지 15.7%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가공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도 중요함.

- 국내시장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 동물성 대체식품의 시장은 형성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함.

○ 푸드테크의 식품분야 도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후방산업인 농업과의 동반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임.

- 식품기업은 대체식품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상품개발과 자동화·로봇화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스마트기기를 통한 주문 및 결제, 자동 주문서 발급, 정확한 배달 등으로 원가 절감, 시간 절약 등 효율성 재고와 경영혁신 실현 차원에서 푸드테크를 활용가능함.
- 산업 측면에서는 4차산업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래식품 관련 성장산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식품 융복합 등 새로운 학문적 영역 개척으로 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 기회 제공할 수 있음.
- 소비자 관점에서 푸드테크의 도입은 대체식품/메디푸드/고령친화식품 등 개인 맞춤형 식품 섭취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로 건강 증진, 온라인 주문·결제와 원하는 시간 배달 등으로 식품구매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가, ICT 및 블록체인 기술 등 과학 기반 식품안전 관리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안심 욕구 충족, 식품 주문/배달/검색/추천 관련 앱 등의 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 소비 구매 욕구 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대체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량 부족 문제 해결과 식량안보 강화, 식물기반 대체육 및 배양육 등 대체식품의 공급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 가축사육 두수 감소 및 음식물쓰레기의 과학적 처리 등을 통해 저탄소 및 탄소 중립 국가 발전전략에 기여, 푸드테크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 견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마. 데이터 기반 경영의 중요성 대두

○ 맞춤형 정보 기반 경영 활동의 중요성 증대 전망

- 개인 맞춤형 소비, 정보 기반 경영진단 등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임.

- 유사 업종 및 유사 규모 업체 평균 및 비교를 통한 업체 맞춤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활동 전개로 효율화 노력 필요
-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 및 소비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함.

○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경영자 및 식품산업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반 마련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 aT,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 데이터 등 분야별 필수 자료는 구축되어 있음.
- 통계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지만, 시의성이 높은 민간 자료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유통, 소비트렌드, 기업 재무, 수출입 관련 자료 등을 다루는 민간 기업 중, 공공성을 갖는 aT, 소비자원을 제외하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반대로, 접근성이 높은 정부 통계자료는 데이터의 수집과 발표 사이의 시차가 길어 시의성이 떨어짐.
- 따라서, 식품산업 내 전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는 정보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바. 한류 통한 k-food의 수출 증대

○ 한류 문화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수출액, 수출품목, 수출 대상국 측면에서 호조 전망

- 2021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21년 110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2년 잠정 수출액은 121.6조 원에 육박함.
- 수출 품목은 참치, 라면, 김을 중심으로 점차 가공도가 높은 제품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떡볶이, 라면 등 가공도가 낮은 품목뿐만 아니라 미래유망식품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육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7년간 수출 상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으로 기존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신북방, 신남방, 유럽 시장 등 신시장 개척의 기회 존재

- 향후 인구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중동, 인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사. 식품소비 온라인화와 ‘미코노미’ 트렌드 확대

- 향후 식품소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간편식 등 푸드테크의 발전과 함께 미코노미 트렌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가구 내 외식 비중은 2019년 50%에 근접(49.7%)한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감소하였으나,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외식 소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기간 정착된 비대면 선호 문화는 식품 소비의 온라인화를 촉진하였고,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향후 온라인 식품 소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가정간편식, 기능성식품 소비 확대 등 나를 위한, 나에게 맞춘 소비를 추구하는 ‘미코노미 트렌드’가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과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아. 식품산업 ESG 경영의 도입 의무화

-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2021.01.14.)하고 자산총액 기준 의무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
 - 2026년까지 전 코스피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
 - 2026년에는 자산총액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도 의무화 계획임.
 -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재무적 정량지표들이 기준이었다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비재무적’ 정성 지표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뿐만 아니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맞추어 ESG 공시 도입을 준비 중임.

-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1월 복잡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ESG 정보공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발표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2021.01.14.) 안에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포함
- 기존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의 G에 해당하는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 6대 환경목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됨(환경부, 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 규칙’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적 평가기준을 법제화하지는 않은 상태임.

- 실제로 환경부는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이해관계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은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표 5-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개념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원칙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자료: 환경부(202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농식품 관련 녹색경제활동에는 저탄소 농업과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2가지임. 더욱이, 식품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활동에 포함된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이 유일함(아래 표 참고). 따라서, 기존의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 중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식품산업을 통해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차기 가이드라인에 식품산업 관련 활동이 다수 포함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이 ESG, 탄소노미, 지속가능발전목표,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기준에 맞춰나갈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색 자금의 유입을 견인하고, 식품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표 5-7〉 식품산업 관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대체가공식품 제조 활동)

① 활동기준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input type="checkbox"/>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input type="checkbox"/>

주: 배제기준에 제시된 '붙임' 자료는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을 의미하며, 해당 붙임자료에는 6대 환경목표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자료: 환경부(2021).

2.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응 전략 도출(SWOT 분석)

2.1. '식품산업 진흥'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식별

- '식품산업 진흥'의 구조화를 바탕으로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진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관련된 현안을 도출하고 분석하여야 함.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 및 전망에서 다른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둘러싼 이슈들을 요약하여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으로 식별하였음.

2.1.1. 강점 (Strengths)

-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역량 보유
 - 식품산업은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 2020년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취업자(임금근로자) 수 증가 추세
- 농식품 수출 호조와 신 수출시장 개척
 - 국내 농식품 수출 및 수출액은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수출액의 경우 2020년 7,564백만 달러에서 2021년 8,558백만 달러로 소폭 증가
 - 일본, 중국, 미국의 기존 주요 수출시장에 더하여 베트남,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 연구기관·민간 중심 R&D 활성화

- 푸드테크 관련 화두인 식물성대체식품의 연구수행주체별 수행비중을 보면 대학이 66%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2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식품산업분야 민간 R&D는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 미래유망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가 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연구 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음.
- 기업지원시설은 비즈니스지원, 기술지원, 시제품생산, 창업지원, 원료중계, 식품제형 분야에 걸쳐 12개 시설로 구성됨.

○ 식품산업 분야별 지원 정책 마련

- 식품산업진흥계획, 외식산업진흥계획, 김치산업진흥계획, 전통주산업진흥계획 등 각 분야별 기본법과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식품산업 진흥 관련 관심이 높음을 의미하며, 관련 정책적 투자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특히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사전적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 푸드테크 발전방안의 선제적 수립이 이루어짐.

○ 식품산업 분야별 통계 구축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정보분석 전담기관 등 식품산업과 관련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음.
- 접근성은 공공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나쁘지만, 활용가능한 민간 통계 자료가 구축되어 있음.

2.1.2. 약점(Weaknesses)

○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경영 안정성

- 4인 이하 영세업체 비중이 약 80%, 5~9인 사업체(12.6%) 및 10~49인 사업체(7.7%)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다수임.
- 음료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증대되었으나, 2010년 대비 2020년 식료품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8% 감소
- 중소 식료품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지 못함.
- 식품제조업 폐업 업체수의 증가: ('19) 3,329개 → ('20) 3,524개

○ 농식품 수출에서의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최근 5년간 상위 4개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전체 농식품 수출 금액의 57.6%를 차지
- 최근 5년간 상위 5개 수출 품목은 라면, 김, 참치, 음료, 커피조제품
- 기존 수출국 내에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나,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 및 신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

○ 낮은 국산 농산물 이용률

- 국산 원재료 이용 비중은 2021년 31.9% 수준

○ 푸드테크 관련 기초 R&D 부족

- HMR, 포장재, 기능성식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R&D 투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식품에 대한 기초연구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식단 개인화 부문, 친환경 패키징, 생물학적 보존법 관련 역량 제고 필요
- 자동화 및 로봇 분야는 조리로봇, 주방보조로봇, 서빙로봇을 중심으로 성장 역량 보유

- 식품기업 및 음료제조업 모두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R&D 비중이 높아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통계분야 혁신 인프라 부족

- 식품산업 분야별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으나 신산업 및 미래유망식품 관련 통계 체계 재편이 미흡
- 정보 수요자가 쉽게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

○ 낮은 ESG 경영 도입률

- 2022년 기준 전체 775개 ESG 평가 참여 기업체 중 식품기업 숫자는 37개 사에 불과
-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식품기업 업체수는 19,043개 사임. 이는 식품기업의 대부분이 5천억 미만의 영세업체임을 의미함. 이러한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ESG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낮은 활용률 및 연구개발 기능 부족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기업 입주율(준공 및 착공기업)은 65.6%에 불과
- 특히 연구소 유치 달성률이 0%로 매우 미흡
- 선도기업(당초 15개 사 목표) 및 중견기업(당초 85개 사 목표)의 유치 달성률이 13.3%, 8.2%로 매우 미흡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020년 기준 가동 중인 기업은 85개 사로, 이 중 식료품 제조업이 84.7%를 차지함.
- 연구시설의 부재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움.

○ 식품기업 단계별 지원전략 미비

-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부재, 식품 창업의 세분화 및 중장기적 전략이 미흡함.

- 푸드테크를 적용한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체식품이나 IOT 등 높은 수준의 R&D를 장기간 진행하는 사업 대신 외식 관련 서비스업 또는 단순 식품가공업의 창업 비중이 높은 상황임.
- 산업 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서 기술 약탈, 인수합병 등의 이슈에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방안 미흡
- 식품진흥법에 '중소기업'에 대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진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중소기업의 능력 부족 및 보호 수단 부족

○ 제한적인 원재료 공급망

- 낮은 국산 식품원재료 이용율 및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식품 원재료 의존도로 인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이 어려움.
- 특히, 단기적인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기업의 역량 부족
- 조사대상 업체 중 28.9%는 원자재를 대체하거나 원자재에 대한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있다고 응답

2.1.3. 기회(Opportunities)

○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증가, 기능성식품 및 가정간편식 소비의 증가, 개인 맞춤형 식품시장 발전 등
- 코로나19 대유행 결과 외식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가공식품 비중 및 신선식품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2분기 및 3분기에는 외식 지출액 비중이 다시금 증가하여 식품 및 외식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2019년부터 식품 소비지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적 요구 변화 및 식품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 (예. 소비자들이 스스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 전개).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의 소비트렌드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7.8조 달러 수준으로 전년보다 1.2% 증가
- 2020년 이후 식품시장(2020~24년)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식품시장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태 지역, 유럽, 북미 순
- 아세안 지역은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함.

○ K-Culture의 세계적 유행과 K-Food의 인지도 향상

- K-Culture는 OTT 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 미디어에 노출되는 한식 등 K-Food의 인지도도 동반 성장
- 식품 분야 수출기업은 K-Food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푸드테크의 등장

-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전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 식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별 4차 산업기술로는 농업기술, 소비자 앱 및 서비스, 식품 배달, 식품 가공, 식품 안전 및 이력관리, 스마트 주방 및 식당, 차세대 식품, 식품 폐기물 및 손실 관리임.
- 대체식품,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등 미래유망식품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 존재
- 식물기반 식품산업은 협소한 국내시장에 반해, 해외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고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수출 기회 존재

- 대체육 식품산업은 향후 축산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존재

○ 전통식품과 전통주,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 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온라인 판매) 및 전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추세
- 최근 로컬푸드 소비확대, 지역산 식재료 이용 공공급식 시장확대, SNS 및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고향세 제도 도입, 기후위기에 따른 저탄소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별 특화식품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2.1.4. 위협(Threats)

○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의 악화

-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9%로 2010년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러·우 전쟁,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국면이 예상
- 2021년 원·달러 환율(평균)은 1,147원으로 전년 동기의 1,180원 대비 2.8% 하락하여 원화 가치는 평가절상되었으나, 2022년 초 1달러 당 1,189.50 원으로 시작된 환율은 2022년 2분기 1,300원을 넘어 4분기에는 1,300~1,400 원 내에 형성되는 등 원화 약세 심화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FOMC를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 긴축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 국제곡물가격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산업체가 직면하는 물가인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급등
-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 구조 중, 2021년 기준 원재료비 비중은 50.5%에 육박

○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와 노동 공급 및 식품 총수요 감소

- 총인구수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 가시화 및 1인 가구 비중 상승
- 합계 출산률의 저하, 총 인구 증가폭의 감소, 사회의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5년간 식품산업의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임.
- 식품제조업체에 있어서는 단순 생산직, 고급 R&D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은 규모화 및 자본집약적으로 변화하는 구조적 전환을 진행 중이며, 외식업은 종사자수 증가 속도가 사업체수 증가속도보다 빨라 노동집약화가 유지/강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21년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식품 총수요가 감소하는 식품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후변화는 기업의 위험(Risk)이자 재무관리 차원에서 잠재적 변수임.
-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위험(Transition risk) 및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존재

○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도입 압력 가중

- 유럽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 도입, 일부 국가의 가당음료세 도입 등 식품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
-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2021.01.14.)하고 자산총액 기준 의무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에 진입
-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전 코스피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6년에는 자산총액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도 의무화 계획임.

-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관점 및 수출 증대 관점에서 ESG 경영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

○ 식품 안전에서 식품산업 안전으로의 소비자의 요구 확대

- 식품분야 안전관리는 식품산업이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무로 인식
- 소비자의 요구와 개인 맞춤형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식품 및 원료의 원산지 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정보, 건강 및 영양 관련 정보공개 필요성 대두
- 식품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장 안전관리 문제는 소비자 불매운동 등을 야기하여 식품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식품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 식품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규제는 세금, 식품 첨가물, 노동 관련 규제임.
- 식품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존재

〈표 5-8〉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S1: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역량 보유 S2: 농식품 수출 호조와 신 수출시장 개척 S3: 연구기관·민간 중심 R&D 활성화 S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S5: 식품산업 분야별 기본계획 마련 S6: 식품산업 분야별 통계 구축	W1: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경영 안정성 W2: 농식품 수출에서의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W3: 낮은 국산 농산물 이용률 W4: 푸드테크 관련 기초 R&D 부족 W5: 통계분야 혁신 인프라 부족 W6: 낮은 ESG 경영 도입률 W7: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용률 저조 및 연구개발 기능 부족 W8: 식품기업 단계별 지원전략 미비 W9: 제한적인 원재료 공급망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O1: 소비트렌드 변화 O2: 사회적 요구 변화 및 식품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O3: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O4: K-Culture의 세계적 유행과 K-Food의 인지도 향상 O5: 푸드테크의 등장 O6: 전통식품과 전통주,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T1: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경제적 외부환경의 악화 T2: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와 노동 공급 및 식품 총수요 감소 T3: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T4: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도입 압력 가중 T5: 식품 안전에서 식품산업 안전으로의 소비자의 요구 확대 T6: 식품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자료: 저자 작성.

2.2.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도출

2.2.1. 활용전략(S-O 전략)²⁰⁾

○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증가, 기능성식품 및 가정간편식 소비의 증가, 개인 맞춤형 식품 수요 증가 등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식품산업 생산역량의 효율화, 미래유망식품 R&D 및 해외 수요 증대 품목 개발 독려를 통한 수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함.

- 국내 생산 역량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확대를 비롯하여 미래유망식품에 대한 집중 육성 전략 마련 필요
-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식품의 개발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발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요가 존재하는 국가에 수출 지원 확대
- 식품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 전략 마련

○ 푸드테크의 등장, 사회적 요구 변화 및 식품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소비트렌드 변화, 수출 기회 확대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R&D 혁신이 필요함.

-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R&D 추진

○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와 K-Culture의 세계적 유행과 K-Food의 인지도 향상을 기회로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이 필요함.

²⁰⁾ 활용전략은 식품산업 내부의 강점을 이용하여 외부적 요건인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의미함.

-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K-Food 인지도를 활용한 현지 인플루언서 위주의 MZ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K-Food 홍보전략 마련
 - 기존 수출국가 중 교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 확대 전략 필요
 - 수출 유망 품목 개발에 대한 R&D 지원 확대: 가공도가 높은 품목(HMR, 밀키트 등) 수출 지원 패키지 및 검역 위주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필요
- 푸드테크의 등장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 확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특히 식물성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의 기초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전략의 중복성 해소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효율화를 통해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특구와 네트워크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성 해소 필요성 존재
 -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구성

2.2.2. 탐구전략(W-O 전략)²¹⁾

- 소비트렌드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변화,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K-Food 인지도 향상, 푸드테크의 등장, 전통식품 및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인지도 확대 등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업을 보호하여 식품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경영 안정성을 보완하고 푸드테크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식품기업 단계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식품산업진흥기본법 내 중소기업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벤처기업-중소식품기업-유니콘기업으로 이어지는 육성 로드맵을

²¹⁾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 탐구전략은 식품산업 내부의 약점(Weaknesses)을 보완하여 외부적 요인인 기회(Opportunities)를 살리는 전략임.

구축하여 푸드테크의 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야 함.

-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품목 개발이 필요함.
 - K-Culture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국가,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발굴 노력 필요
 -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련 식품, HMR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하여 한국의 HMR 제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산농산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 가공적성 우수 품종 개발, 국산 원재료 사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필요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관련 제품 수요 확대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 수립 필요
 - 전통문화 계승 역량이 높은 전통식품명인에게는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전통식품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노력,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전통식품 사업체에게는 관련 사업 정보 제공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정책 지원과 온라인을 통한 전통주 판매 및 젊은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식품, 전통주 마케팅 확대 전략이 필요함.

- 푸드테크 분야 기초 R&D를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푸드테크 시장에서의 경쟁력 마련이 필요함. 식품기업의 ESG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국내 식품산업체의 낮은 ESG 경영 도입률을 개선하여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자력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됨.

- 통계분야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푸드테크 기업,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용률 보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 집적 기능 및 수출 기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필요시 수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수출 기능을 집적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음.

○ 원재료 공급망 확보 노력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 노력을 제고하여야 함.

- 원재료 수급선 다변화, 원재료 국산화,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2.3. 대응전략(S-T 전략)²²⁾

○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전략과 모태 펀드의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와 노동 공급 및 식품 총수요 감소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신 수출시장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산업 전반에서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꾀하는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식품 집중 육성 전략이 주요할 수 있음.

○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트렌드 확산 및 식품산업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와 안전 최우선으로의 식품산업 체질 개선 등 사회환경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산업 환경 구축을 지향해야 함.

-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
-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작업자, 생산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건강 식생활 유도 등

²²⁾ 대응전략이란 식품산업이 가진 강점(Strength)을 바탕으로 외부적 요인인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임.

○ 식품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혁신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선제적 대응

2.2.4. 회피전략(W-T 전략)²³⁾

○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의 악화는 폐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식품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확보, 단계적 성장체계 마련,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 이와 관련된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의 악화,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와 노동 공급 및 식품 총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임.

○ 낮은 국산 농산물 이용률과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 및 식품 총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산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함.

- 국산 농산물 이용 제고와 관련성이 높은 한식산업, 전통식품산업, 김치산업, 전통주산업을 성장산업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 신수요에 대응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메뉴의 개발, 해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트렌드의 등장과 ESG 경영 도입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의 ESG 경영 도입률 및 ESG 관련 지표 마련은 미흡하므로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함.

²³⁾ 회피전략은 대응하기 힘든 약점(Weakness)을 보완하고 및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

6

제4차 진흥계획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1.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기본 방향

1.1. 비전 및 목표

1.1.1. 비전 및 목표(안) 설정

○ 4차 기본계획의 비전: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²⁴⁾

- 주요 키워드: 혁신, 성장, 푸드테크, 위기 대응, 지속가능
- 의미: 혁신 및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하에, 지속가능성과 발전(양적/질적 개념) 추구
- 1차 기본계획의 비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 식품산업”
- 2차 기본계획의 비전: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²⁴⁾ 최초 제안된 비전은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이었으나, 식품업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하고 사회·환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로 수정된 후, 식품업체·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최종 수렴 및 반영하여 도출함.

- 3차 기본계획의 비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는 식품산업의 당면과제인 식품산업 매출액 증대, 농식품 수출 확대, 국산농산물 이용 제고임.

- 식품산업 매출액 목표: ('21) 140/148조 원 → ('27) 166/172조 원

- 농식품 수출액 목표: ('21) 85.6억 달러 → ('27) 150억 달러

- 국산농산물 사용량 목표: ('21) 613만 톤 → ('27) 752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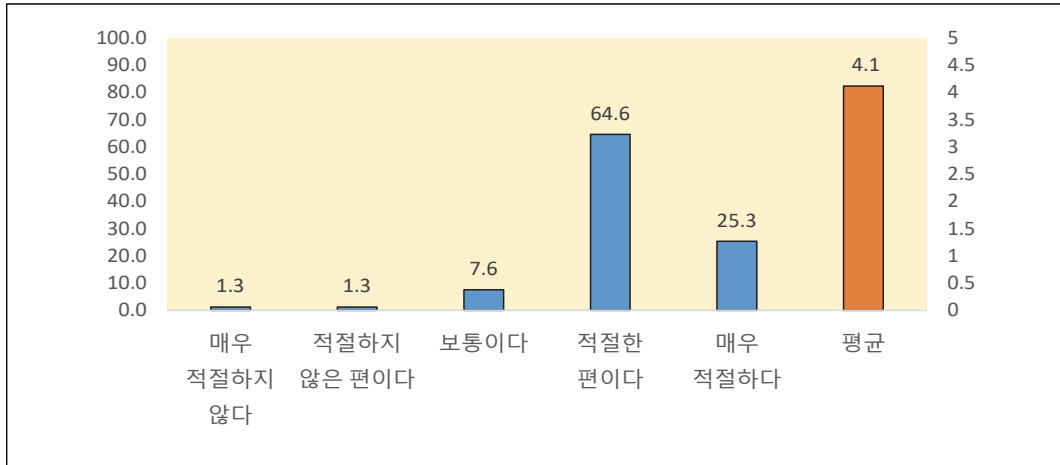
1.1.2. 전문가 조사 결과

○ 전문가 자문회의, 산업체 관계자 인터뷰, 정책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의 비전, 키워드, 목표,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함.

- 설문 대상은 식품산업 내 정책 담당자,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사업체 대표 혹은 부장 이상의 인사 등으로 구성된 80명의 전문가 집단임.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비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적절한 편이다’(64.6%), ‘매우 적절하다’(25.3%) 순으로 응답함.

〈그림 6-1〉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안)의 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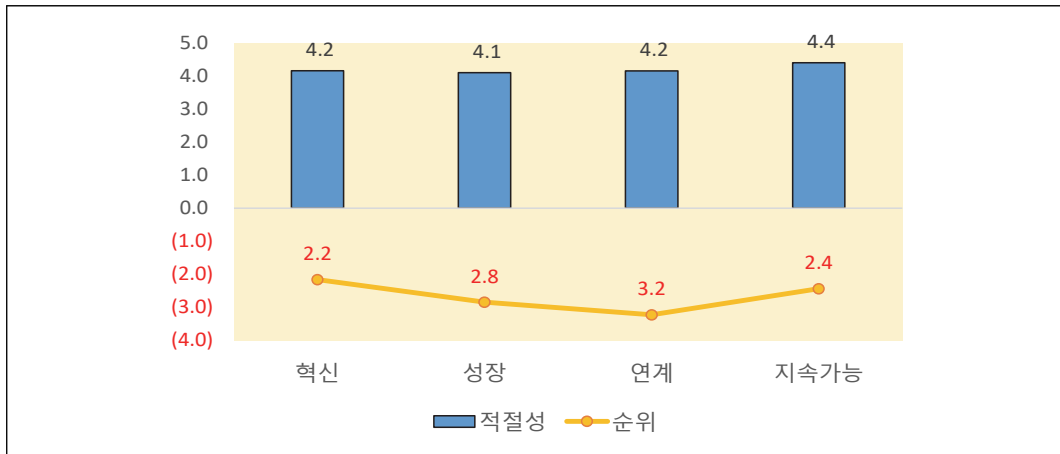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키워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지속가능(4.4점), 혁신(4.2점), 연계(4.2점), 성장(4.1점)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함. 우선순위의 경우 혁신(2.2), 지속가능(2.4), 성장(2.8), 연계(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6-2〉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안)의 키워드의 적절성과 순위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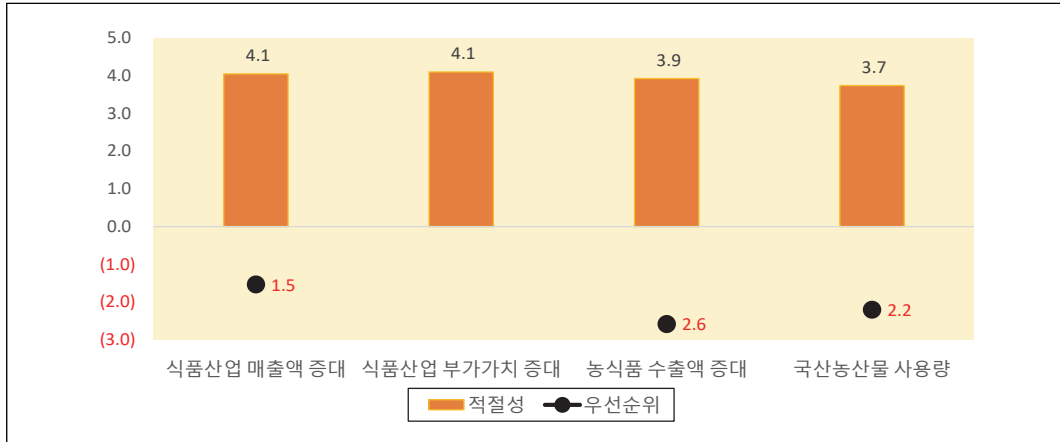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4차 진흥계획에서 주요 달성 목표로 제안된 3개 지표와 부가가치 보조지표의 적절성,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분석됨.

- 목표 간의 우선순위는 '식품산업 매출액 증대 및 식품산업 부가가치 증대'(1.5순위), '국산농산물 사용량 증대'(2.2순위), '농식품 수출액 증대'(2.6순위) 순으로 나타남.

〈그림 6-3〉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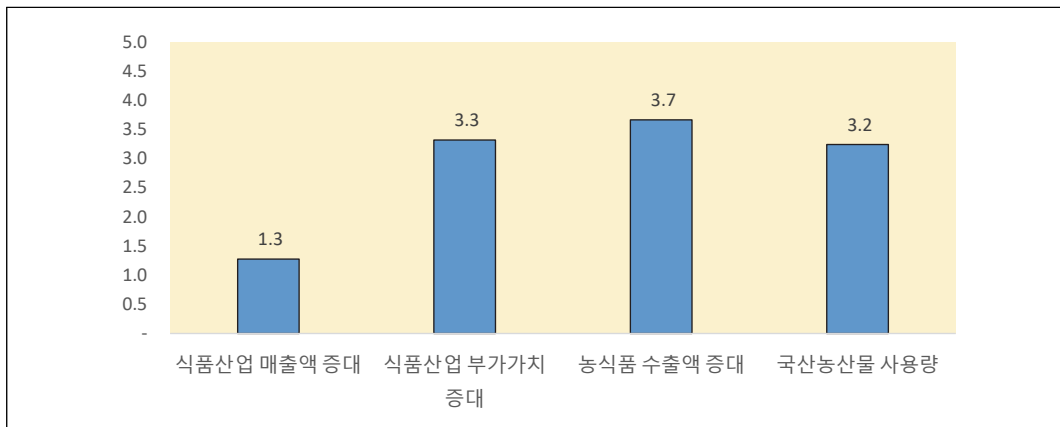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목표치에 대한 평가로는 식품산업 매출액의 경우 매우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고, 식품산업 부가가치 증대, 국산농산물 사용량 목표치의 경우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남. 농식품 수출액 증대 목표인 150억 불은 다소 높다는 의견이 도출됨.

〈그림 6-4〉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치의 높낮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1.2.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방안

1.2.1.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안) 도출

-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4대 정책과제는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임.
-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의 세부과제는 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산업 집중 육성, ②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③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임.
-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①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②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③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이 도출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①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②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③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성장산업화가 도출됨.
-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①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②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③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제시함.

〈표 6-1〉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1-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1-②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1-③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2-①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2-②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2-③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3-①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3-②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3-③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4-①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4-②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4-③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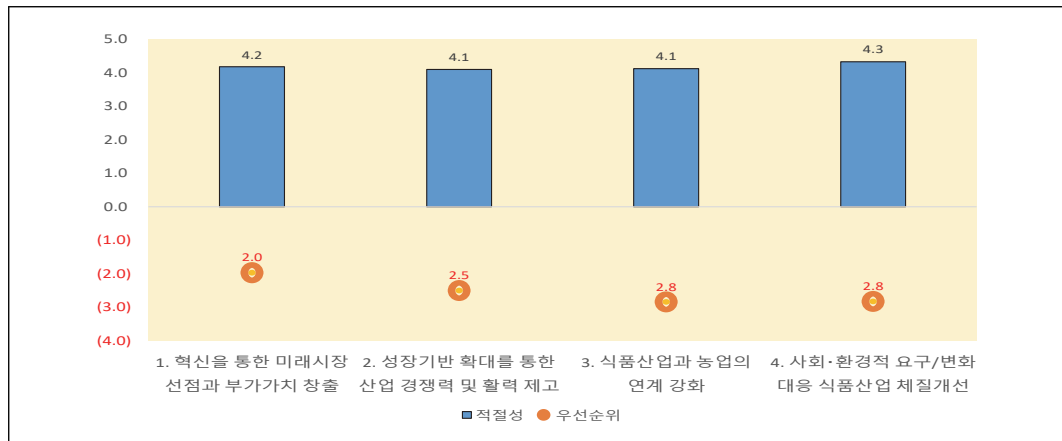
자료: 직접 작성

1.2.2. 전문가 조사 결과

○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4개 주요 과제에 대한 적절성과 우선순위 평가 결과, 모든 주요과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우선 순위는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및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순으로 나타남.

〈그림 6-5〉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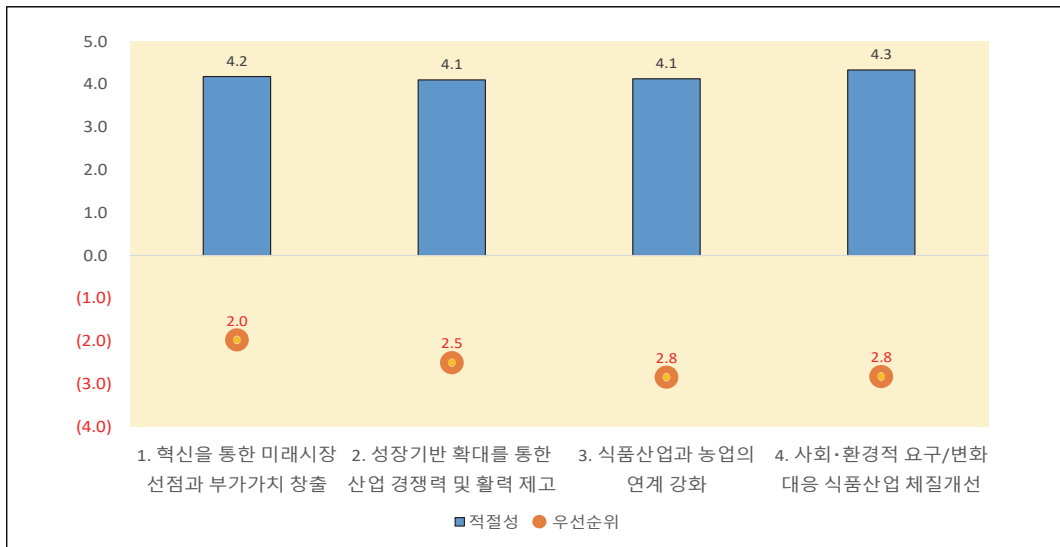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4개 주요 과제에 대한 적절성과 우선순위 평가 결과, 모든 주요과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우선 순위는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및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순으로 나타남.

〈그림 6-6〉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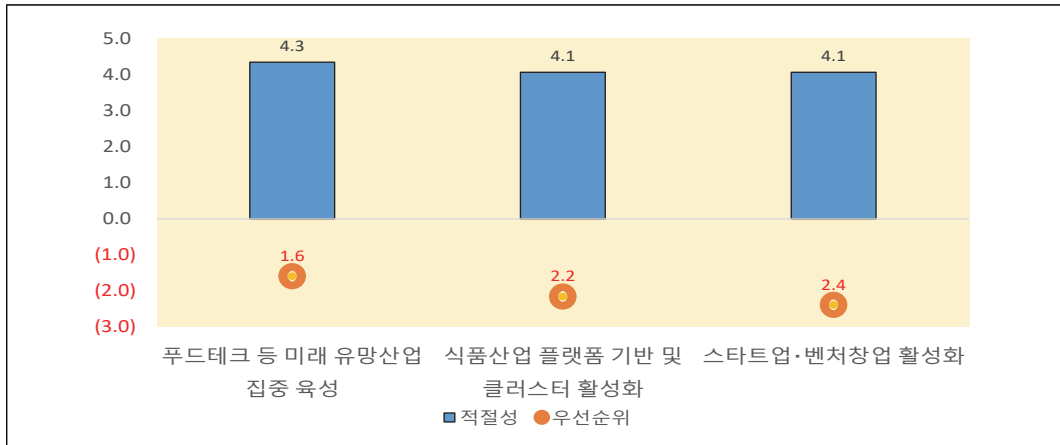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주요과제별 세부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음. 주요 정책과제 ①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의 세부과제들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를 설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의견이 도출됨. 우선순위의 경우 ‘푸드테크 등 미래유망산업의 집중 육성’이 1.6순위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6-7〉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1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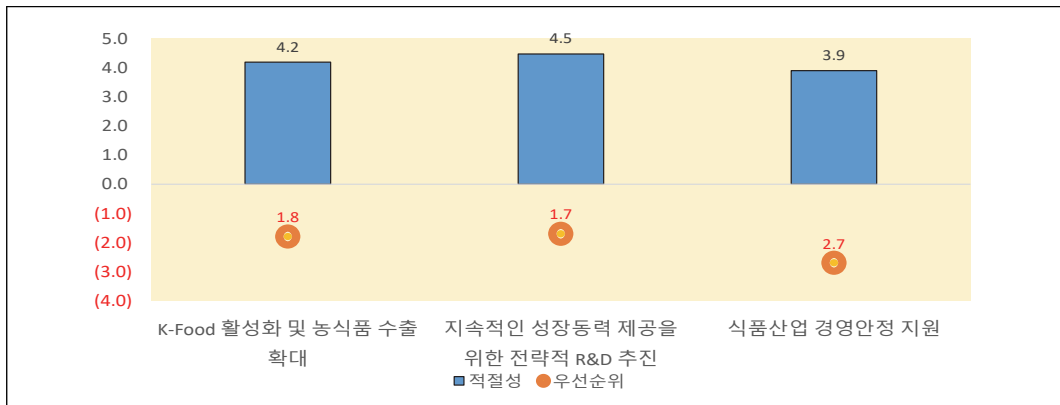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주요 정책과제 ②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의 세부 과제 또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함. 우선순위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 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이 1.7순위,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가 1.8순위로 나타남.

〈그림 6-8〉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2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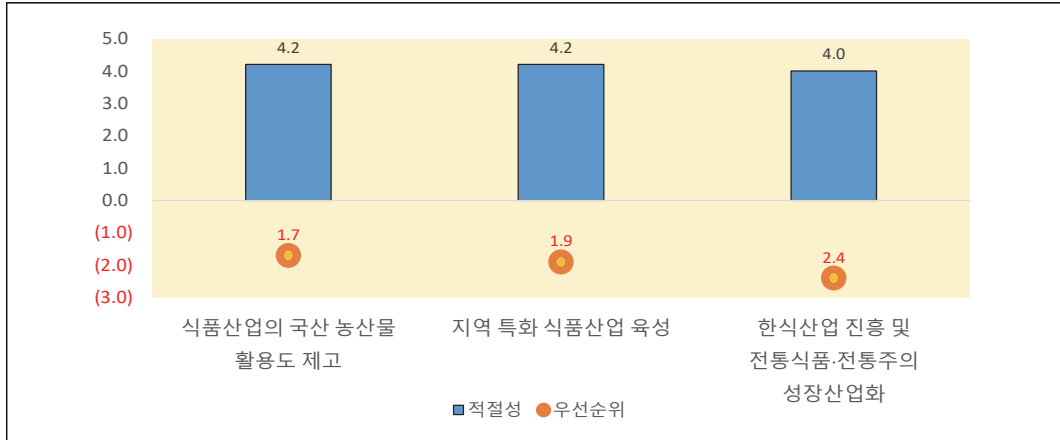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주요 정책과제 ③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의 세부 과제 또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가 가

장 시급하고,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그림 6-9〉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3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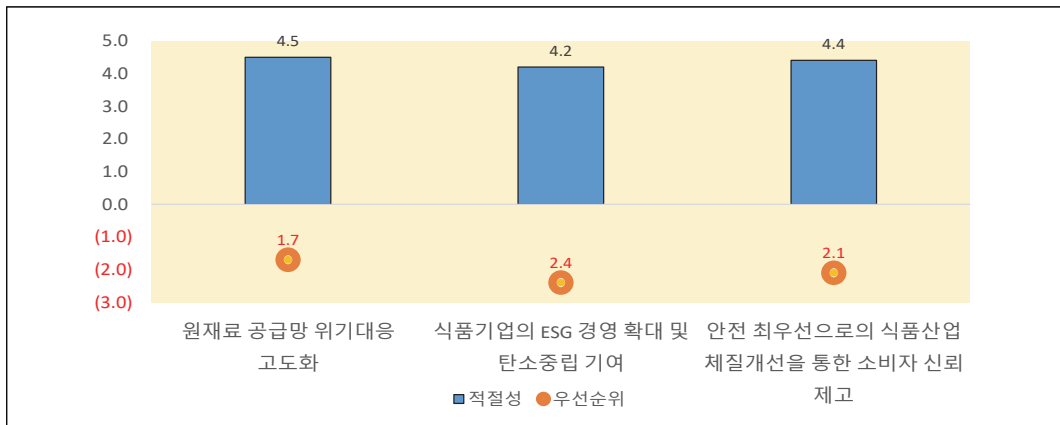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 주요 정책과제 ④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의 세부과제는 적절하게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안전 최우선으로의 식품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순으로 필요한 과업으로 지목됨.

〈그림 6-10〉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4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5점 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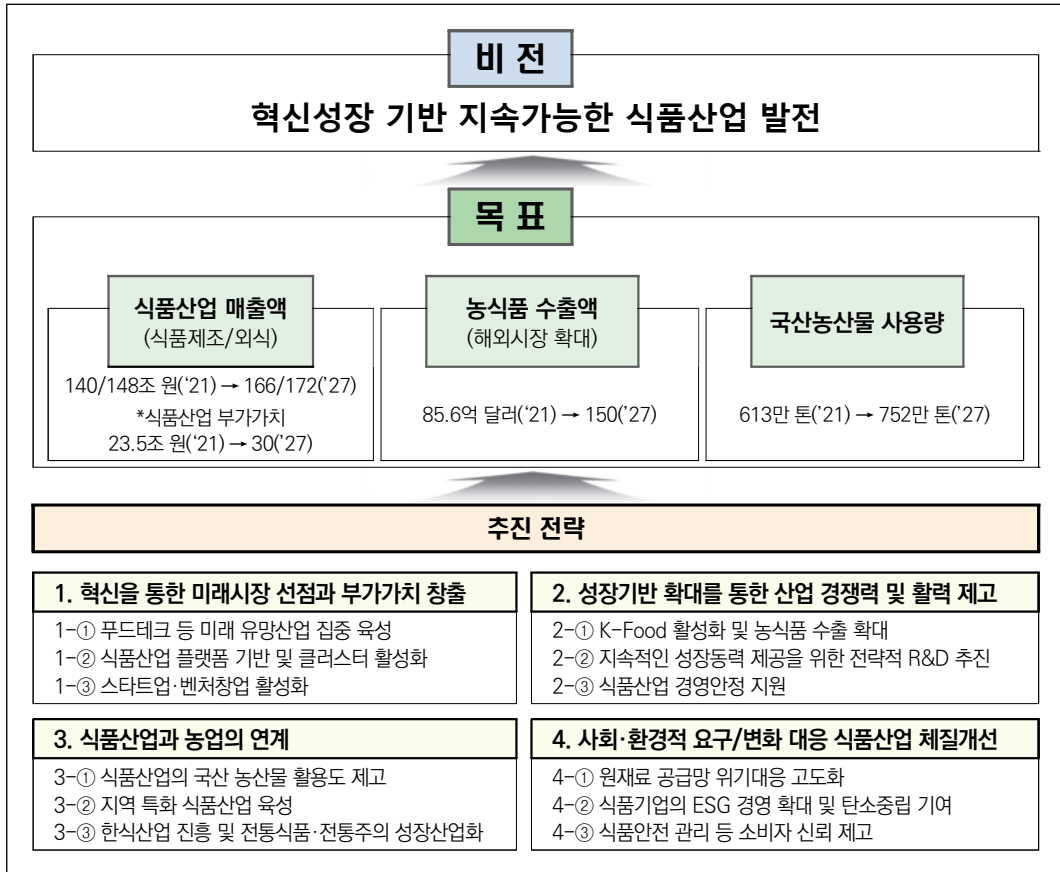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1.3.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안) 및 제3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비교

1.3.1.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안)

〈그림 6-11〉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1.3.2. 제3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과의 비교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이며,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 발전'임.

- 3차 기본계획의 목표 지표는 식품산업 매출액, 국산농산물 사용량, 식품분야 종사자였음. 4차 기본계획의 목표 지표는 식품산업 매출액, 농식품 수출액, 국산농산물 사용량이며, 식품산업 매출액과 함께 4차 기본계획 평가지표는 아니지만 5차 기본계획에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식품산업 GDP)를 보조 지표로써 선제적으로 표기하였음.
- 주요 정책과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3차 기본계획의 '1. 미래유망 분야 선제적 육성'을 제4차 기본계획의 '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유지 및 확대하고 '푸드테크'를 명시함. R&D 관련 내용은 2-②에서 다룸.
- 제3차 기본계획의 '2.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의 인력 부문은 제4차 기본계획의 '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에서 이어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부문은 '클러스터'라는 일반명사로 '1-②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에서 다룸.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수출' 관련 부문은 제4차 기본계획의 '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에 포함함.
- 제3차 기본계획의 '3. 식품·외식 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및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 모델 발굴 및 확산'은 제4차 기본계획의 4-③으로 통합함.
- 제3차 기본계획의 '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제4차 기본계획의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로 주요 정책과제로서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성장산업화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한식/음식관광 과제와 함께 '3-③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로 유지함.
- 제3차 기본계획의 '5.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 내용은 제4차 기본계획의 '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의 4-③에서 다룸. 사회환경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4-①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및 '4-②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를 새로운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함.

〈표 6-2〉 제3차 및 제4차(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주요 과제 비교

구분	제3차 기본계획('18~'22)	제4차 기본계획(안)('23~'27)
비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매출액: ('15) 210조 원 → ('22) 330 • 국산농산물 사용량: ('16) 519만 톤 → ('22) 690 • 식품분야 종사자: ('16) 233만 명 → ('22)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매출액: ('21) 140/148조 원 → ('27) 166/172 * 식품산업 부가가치: ('21) 23.5조 원 → ('27) 30.0 • 농식품 수출액: ('21) 85.6억 달러 → ('27) 124.7 • 국산농산물 사용량: ('21) 613만 톤 → ('27) 752
주요 정책 과제 및 내용	1. 미래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①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②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③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④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1-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1-②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1-③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2.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①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②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③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2-①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2-②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2-③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②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③ 식품외식업체 협력, 발전 모델 발굴 및 확산 ④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3-①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3-②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3-③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①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②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③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④ 한식, 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4-①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4-②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4-③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5.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 ①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②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③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④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 제고	

자료: 직접 작성.

2.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안)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2.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연간 7% 수준으로 성장할 세계 푸드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 R&D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2020년 국내 공공 R&D 총 금액은 599,262 백만 원이나, 이 중 배양육,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 R&D 투자 규모는 4,571백만 원에 불과 (특히,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기초연구 예산은 100백만 원) 식품산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푸드테크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한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분야 인재 유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차세대 유망 식품산업군 발굴 및 육성 연구개발 비중 확대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 온라인 식품시장 확대와 식품산업의 디지털화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식품산업 시장 구조, 온라인 농식품 시장 규모 (17) 131,542억 원 → (21) 570,897억 원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 진입 판단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승인 통계 자료는 발표 시차가 존재하여 시의성이 낮음 * 민간 통계 자료는 시의성이 높으나 비싼 가격 등 접근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플랫폼 구축 분야별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클러스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클러스터의 낮은 가동률(70%)과 대규모 업체, 연구기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기준 분양기업 수 63.6%, 2020년 기준 선도기업 유치 달성률 13.3%(2/15), 중견기업 8.2%(7/85)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저조한 기업 육성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매출액('19년 전년대비 증감률 1.1%) 낮은 연구개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연구기업 전무 입지 문제를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수출기업 육성에 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업의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제품 판매를 위한 유통 환경 열위 * 해외 수출 기업의 경우 항구까지 거리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중간평가 수행 시장과의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구개발 등 기업지원시설 중심의 기능 개편 수출 클러스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 고려
스타트업·벤처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악화에 따른 모태펀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모태펀드 예산 (21) 1조 700억 원→(22) 5,200억 원→(23)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2.1.1.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미래유망산업의 지속적인 발돋움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 차세대 유망 식품산업군 발굴 및 육성
- *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가.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엄밀한 정의/전망에 근거한 전략 수립 필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면밀한(보수적인) 진단, 향후 성장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해 근거에 기반 명확한 식별, 이를 통해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푸드테크 발전방안, 식품 R&D 정책 등)

-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정부, 학계, 산업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나,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음. 푸드테크 산업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국내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임. 시장 잠재력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공공의 영역이 활성화시킬 때 효과적인 푸드테크 영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푸드프린팅, AI·로봇,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푸드팩토리, 대체육/배양육, 첨가물/조미식품에 대한 기술[당류/나트륨 저감하면서 맛 유지] 등에 대한 분야별 면밀한 검토와 집중적 활성화 필요)
- 식품 분야 R&D 정책과 연계하여 푸드테크 관련 시장 수요 판단 및 대응
- 외식 분야에서는 조리·서빙로봇, 배달로봇 및 드론 분야 검토 필요

○ [유망 푸드테크 부문 혁신기술 선도기업 집중 지원]

- 유망 부문 선정 및 혁신기술 선도기업에 대한 엄밀한 선정 및 집중 관리, 우수사례 홍보 및 전파(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등에서 별도 섹션 마련)
- 자금/시설지원: 우수 푸드테크 창업기업 대상 자금지원 및 업체당 한도/기간 확대(푸

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고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지원(식품벤처센터, '23년 준공 예정 청년식품창업센터 등), '(가칭)푸드테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자와 푸드테크 기업의 정보 교류 활성화

- 융복합 우수인력 확보: 대학 연계 푸드테크 융복합 우수인재 맞춤형 육성(기업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성 있는 푸드테크 부문별 맞춤형 인재 육성, 대학원 과정 포함, 기존 푸드테크 계약학과 확대 운영), 해외 푸드테크 우수인력 유치 지원, 우수인력 활용 푸드테크 기술 컨설팅 지원

○ [푸드테크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가칭)푸드테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푸드테크 혁신기술(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기업과 생산기반을 갖춘 기업을 연결하는 기술(또는 아이디어)교류 및 사업화 지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제품화 지원, 국내외 관련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정보 제공,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시설 활용

나. 차세대 유망 식품산업군 발굴 및 육성

○ [유망 식품산업군 선정, 집중 육성] 인구·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여 1) 건강 관련 식품 산업, 2)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3) 펫푸드, 4) 대체식품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소비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 건강에 대한 전 소비 연령층에서의 관심 확대, 펫푸드산업의 낮은 국산 비율,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사회적 필요성 제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정책적인 육성 노력이 요구되는 산업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

- 3차 진흥계획(2018) 이후 발표한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2019)”에서 유망 식품산업으로 1) 맞춤형/특수식품, 2) 기능성 식품, 3) 간편식품, 4) 친환경식품, 5) 수출식품을 선정한 바 있음. 3) 간편식품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4) 친환경식품

분야는 식품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친환경 농업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5) 수출식품 분야는 K-Food 수출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

- 기존의 ‘맞춤형/특수식품’을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로 유지·계승하고, ‘기능성 식품’을 ‘건강 관련 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지, 펫푸드²⁵⁾와 대체식품을 별도로 추진

○ **[건강 관련 식품산업 육성]** 건강 관련 식품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1)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육성(계속), 2)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 추진, 3) 건강식품특화단지 조성 및 성장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의 방향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유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수입 대체를 도모하고 해외 수출 또한 견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²⁶⁾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원료 발굴, 기능성 규명 및 정보 공유(DB 확충), 국산 원재료의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완료 및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규제 개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참고: 일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 건강식품특화단지(예: 당뇨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다양한 환자군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더불어, 해당 식품군을 수출 산업화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

○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고령친화식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산업들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실질적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시장의 상황이 고령친화식품 수요곡선이 상당히 비탄력적일 것이

25) 펫푸드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임. 식품산업 진흥의 영역에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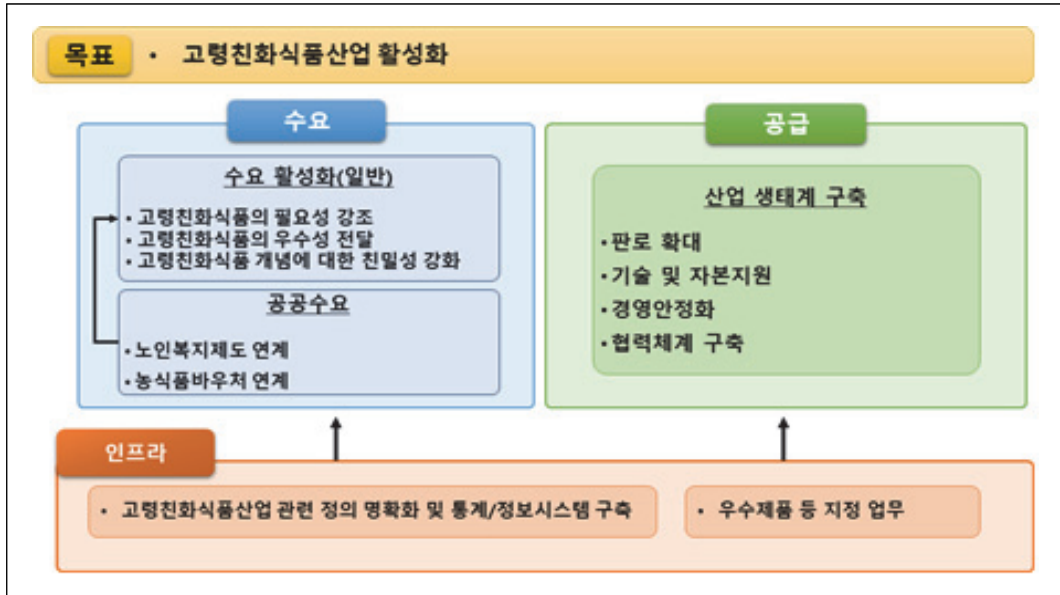
26) 2022년 기준 매출액이 4.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1년 1조 3,682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수입 역시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조 2,568억 원의 건강기능식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수입 1위 품목유형은 복합영양소제품으로 3,087억 원어치를 수입했으며, 당으로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2,345억 원), 개별인정원료(1,584억 원), 프로바이오틱스(1,444억 원), EPA 및 DHA 함유 유지(960억 원) 순임.

라고 예상하게 하고 있어²⁷⁾, 단기적으로는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수요곡선의 이동과 변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기 및 중장기적 활성화 전략 이외에도 시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1) 고령친화식품의 필요성/우수성을 강조하고, 친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1) 식생활교육과 연계를 통한 필요성 강조, 2) 소비자단체와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홍보 활성화(숯폼 영상 등 활용), 3) 고령친화제품체험관에 고령친화식품 도입 및 적용 추진, 4) 고령친화식품 섭취를 통한 영양/건강개선을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홍보, 5) ‘고령친화우수식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6) 고령친화식품 리네이밍(공모전 등을 통한) 인지도/친밀도 개선, 7) 공공수요와의 연계 강화(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개선, 장기요양시설 평가 점수에 고령친화식품 사용 여부 반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등과 연계 모색) 등이 필요
- 생산, 유통 및 경영활동 관련 활성화 전략으로는 1) 고령친화식품 관련 종합플랫폼 구축 및 고령친화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설계 지원, 2) 공공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한 판로 제공, 3) 고령친화식품에 특화된 식품 R&D 설계 및 지원, 4) 고령친화식품산업협회 설립 지원 및 한국식품산업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1)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범주의 명확화, 2) 산업 분류체계 마련 및 엄밀하고 지속적인 통계의 생산, 3) 종합적인 정보제공/교류 플랫폼 운영, 4) 초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 지정 업무 탄력적인 운영 등이 필요

27) 제품수명주기에 따르면 제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뉘는데, 현재 고령친화식품시장은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있음. 도입기의 경우 신제품 수용도가 높거나 제품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는 소비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며, Auer and Papies (2020)은 메타분석을 통해 도입기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비탄력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Steinhardt G(2019)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로 시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제품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지, 대체제의 존재 여부, 상품 교체 가능성으로 정의함.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여러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비교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대체제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것으로 판단됨(김상호 외, 2021).

〈그림 6-12〉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과제



자료: 김상호 외(2021) 재인용.

○ [대체식품산업 육성] 대체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1) 원료의 국산화(textured vegetable protein), 2) 식물성 단백질 자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고단백 대두 및 완두), 3) 배양육 생산활동에 대한 산업적 정의 명확화(제조업 vs. 농축산업) 및 관련 법령의 정비(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4) 신규식품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5) 관련 식품 R&D의 확대, 6) 대체식품에 대한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및 관리체계/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7) 대체식품산업의 (건강)기능성식품과의 연계 등임.

다.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 다양한 신제품의 소량 생산, 제조-서비스 융합 확대 등으로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신속한 산업분류 반영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 신산업 분야는 기초자료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
-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규제요인 개선

- 신성장산업 혁신 기반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방안 발굴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신성장산업 기지 기반으로 확장

※ (사례)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 푸드테크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확대

※ (사례)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한 인삼의 신소비시장 창출
- 전통주 개념 재정립 및 범위 확대 등

○ 푸드테크 관련 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수출대상국과 규제 조건/현황 등에 대한 communication 라인 구축하여 제품 개발자가 현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 파악**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 수출국에 대한 **대체식품 관련 소재의 식품 규제 정보 수집** 및 관련 업체 정보 제공
- 대체식품 수출 관련 **컨설팅** 등 전문기관 자문 지원
- 식물성 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건강적인 이점을 표현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사례 1) **미사용 원료**에 대한 표현 불가

- 우유 미사용 제품에 **lactose free** 표현 불가

※ (사례 2) 푸드테크 관련 **배양육 관련 규제 해소** 논의 필요

- 배지에 사용하는 **비식품 소재**의 원천 **사용금지** 조치 완화
- **잔류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원칙 마련
- **배양육용 식품 첨가물 공전**(첨가물 공전 플러스)를 제작
- **성장인자** 등은 원래 동물의 근육조직에 존재하는 물질로 **안전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첨가물 공전 플러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3) **특수의료용도** 및 **3D 식품 프린팅** 관련 제도 마련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조정, 해당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용식품법 별도법** 추진

- 3D 식품 프린팅 **기술표준화, 기준·규격설정**을 통한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마련**

-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3D 식품 프린터 관련 **기준 및 규격 조항을 신설**하고, 프린팅된 **식품 판매기준을 마련**

※ 미국의 경우 **농무부(USDA)**와 **FDA**가 배양육과 식물성 대체육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 및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2년 7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물성 대체 단백질 식품(대체육)의 표기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침의 필요성 마련에 공감

2.1.2.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 식품산업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제공 플랫폼 연계

* 식품산업 신산업 분류기준 정립 및 통계 정비

* 식품기업의 생산, 유통, 수출 등 각종 정보공유 플랫폼 및 데이터 관리 통합조직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비를 통한 안정화 및 내실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개선과제 관련 연구 추진

* 산학연 연계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식품 연구산업단지 조성

* 식품기업에 대한 상시 애로 대응 시스템 구축

가.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기반 마련

○ [정보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식품산업 **분야별 정보 제공 강화**

- 다양화된 수요에 부합하도록 **정보 다각화·고도화** 추진을 통해 **국내 정보 공급**

※ (日) 신사업 창출·식품 산업 과제 해결 조사·실증 등 사업(2억 엔)

- 지속 가능한 식품 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조사, 실증 실시

- 식품·외식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식품·외식기업 등에 제공하는 식품 산업 정보분석 사업의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식품분야 빅데이터 구축**

-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라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DB(농식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정보 조사 및 전파)를 확충하고 수요자 참여형 정보조사 확대를 통해 **해외 정보 공급**
- SNS,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기능 확대를 통한 관계부처 연결 기능 강화

○ [식품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농업과 식품산업의 생산, 유통, 수출, 지원정책 등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공유를 통해 전에 없었던 기회 및 시너지 창출

-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술 투자 과정에 **공적 자원 투입이 가능**
- 산·학·연이 보유한 **농식품 원료, 특화 기술, 장비, 전문인력** 등 정보를 **집적화·공유**하여 식품기업이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 플랫폼** 구축
- 기술 공급 기업(스타트업 등)과 기술 수요 기업(대기업 등), 농업 생산자와 국산 농산물 수요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탐색비용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 (日) 식품 등 유통 지속화 모델 종합 대응 사업(3억 엔)
 - 디지털화·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급망·모델 구축 지원 등

-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기관들의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중소벤처24**’ 등 정보 보유기관의 **정책 정보 연계**와 관리 및 통합을 유도

〈그림 6-13〉 중소벤처24 - 내게 맞는 정책자금

자료: 중소벤처24 홈페이지.

- 식품 손실 감소와 과다자원 재배분: “앱(app)”경제 활성화를 통해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식품의 가격을 즉각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제고
- 수출기업 맞춤형 통합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으로 수출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
- 통합솔루션 구축 후 고도화를 통해 신규 바이어매칭, 시장다변화, K-Food 상담장 메타버스까지 구현 등 aT 수출지원사업의 디지털 전환

〈그림 6-14〉 수출기업 맞춤형 통합솔루션 개념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서면 검토 원고.

- [식품 디지털 통합 플랫폼 활성화] 생산과 소비, 기업과 인력, 기술과 소재, 자원과 장비, 기술과 기술 등이 플랫폼을 통해 만나 시너지가 창출되는 **융복합 우수사례** 홍보
 - 온라인 비대면 연결성 확장으로 시너지 창출 기회 확대
 - 대한민국식품대전, 푸드테크 산업대전 등 박람회를 통한 오프라인 연결성 구체화
 -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플랫폼 활용도 확대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 [진단과 평가]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2012~2025)의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 및 평가, 개선과제 도출 필요
 - 최우선 과제로 2023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진행 과정 중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수행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 기능 수행 강화 및 활용 강화 방안 모색
-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의 안정화 및 내실화를 통한 산학연 연계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독려를 위해 식품문화복합단지 조성
 -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미래유망식품분야(기능성, 바이오, 고령친화/메디, HMR/대체)에 특화된 연구 기능 강화
 - 5G 이음망을 구축하고 식품 분야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과기부 협력)
 - 구축된 시설 및 장비, 교육·물류·마케팅 서비스 지원 대상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에서 ‘국내 전체 식품기업 및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내 식품산업 성장 거점 역할 수행
 - 창업(컨설팅, 시제품제조), 벤처(공장임대, 설비공유), 투자유치기업(기술, 마케팅, 인증) 등 성장 단계별 세분화 된 전주기적 지원 확대 및 상시 애로 대응 시스템 구축

○ [연구중심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인프라와 산학연이 연계, 시너지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식품 연구산업단지로 조성

- 연구시설부지에 ‘(가칭) 공공 R&D센터’를 구축, 입주기업과 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장비와 연계·운영하는 R&D 체계 확립
- 농식품 분야 창업자들이 산학연 네트워크의 장비·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제공, 전문교육, 기술 지원 및 취업 연계
-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www.fmis.kr)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식품소재의 기능성 정보 통합 제공을 통해 정보접근성 강화
-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을 통한 기능성 원료 제공 인프라 확충

○ [인력 양성] 청년식품창업LAB을 활용하여 식품산업 고급 인력 양성 역할 수행

- 청년식품창업LAB의 가동률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푸드테크 관련 혁신 인재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 필요

※ ('17) 313백만 원 → ('18) 805 → ('19) 2,369 → ('20) 2,652 → ('21) 2,732 → ('22) 3,622
- '27년까지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지역 중심 특구] 지역 중심의 특구 사업 확산 및 특구와 연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용 확대

- 각 특구에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관련 기능 부여
- 벤처·스타트업 및 푸드테크 제품 및 소재 개발 활성화가 선행된 지역 중심 클러스터/특구 지정
- 건강/질병 관련 클러스터/특구 조성

※ 순창군 당뇨집중관리마을, 당뇨 학교, 당뇨 캠프, 당뇨 꾸러미 등 운영하며 당뇨 치유체험 1번지로 거듭남.

- 수출 여건이 좋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출 특화 특구/클러스터 조성

※ 전국 농산물 수출물량 및 금액이 높으면서도(강원, 경기도 이은 전국 3위) 해상 무역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경남권에 가공식품 수출 특화 지방 클러스터 구축 고려

- 농식품 관련 국가 인프라의 서부권 밀집으로 농산물 수출량이 높은 강원, 경상권을 활용하여 태평양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경남은 장류, 김치, 한식제품에 필요한 조미채소 및 과채류 생산량이 많고 대학, 식품 관련 부설 연구소 등 연구개발 역량과 대규모 식품기업(삼양식품, 오리온)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유망 식품 산업화 및 수출 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국제 식품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조성된 **글로벌 존에 국내기업 투자 허용** 후 분양면적이 대폭 증가
- 클러스터 내 물류업과 **식음료제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므로 산업용지 중 연관업종·음료제조 용지를 **식음료제조 및 물류 용지로 변경** 필요
- 이를 위해 **고시개정**이 필요(「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내 토지이용계획(의산국토관리청)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자부))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 및 장비는 입주 기업에게만 실증테스트 등을 목적으로 허용되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개방형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전면 개방** 검토
- **법인세 감면** 등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 추진

2.1.3.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 식품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달성하고 산업의 활력을 제고

- * 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신중한 정책 결정 필요
- * 식품창업의 세분화 및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 * 기존 정책 연계 지원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가. 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신중한 정책 접근

○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진단 선행될 필요] 우리나라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식품기술이 적용되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많아 사업의 지속성 및 경쟁력에 한계를 보이는 현실임. 따라서,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절차 이후에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임.²⁸⁾

- 푸드테크를 적용한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체식품이나 IOT 등 높은 수준의 R&D를 장기간 진행하는 사업 대신 외식 관련 서비스업 또는 단순 식품가공업의 창업 비중이 높음.
- 그 결과 단기적인 산업 규모의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시장 진입이 쉬운 산업 특성으로 이미 레드오션(red ocean)에 진입하였다는 평가
-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의 식품산업 창업도 많은 편인데, 이는 다른 부문에 비해 소규모 자본 투자로 사업화가 쉬운 특성에 따른 결과로 추정

○ [적극적 탐색과 집중 육성] 찾아오는 스타트업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에 급급하기 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푸드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접근이 필요함.

- 식품분야 융복합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혁신 푸드 스타트업 발굴단’ 가동 고려

²⁸⁾ 1인 가구 증가 및 식품소비 트렌드의 다양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가락시장(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 등과 협업하여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통해 푸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 밀키트 창업을 지원

나. 식품창업의 세분화 및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 [부문별 차별화된 육성 전략 수립] 푸드 스타트업을 포함한 식품 창업의 유형과 하위 산업을 구분하여 해당 부문별 차별적 육성 전략 설정

- 식품 창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정립
- 유형별 창업 모델을 설정한 다음,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 * Group I의 식재료·외식 상품 유통업의 경우 ICT R&D 지원을 하되 추가적인 창업 지원은 최소화
 - * Group II의 산업 중 유망성이 인정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중기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표 6-3〉 우리나라 푸드 스타트업(협업)의 유형

구분		세부 유형
Group I	식재료·외식상품 유통	음식 배달 및 주문, 식재료 배송 및 주문, 식당 좌석 예약 및 메뉴 선주문, 모바일 식권 및 식당 무인 주문
	식품 관련 콘텐츠	맛집 정보, 레시피 공유, 먹방·쿡방, 식품관련 빅데이터 분석, 푸드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외식 창업	키친 인큐베이터, 푸드 트럭, 기타 아이디어 외식 창업
Group II	식품 및 관련 상품 생산	대체식품, 곤충식품, 식용 용기(빨대, 컵 등), 기타 기술 적용 식품가공 창업
	4차 산업 기술 중심 산업	스마트 키친(AI, IoT), 인공지능 요리사(로봇 요리사), 로봇 배달, 3D 푸드 프린터

주 1) Group I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일정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군
 2) Group II는 우리나라에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군
 자료: 김성훈 외(2018)

○ [민간 투자 시장과 연계 활성화] 미래 유망식품 분야 스타트업은 자유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및 투자 시장과의 연결이 최우선 과제임.

-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 및 컨설팅 확대 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생산까지 연계 가능한 푸드테크 기업의 청년 창업 및 성장 지원
- 스타트업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중심의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
-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 민간 출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초기 스타트업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모태펀드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 형태 투자방식인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검토
- 정부는 어떻게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표 6-4〉 모태펀드 분야별 개선방안

목적	대상	실천방안	내용
초기기업투자	푸드 스타트업	직접투자 도입	초기 단계 기업(스타트업) 및 지방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검토
일자리 창출	푸드 스타트업	융복합 투자 도입	지역 개발에 대한 융복합 투자 고용 증대에 대한 융복합 투자 * 회수가 가능한 융복합 투자방식이 핵심
민간자본 유입	푸드 스타트업	민간 모태펀드 도입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법적 개정
스케일업 강화	중기 기업	스케일업 펀드 도입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진출 유도	수출기업	특수 목적 펀드 도입	해외 모태펀드와의 전략적 제휴
푸드 스타트업	혁신기술 푸드 스타트업	특수 목적 펀드 도입, 엔젤투자, 클라우드 펀딩 유도	푸드테크, 푸드테크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

자료: 전성민(2020)

다. 기존 정책 연계 지원 및 부처간 협력 강화

○ [푸드플랜과 푸드 스타트업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 사업인 푸드플랜에 푸드 스타트업을 접목시켜 사업 간 시너지 창출 필요

-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영세사업자 시장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치기에, 초기 사업화를 위한 시장 기반으로 푸드플랜 생태계를 적극 활용
- 도시형 푸드플랜 지자체나 복합형 푸드플랜 지자체의 경우, 원물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서 나아가 가공식품이나 식품 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정책이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않아 푸드 스타트업을 접목시킬 필요

○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산자부는 전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공모하여 지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사업 아이টে็ม으로 식품산업이 적용되

는 사례가 많아, 이를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활용

※ 충청남도의 경우 청양군에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립하고 있는데, 식품산업 창업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음

2.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수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식품소비 시장의 성장 정체 및 고령화로 인한 식품질병 발생 전망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고령화율은 20.3% 전망, 1인 가구 비중 32.3% 전망 * 가구당 실질 식품 지출액은 70만 원 수준에서 정체 유사한 수출국을 대상으로 원물, 가공도가 낮은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이 2016년 이후 상위 개 국가,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이후 5위권에서 벗어남. * 가공도가 낮은 품목 중심: 최근 7년간 참치, 김, 음료, 라면, 커피제 조품 등이 수출 상위 품목임.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출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키트, HMR 제품으로의 품목확대가 필요하나 현지 유통과 검역 상 애로사항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진흥계획에서는 ASEAN 국가들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유럽/무슬림 국가들로 관심을 옮겨 집중 개척 기존의 수출국가 중에서도 교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까지 수출 확대 노력 필요 해당 국가 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산자원부 협상과정에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통관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방안 마련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분야 R&D 혁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기준 공공 R&D 6,928건으로 증가 추세 * 식료품 분야의 제조업 혁신율은 14%로, 전체 20.6% 대비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R&D 추진
경영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물가 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원자재 수급 불안, 시장 축소 전망 코로나로 인한 높은 폐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폐업 업체 수 3,524개 업체(전년 3,329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단계별 경영안정지원정책 마련

2.2.1.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미래유망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미래 수출 전략 품목 및 대상 국가/지역 발굴
- *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 한류열풍 활용 K-Food 마케팅 강화 등 마케팅·물류·검역 부문 지원 강화
- *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강화
- * 글로벌 외식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가.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미래 수출 전략 품목 및 대상 국가/지역 발굴”

○ [품목 및 대상국가 다변화] 딸기·포도와 같은 제2의 스타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견인을 도모해야 함. 1) 품목 및 대상 국가 발굴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 2) 기수출지역의 수출량 확대(기수출국가의 미수출지역 개척 등을 통해) 및 미수출국가 대상 개척 노력(한류 마케팅 확대)²⁹⁾, 3) 제2의 스타품목 발굴을 위한 마켓테스트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확대, 4) 해외 시장 및 해외 소비자/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 다각화 등이 필요함.

- 국내 농식품 수출 전문가, 해외바이어, 국내식품기업 수출담당자, 정책담당자, 학계/연구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인 회의, 체계적인 발굴 절차를 거쳐 스타품목 및 미래 잠재 수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품목 및 국가에 기업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는 동남아시아가 35%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중국, 유럽이 12%를 차지함. 다음으로 일본이 9%로 후순위를 기록함. **4차 진흥계획에서는 ASEAN 국가들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유럽/무슬림 국가들로 관심을 옮겨 집중해야 하며, 기존의 수출 국가 중에서도 교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까지 수출 확대 노력 필요**

²⁹⁾ 식품기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4.2%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기존 농식품 수출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더 많은 수출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임.

- 수출 품목 발굴과 관련해서는 1) 스타품목인 딸기/포도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국가들의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수출안정화가 필요하며, 2) 김치, 장류(전통식품), 발효/건강식품, 식재료 쪽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 또한 요구됨. 3) 차세대 스타품목으로 대체육, 밀키트, 간편식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4)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상온 1차가공, 음료, 인삼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가공식품, 냉장/냉동만두, HMR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함.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류/첨가물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
-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전략품목육성사업’의 확대 추진(품목 및 대상 국가 선정에서 변화에 유연한 대응)

나.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재무불확실성 해소 노력] 농식품 수출업체가 고비용 시대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자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운영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예상치 못한 교역환경 변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물류난 등의 상황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식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용자지원사업 혜택 필요(피해기업 등 가장 필요한 업체들 중심으로 집중적 지원 전략 필요)
 -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보호 필요(수출보험 상품 개발 및 수출보험 가입 홍보 강화 등)
- [조직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통합·선도조직, 수출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업,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운영방식의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 속에서도 2021년 신선식품 수출액이 약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함.
- 1) 우수 단지 및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미흡한 단지에 대한 면밀한 원인진단 및 컨설팅 추진, 2) 신규 단지/조직 조성 초기 단계 조직화 교육 강화
- 우수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미흡한 단지에 대한 원인진단 및 컨설팅
- 생산 및 수출량 입력 등 데이터 연계 및 활용도 제고(FTA Agri 등)
- 신규 수출통합조직 결성 추진(계속) 및 확대, 개별 조직의 운영 내실화 지원
-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수출협의회 운영은 핵심적 수출진흥정책으로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별 조직 및 협의회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가동하여 수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 전문생산단지 또는 수출통합조직 운영과 관련한 수출전문인력 육성도 병행될 필요

다. 한류열풍 활용 K-Food 마케팅 강화 등 마케팅·물류·검역 부문 지원 강화

○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추진] 문체부 등과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 및 한류 마케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K-Food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내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한류 콘서트/드라마 지원, 범부처 한류산업과 연계(K-브랜드 공동홍보 등)

○ [비대면시대 한류와 온라인 마케팅 연계] 비대면시대 온라인 홍보를 통해 한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온라인/화상 수출 상담,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로 비중 확대
- 전문 유튜브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온라인 박람회 활성화

○ 국제박람회, K-Food Fair, 소비자체험홍보, 바이어 거래 알선,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사업 모두 실적이 우수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사업들의

정량적인 수출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판촉 및 온라인 판촉 사업, 판매플랫폼 구축지원 사업,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사업, 뉴미디어마케팅, 온라인페어 개최 사업도 K-Food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물류 효율화 사업 등 지속 추진
 - 공항/항만 인근 저온저장고 제공을 통해 냉장/냉동제품 수출 확대 도모(동남아 지역 콜드체인 확장 추세)
 - 항공공동물류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필요(신규노선 발굴, 수출선 확대 필요)
 -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확대 추진(품목 확대, 수혜대상 업체 발굴 노력)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운영
 - 물류난/선박난 재발 대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역 인력 증 수출인력 확충을 추진하여 EU 등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예: EU 육류 수출).

라.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강화

- 해외 식품 시장 및 소비 트렌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트렌드 발굴 및 해외 시장 정보제공 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출 관련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팀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수출업체 맞춤 조사 지원), 수출대상국별로도 마찬가지임. 맞춤형 ‘현지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수출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1차, 2차 벤더들에 대한 ESG 경영 관점의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화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대응 필요

- 비관세장벽 관련 조사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국가별로 정리하여 실시간 제공, SNS 등을 통한 전파, 현지화 지원 등)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상시 원스탑대응팀을 신설하여 비관세통상장벽에 실시간으로 대응
- 국가별 시장 및 소비자의 특징, 국가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수출전문인력 육성 병행 필요
- 수출과 관련된 플랫폼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케이푸드 트레이드)

○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출바우처사업 및 수출컨설팅은 더 비중 있는 핵심 정책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수출바우처사업에서는 현재의 수출실적은 낮지만, 수출잠재력이 뛰어난 소규모 수출 업체들에 대해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수출상품화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에서도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참여업체의 선호, 니즈와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

마. 글로벌 외식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외식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³⁰⁾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단계별 준비 상담 및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해외진출 총괄 데스크’와 국가별 ‘현지지원센터’ 설치·운영
-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예비진출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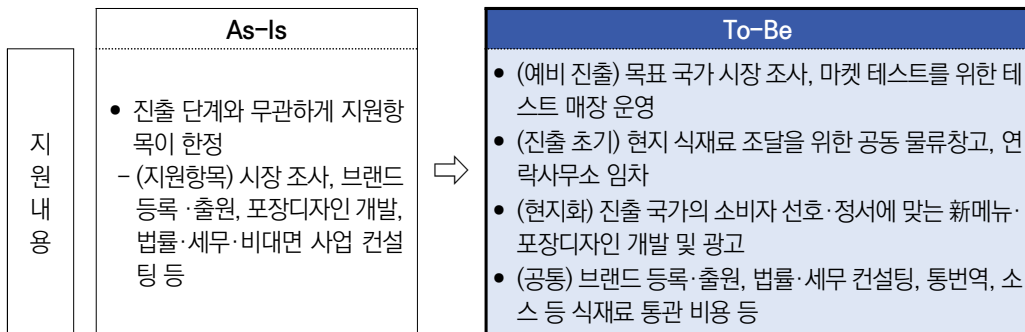
- 진출 희망 국가별 최신 파트너社·바이어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매칭 지원

³⁰⁾ 규제 정보 부족, 통관 기준·절차, 한국산 식재료 공급망 부재, 시장정보 부족, 현지 인력 모집·운영 등

-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국내 외식 브랜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진출 유망 국가 대상 현지 홍보³¹⁾ 강화
- 해외 주요 언론사·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 국내 외식 브랜드 외국어 홍보자료 발간·배포
- 항공사·여행사와 외식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방한 외국인 대상 국내 외식 브랜드 홍보

○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통한 진출 방식 다변화, 안정적 초기 정착 및 현지화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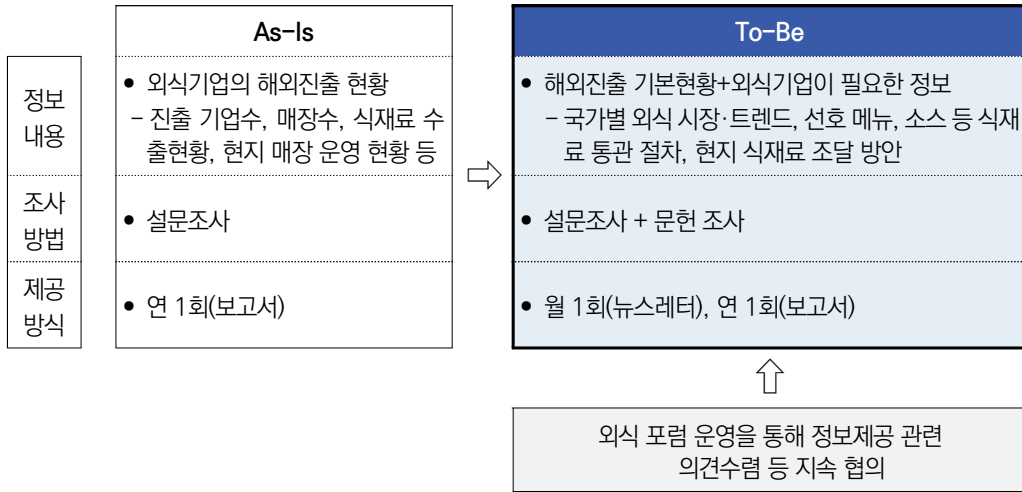
-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22년 2.5억 원): 해외진출 희망 외식기업에게 시장개척, 브랜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지원(24백만 원/개소, 10개소 지원)



○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연 1회 → 월 1회),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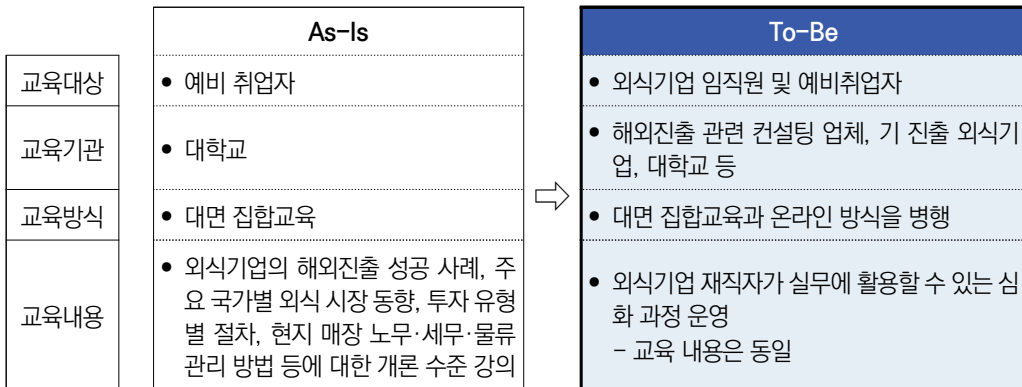
- 국가별 외식시장 동향, 소비자 선호 메뉴, 식문화, 식재료 수출 통관 정보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신규 제공(뉴스레터+보고서)
- 진출 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진출 유망 국가의 외식 트렌드, 식재료 통관정보 등 제공

³¹⁾ 한류 콘텐츠(K-POP, K-무비·드라마 등) PPL, 해외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



○ 교육을 통해 중소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개선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심화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



2.2.2.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 ◇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연계 및 오픈형 R&D 추진체계 구축
 - *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 *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 *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R&D 추진

가.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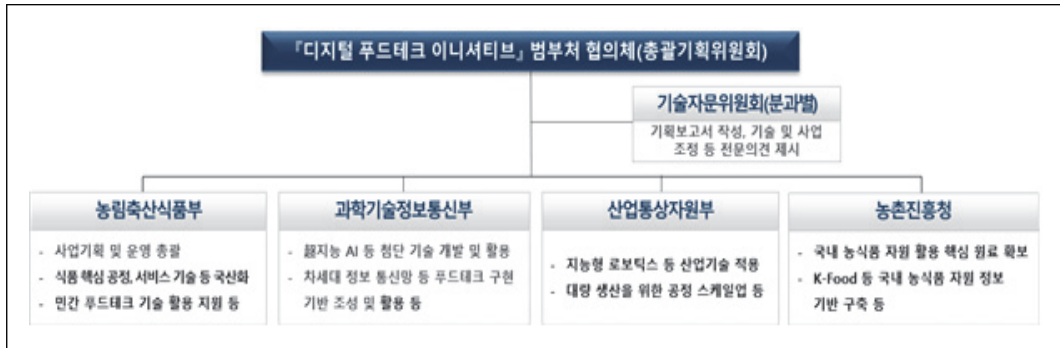
○ [국가 식품 R&D 거버넌스 구축] 국내 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 디지털 기반 ‘푸드테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디지털 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조성

- 기술분야(안): 스마트 제조/유통, 식품 커스터마이징, 외식 푸드테크, 3D 푸드 프린팅 등
- 가공에서 유통·소비까지 디지털 기반의 푸드테크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부처별 강점을 고려한 **협업 방안** 마련하여 **범부처 협의체 구성**

※ (美) 푸드테크 관련 R&D 강화,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추진

- ‘2020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 제정으로 푸드테크 분야 R&D 지원 강화, 배양육 관리를 위한 정부 간 역할 정립(FDA는 세포증식 단계, USDA는 세포증식 이후 **식품 생산·유통 단계** 관할)
 - ⇒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사례 지속 등장, 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화 단계 진입

〈그림 6-15〉 범부처 협의체(안)



○ [민간 주도 연구 강화] 핵심 분야별 초기 기술~고도화까지 단계별 R&D를 민간 주도로 추진

- 기업이 가진 기술 전략에 대한 정부 R&D 과제 선정을 전제로 민간기업의 투자협약, 정부는 R&D 과제 선정 시 협약 실적, 기술 전략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①자율주제 R&D, ②투자연계형, ③스케일업(핵심기술 보유 및 고도화 단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전 분야 R&D 확대

○ [R&D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관련 산업계 신규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세액공제 확대 지속 추진

〈표 6-5〉 22년 식품 분야 관련 주요 개정 사항(요약)

현행	개정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3개 분야 7개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4개 분야 12개 기술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 농수산· 식품 (5)</td> <td> •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 생산공정 기술 • 식물성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 화학 (1)</td> <td> •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자원화 (1)</td> <td> • 페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 화 기술 </td> </tr> </table>	바이오 농수산· 식품 (5)	•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 생산공정 기술 • 식물성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바이오 화학 (1)	•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자원화 (1)	• 페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 화 기술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 농수산· 식품 (5)</td> <td> • (개정)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 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 (개정)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 화학 (2)</td> <td> • (개정)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 (신설)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 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오염방지· 자원순환 (4)</td> <td> • (개정) 페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 업원료화 기술 • (신설) 페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 (신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신설)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소중립 산업공정 (1)</td> <td> • (신설)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 료 생산기술 </td> </tr> </table>	바이오 농수산· 식품 (5)	• (개정)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 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 (개정)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바이오 화학 (2)	• (개정)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 (신설)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 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오염방지· 자원순환 (4)	• (개정) 페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 업원료화 기술 • (신설) 페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 (신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신설)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탄소중립 산업공정 (1)	• (신설)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 료 생산기술
바이오 농수산· 식품 (5)	•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 생산공정 기술 • 식물성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바이오 화학 (1)	•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자원화 (1)	• 페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 화 기술														
바이오 농수산· 식품 (5)	• (개정)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 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 (개정)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바이오 화학 (2)	• (개정)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 (신설)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 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오염방지· 자원순환 (4)	• (개정) 페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 업원료화 기술 • (신설) 페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 (신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신설)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탄소중립 산업공정 (1)	• (신설)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 료 생산기술														
〈확 대〉 • 유용미생물 개발, 유용물질 생산 기술 • 식물성 대체식품 생산 기술	• 유용미생물 최적화성 연구 추가 • 배양육 생산 기술 추가														
〈신 설〉	• 바이오파운드리: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 생산 기술 • 플라스틱 저감: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기술, 물리· 화학적 재활용 기술,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나.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 [노동생산성 제고] 단순노동·위험업무 로봇 대체를 통한 인력 부족 해소 및 식품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

- 식품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위한 R&D 추진
- 식품제조업의 공정 관리를 위한 센싱 기술, 판단/제어 기술, 외식업의 주방 보조, 식
 재료 관리 자동화 등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

○ [개방형 R&D 추진]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고도
 화 및 타분야 연구 협력 다변화 필요

- 공정모니터링, 품질 검사 등 복합·다중 센서 고도화(과기부)
- 디지털 푸드센서, 가상제조 환경 구축 등 초지능형 AI 및 디바이스 개발(과기부)
- 고위험, 노동력 과투입 공정 대체 로봇 개발(산업부)
- 공정관리를 위한 판단/제어 기법 확립(과기부/산업부)
- 공정작업을 위한 협동 기술 및 공장 단위 스케일업(산업부)
- 보급형 식품공장 맞춤형 공정 개발 및 현장 확산(농식품부)

○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추진] 식품 소재·설비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현장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식품 제조·설비 첨단화 및 관련 센서·부품 국산화 지속 투자

- 수입 의존적 식품 소재·설비 관련 국내 자체 기술개발
- 수출 제품화를 위한 최적 가공기술 개발
- 식품 생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국방부)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국산화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여 전략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 지원
- 개발비 기준 500억 원 이내의 과제를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5년간 지원

다.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추진

○ [K-food 경쟁력 강화] K-Food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식품 품질·안전관리 및 가공기술 고도화

- 식품 품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 식품 보존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K-food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ESG,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 개발(스마트 푸드 패키징)이 필요

- K-food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ESG,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 개발(스마트 푸드 패키징)**이 필요
-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 식품 포장 기술개발**
- **포장 폐기물 감량 기술개발**
-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소재 대체 기술 개발**
- **지시계, 센서 등 지능형 포장 제품화 기술개발**
- **스마트 라벨 기반 지능형 포장 기술 식품산업 적용**
- 비대면 사회 대응과 가정간편식 적용을 위한 **기능성 포장 기술개발**

※ (뉴스) “식품·외식업체 포장 기술이 성공 열쇠”

맛있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맛 품질을 유지한 채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경쟁력의 핵심

- CJ제일제당: 햇반 용기 구조 변경(음압구조 개발)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40% 감소** 성과
- 식품 포장의 경우 식품업계의 기술지도와 요구를 통해 포장 업체가 만드는 구조, 대부분의 **포장업체들이 소기업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설비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음.
- 친환경 용기·접착제·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도 고려**

2.2.3.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 ◇ 식품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확립
 - *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 * 생산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 *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 [국산농산물 구매 지원 지속 추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의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외식업체 육성,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의 농식품 원료구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식품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는 **업종에 따라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식품산업체를 유형화하여 원료 수요를 조사,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원료 공동 구매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배

- **국산 콩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실시
-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원료 확보지원을 위해 **aT가 수매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판매**

○ [직거래 활성화]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 등과 생산자조직 간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품목별 수급 및 구매처 정보 제공으로 **계약재배** 등 직거래 활성화

- 식재료 직거래 확대를 위해 중소식품제조/외식업체의 **eaT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참여 유도
- eaT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용가지원 내용과 온라인거래소(On-KAFEX) 식자재물 이용 방법 및 **비용 절감 사례 홍보**

※ 사이버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22년 262억 원): (금리) 30일간 무이자, 50일간 3%
 ※ 농축산물 기업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실적(억 원): ('19) 3,084 → ('20) 3,694 → ('21) 2,875

- 산업부의 **프랜차이즈 정보시스템**('22년 말 구축완료 예정)과도 **B2B거래 플랫폼**을 연계하여 통해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접근성 확대

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 [시설현대화 지원] **농식품시설 현대화 사업, 중소기업육성사업, 외식업체육성자금**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성장 발판** 마련

- **스마트공장, 자동화** 등 설비지원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 **가스레인지, 주방 환기설비, 자동소화설비 등 노후 설비 등 교체 및 개보수 지원**
- **유휴시설 임대·공유 등 이용 활성화**,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조달 기회 확대
- 지원된 자금을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신규 기술 도입 지원] 새로운 소비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외식산업 혁신 성장동력 지원**

- **자동화·무인화 기술과 5G·로봇·빅데이터와 AI** 등의 **푸드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비 부담 및 인건비 문제 해소 지원**
-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스마트 외식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우수 지역 및 외식업 지구** 중심으로 편성

※ KT의 서빙, 안내, 퇴식모드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AI 로봇 서비스
 - **로봇이 종업원 1인 대체 시 한 달 약 125만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³²⁾.**

³²⁾ 이희권, “사람대신 음식 운반하고 손님 안내하는 로봇… 월 임대비용 65만 원…인건비 절감 효과 충분”, 문화일보, 2022.04.25.

다.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정보 전달 체계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의 농식품 정보 분석 사업(식품산업 정보분석, 농식품 소비정보분석, 식품산업통계정보(aT FIS) 등) 내 실화를 통해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에 관련 정책, 소비자 정보,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 전달 강화

- 식품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판로 접근성 강화
- 식품산업협회 관계자와 식품정보 전문기관 등 정보 공급자·정보 수요자 그리고 정책 관련자의 정보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 구축된 체계를 통해 실제적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농식품 정보분석 사업을 내실화
-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부문 애로사항을 조사 이외에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교육 및 컨설팅]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경영 전반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성 제고

- 영세·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 대상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지원
- 영세·중소 식품제조업체 판로지원 사업을 통한 전용판매관 임점, 해외바이어 박람회 연계, 라이브커머스 연계 등 마케팅 지원
- 신메뉴 개발, 세무·노무관리 등 컨설팅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 [빅데이터 기반 경영진단 바우처 도입] 농식품 관련 전문기관의 데이터 가공, 분석을 통한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에 활용

※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22년 총 예산 1,241억 원, '22년 구매 1,200건, 일반가공 480건, AI가공 1,000건 지원

라. 식품산업 혁신역량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규제발굴 절차 상설화

○ 식품산업 진흥제도의 역차별·진입장벽 및 영업활동 제약 관련 불합리한 행정제재 정비

-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허가/인증 등 자격요건

- 특정 업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특례인정 추진
 -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검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영세기업 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 확산**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상승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모색이 필요하며, 혁신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시장에 활용**하는가가 중요
- 정부 규제가 R&D 활동 저하, 신규 설비투자 제한, 필요한 외부자원 차단 등 모든 유형의 혁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혁신역량이라는 요소 확충과 혁신의 활용 결과인 신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확대**
- 식품산업정책과 내에 식품산업 관련 규제 개선 상시 대응팀을 신설하여 업체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규제 개선 **효과 평가 및 한계** 등을 분석하여 규제 완화의 근거자료로 활용
- 타부처 사업과 관련될 경우,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 예를 들어 세금 관련 규제, **첨가물** 관련 규제, **노동** 관련 규제 등의 안전에 대해 **식약처, 노동부** 등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형성하여 규제 개선 체계 구축
- 규제개선/불편 관련 상시 대응팀(**농식품 규제 원스탑대응팀**) 신설 및 운용을 통해 **신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식품 관련 **불요불급한** 규제의 완화

2.3.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은 증가하나, 대부분의 원재료가 수입산에 의존 *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 ('17) 1,715만 톤→('20) 1,855만 톤 * 2017년 이후 원재료 사용 상위 5개 품목은 밀, 원유, 옥수수, 원당, 밀가루, 국산 사용 비중은 원유(100%)를 제외하면 0.1%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적성 우수 품종 개발 국산 원재료 사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전통식품, 전통주 시장 확대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구,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높은 유사성 * 지원규모를 제외한 네트워크-특구 사업의 차별화 필요 사업간 낮은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사업 통합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구성
한식산업의 성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둔화된 성장 * 외식업체 중 한식업체 비중 ('18) 45.6%→('21)43.6 *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외국식 중 가장 낮은 평균매출액 (19,933만 원) 한식산업 강직성 해소 필요 * 일반음식점주 중 가장 높은 사업주 연령(56.1세, 전체 평균 53세, 일반음식점 평균 55세) * 평균 종사 기간 일반음식점 내 2위(13.0년) * 배달앱 이용 적합도 매우 낮음(배달앱 이용률 22.5%, 배달대행 이용률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환경 구축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메뉴 개발 (국외) 홍보 강화
전통식품, 전통주 성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산업화를 위한 역량 부족 * 전문문화 계승 역량은 충분하나, 전문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낮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명인/사업체는 거의 없음. 정책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각종 초기 비용, 서류 절차 등 지원 필요 * 낮은 공공기관 사업 참여 체감도(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트랙 전략 필요 * 식품명인 대상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육성 필요 * 전통식품 사업체 대상 정보 및 정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2.3.1.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 ◇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강화를 통해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체계 확립
 - * 식품(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지원정책 확대 및 직거래 강화
 - *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의 단계별 구축 지원
 - * 국산 농산물 이용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 유도

가. 식품(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지원정책 확대 및 직거래 강화

○ [식품제조업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지원정책 확대]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사업 규모 확대

-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제고 정책 중 가장 큰 규모인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추가수요 발굴을 통한 규모 확대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22년 예산 113,000백만 원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예산 ('17)1,000백만 원→('22)2,600백만 원

-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세세부과제 중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을 위한 소재 확보 차원에서 지속 추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예산 규모는 '15년 900백만 원에서 '22년 3,405백만 원으로, 지원 사례는 '15년 3개소에서 '21년 10개소로 333% 증가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식품업체 진단맞춤 지원’ 등 식품산업 국산 농산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
- 홍보채널 다변화 및 지원대상 확대 검토를 통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이용률 제고

- 보증금액 확대를 바탕으로 한 ‘구매이행보증보험’의 사업 수요 발굴

○ [외식산업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확대]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및 특산물 상품화 지원 및 홍보 강화

-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농식품온라인거래소(eaT) 시스템 본사업화 추진
- 농식품온라인거래소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³³⁾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eaT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사이버거래 결제자금 융자지원사업(30일간 무이자, 50일간 3% 지원) 등 사업 정보 제공, 농축산물 기업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거래실적(2021년 2,875억 원) 홍보, 프랜차이즈 정보 시스템(산업부, 2022년 구축예정)을 활용한 B2B 거래 플랫폼 연계 및 외식기업 접근성 확대 등

○ [직거래 강화] ‘(가칭)식품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식품(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

- 생산자-식품기업, 산지유통조직-식품기업, 지자체(농협)-식품기업 등 다양한 채널 별로 정보교류 및 판매지원 체계를 구축
- 플랫폼으로 산지정보와 식품기업 수요가 매칭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추진(예, 트릿지 사례의 국산 농산물 적용) 및 적극성과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민간 플랫폼 기업 활용

글로벌 농수산물 소싱 허브 기업인 트릿지(Tridge)는 '트릿지 풀필먼트 솔루션'을 통해 상품을 직접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부터 배송까지 거래의 전 단계를 책임져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의 신뢰성을 보장함. 또한, 시장정보를 기반으로 생산과 수요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산지유통조직, 식품기업을 비롯하여 식품기업과 연계된 전처리, 반가공(소재) 업체 등의 구성원들이 플랫폼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각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별 우수사례 발굴 및 통합 사례집 작성·식품 디지털 플랫폼을

³³⁾ 외식기업과 생산자 단체 간 수시 간담회 추진 및 품목별 직거래 가능 생산자조직 및 거래 절차, 직거래 우수사례 등 정보 제공이 있음.

통한 전파,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수혜 대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유도

- 이외에도 민간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에 식품외식기업 전용 직거래 장터 개설, 식품 제조업 및 외식업체와 MOU 등을 통한 지역 특산물, 신제품 농산물 활용 외식·음료 메뉴 개발 및 소비 확대 지원 추진 검토

- 스타벅스는 제주 말차, 문경 오미자, 공주 밤, 이천 쌀 등을 이용한 메뉴를 출시하고, 고구마(30톤), 밤(126톤), 딸기(100톤), 쌀(20톤) 등 지역특산물을 구입('15~'22)
- 쌀가루 전용 쌀 '바로미2', 노화방지·혈당저하 수수 '동안메', 저장성 우수 가공용 쌀기 '미소향', 육질 쫄깃·국물맛 구수한 토종닭 '우리맛닭' 등 신제품 기반 제품 개발 지원
- 외식업과 식품제조업의 융합과 '편스토랑' 트렌드: 유명 외식 브랜드 제품의 가공식품화

- 국산 식재료 이용 외식업체 홍보 지원을 통한 소비 확대, 외식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국산 농산물 이용 실적을 ESG 경가와 연계 방안 도입 검토³⁴⁾

나.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의 단계별 구축 지원

○ [농업경영체 지원]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기초 단계로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 지원사업 지속을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

- 품목별로 육성되고 있는 식량, 원예 농산물 공동경영체 및 산지유통조직 지원 정책에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포함 검토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발작물공동경영체 등이 가공용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경우 우선 지원
- 농업경영체 대상 계약재배 홍보 확대

○ [계약재배 강화] 소재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가공용 농산물 대량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지원과 사업 규모 확대³⁵⁾, 계약재배 실효성 강화

³⁴⁾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검토 시 ESG 평가 지표에 국산 식재료 구매 실적을 포함하고 우수 외식기업 대상 정부포상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

³⁵⁾ 계약재배 사업 실적은 2019년 93억 원에서 2021년 1,455억 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에서 구매하고 있는 2020년 한 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은 26.8조 원과 비교하면 규모화가 필요

- 원예농산물 생산안정제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기금 또는 자조금을 가공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성하여 계약재배 사업 보조

〈원예농산물 생산안정제 사업〉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농가와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5년 평균가격의 80%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장과 전국적인 생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함.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수입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품목의 경우 계약 당시 해당 시기에 출하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와 농가의 계약재배 탈출 유인을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³⁶⁾
- 계약재배의 계약 당사자를 일정 경지면적을 확보한 농협 및 대규모 작목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일본 농림수산물 계약재배 사례: 「대규모 계약 재배 산지 육성 강화 추진 사업」(「大規模契約栽培産地育成強化推進事業」)

- 일본은 가공용 원료 확보를 위해 대규모 계약 재배 산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총 10억 1,900만 엔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채소·시설 원예 지원 대책」(「野菜·施設園芸支援対策」)의 세부사업임. 2022년에는 수출용 채소를 대상으로 하는 10아르당 15만 엔 규모의 지원안을 포함함.

일본 사례의 특징은 가공용 원료 특성상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당 10 헥타르 이상 50헥타르 이하의 면적을 가진 계약 당사자(일본 농협 혹은 5인 이상의 생산자단체)인 점임.

또한, 당근, 양파, 양상추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량이 많은 시기에 출하하도록 계약하여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효과 극대화, 생산 시기 조정을 통한 농가의 계약재배 이탈의 선제적 방지를 유도함.

○ [가공용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 식품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의 가공용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 정책 추진 검토

- 중견기업 이상 식품기업들은 농가 관리 어려움과 업무증가로 계약재배 선호가 줄어

³⁶⁾ 현행 계약재배는 농협과 농가 간 출하량과 출하시기, 가격 등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농가가 출하 시기를 조정할 유인이 높지 않음.

드는 상황임. 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중간지원조직이 기업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생산자-기업 간 연계 촉진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판촉·홍보 등의 비용 지원
- 가공용 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공용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 육성 추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발작물공동경영체, 공선출하회 및 농협 등 계약재배 우수 이행 주체들이 공동으로 광역단위 가공용 원료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다. 국산 농산물 이용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 유도

○ [국산 원료 의무 이용 인센티브 강화] 국산 원료 의무 이용률 초과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식품제조업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은 식품산업 분야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 확대(4/104 → 8/108)임.
- 외식업은 108분의 8(과제표준 2억 이하는 109분의 9,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을 받고 있는데, 중소식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104분의 4를 받고 있는 실정
- 쌀가공업종의 경우 정책 목적 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 인상 우선 고려
-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의무 이용률인 125%를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식품가공원료매입사업은 대출금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22년 고정금리 인하(한시 적용)에 따라 110억 원 감액된 1,130억 원 예산이 편성됨.

2.3.2.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과 지역내 산업 성장 도모
 - *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연계 및 통합
 - *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
 -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확대
 -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가.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연계 및 통합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개선] 지원금액의 효율화 및 핵심사업 위주의 지원정책 개편을 통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확산

- 사업 효율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던 범위를 목적에 따라 한정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통합 2억 원→목적별 0.5억 원으로 개편)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화 네트워크 사업단 구성·지원을 통해 공동홍보·마케팅·판매 등 공동사업 촉진이 목적임.

산업주체간 네트워킹 강화,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시제품 생산 및 제품 개발 지원 분야에 2022년까지 사업단별 국비 1.5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

* 성주 참외, 공주 로컬푸드, 안성 배, 양평 6차산업, 진안 체험 및 축제, 천안 병천순대, 공주 가공식품 등

- 지원대상 협의체와 협의체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 및 예산 확대, ‘품목중심’에서 ‘컨텐츠 중심’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으로의 개편 검토
- 분야별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유도
- 지원대상을 농업생산단체에서 농촌, 지역의 푸드스타트업, 중소식품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로 이어지는 기존의 체계에서 필요시 지자체가 농촌융복합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효율화

○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의 성장 촉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개편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육성 혹은 사업 통합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구축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네트워크 사업과 중복성 발생
- 중복성 완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지구사업으로 확대하는 체계 구축
- 탄력적 사업추진단 구성, 참여경영체 확정 절차를 구축하여 심사 및 선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과정 효율화 유도
- 특화품목(농산물) 기반이었던 기존의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특화품목 후보군을 폐지, 사업 대상 범위를 경관, 농촌문화로 확대하여 사업 유형 다양화
- 산업지구로의 성장사례 발굴 및 성과 기반 홍보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혹은 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화 및 내실화 검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육성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성한우, 평창 고랭지배추, 안동 마, 임실 치즈, 서귀포 감귤 등 지역 특산물 기반 지구, 완주 로컬푸드, 장수 레드푸드 등 지역먹거리 기반 지구 등 2022년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추진실적: 2014~2021년까지 0 → 32개소, 예산('18) 55억 원 → ('22) 60억 원
* 지구당 연간 국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지원

○ [네트워크-지구, 사업-지자체 간 연계 강화]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산업지구의 통합 가능성 및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고, 유사 사업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

- 산업지구로 성장하는 네트워크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통해 네트워크-지구 간 연계 체계 홍보 및 지구사업 참여 네트워크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지원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 지구 운영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시도지원센터 참여 강화 및 수출기업으로의 성장 유도를 위한 관련 정책 정보 제공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산지 매칭사업, 식품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사업 단계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량 DB화³⁷⁾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특화 식품산업 지원의 집적화·규모화 추진 검토

다.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수요 확대와 공급체계 구축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촉진] 지역산 농산물 및 지역 콘텐츠에 대한 민간수요 확보를 위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 국내산 및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20대를 타겟으로 ‘가치소비’ 트렌드를 활용하고 지역과의 상생,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 로컬푸드 운동, 다원적 기능, 식량 주권, 윤리적 소비 등 기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전개와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발굴 및 지역먹거리계획과의 연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 K-ESG와 연계하여 지역산 농산물 소비가 지역 및 환경에의 기여임을 강조·홍보

일본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地產地消)·순산순소(旬産旬消)·자산자소(自産自消)
 일본은 자국 농산물 소비에 대해 정책적 조치를 하고 있음. 최근 지산지소 운동은 먹거리의 지역생산 및 지역소비를 넘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운송 단계)하는 역할을 더하여 추진됨.
 * K-ESG 분류(산업통상자원부): 중견 및 중소기업 ESG 경영 성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K-ESG 가이드북의 사회 부문 9개 지표에는 지역사회 부문이 있으며, 지역사회 대한 전략적 사회공헌과 구성원의 봉사참여가 포함됨.

- 식품 대상 전면표시제도 도입 추진 시 제품의 주표시면에 제품의 국산·원산지 정보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제화하여 원산지 관련 표기 인지도 개선
-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 로컬푸드 식당 인증제 활성화 지원 및 국가단위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 검토

³⁷⁾ 판촉 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식품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에서 판촉 노력 전개, 지역 전략 품목의 특화와 수급 확보 노력,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로의 육성을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 유도 및 중소식품기업이 국산 원료산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식품업체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등

지역농산물 이용 음식점에 대한 식재료비 지원사업 사례

*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22~): ('22예산) 3.6억 원, (지원규모) 외식업체 300개소

* 지자체 로컬푸드 음식점 인증제: 충남도미더유, 완주군완주농산물사용업소, 춘천시봄애히툰

○ **[수요 기반 원료 공급 추진]** 지역단위 관계시장에 대한 식품 수요 및 시장 분석을 통해 계획적 상품개발 및 공급지원체계 구축 등 수요 기반 원료를 공급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납, 고향세 답례품 시장 등 지역 관계시장에 대한 식품 수요에 대한 시장분석을 수행
- 계획적 상품개발 및 공급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
- 식품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유아, 학생, 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 지역특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그에 적합한 식품공급을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음식점에 대해 식재료비(1백만 원/개소) 지원*('22~)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22~): ('22예산) 3.6억 원, (지원규모) 외식업체 300개소

지자체 로컬푸드 음식점 인증제: 충남도 '미더유', 완주군 '완주농산물사용업소', 춘천시 '봄애히툰'

○ **[거래 안정성 확보]** 지역특화 가공상품화 진단 및 개선을 통해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

- 현존하는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신활력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개발된 가공상품의 상품성, 안전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DB화하고 주기적으로 수행
- 주기적으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개선, 신시장 개척,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활력 지원
-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공 적성이 높은 품종에 대해 원료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 농협 가공사업의 경우 농협 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가공사업 및 식품사업 활성화 촉진

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과 지자체 협력으로 개선

- 지역별 식품업체 간담회 개최
- 공모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
- 지자체 관련 법규 정비

2.3.3.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 한식 산업 육성과 음식관광 활성화

- * 한식 관련 사업 추진체계 및 콘텐츠 집적화를 통한 한식진흥 기반의 조성
- * 한식 진흥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내외 한식 확산 추진
- * 전문인력 양성과 온라인/오프라인 해외 한식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저변 확대

- * 창업지원 및 운영지원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
- *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 기반 마련
- * 전통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가. 창업지원 및 운영지원체계 구축

○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에 진입한 청년·창업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창업 전에는 장소 임대 및 매매, 가공시설 설계 지원, 제조 및 판매 면허 발급과 관련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창업 후에는 제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후속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의 컨설팅에 집중
- 창업 업체를 성장단계별로 ① 창업 준비, ② 창업 후 3년 이내, ③ 창업 후 3~7년으로 구분하고, 각각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검토
- 특히, 창업 이후 3~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자 등의 자금지원 확대

〈표 6-6〉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맞춤형 창업정책 체계화	
창업 준비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방향 결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교육, 멘토링을 통해 사업 구체화,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후 3년 이내	창업 제품·서비스로 사업화하여 시장 본격 진출	⇒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아이템 제작, 시장검증 및 마케팅 등 사업화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후 3~7년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및 기술 등 고도화 신제품 출시 등 기존 사업 확장	⇒	창업도약 패키지	기술개발, 판로, 해외진출 등 사업방향에 따른 특화 지원

○ [운영 지원] 고품질 원료 조달체계 구축 및 국산 원료구매 용자사업 확대 추진

-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으며 영세하다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원료 공급망 구축을 검토
- ‘원료 공동구매’ 및 ‘구매보증 지원’사업 이용 확대,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100억 원)을 통한 계약 재배 활성화 유도
- 농업생산자단체에 대한 용자사업 우대금리와 유사하게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예산확보 추진
- 전통식품 및 전통주 기반 산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지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농촌문화·관광을 연결하는 지역의 거점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
- (인력 양성)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인력 육성 추진, 전문대학 혹은 교육과정에 전통 식품학과 도입 및 인턴 사업과의 연계 검토

○ [기술 지원] 전통식품·전통주 관련 품질향상을 위한 발효제, 균주, 종균 및 제품 생산기술 등을 지원

- 산업화를 위한 유용 균주를 전통식품업체 맞춤형으로 생산·보급하여 전통발효식품 품질향상을 유도 및 품질 표준화 추진
- 세계김치연구소를 통한 김치 균주 보급, 한국 전통주 연구소의 양조용 발효제(효모, 누룩) 개발 및 보급, 순창장류연구소의 종균 보급 사업 확대 및 표준화 추진

나.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 기반 마련

○ [판매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을 구축을 통한 판로 개척

- 한식 홍보관 ‘이음’, ‘전통주 갤러리’ 등 전통식품과 전통주에 대한 상시적인 전시·판매·체험 가능한 플랫폼 운영 확대
-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전통식품 및 전통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 [홍보 강화] 높아진 한식의 위상을 바탕으로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상품 개발·보급

- K-culture와 K-food 등을 통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정부 주관 행사와 연계한 한식행사 개최, 한식 콘텐츠 보급, 포럼 개최 등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
-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통식품 및 전통주 관광상품을 개발·보급

다. (전통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협의체 구성]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해 ‘(가칭)한국 전통주 연합회’ 설립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

- 전통주 관련 단체들은 많지만, 통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통주연합회 부재
- 전통주산업 진흥과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술 대축제,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우리술 품평회, 대한민국주류대상, 술품질인증 등 많은 정책 및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진행
- 전통주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홍보·판촉·마케팅과 품질관리, 생산자 권리 등의 세부적인 산업진흥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파트너인 ‘한국 전통주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전환

※ 주류 선진국의 주종별 민간협회의 역할

- 프랑스의 와인, 영국의 스키치위스키, 일본의 사케 등의 경우 품종, 재배방법, 품질관리부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협회를 중심으로 사업들이 이뤄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

라. 한식 관련 사업 추진체계 및 콘텐츠 집적화를 통한 한식진흥 기반의 조성

○ [추진체계 개편] 한식진흥원 운영 내실화 및 한식 관련 사업 추진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내 한식진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핵심 기관인 한식진흥원 조직 정비 및 사업 운영방식 개편
- 한식진흥원 직원 역량 강화, 자문체계 구축, 용역 및 공모사업 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 [통계 강화] 한식 정보 및 통계의 집적화와 확산 기능 강화로 해외에서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한식 관련 통계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공개 창구 일원화
- 국내외 한식 산업에 대한 주요 현황 등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민간 한식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식아카이브DB의 정보 범위 확대와 온라인으로 통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존사업 지속 추진
- 한식포털을 중심으로 정보 수요자와 정보 공급자가 만나는 정보 제공 창구의 일원화 및 한식진흥원-한식포털-한식아카이브DB의 연계 강화
- 통합형 콘텐츠 제작 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생산과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홍보 강화
- 사용자 친화적 환경 및 콘텐츠·소통공간 구축을 통한 한식포털의 기능 강화 추진

마. 한식 진흥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내외 한식 확산 추진

○ [인프라 활성화] 한식문화공간 이음, 해외한식당 협의체 운영 확대 및 국내외 한식 관련 행사 참여 지원

- 한식문화관,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이 통합된 한식 진흥 인프라인 한식 문화공간 이음의 한식확산 국내 거점화
- 해외 한식 확산 현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한식당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해외 거점화 및 재외공관과의 연계 강화
- 한식문화공간 이음과 해외한식당협의체를 중심으로 한식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통합화 및 다양화 추진
- 국내외 음식문화 관련 교류단체 및 기업, 행사 참여단체 대상 지원 확대
- 정부 타 부처 행사와 연계한 한식 문화 홍보 강화(한국문화축제 등)

바. 전문인력 양성과 온라인/오프라인 해외 한식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활성화와 한식 교육인력 대상 보수교육 확대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운용의 확대
- 한식 관련 교육인력, 강사 대상 보수교육 실시

○ [전문인력 활용] 현지 기관·대학·호텔 연계를 통한 육성된 한식 전문인력의 활용 강화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보수교육 이수자 DB화·이력관리 추진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보수교육 이수자 대상 인턴·취창업 지원과 연계 강화
- 한식 전문인력 국내외 해외 기관·대학·호텔 등 파견 및 현지 한식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해외 대상 비대면 한식 영상 공모전을 정례화·확대 운영을 통한 한식 인지도 및 소비저변 확대
- 국내 대상 각종 행사와 연계한 한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2.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경제적 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요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국제곡물가격 급등 * 무역수지 악화 전망 • 감염병의 주기적/지속적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제한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수급선 다변화 • 원재료 국산화 •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
식품기업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책임투자 비율 확대 대응 식품기업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연기금 사회적 투자규모는 131.2조 원 * 국민연금은 ESG 투자 기준 마련 • 식품기업의 ESG에 대한 낮은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에 대해 잘 아는 식품업체 비중은 10.7%(제조업 종사자 765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ESG 경영이 실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7.5% • EU 탄소노미 규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ESG 실천 기준 마련 • 중소식품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 마련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생산 단계에서 농산물에 대한 PLS는 시행되고 있으나 축산물 PLS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 • 식품산업의 작업장 안전성(재해율) 지표는 감소 추세이나, 제조업 대비 격차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업과 제조업의 재해율 차이 지표는 2010년 0.19% p, 2015년 0.15% p, 2020년 0.17% p •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영양정보제공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명영양표시제도, 외식업 영양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 •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작업자, 생산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건강 식생활 유도

2.4.1.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 ◇ 식품산업의 식품원료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확립
 - *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를 통한 식품원료 공급 안정화
 - *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품원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 * 탄력적 할당관세를 이용한 안정적 식품원료 공급
 - *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를 통한 식품원료 공급 안정화

○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을 위한 소재 확보 차원에서 지속 추진

- 대체육 등 콩 수요 확대에 대비한 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 기업에 원료 운송·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가와 기업 간 원료 계약재배 체결 유도
- 밀 생산 단지 확대 및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산 밀 비축제도를 운영하여 국산 밀의 유통 및 비축을 체계화

※ 밀 건조 저장시설 지원: ('21) 2개소 → ('22)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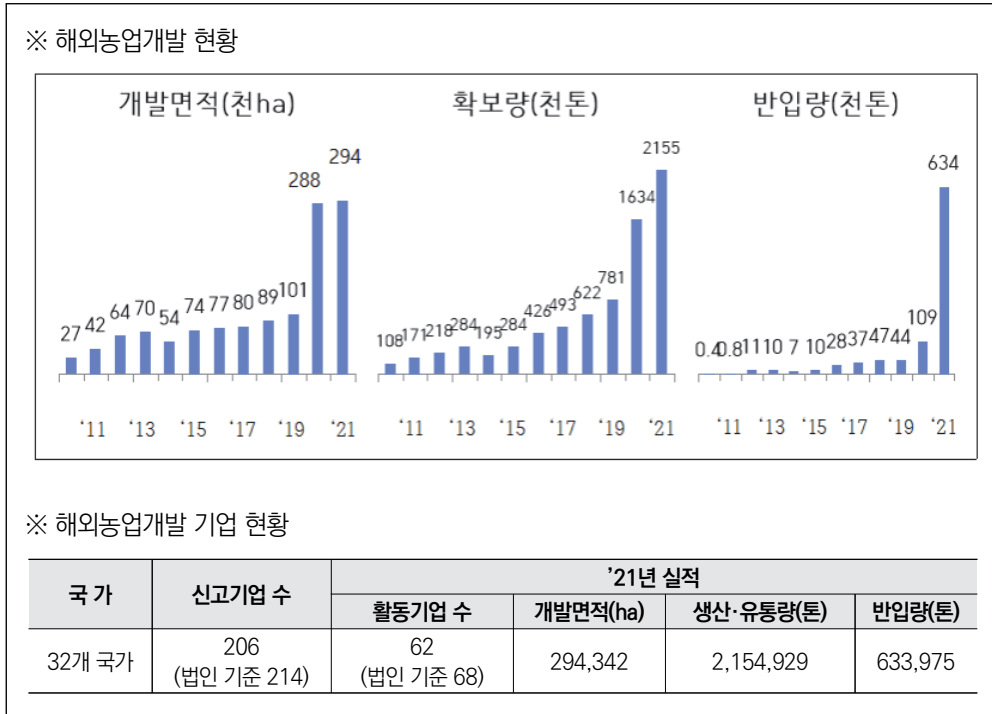
※ 연도별 밀 비축 매입량(톤): ('20) 853 → ('21) 8,401 → ('22 계획) 14,000

- 국산 식품 원료 수요 확대(홍보, 계약재배 연계 등)를 통한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 유도

나.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품원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 [안정적 해외 식품원료 공급 확대] 해외 공급기반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해외농업 개발을 지원하여, 수입선 다변화, 긴급 반입 물량 확보 등 회복력이 강한 식품원료 공급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 발굴
- 대학교육 및 인턴십 연계 해외농업 전문 인력 양성
- 해외농업개발 관련 현지 정보 제공 강화
- 농림 ODA 간 전략적 연계 강화
- 진출기업 모니터링 강화 및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구축



- [해외 식품원료 공급 원활화]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식품원료의 공급 확대를 위해 통관절차 지원하며, 수입세제 혜택 지원함.
- 해외농업 개발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 반입 원활화를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및 수입권공매 등의 제도 확대 운영
 - 해외농업 개발 식품원료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국내 반입 원활화

-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국내 반입³⁸⁾ 지원절차 마련 및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38) (국내반입명령) 곡물수급의 악화 등 비상시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개발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 명령(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 한-호주 FTA 협력 장 제16.9조[식량공급 안보]

- 양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공급의 유지 및 식량안보 목적의 이행을 위한 국내 농업 생산과 양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주요 곡물의 공급 중단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 양국은 적절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조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또한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한 국가가 상대국 영토에 설립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판매에 금지·제한을 도입하는 경우 제한조치 이행 전에 그 영향과 구제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탄력적 할당관세를 이용한 안정적 식품원료 공급

○ [식품원료 할당관세] 할당관세를 통한 식품원료 가격 안정화 유도 및 식품산업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한 공급 리스크 저감

- 유연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식품원료 가격 안정화를 유도함
- 식품원료 가격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할당관세 적용, 그리고 할당관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식품 원재료 가격 안정화 및 적시 원재료 공급을 위한 관련 체계 구축

라.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원재료 협력체계 구축]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재료 공급망 리스크 저감

- 국산 식품원료 공급, 해외농업개발, 식품원료 할당관세와 관련된 농림축산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재료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마련

※ 유럽 식품 안보 위기 대비 및 대응 메커니즘(European Food Security Crisis preparedness and response Mechanism, EFSCM)

- 유럽연합위원회, 회원국, 식품 공급의 사적 영역 참가자, 비유럽국가들이 참여
- 전문가 집단들은 유럽연합의 식품 공급 및 안보 이슈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하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
 - 식품공급사슬에서 미래 위험과 취약성 모니터링, 위기 대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도구 탐색,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맞춤형 논의를 통한 의견 반영 등의 임무를 수행

2.4.2.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ESG 리스크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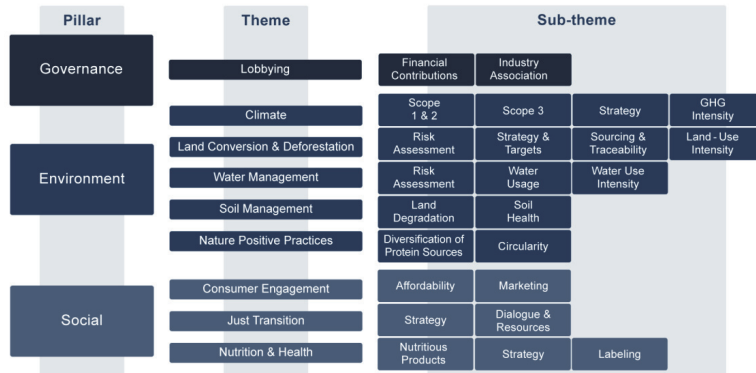
- * 식품산업 특화 K-ESG 체계 확립
- *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탄소중립 원

가. 식품산업 특화 K-ESG 체계 마련 및 지원

○ [식품산업 ESG 평가 체계] 식품산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ESG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고 국민이 직접 소비하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식품산업의 ESG 경영 확산
- 식품산업 특화 ESG 평가지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목표치 설정 및 측정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식, 플랫폼 개발

- FAIRR와 GFI은 대체육 생산 업체에 특화된 ESG 리포트 프레임워크를 제시
 - FAIRR와 GFI는 대체육 생산 업체에 특화된 31개의 지표를 제시함
 - 작성 서식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제공함으로써 담당자의 작성 편리성을 고려함.



자료: FAIRR & GFI (2022), Alternative Proteins ESG Reporting Technical Guide for Diversified Companies

○ [식품산업 ESG 협력 체계] 식품산업의 ESG 동반경영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중인 ESG 공급망 실사 대응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맞춤형 ESG 경영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환경경영과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자상한 기업'으로 (주)대상 선정
 - '자상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ESG 경영 도입 지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ESG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

〈EU, 독일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구분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 부과 •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역내·외 기업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정규 실사 / 2그룹: 약식 실사 - (역내기업) 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근로자 25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순매출 50%이상이 고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 (역외기업) EU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EU내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 50% 이상이 고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 의무화(23년~) •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23년~), 1,000명 이상(24년~)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 [식품산업 ESG 평가 지원] 중소 식품산업의 ESG 평가 지원을 통한 식품산업 내 ESG 경영 확산

- 식품산업 ESG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식품산업 ESG 경영 기반 공고화
- 식품산업 ESG 경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나.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탄소중립 지원

○ [식품산업 생산 온실가스 감축] 식품산업식품산업의 전 가치사슬 중 식품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지원

- 식품산업의 공통산업설비(보일러, 오븐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저탄소 연료(LNG 등) 전환 유도

- 식품산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감축량 인증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등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웅진식품(주): 연료 전환(B-B유, 감압정제유 → LNG). 연간 1,245 tCO₂-eq 감축
 ※ (주)플무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연간 326 MWh 전력 생산, 149 tCO₂-eq 감축

○ [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 온실가스 감축] 식품산업의 전 가치사슬 중 식품 원재료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유도

- 식품 원재료 생산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활용 유도
- 로컬푸드 플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식품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축산물 활용 사례

- 저탄소 인증 사과 사용 주스: 일반 상품과 비교하여 16~21%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저탄소 인증 복숭아 사용 황도 병조림: 일반 상품과 비교하여 8% 온실가스 감축효과

- 유통 과정에서 냉동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CFC, HCFC, HFC 계열 냉매를 지구온난화 영향이 적은 대체냉매로 변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 미국 Whole Foods Market 냉매 대체 사례
 - 2021년 100개 이상의 매장에 있는 기존 냉매를 친환경 냉매(N40)로 교체 발표
 - 친환경냉매는 기존의 냉매(R-404A와 R-22)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68% 낮으며, 에너지 효율은 5~15% 높음.

2.4.3. 식품안전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 ◇ 소비자의 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층 대상 식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건강한 식품소비/식생활 보장
 - * 농식품 표시방식 개선
 - * 스마트한 식생활교육 활성화
 - * 농식품 지원 확대
 - * 소비자 협력체계 구축
- ◇ 원료 농산물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농식품 안전성 제고
 - * 농산물 GAP 인증 확대 및 PLS 보완
 - *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축산물 PLS 단계적 도입
 - * 제조단계에서의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 * 유통단계에서의 신성장식품 안전관리 강화
 - * 안전 농식품 소비환경 구축

가. 식품 표시등 정보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식품 선택 역량 강화

○ [식품정보제공]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

- 전면표시제도의 도입 검토, 고령자나 장애인, 청소년 등 누구나 식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코드, 음성정보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제공

※ 유럽국가들의 전면 표시 제도

 <p>〈벨기에, 체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p>	 <p>〈영국〉</p>	 <p>〈프랑스〉</p>	 <p>〈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p>	 <p>〈핀란드〉</p>
--	---	--	---	--

자료: Pomeranz (2019).

-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한 식품 선택 유도에 효과적이면서도 식품업계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설계 필요
- 중소/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시 변경 시 **포장지 등 관련 비용 지원** 고려
- WHO에서는 전면 표시와 관련하여 5가지 원칙을 제안

〈표 6-7〉 세계보건기구의 전면영양표시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Principle 1: The FOPL system should be aligned with National public health and Nutrition policies and food regulations, as well as with relevant WHO guidance and Codex guidelines.

Principle 2: A singl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impact of the FOPL system.

Principle 3: Mandatory Nutrient declarations on food packages are a prerequisite for FOPL systems.

Principle 4: A monitoring and review process should be developed as part of the overall FOPL system for continuing improvements or adjustments, as required.

Principle 5: The aims, scope and principles of the FOPL system should be transparent and easily accessible.

자료: WHO 홈페이지(<https://www.who.int/news/item/27-09-2021-state-of-play-of-who-guidance-on-front-of-the-pack-labeling>). 검색일: 2022. 9.26.

○ [외식정보제공] 외식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외식 및 온라인 배달 분야의 표시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 외식업체에서의 **영양정보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 외식분야 정보 제공이 소비자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의표시제**로 선택적으로 적용, 표시 관련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
- 배달주문 시 농식품 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및 홍보
- **온라인 플랫폼상의 농식품 정보 제공/관리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관련 업계 교육

※ 미국의 외식 메뉴 영양표시 의무화

- 20개 이상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메뉴 영양표시 의무화를 시행
-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526 ~ 530 백만 달러(6,884억 원)의 후생효과 발생 추정 (FD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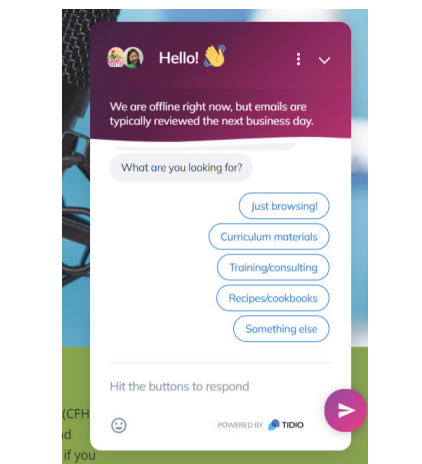
○ [홍보 및 감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감시 및 단속 강화

- 국가인증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 이용도 높은 민간 플랫폼 활용 정보 확산
- 표시 및 광고 위반에 대한 감시 대상을 방송, 유튜브, 앱 등으로 확대

나.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로 효과 제고

○ 스마트 식생활교육 확대

- 공익광고, 캠페인, SNS 챌린지,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과 영양관리, 이로 인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
- 문자 상담 등 상시 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

<p>※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시 행정 상담이 가능한 체계 마련</p> 	<p>※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행중인 eatFresh는 웹사이트를 통해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기능을 추가하여 상시 교육이 가능한 체계 마련</p> 
--	--

○ 생애주기 대상 식생활교육 강화

- 고령자를 위한 영양불균형 해소와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생활교육 확대

- 어린이/청소년 식습관은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로서 전 생애주기의 식습관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체험 중심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확대, 학교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교실 등)에 **식생활교육 확대**
- 양육자가 자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영양 교육** 중요
- **1인 가구, 청년, 직장인 등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개선 서비스와 통합 제공, 요리 커뮤니티 지원

※ 미국 StrongPeople Strong Hearts 프로그램

- 중년과 고령층의 심혈관 질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6개월간 주당 2회 1시간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식생활 교육을 포함한 에어로빅, 근력 운동 등이 포함됨.
- 프로그램 수행결과 C반응단백이 증진되었으며, BMI, 심혈관질환 리스크는 낮아짐.

○ 농식품바우처 등 식품지원 사업과 연계된 식생활·영양교육

- 정부의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사업 병행** 추진
-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식품비 지출 한도액이 작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하에서의 현명한 식품소비, **가성비 좋은 영양소 섭취**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
- **연령에 따라** 모바일 및 디지털 기기의 콘텐츠 이용을 병행하거나, 대규모의 집합 교육보다는 **활동 및 체험이 결합**되어 소규모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 진행
- 지역의 **복지사업**(지역통합돌봄사업, 돌봄서비스사업,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연계** 운영

○ 지역 단위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 **지역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시 **식생활교육 포함**,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 협업으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역 내 유희시설 활용하여 공동체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여 **식생활교육** 실시

- 식생활교육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확대
-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

다. 국민 식생활 보장을 위한 농식품 지원 확대

○ [현물 중심 농식품 지원]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을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 보장을 위해 현물 중심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추진

-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 및 국내 농업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 건강에 필요한 국내산 농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본 사업화 추진
-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구축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본 사업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추가 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내 소관 개별법 개정 추진
- 국내산/지역산 농식품 연계 기반 급식 식재료 지원 확대

※ Maine Harvest Bucks는 SNAP으로 지역산 농산물을 파머스마켓에서 구입 시 50% 페이백
- 2021년 기준 5000가구, 50만 달러 이상 사용

○ 소비활성화 사업 등으로 재정지출 시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 유도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소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농축산물 및 외식 소비활성화 사업에 든 재정지출이 향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설계·추진 고려
- 재정지출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 시 우수농축산물 구매 유인 제공

※ Double Up Food Bucks는 구입한 채소와 과일에 대해 최대 20달러까지 50% 할인 혹은 같은 가격의 쿠폰 발행
- 2009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시작, 현재 25개 주 900개 지역에서 운영
- SNAP을 수혜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

라. 소비자 협력체계 구축(3차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 소비자 참여 기회 확대

- 명예감시원 확대, 대학생 사이버 감시단 운영 확대
- 소비자단체 협업 사업 확대: 간담회 정기 개최, 소비자 열린포럼 운영
- 소비자 온라인 모니터단 운영
- 유망 식품업체, 우수 지구 등 정책 현장에 소비자 참관/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차원의 식품 거점 및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

- 생활협동조합 등 생산자-소비자 접점의 커뮤니티 강화
- 지역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를 확대

○ 식품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소비자단체 협력 강화 환경 조성

- 정부는 식품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또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 소비자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소비자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한 건강한 식품 환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 운영, 농식품부-소비자 간담회, 소비자-생산자 공동참여 프로그램, 소비자 팸투어 확대를 통해 합리적·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공감대 마련
- 소비자단체와 정책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발굴 →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 필요

마. 농산물 GAP 인증 확대 및 PLS 보완 추진

○ 농산물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한 판로 및 홍보 확대

- 농가 GAP 인증 절차 간소화 및 교육 확대
- GAP 제도와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 사업, 교육·홍보, 민관협업 등 추진

-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시설 개보수로 위생·품질 제고
- GAP 인증 농가 대상 웹, SNS 마케팅 등 교육 지원 및 상품성 강화를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등 신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GAP 인증 확대 견인
- 20%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GAP 기획판매전 개최
- 소비자단체 및 영양사 등 소비 주체 대상 교육·홍보 지원으로 GAP 가치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PLS 정착 지원

- 부적합 고위험군(품목·지역)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최근 3년간 부적합 다빈도 품목 등 고위험군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사전 차단
- 농경지(배지)의 잔류농약, 중금속 조사와 농업용수의 식중독균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요소 사전 파악 및 농가 지도
- 친환경·GAP인증제, 수출농산물 등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해 신뢰도 향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부적합 농산물 발생 모니터링,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하여 'PLS 시행반' 구성 및 운영
- 잠정기준을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작물, 병해충 방제용 농약 등 농약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등록 농약 확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지자체)을 통해 사전 컨설팅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및 농업인 실천 제고를 위해 살포 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 현장 애로사항을 상설 접수할 수 있는 현장 상담센터 운영

바.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축산물 PLS 단계적 도입

○ [인증 교육 및 홍보] 사육단계부터 위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농가 HACCP 인증 확대 및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 지도·홍보 강화

-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 안전사용 기준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축산물 HACCP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HACCP 인증 희망 업소에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생산관리 강화]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성 제고

- 산란계 농가 대상으로 지도·홍보 및 중점 관리(연중 살충제 검사) 지속 추진
- 농장의 계란 및 도축장 식육에 대한 미생물 지속 관리
- 낙농가·집유장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한 원유 생산을 위한 행동 요령 등 지도·홍보

○ 축산물 PLS의 단계적 도입

- 축산물에 잔류물질 PLS 도입을 추진하되 관리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 도입 필요
- 한육우·젖소(乳)·돼지·닭·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농약은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4년 이후 적용 추진
- 동물약품 확충 및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지속하고, 축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교육·홍보 지속 추진

사. 제조단계에서의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강화] 식품제조업의 재해율이 일반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필요

-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컨설팅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영세 외식업체(바닥면적 100㎡ 미만)의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 안내 및 보험료 지원

○ [환경변화 고려] AI/로봇/무인자동화(kiosk, 서빙 로봇 등)가 확산되면서 식품산업에서는 기존에 없던 로봇, 자동화 설비 등 농식품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서빙·조리로봇 등 외식업 분야 협동로봇의 위생·안전 기준 마련
- 식품제조업 분야 무인자동화 설비 운영 및 안전 점검 기준 마련 및 작업자 안전관리 지도·단속 강화

아. 유통단계에서의 신성장식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트렌드 반영 신성장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 HMR,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지침 마련, 안전관리 강화, 위생 취약 분야의 기술 지원 확대
- 음식점 주방 공개 유인 제공, 배달·테이크아웃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배달 신선식품, 해외 직접구매 농식품 등 유통 과정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식품군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검토 및 가이드라인 작성
- 대체 소재 개발, 신기술 응용 식품 등 신식품 개발·판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농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 (CDC) Food Delivery Safety

품목과 포장에 온전한지 확인(절연 포장 및 드라이아이스 또는 냉동 젤 팩과 같은 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 라벨 확인)

- 식품 온도계를 사용하여 부패하기 쉬운 식품이 도착하면 온도 확인
-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섭취 전까지 안전한 온도에 보관
- 음식이 40°F 이상으로 도착하면 업체에 알리고 폐기

자. 안전 농식품 소비환경 조성

○ [안전 소비환경 조성] 농식품 안전관리는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규제로 인식되는 상황임, 식품산업의 성장·진흥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안전 농식품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

- 식품 안전 우수 식품제조·외식업 사례(위생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 유통단계 안전, 포장재 안전까지 포괄) 홍보 및 단계적 인증제도 도입

○ [안전체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소비자 보호, 위해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정보 접근성 강화, 신유형 식품 및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 교육 확대, 농업인 및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 지원

- 식품 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으로 위해 식품 단속 효율화 및 식품 위법행위 엄정 대응
-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차원에서 사업자 등에 대한 주의 환기, 문제 있는 식품의 리콜 촉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등의 원인조사, 분석을 위한 체제 정비
- 소비자의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식품 위해 평가 적극 대응 및 과학적 분석 기반 위해정보 공유
- 방송, 유튜브, 앱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교육 강화
- 식품기업의 소비자 의견 청취 강화를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 기반 확대 지원

1. 전문가조사 설문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D

--	--	--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주한 『제4차 식품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여러 일들로 분주하시겠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식품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문의 사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 : 김정환 연구원 (전화번호: 061-820-2054, 이메일: kjhwan001@krei.re.kr)

먼저 법률에 명시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3호, 2022. 6. 10.,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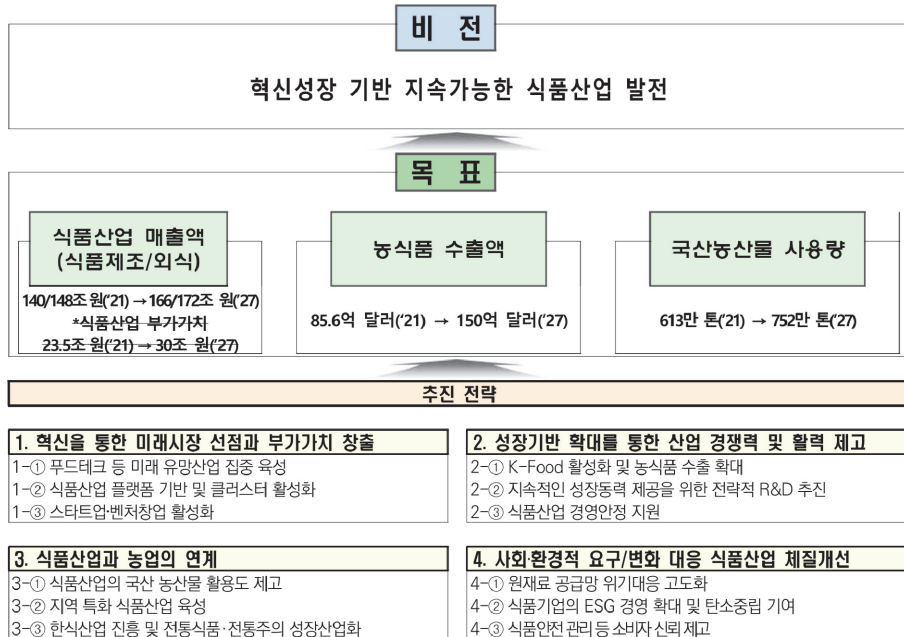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8. 12. 31., 2020. 2. 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다음으로, 아래 그림은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안)입니다.

** 현재(안)이나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A1~A2번 문항은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비전, 키워드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보기>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A1. 다음 <보기>는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비전입니다. 귀하께서는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이 향후 5년 식품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보기>

비전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
-----------	-----------------------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A1-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5년 식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을 한 문장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위에 제시된 “비전(안)”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비전”을 부담 없이 적어주세요. 간단하게 현재 비전(안)을 줄이시거나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비전 제안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
--------------	-----------------------

A2. 다음 <보기>는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키워드입니다. 귀하께서는 제시된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키워드	혁신, 성장, 연계, 지속가능
키워드	내용
혁신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성장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연계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지속가능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A2-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5년 식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최대 2개까지 적어 주십시오.

--

A2-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각의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5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A2-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키워드	우선순위
혁신	
성장	
연계	
지속가능	

※ A3~4번 문항은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그리고 지표 산출 근거의 적절성 평가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1>

지표	지표 산출근거
지표1 : 식품산업 매출액 증대 140/148조 원('21) → 166/172('27)	2021년 식품산업 매출액 및 부가가치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연평균증감률을 적용 * 식품산업 부가가치의 경우 5차 진흥계획 수립 시 본지표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기함.
보조지표: 식품산업 부가가치 증대 23.5조 원('21) → 30('27)	
지표2 : 농식품 수출액 증대 85.6억 달러('21) → 150('27)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7년까지 목표치로 제시된 수치로서, 수산물을 제외한 것임.
지표3 : 국산농산물 사용량 613만 톤('21) → 752('27)	2021년 잠정 국산 농산물 사용량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연평균증감률을 적용

A3. 귀하께서는 제시된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적절성
식품산업 매출액 증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식품산업 부가가치 증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농식품 수출액 증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국산농산물 사용량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A3-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5년 식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가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지표가 있으시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표:

근거(통계 자료 등) :

A3-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A3-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목표	우선순위
혁신성장을 통한 식품산업 매출액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혁신성장을 통한 농식품 수출액 증대	
국산농산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A4. 귀하의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2021년 대비 2027년까지 목표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목표 수치(2027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표	목표 수준	적정 목표수치 (2027년)
식품산업 매출액(제조업/외식업) 140/148조 원('21) → 166/172('27)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식품산업 부가가치 23.5조 원('21) → 30('27)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농식품 수출액 85.6억 달러('21) → 150('27)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국산농산물 사용량 613만 톤('21) → 752('27)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 A5~A9번 문항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 과제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주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1-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1-②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1-③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2-①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2-②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2-③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3-①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3-②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3-③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4-①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4-②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4-③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A5. 귀하께서는 제시된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적절성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A5-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5년 식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가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정책과제가 있으시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A5-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A5-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목표	우선순위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A6. 주요 정책과제 ①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관련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과제의 개별 세부과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적절성
세부과제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A6-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①【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명시해야하나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세부과제가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A6-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①【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의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A6-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시되 우선순위 기입 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목표	우선순위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A7. 주요 정책과제 ②【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관련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과제의 개별 세부과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적절성
세부과제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A7-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②【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명시해야하나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세부과제가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A7-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②【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의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A7-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시되 우선순위 기입 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목표	우선순위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A8. 주요 정책과제 ③【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관련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과제의 개별 세부과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적절성
세부 과제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A8-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③【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명시해야하나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세부과제가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A8-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③【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의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A8-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시되 우선순위 기입 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목표	우선순위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A9. 주요 정책과제 ④【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관련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과제의 개별 세부과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적절성
세부 과제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안전 최우선으로의 식품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A9-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④【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명시해야하나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세부과제가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A9-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④【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의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A9-1에서 귀하께서 추가하신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시되 우선순위 기입 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목표	우선순위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안전 최우선으로의 식품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식품산업 업종별 사업체의 지난 5년간 식품산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정책 수요

1. 식품산업 사업체의 지난 5년간 식품산업에 대한 평가와 요구

- 식품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의 발전 및 개선 정도에 대하여 부정적임.
 - 지난 5년간 식품산업의 5가지 분야(미래지향적 발전도, 혁신적 생태계 구축 발전도, 식품산업의 균형적 발전도,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개선도, 소비자 신뢰 개선 발전도)에 대하여 평가함.
 - 미래지향적 발전도는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적 생태계 구축 발전도는 2.61점, 식품산업의 균형적 발전도는 2.65점,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개선도는 2.68점, 소비자 신뢰 개선 발전도는 2.96점으로 저조하였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미만 업체의 발전도 및 개선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5명 미만인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와 비교하여 모든 지표가 가장 낮았음.
 -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업종별로 5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자재 공급망 교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특히 부정적
 - 지난 5년간 ‘미래지향적 발전도’의 경우 유지제조(3.99점), 면류유사(3.92점), 비알코올(3.90점), 증류주업(3.84점), 도시락(3.45), 낙농빙과(3.37), 수산식물(3.29) 업종에서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 떡빵과자(2.23점), 조미식품(2.77점), 곡물가공(2.82점), 기타식료품(2.84점), 수산동물(2.90점) 업종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책 체감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류주업, 비알코올, 면류유사, 유지제조, 수산식물 및 낙농빙과를 제외하면 3점 미만의 부정적 응답이 나타남.

- 가장 높은 증류주업도 3.27점에 불과함.
 -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종은 떡빵과자(2.14점), 발효주업(2.54점), 곡물가공(2.66점), 수산동물(2.68점), 기타식료품(2.69점), 도시락(2.73점), 조미식품 및 육류가공(2.92점) 순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의 균형적 발전도’와 ‘식품산업의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개선도’에 대한 평가는 업종별로 상이함.
- 떡빵과자(2.19점), 발효주업(2.27점) 업종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3점 이상으로 평가한 업종은 증류주업(3.28점), 비알코올(3.24점), 면류유사(3.21점), 유지제조(3.14점), 낙농빙과(3.06점)임.
 - ‘지난 5년간 식품산업의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개선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종은 수산식물(3.23점), 증류주업(3.18점), 유지제조(3.15점), 낙농빙과(3.14점), 비알코올(3.07점), 낙농빙과(3.14점)로 나타남.
 -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종은 발효주업(2.19점), 떡빵과자(2.23점), 도시락(2.45점), 수산동물(2.71점), 곡물가공(2.77점), 육류가공(2.79점), 조미식품 및 기타식료품(2.87점), 과실채소(2.91점) 순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소비자 신뢰 개선 발전도’에 대해서는 다른 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도출됨.
- 떡빵과자(2.65점), 수산동물(2.79점), 곡물가공(2.87점), 도시락(2.88점)의 네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소비자 신뢰 개선 발전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부록 표 1〉 지난 5년간 분야별 식품산업의 발전 및 개선 정도(5점 척도)

단위: 5점 척도

		미래지향적 발전도	혁신적 생태계 구축 발전도	식품산업의 균형적 발전도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개선도	소비자 신뢰 개선 발전도
전 체		2.82	2.61	2.65	2.68	2.96
규모	5명 미만	2.68	2.51	2.57	2.62	2.88
	5~9명	3.18	2.96	2.82	2.80	3.13
	10~49명	3.37	2.96	2.99	2.90	3.26
	50~299명	3.60	3.14	3.15	3.11	3.50
	300명 이상	3.70	3.42	3.47	3.33	3.74
업종	육류가공	3.18	2.92	2.84	2.79	3.12
	수산동물	2.90	2.68	2.90	2.71	2.79
	수산식물	3.29	3.04	2.85	3.23	3.52
	과실채소	3.09	2.96	2.99	2.91	3.26
	유지제조	3.99	3.08	3.14	3.15	3.18
	낙농빙과	3.37	3.04	3.06	3.14	3.37
	곡물가공	2.82	2.66	2.70	2.77	2.87
	떡빵과자	2.23	2.14	2.19	2.23	2.65
	면류유사	3.92	3.09	3.21	3.04	3.22
	조미식품	2.77	2.92	2.82	2.87	3.29
	도시락	3.45	2.73	2.57	2.45	2.88
	기타식료품	2.84	2.69	2.79	2.87	3.02
	발효주업	3.21	2.54	2.27	2.19	3.44
	증류주업	3.84	3.27	3.28	3.18	3.42
비알코올	3.90	3.15	3.24	3.07	3.37	

자료: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업체 설문조사자료

2. 향후 5년간 식품산업정책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정책

○ 향후 5년간 식품산업정책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1순위까지 설문한 경우 국내 농업과의 연계, 미래산업 육성, 전통식품 육성, 중소기업과 지역의 균형 성장을 가장 시급한 정책분야로 꼽았으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설문한 경우 식품기업의 경영안정, 국내 농업과의 연계, 전통식품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과 지역의 균형 성장 분야를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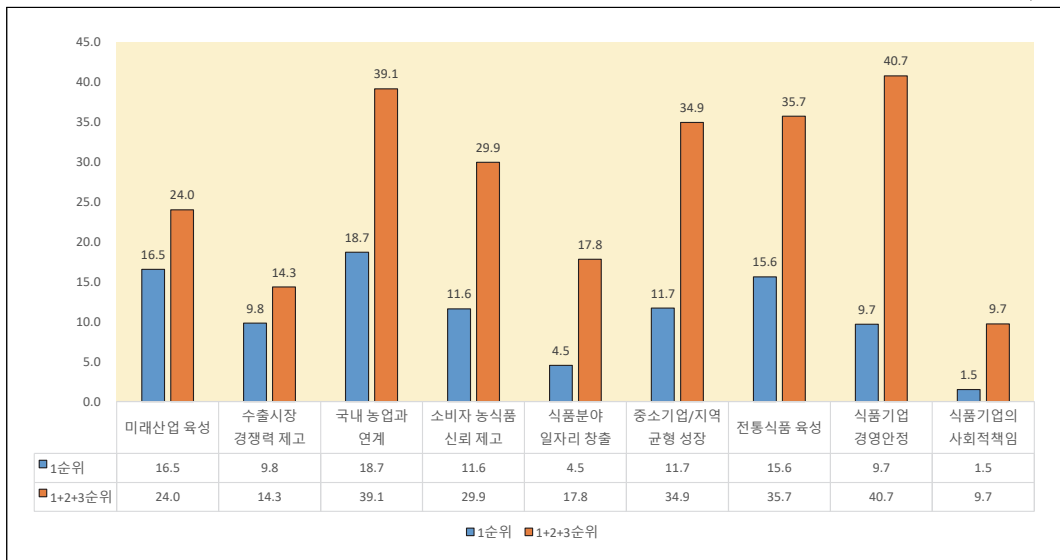
- 1순위 기준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18.7%), 미래산업 육성(16.5%), 전통식품 육성(15.6%), 중소기업과 지역의 균형 성장(11.7%),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11.6%),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9.8%), 식품기업 경영안정(9.7%)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4.5%)

순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5%로 가장 적었음.

- 반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설문한 결과 식품기업의 경영 안정(40.7%), 국내 농업과의 연계(39.1%), 전통식품 육성(35.7%), 중소기업 및 지역 균형 성장(34.9%), 소비자에 대한 농식품 신뢰 제고(29.9%), 미래산업 육성(24.0%),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17.8%),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14.3%), 식품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9.7%) 순으로 나타남.

〈부록 그림 1〉 향후 5년간 식품산업정책에서 가장 추진되어야 할 정책

단위: %



자료: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업체 설문조사자료

- 업종별로 향후 5년간 식품산업정책에서 가장 추진되어야 할 정책(1+2+3순위)을 분석한 결과, 식품기업의 경영 안정(12개 업종), 중소기업 및 지역의 균형 성장(10개 업종), 국내 농업과의 연계, 전통식품산업 육성(6개 업종),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4개 업종), 미래산업 육성,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3개 업종),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2개 업종) 순으로 나타났고,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곡물가공업(31.7%)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순위 이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종은 없었음.

- 육류가공 업종은 식품기업 경영안정(50.6%),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42.1%), 미래산업 육성(26.7%) 순으로 응답함. 미래산업육성이 주요 분야로 평가된 것은 대체육 등 육류가공업과 푸드테크 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수산동물 업종은 식품기업 경영안정(50.8%),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48.6%), 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44.4%) 정책 추진을 필요로 함. 이는 수산동물업종에서 신선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수산식물 업종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 균형 성장(49.2%), 식품기업 경영안정(34.8%),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31.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영세업체가 많고 수출 위주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데 기인함.
- 과실채소 업종은 식품기업 경영안정(64.5%),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58.5%), 국내 농업과의 연계(56.0%) 순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세 분야의 정책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유지제조 분야에서는 전통식품 육성(49.4%), 식품기업 경영안정(31.7%),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25.1%) 순으로 필요한 정책 분야라고 응답함.
- 낙농빙과 업종은 식품기업 경영안정(62.6%),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43.9%), 미래산업 육성(39.6%) 순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 곡물가공업종에서는 국내 농업과의 연계(46.4%) 관련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전통식품 육성(41.7%)과도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남. 식품기업 경영 안정 또한 31.7%로 높은 필요성을 보인 정책 분야임.
- 떡빵과자업은 식품기업 경영안정(54.4%), 전통식품 육성(53.7%) 정책을 필요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45.5%) 분야의 정책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3순위에 들지는 못하였으나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40.8%)도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평가함.
- 면류유사 업종에서는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가 59.2%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22.8%), 식품기업 경영안정(16.4%)이 뒤를 이었음.
- 조미식품 업종에서는 식품기업 경영안정(35.8%),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33.5%), 국내 농업과의 연계(33.4%)가 비슷한 순서로 나타남.

- 도시락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 정책이 가장 필요(53.1%)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품기업의 경영 안정(32.4%),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22.9%)도 필요한 정책 분야로 보았음.
- 기타식료품업에서는 국내 농업과의 연계(42.5%), 전통식품산업 육성(29.6%),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27.4%)순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 발효주업과 증류주업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전통식품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 부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발효주업 업종에서는 국내 농업과의 연계(34.3%)를, 증류주업 분야에서는 식품기업 경영안정(35.9%)을 세 번째로 필요한 정책 분야로 평가하였음.
- 비알코올 음료 업종에서는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46.7%)가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33.2%), 미래산업 육성(30.0%)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 분야라고 응답하였음.

〈부록 표 2〉 업종별 향후 5년간 식품산업정책에서 가장 추진되어야 할 정책(1+2+3순위)

단위: %

구분	미래산업 육성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	국내 농업과 연계	소비자 농식품 신뢰 제고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역 균형 성장	전통식품 육성	식품기업 경영안정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타
전체	24.0	14.3	39.1	29.9	17.8	34.9	35.7	40.7	9.7	1.0
육류가공	26.7	5.5	18.7	21.4	21.7	42.1	11.8	50.6	12.8	0.0
수산동물	24.4	28.8	43.5	48.6	44.4	17.2	29.5	50.8	3.5	0.0
수산식물	21.0	31.7	14.0	18.3	15.8	49.2	24.9	34.8	6.2	7.4
과실채소	11.3	12.6	56.0	23.8	16.0	58.5	25.6	64.5	9.8	5.4
유지제조	5.9	25.1	11.3	17.7	1.7	11.7	49.4	31.7	11.0	0.0
낙농빙과	39.6	28.5	24.4	28.1	20.5	43.9	2.4	62.6	19.0	7.7
곡물가공	14.6	20.8	46.4	15.3	37.0	28.9	41.7	37.8	31.7	0.5
떡빵과자	35.5	2.6	45.5	40.8	13.2	45.5	53.7	54.4	4.5	0.2
면류유사	8.6	59.2	3.4	8.1	12.5	22.8	8.4	16.4	2.4	1.7
조미식품	19.6	20.7	33.4	33.5	25.1	25.5	15.2	35.8	14.0	0.0
도시락	20.2	17.7	13.5	21.5	22.9	53.1	10.3	32.4	12.2	6.5
기타식료품	23.2	16.3	42.5	27.4	15.0	23.0	29.6	22.1	10.1	0.0
발효주업	13.5	16.8	34.3	18.7	21.5	35.8	54.4	21.8	9.3	2.5
증류주업	14.9	40.4	20.3	22.0	20.3	43.2	53.6	35.9	9.0	4.5
비알코올	30.0	46.7	15.3	15.7	17.5	33.2	7.4	27.8	11.4	0.0

자료: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업체 설문조사자료

주: 진하게 표시된 표내숫자는 업종별 3순위 이내 응답을 의미함.

- 각 22개 분야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식품산업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 전체 업종에서는 모든 분야의 정책이 추진이 필요(3점 이상)하다고 분석됨.
 - 특히 전통식품산업 진흥(3.79점), 지역식품산업 육성,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3.68점),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3.54점),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지원,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3.49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가격 변동 대응, 원자재 대응 등 안정적 원료 공급이 가장 중요한 정책임으로 나타남.
 - 육류가공 업종에서는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지원 /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함.
 - 수산동물 업종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원활한 금융, 투자자금 확보,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평가함.
 - 수산식물 업종에서는 국산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지원,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산업 특성상 국산 원재료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과실채소 업종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 중요도가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됨.
 - 유지제조 업종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식품산업정책과제로 지역식품산업 육성, 전통식품산업 진흥,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꼽았음.
 - 낙농빙과 업종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지원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식품산업의 규제 개선 또한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목함.
 - 곡물가공 업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식품산업정책과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 기여, 전통식품산업 진흥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함.

- 떡빵과자 업종에서는 전통식품산업 진흥, 지역식품산업 육성,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가 가장 중요한 식품산업정책과제로 지목되었음.
- 면류유사 업종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식품산업 규제혁신이 중요함.
- 조미식품 업종에서는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을 가장 중요한 주요 식품산업정책과제로 응답하였고,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 기여 정책이 중요함.
- 도시락 업종에서는 정책과제별로 중요도의 편차가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크지 않았으며,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과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지원, 식품산업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분석됨.
- 기타식료품 업종에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지역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규제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음.
- 발효주업의 경우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중요 식품산업정책과제로 전통식품산업 진흥,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지역식품산업 육성 및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을 꼽았으며, 전반적인 정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 증류주업에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정책과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비알코올 음료 업종의 경우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정책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부록 표 3〉 업종별 향후 5년간 식품산업정책에서 가장 추진되어야 할 정책(1+2+3순위)

단위: %

구분	푸드테크 기술개발 및 지원	미래유망 신식품산 업 육성	식재료 및 소재산업 육성	식품 관련 부품· 장비산업 육성	식품 클러스터 등 개선/ 확대	식품산업 정보제공 및 관련 플랫폼 구축	농식품 수출/ 기업 해외진출 강화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 지원	중소/ 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 지원	식품 산업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전 체	3.05	3.09	3.19	3.09	2.99	3.02	3.01	3.54	3.49	3.22	3.10
육류가공	3.76	3.63	3.74	3.77	3.67	3.66	3.61	3.95	3.95	3.85	3.80
수산동물	2.99	2.90	3.40	3.20	2.89	2.82	3.76	4.33	4.54	3.96	3.48
수산식물	3.75	3.74	3.78	3.50	3.60	3.71	3.60	3.94	3.97	3.77	3.40
과실채소	3.10	3.14	3.12	3.13	3.09	3.09	3.14	3.15	3.14	3.10	3.12
유지제조	3.13	3.19	3.13	3.10	3.18	3.14	3.16	3.31	3.34	3.34	3.10
낙농빙과	3.45	3.42	3.59	3.58	3.41	3.58	3.51	4.00	3.89	3.83	3.72
곡물가공	3.12	3.14	3.20	3.24	2.98	3.02	3.07	3.21	3.40	3.31	3.07
떡빵과자	2.43	2.50	2.59	2.40	2.31	2.39	2.23	3.37	3.23	2.39	2.39
면류유사	3.12	3.20	3.20	3.24	3.13	3.13	3.17	3.34	3.29	3.31	3.16
조미식품	3.51	3.41	3.69	3.64	3.54	3.51	3.58	3.93	3.72	3.71	3.67
도시락	3.18	3.25	3.31	3.25	3.14	3.15	3.19	3.80	3.77	3.57	3.19
기타식료품	3.35	3.44	3.54	3.41	3.34	3.35	3.29	3.58	3.51	3.62	3.46
발효주업	3.46	3.42	3.51	3.64	3.23	3.34	3.20	3.74	3.60	3.69	3.36
증류주업	3.40	3.40	3.46	3.50	3.33	3.33	3.59	3.72	3.54	3.46	3.42
비알코올	3.31	3.52	3.63	3.45	3.35	3.33	3.38	3.72	3.63	3.60	3.52

구분	원활한 금융, 투자자금 확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지역식품 산업 육성	전통식품 산업 진흥	식품기업 ESG 경영 지원	식품 산업의 탄소중립 기여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영양/ 건강 개선 기여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	국제 원재료 가격변동 대응	식품 산업 일자리 창출
전 체	3.20	3.68	3.68	3.79	3.15	3.07	3.34	3.33	3.31	3.49	3.31
육류가공	3.84	3.72	3.69	3.65	3.58	3.45	3.66	3.66	3.51	3.90	3.62
수산동물	4.61	3.91	3.77	3.74	3.08	2.94	3.54	3.77	3.60	4.71	4.33
수산식물	3.67	3.63	3.79	3.53	3.56	3.50	3.68	3.59	3.65	4.01	3.72
과실채소	3.12	3.16	3.14	3.12	3.08	3.09	3.13	3.12	3.09	3.17	3.14
유지제조	2.99	3.55	3.63	3.63	3.01	2.99	3.39	3.12	3.11	3.17	3.02
낙농빙과	3.73	3.68	3.74	3.39	3.72	3.47	3.62	3.67	3.71	4.17	3.74
곡물가공	3.29	3.42	3.43	3.44	2.93	2.98	3.39	3.44	3.16	3.36	3.49
떡빵과자	2.56	3.92	3.93	4.49	2.83	2.67	2.93	2.94	3.35	3.45	2.96
면류유사	3.25	3.21	3.28	3.19	3.10	3.08	3.27	3.18	3.22	3.34	3.26
조미식품	3.52	3.71	3.67	3.61	3.45	3.41	3.62	3.77	3.49	3.64	3.81
도시락	3.32	3.30	3.38	3.21	3.23	3.23	3.51	3.38	3.17	3.40	3.27
기타식료품	3.40	3.70	3.68	3.58	3.38	3.36	3.60	3.56	3.25	3.34	3.38
발효주업	3.47	3.61	3.74	3.85	3.61	3.23	3.49	3.46	3.39	3.76	3.34
증류주업	3.65	3.80	3.59	3.67	3.56	3.53	3.55	3.56	3.57	3.70	3.57
비알코올	3.59	3.49	3.50	3.49	3.36	3.18	3.43	3.59	3.60	3.77	3.70

자료: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업체 설문조사자료

- Baldwin, C. 2015. "The 10 principles of food industry sustainability." Wiley Blackwell.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2006. "Food industry sustainability strategy." websit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ood-industry-sustainability-strategy-fiss>.
- EU. 2020. "A Farm to Fork Strategy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 FAO. 2017.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Trends and challenges." Annual Report.
- Food Drink Europe. 201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VISION TOWARDS 2030.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IBK 기업은행. 2022. 『중소기업 CEO REPORT(10월호)』.
- OECD. 2020.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20".
- Tubiello, F.N.·Rosenzweig, C.·Conchedda, G.·Karl, K.·Gütschow, J·Xueyao, P.·Oblin-Laryea, G.·Wanner, N.·Qiu, S.Y.·Barros, J.D.·Flammini, A.·Mencos-Contreras, E.·Souza, L.·Quadrelli, R.·Heið arsdóttir, H.H.·Benoit, P.·Hayek, M.·Sandalow, D. 2021.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ood systems: building the evidence base".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6(6), 065007.
- Unnevehr, L. 2017.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In Retrieved from the Unnevehr and the Conference Board." website: https://www.ced.org/pdf/Economic_Contribution_of_the_Food_and_Beverage_Industry.pdf.
- USA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22. "Secretary Order 3407".
- USDA. 2021.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22-2026".
- USDA. 2022. "2023 USDA BUDGET SUMMARY".
- 강민정·김관수·임정빈·안동환. 2019.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농가수취율 변화 분석". 『농업경제연구』. 60(2). 43-61. 한국농업경제학회.
- 국승용·최지현·조소현·강혜정. 2011. 『천안시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세혁. 2020. 『농식품 산업통계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특수분류(코드) 활용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경필·김상현·한정훈. 2017.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R8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최지현·이동소. 2013. 『농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상생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관수·임정빈·안동환·김규호·조성아·김영준·양찬영·하용현·강수민·임은영. 2012. 식품기업의 국내산 원료농산물 안정적 조달시스템 구축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김병률. 2016.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유통부문 연계방안.”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19.
- 김상효·김용지·심환희·이옥직·문동현. 2022.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문동현·허성윤·이옥직·유기환·최슬기·김정선·이수빈. 2021a. 『농식품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임소영·허성윤·이옥직. 2019b.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허성윤·이옥직. 2019a.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R8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허성윤·이옥직·지정훈·유기환. 2021b.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결과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홍연아·문동현·허성윤·이옥직·신성용. 2020.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1/3차년도)』. R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박미성·이옥직·유기환·신성용·강소라·허성윤. 202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R9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계임·홍연아·허성윤. 2018.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R8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용선·허성윤. 2017.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R8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준·김대규·한정섭·김봉현·김민규·백진주·최경웅. 2021. 『데이터 3법 개정관련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성훈·김관수·현용재·김태민·윤채빈·이수지·서정욱·장희수. 2018. 『푸드테크 및 푸드 스타트업 육성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안·김경환·장민기·이지은·유리나·박형곤·김재연. 2020b.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 평가 및 향후 과제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종안·노순웅·권재현. 2020a.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고품질 국산농산물 사용 제고방안 마련』.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종안·정상택·길청순·이소진·송기선·김현일·김진희·이지은·노순웅·박은희·김연하·권재현. 2019.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종안·정상택·김기현·노순웅·이지은·장민기·김태홍. 2017. 『‘국가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방안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지연·김은주·김유진·전상현·김경진·송유리. 2019.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지연·정세원·김주희·박수영·김은주·고명규·김윤영·이하림·김민서·한솔. 2018.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 도입·운영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한호·강동현·권오상·채준석·최상철·최지현·홍준형·박상현·박윤선·송유경·신혜선·조용선·최다애·최순·한미진. 2019.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홍상·김경필·김연중·박대식·박준기 외. 2017.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용식. 2015. “식품제조업의 지역경제 효과: 공간적 집적, 고용 창출, 부가가치.” pp.45-50, 74, 101-10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2~’17)』
- 농림수산식품부. 201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
- _____.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0. 『2020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류상모·김진우. 2018.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지표화 방안』.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 문한필·최지현·전창근·이용선·이상규·박주연·박수연·김범석. 2020.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기환, 김경필, 이병훈, 허성운.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증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방안 중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박미성·김용렬·최재현. 2020.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R9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성·이용선·김경필·박시현·한정훈. 2019.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R87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성·이용선·김경필·박시현·한정훈. 2020.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성·이용선·최재현·주준형. 2021. 『식품분야 미래유망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민규. 2012. 『대구지역 식품산업 육성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박은우·이인복·김상태·이정애·홍상모·한정은. 2012. 『식품산업 관련기술의 수준향상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재홍·최지현. 2015.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방안.”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 77-101.
- 박준기·김미복·엄진형·한보현. 2017. 『농식품산업 투자 초기시장형성 및 농식품모태펀드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다』.
- 서홍석·이연옥·김태후. 2017.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영관·이태호·김관수. (2019).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환: 제조업과 농식품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9-05. 한국개발연구원
- 세계김치연구소. 각 연도. 『김치산업 동향』
- 식품저널. 2020. 『2020 식품유통연감』
- 안동환·강민정·이희성·류상모·김진우. 2019. 『농림식품 분류체계 수립 및 통계기반 구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병일. 2018. 『건강기능식품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양승룡·이춘수·김태화·정다운·김민지·신성용. 2018.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산업 영향분석을 통한 인증 기준 마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양윤경·김이선·김소운·김정선·김범근·김지연. 2018. “고령친화형 식품의 제도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식품산업체 인식 조사 연구”. 『산업식품공학』. 22(2). 126-136. 한국산업식품공학회.
- 윤성용·조해주·이경본. 2021.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대체육, 2021』
-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김다혜. 2018.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효·신성용·심환희·박인호. 2022.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기원·김서영. 2018. “제7장. 미래기술 기반 건강한 먹거리 산업 동향과 과제”, 『농업전망 2019 (II)』, 205-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기·김홍상. 2015. “농업 R&D 성과제고와 효율화를 위한 과제.” 신유통포커스 15-07호.
- 이명기·유찬희·허정희·우성휘. 2017. 『OECD 정책분석틀을 적용한 한국 농식품 분야의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박미성·한석호·문한필·박한울·박지원·박성진·정도채·정대희. 2016.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박미성·한정훈. 2018. 중소 식품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기본연구 R8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연우. 2022.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쟁점분석과 적용포인트』.
- 이정우·강희종·손수아·서현정·조가원·김민재·김선영. 2020.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주형·김원용·이지민·김가혜·전홍준. 2020. 『식품이력추적관리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 이주형·이경숙·김남철·김선아·이기석·이슬기·이지민·전홍준. 2019. 『식품안전관리와 산업진흥의 조화·상생 방안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 이항구·송하울·김찬준·김철민·주현정·곽창근·장종근·장대자·이승형·이민수. 2008.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 일본 농림수산성. 2020.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 일본 농림수산성. 2022. 『2023 농림수산성 예산』.
- 임정빈·김관수·안동환·김규호·조성아·김영준·양찬영·하용현·강수민·임은영. 2012. 식품 대·중소기업과 유통업체간 상생발전 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장명화(2022)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 전성민. 2020.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사업의 효과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회보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세영·김중권·박유경·임효정·서정민·한성림·한동석. 2021. 『메디컬푸드(의료용 식품) 관리체계 제안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은미, 최병옥, 김태환, 박은지. 2021.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정학균·성재훈·임영아·추성민·이현정. 2020.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성주·문한필·김상현·오새라. 2018.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요인 및 전략 분석』. R8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채중훈. 2010. “식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수출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12(1): 225-250.
- 최병욱·김병률·정은미·이두영·홍연아·김태환·윤찬미·박은지. 2021. 『제2차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종화·임영훈·정일영·윤정섭·윤정현·진설아·김가은·김단비·이예원·추수진·박정호·김지은·황윤하. 202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II』. 정책연구 2020-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지현·김병률·김성우·이동소·김윤진·차원규·박재홍·강혜정·안동환. 201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차연도):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이계임·김경필·국승용·조소현. 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1/5차연도): 식품산업의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이용선·박기환·최종우·허성윤. 2017.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방안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전창곤·박기환·김경필·이동소·차원규·박재홍·강혜정. 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4/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전창곤·이계임·국승용·한재환·김동훈·조소현·이선령. 2010.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2/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전창곤·이용선·장재봉·조소현·하홍근·박규미·전혜미·박재홍·강혜정. 2011.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3/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보고서』.
- _____. 2022.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 _____. 2020.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미주, eu)』.
- _____. 2020.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 _____. 2022.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 _____. 2022. 『글로벌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_____. 2022. 『아세안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_____. 2022. 『일본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_____. 2022. 『중국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_____. 2022. 『북미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보고서』.
- _____. 2022. 서면 검토 원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2022년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 2023(발간예정).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발간예정).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최종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2019.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증장기 발전방안 수립』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식진흥원. 2021. 『해외 한식 소비자 현황 조사』

홍석인·한대석·조용제·이성훈·박진성 외. 2009. 『식품산업 R&D 증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홍연아·박미성·윤찬미. 2021.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김병률·김성우·김상호·김범석·윤찬미·최지현·주재창·김민선·박주연·김윤희. 2022.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박미성·이용선·윤찬미. 2022.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R9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운재·박기환·박시현. 2021a.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운재·박성진·최재현. 2021b.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운재·홍연아·최재현. 2019. 『급식 실태 및 식품지원제도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유찬희·허주녕·전지연. 2014.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부. 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웹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4). 접속일: 2022.8.22.

EIT FOOD 웹사이트(<https://www.eitfood.eu/reports>). 접속일: 2022.11.02.

ESG포털(<https://esg.krx.co.kr/>). 접속일: 2022.04.26.

Global data 웹사이트(<https://www.globaldata.com/data-insights/consumer/growing-demand-for-meat-alternatives/>). 접속일:2022.07.06.

Google Trends 웹사이트. 접속일: 2022.11.10.

Meticulous Research 웹사이트(<https://www.meticulousresearch.com/pressrelease/114/alternative-protein-market-2029>). 접속일:2022.06.20.

Precedence Research 웹사이트(<https://www.precedenceresearch.com/personalized-nutrition-market>). 접속일: 2022.08.12.

금융위원회. 2021.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2021.01.1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8.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2년까지 150조 원 규모로 육성”.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https://www.fris.go.kr/>). 접속일: 2022.11.1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접속일: 2022.06.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09.05.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성장률.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우리은행 연평균 환율(<https://sbiz.wooribank.com/biz/Dream?withyou=BZFXD0021>). 접속일: 2022. 05. 20.

통계청 국제유가 도입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23). 접속일: 2022.05.20.

한국경제신문 보도자료. 2022. “정부, 모태펀드 결국 삭감...벤처 한파 거세지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3116991>)”, 접속일: 2022. 09. 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접속일: 2022. 08.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FIS」. 접속일: 2022. 08.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시장 뉴스레터(<https://www.atfis.or.kr/home/board/FB0002.do?act=read&bpoId=4351&bcaId=0&pageIndex=2>). 접속일: 2022.08.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세계곡물가격동향(http://www.krei.re.kr:18181/new_sub01) 접속일:2022.04.26.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2-0404호)”.

〈통계자료〉

KED. 각 연도. 「한국 기업평가 데이터」.

IMF. 2022.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

고용노동부. 각 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

_____. 각 연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 「대학과정 계열별 개황」.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

관세청. 각 연도. 「수출입현황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김치산업 실태조사』.

_____.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_____. 각 연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_____. 각 연도. 「식품국 업무편람」.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연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청. 각 연도. 「1인가구비율」.

_____. 각 연도. 「고령인구비율」.

_____. 각 연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_____. 각 연도. 「경제총조사」.

_____. 각 연도. 「서비스업조사」.

_____.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_____.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

_____. 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_____.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_____. 각 연도.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센터.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_____.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연도. 「국내총생산」.

_____. 각 연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_____. 각 연도. 「성장성 지표」.

_____.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_____. 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수」.

_____. 각 연도. 「수익성 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조사(n=80)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